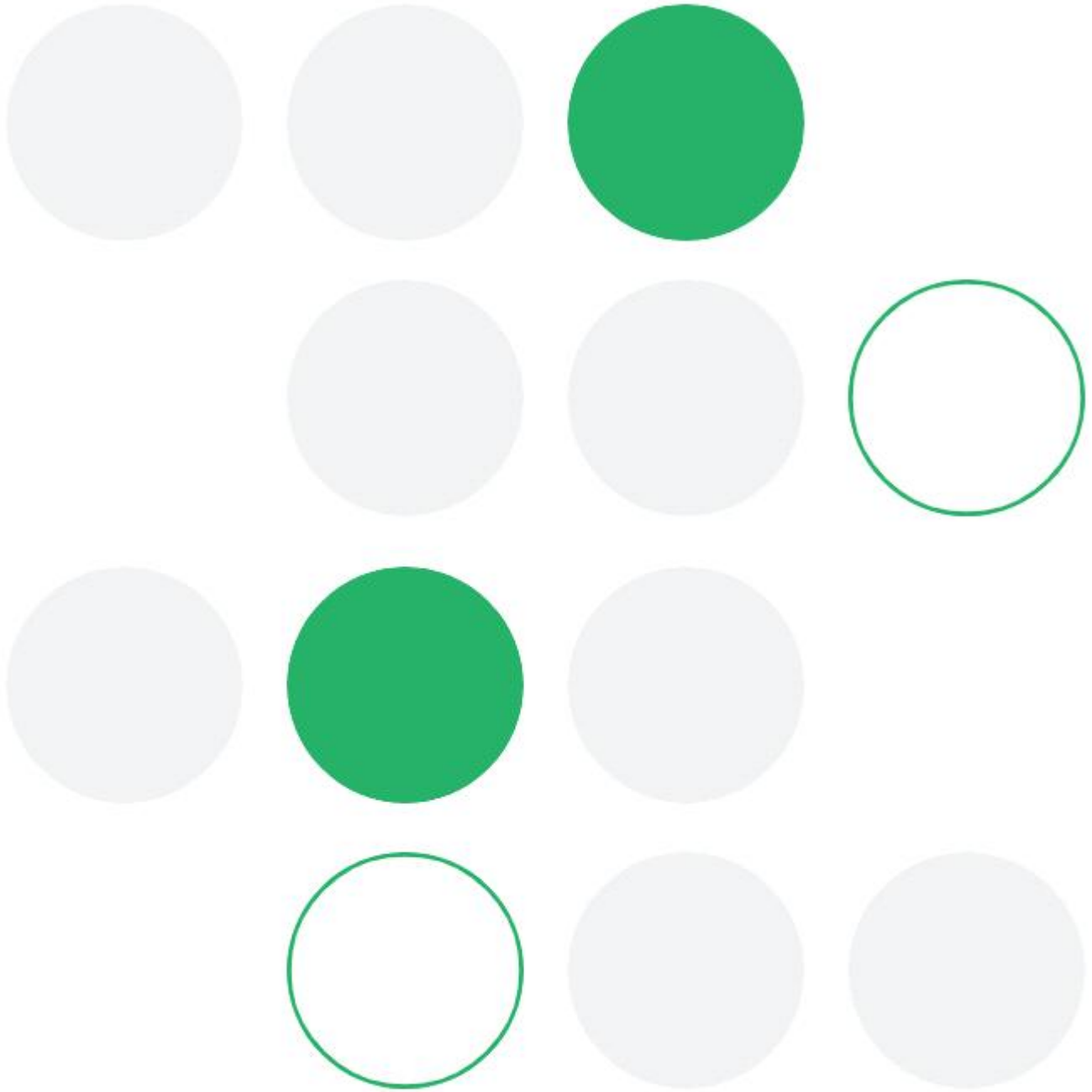




2022학년도 2학기

교수법연구모임 결과보고서 모음집



목 차

1. 온톨로지 기반 신조어 번역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1
2. Improving student interaction in, and satisfaction with, large classes using Kakao Open Chat: the case of an English Medium of Instruction (EMI) law course	11
3. Applying Reflective Learning through Writing the Learning Journals	28
4. 융복합수업모형으로서의 PBL (Problem-Based Learning): 스페인어 작문수업을 중심으로	48
5. Transcreation(창의번역)을 위한 번역 교수법 연구	59
6. ‘하프 플립러닝(Half-Flipped Learning)’을 적용 중국어 교과 수업 설계	80
7. 플립러닝에 기반 초급 일본어 교수법 연구	96
8. 영미문화·영화 수업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수법 연구	108
9. 참여학습이 저개발국가 상황의 이해에 미치는 효과 :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124
10.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현대 그리스어 커리큘럼 연구	133
11. 석사과정에서의 번역학 이론을 접목한 한-일 번역 교재 연구	148
12. 스팟(Spot)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의 학습효과와 효율성 연구	160
1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표준화와 교수법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171
14. 번역과 트랜스크리에이션 융합 교육	182
15.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한국어 신조어 교수법 연구	194
16. 수강자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PBL 및 토론중심 교수법 적용방안 연구	211
17. 공학 계열 전공 수업 교수법 모임	227
18. 모듈형·호환형 교육 사례 연구 : Chinese Literary Gems 교과와 중화권전략세부모듈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 교과를 중심으로	236
19. 이탈리아어 연계 학습의 필요성과 효과	247
20. 아세안 국가 관련 교과목에서의 사회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법 개발	260
21. 법언어학 교수 방법론 연구	278
22. 에투드(Etude) 프로그램에 관한 상담심리학적 고찰과 교수법 모형 설계	286
23. 디지털 상호작용 틀을 활용한 수업 연구	296
2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연구	307
25. 효과적인 러시아 문학 교육 방법론 연구	321
26. 지역법·문화 교수법 연구	338
27. LRS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과 효과	354
28. 시사·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366
29. 문화콘텐츠 교육에서 뉴미디어 매체 활용 방안 연구	375
30. 교양한국어 수강 유학생을 위한 통합교재 개발	388

「온톨로지 기반 신조어 번역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PIAO LIJING 교원, 이희진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언어는 다양한 기능을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도우며 정체성을 표현한다.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계승하는 것 또한 언어의 기능이다. 언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간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상 언어장벽의 형성은 불가피하며 공간을 가르는 외국어,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는 방언뿐만 아니라 시대별 사회현상과 문화가 반영되어 세대별 차이를 구분 짓는 신조어에도 언어장벽은 형성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어나 방언, 신조어를 자주 접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언어장벽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국어는 전문가의 영역이었으며 방언이나 신조어는 해당 언어를 쓰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확장되고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다양한 언어를 접하게 됐다. 공간의 경계가 없는 온라인상에서 소셜네트워크에 업로드되는 영상, 이미지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일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외국어, 방언, 신조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한번에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언어장벽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빠르게 생겨나서 신속하게 확장되는 신조어는 시대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언어장벽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요즘 생겨나는 신조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개념이 반영되어 있음과 동시에 다양한 지역별, 세대별 특징이 혼합되어 빠르게 생산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즘 신조어를 알고 언어장벽을 낮추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언어와 신조어 사이의 관계와 개념을 비교하고 사용범위를 한눈에 보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번역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당 모임의 구성원은 한국학과 한중문화학 전공자로 각자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교수법과 한국어와 중국어 양방향의 학습자료를 탐구하고 있었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 많은 교수자가 언어 문법과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측면으로 교수

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사회 문화와 언어 문법을 아우르는 신조어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필수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어원과 모호한 사용범위 등 네이티브 수준의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수의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어 학습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언어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문화 정보 리터러시(Literacy) 역량을 키워 국가 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최근 1인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른 국가에 대한 잘못된 문화와 언어를 공유할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과 글로벌 문화 정보 리터러시 역량은 외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모임의 구성원들은 한·중 양국 신조어 형성 현상 즉 어휘 진화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민하면서 신조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로 주제의 범위를 좁히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에서 양산되는 신조어 모두 양국의 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트렌드와 사회 문제, 생활 모습 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신조어를 한·중 양방향으로 해석하고 번역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학습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였으며 교수법을 공유하고 학술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온톨로지 기반 신조어 번역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목적: 신조어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물, 새로운 현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언어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변화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신조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성의 이유로 또는 네이티브 수준의 전문가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업자료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교수자들이 쉽게 신조어를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조어 관련 논문과 바이두와 네이버 등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실시간 추적조사를 통해 신조어 데이터를 수집한 후 온톨로지와 문장 규칙 추론을 통해 처리 속도 및 정확도 높은 번역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양질의 언어문화 교수 학습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한 현재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로의 문화를 접하는 일들이 다수 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영상, 이미지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츠를 통해 무의식 중에 서로의 언어를 교류하고 있다. 이에 외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은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단어와 표현에 더해 그 나라의 신조어를 알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신조어는 유행어와 다르다. 유행어는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될 수도 있고 특정 세대에만 사용될 수도 있으며 어느 적정 시기가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언어이지만 신조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언어로 그 시대 사람들의 심리와 사상 등이 반영되어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는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신조어는 생활 언어로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새로 생겨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용례와 의미를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 첫 단계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해시태그 어휘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조어를 추출해볼 것이다.

2009년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소셜네트워크가 생겨나면서 그곳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신조어로 탄생하거나 혹은 이미 있던 단어라도 그 쓰임과 범위 그리고 사용 빈도가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신조어를 설정했다.

첫째, 소셜네트워크 중 하나의 플랫폼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형태소 분석과 Word2Vec을 통해 신조어라고 판단되는 단어 표현들을 수집한다.

둘째, 여기서의 신조어는 기존에 사용하던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 활용 범위가 새롭게 지정되거나 확장된 경우 또한 신조어로 포함하여 수집한다.

중국에 특화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는 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 비리비리(哔哩哔哩), 시아오홍스우(小红书)가 있으며 이 중 테스트를 통해 구글 코랩(Google Colab)¹⁾을 활용하여 수집 가능한 플랫폼을 선정했다. 해당 소셜네트워크들의 특징과 데이터 수집 여부는 다음과 같다.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으로 가장 다양한 소식이 빠르게 공유되나 기업측의 제재로 일정 수량의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으로 중국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팔로어가 된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공유된다.

비리비리(哔哩哔哩): 중국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으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들이 다수 공유되어 당시 사람들의 일상과 관심사를 알 수 있으나 영상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목과 설명, 댓글로 제한된다.

시아오홍스우(小红书): 중국판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으로 당시 사람들의 일상과 관심사를 알 수 있으나 모바일용으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1) 코랩(Colab)은 웹 브라우저에서 텍스트와 프로그램 코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으로 일종의 온라인 텍스트 에디터다.

이러한 플랫폼별 특징을 인지하고 구글 코랩을 활용한 테스트를 통해 비리비리로 데이터 수집 범위를 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상생활 범주에서, 특히나 SNS에서 다루는 신조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시태그(#)로 표현이 되는 신조어를 추출해보았다. 비리비리는 중국판 유튜브로 업로드되는 영상들의 제목과 태그에는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 일상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에 일정 기간동안 비리비리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vlog(브이로그), 视频博客(브이로그), 日常(일상), 生活(생활)을 검색어로 영상을 찾아 제목과 태그를 추출하여 신조어라고 판단되는 어휘들을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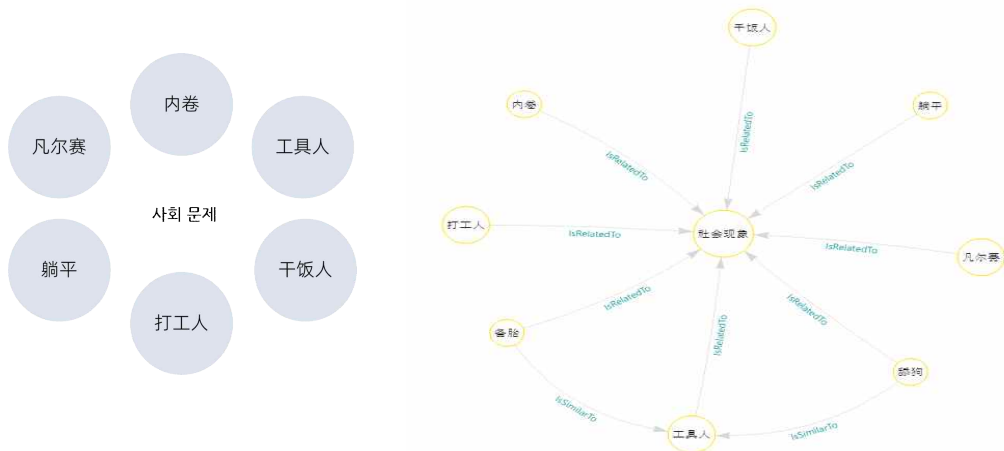
신조어는 최근 생겨난 언어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전식으로 제공되는 신조어는 설명과 이해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커(博客)는 영어 '블로그'에서 온 신조어로 해당 단어에 영상을 뜻하는 스펠(视频)을 붙여 스펠 보커(视频博客)라고 하게 되면 '브이로그'를 표현하는 단어가 된다. 이렇게 신조어는 해당 단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 단어와 함께 쓰이는 표현 혹은 해당 단어에서 파생된 다른 표현들을 함께 제공해야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오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조어는 해당 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응하는 번역 사전을 편찬하기 어렵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전보다는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훨씬 용이하게 접하고 있으며 보다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 기반 번역 지원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 시맨틱 웹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탑재한 툴과 플랫폼을 파악하고 신조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모색했다.

온톨로지(Ontology)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이룬 바를, 개념적이고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델로 개념의 타입이나 사용상의 제약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기술이다. 온톨로지는 도메인 내의 개념들과 개념들 사이의 관계들을 정형적으로 기술한 시맨틱 웹(Semantic Web) 구현 핵심기술로 정보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존재하는 개체와 개념에 대한 명세로서, 사람과 컴퓨터 간에 공유되는 지식을 개념화한 구체적인 형식이며, 개념화와 개념화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온톨로지는 단어와 관계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전으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속에는 특정 도메인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층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연관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웹 기반의 지식 처리나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지식 공유 등이 가능하다. 즉, 시맨틱 웹의 목적인 자동적인 실행과 추론을 하기 위해 온톨로지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톨로지 기반의 번역 지원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맨틱 웹의 개념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맨틱 웹(Semantic Web)은 World-wide-web을 창안한 팀 버너스리가 제안한 차세대 웹 기술로, 웹 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가 의미(Semantic)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결과를 서비스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의 웹은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정보를 클릭하면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시맨틱 웹은 임무를 부여받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신해 웹상의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가공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현재의 웹에 온톨로지(지식자원의 의미정보 메타데이터)를 추가 구성하여, 컴퓨터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스스로 추론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구성한 웹 시스템으로 신조어들 간의 관계(Relation)를 추출하면서 다양한 응용 영역까지 자동화되고 통합된 정보 공유하기에 좋은 개념이다.



[온톨로지 기반 구축 예상 모습과 실제 구현 모습]²⁾

현 단계에서 적절하게 언어 학습자 또는 번역가들에게 사용될 콘텐츠는 사전이 아닌 온라인으로의 검색 서비스다. 또한 이러한 검색 서비스는 단어 대 단어가 아닌 단어 전체의 맥락을 살필 수 있고 다양한 사례들을 정리하여 제공해주어야 학습효과가 배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신조어들을 Wiki 기반으로 하이퍼링크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첨부하여 학습자료를 구축하며 관련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조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다.

2) 실제 구현 모습은 아래 URL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8B%A0%EC%A1%B0%EC%96%B4

工具人

목차 [숨기기]

- 1 工具人
- 2 호구
- 3 유사어
- 4 콘텐츠

工具人 [편집]

工具人, 网络流行语, 泛指某人在不知情, 或心甘情愿的情况下, 对他人进行帮助, 任劳任怨, 随叫随到地付出, 在情感, 物质和经济上不求回报, 一直像工具一样被对方使用或使唤。

[百度百科:工具人 [W](#)]

호구 [편집]

뜻: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말.^[1]

공구인, 공구는 일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요즘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말로,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원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는, 감정, 돈, 노동 등 남에게 도움을 주되, 자신에게는 아득이 없다.

유사어 [편집]

孫狗、备胎

콘텐츠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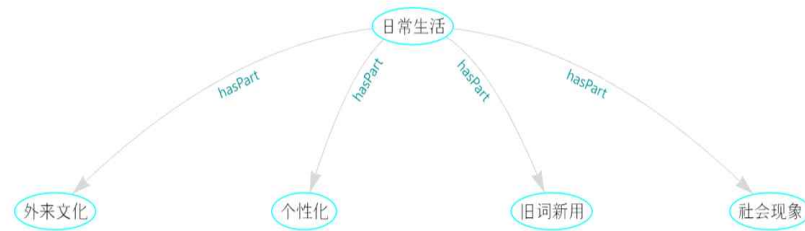
[해당 신조어들이 연결된 위키 설명 화면]³⁾

신조어의 온톨로지 설계, 즉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을 고려하여 공동의 속성을 가진 개체들을 묶어서 범주를 정하고 그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사이의 관계(Relation)를 설정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어휘 하나를 온톨로지 용어로 ‘개체’(individual)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인 어휘이며, 관련 지식 네트워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 관계의 접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온톨로지 설계에서 관계의 접점을 노드(node)라고 하는데, 여기서 “凡尔赛”, “内卷”, “躺平”, “打工人”, “干饭人”, “工具人” 등 단어들이 노드인 셈이다. 우리는 파악하고자 하는 이 노드들을 어떠한 성격의 문맥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의 성격으로 된 범주로 묶어주어 클래스(Class)를 지정한다.

클래스는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그 범주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하나의 노드를 별개의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어휘 즉 노드들의 의미적 연결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클래스는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맥락 등 측면으로 고려하여 시각에 따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또한 신조어를 검색하여 번역만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해당 신조어와 관련된 어휘(신조어) 및 해당 상황에 알맞게 쓰는 사회문화적 이슈 등을 묶어 문서화하여 학습자료로 구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은 한중 번역에 있어서 신조어의

3) 실제 구현 모습은 아래 URL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5%B7%A5%E5%85%B7%E4%BA%BA

의미와 개념, 분류와 계층, 유사어 등을 학습하여 적용하기에 유의미한 시스템이다.



[온톨로지 기반의 사전을 활용하여 분류와 계층을 나눈 모습]4)

본 연구는 2022년 12월 1일 중국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비리비리를 중심으로 제목을 수집하여 형태소 분석을 진행했다. 형태소 분석은 어떤 대상의 어절을 최소의 의미 단위인 '형태소'로 분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분석을 통해 분류된 형태소 중 명사만 추출하여 기존 사전과 비교를 통해 신조어로 판단되는 단어들을 추출했다. 스크래핑은 코랩을 활용하여 작성된 파이썬 코드5)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코드는 BeautifulSoup4으로 원하는 태그정보를 수집 후 Pandas로 저장 및 CSV 출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데이터 수집 후 엑셀, 스프레드시트 등으로 출력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코랩을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진행한 화면]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먼저 vlog(브이로그), 视频博客(브이로그), 日常(일상), 生活(생활) 등 네 개의 키워드

- 이 저작물상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Vis.js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Copyright (C) 2010-2017 Almende B.V.)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온톨로지 스크립트 변환기 (<http://dh.aks.ac.kr>, makeGraph2022)로 제작하였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김바로 교수가 별도로 비리비리 플랫폼에 맞게 작성하여 제공한 코드를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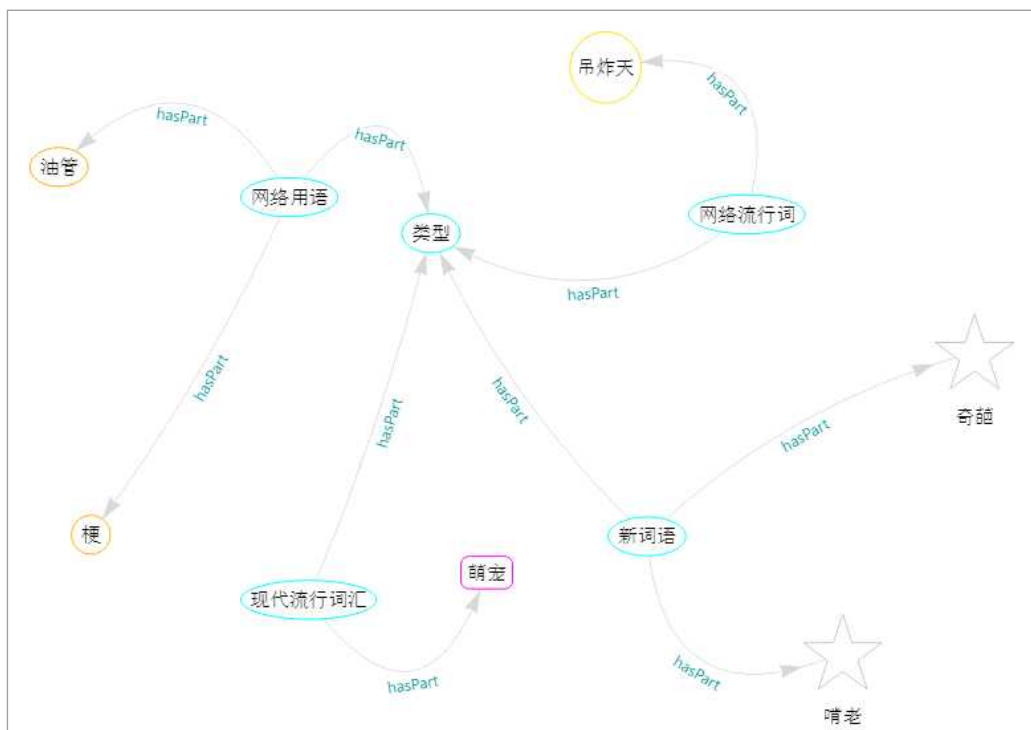
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vlog는 총 837개, 视频博客(브이로그)는 총 1092개, 日常(일상)은 총 1067개, 生活(생활)은 총 744개의 명사가 추출되었으며 그 중 신조어로 판단되는 단어들의 뜻과 분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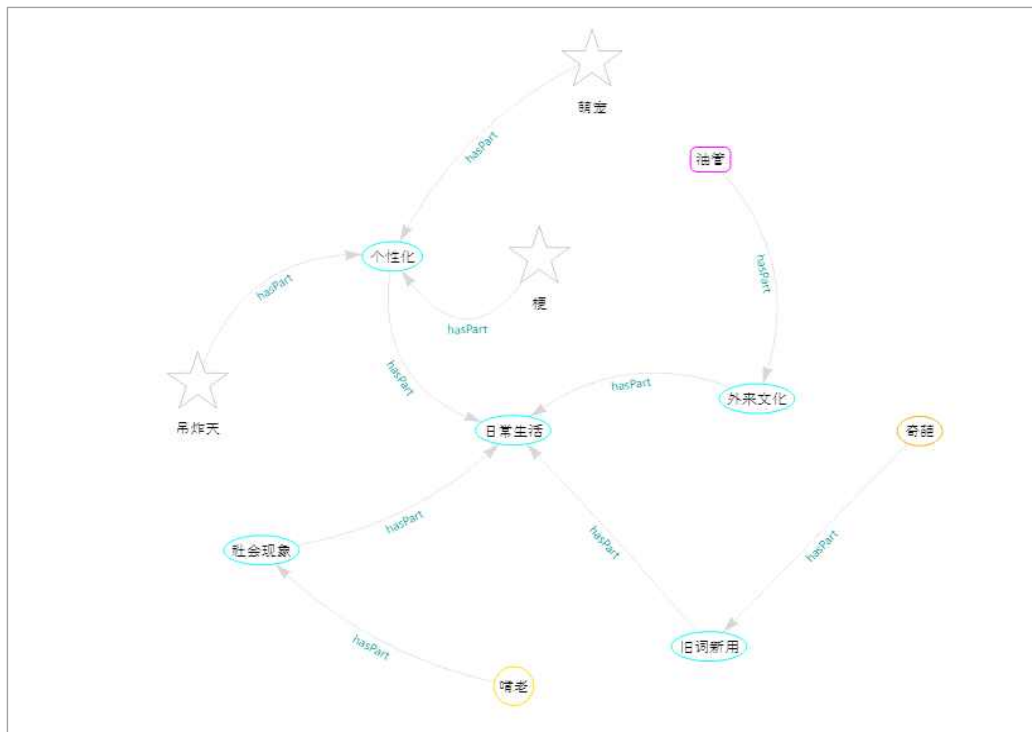
중국어	소속	분류	의미
吊炸天	인터넷유행어	개인화	굉장히 놀라운 일을 나타낼 때 사용
啃老	신조어	사회현상	결혼한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
奇葩	신조어	의미확장	우수한 작품, 출중한 인물을 표현할 때 사용
萌宠	현대유행어	개인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나타낼 때 사용
梗	인터넷용어	개인화	웃음 포인트, 개그코드, 농담 등을 나타낼 때 사용
油管	인터넷용어	외래문화	유튜브를 나타내는 중국어 표현

[비리비리에서 추출된 신조어]

물론 위의 여섯 개의 단어 외에도 집순이, 집돌이를 나타내는 死宅, 댕댕이를 표현하는 狗狗, 언택트를 뜻하는 非接触, 유튜버, 블로거 등을 나타내는 博主 등 기존 교재나 보조 자료에 없던 단어들이 다수 등장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신조어가 아닌 기존 언어로 분류했다.

이렇게 추출한 신조어를 분류와 계층을 나누어 온톨로지 기반 사전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온톨로지 기반으로 표현된 신조어 번역 지원 시스템(또는 사전)의 모습]⁶⁾

해당 신조어 번역 지원 시스템의 장점은 첫째, 신조어의 분류와 계층을 파악하여 사용 범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신조어와 관련된 단어, 유사한 단어 등 확장 표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단어를 Wiki 사전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자 참여형 사전으로 다양한 예시와 사례를 축적하여 비교군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단순한 검색, 비교가 아닌 움직임이 있는 시각화로 흥미로운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신조어와 유행어 등을 다룬 책들은 품질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교육 자원은 통합과 제공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협업 가능한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물리적 제한이 없이 추가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의미적 연결로 신조어 사전을 편찬하여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협업이며 의미적 연결의 재구성이 가능하기에 언어 학습자들에게 무한대로 탐구할 수 있는 오픈 서비스로 작용할 수 있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본 모임은 기본 어학 교육의 보조자료로서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를 지속적으로 제공

6) 실제 구현 모습은 아래 URL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dh.aks.ac.kr/~dh_edu/wiki/index.php/%EC%8B%A0%EC%A1%B0%EC%96%B4

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신조어의 개념과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 디지털 툴을 사용한 시각화에 도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신조어는 시기성의 문제로 빈번한 수정이 불가능한 종이 교재로 제공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업데이트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활용가능한 웹을 구축하여 보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수업자료로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번역자들이 함께 구축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사전에 없거나 잘못 번역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변화, 문화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 점, 다양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 점,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기존 언어가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어 신조어로 사용되었을 경우, 하나의 신조어가 두 세 개의 글자로 잘못 수집된 경우 등을 분류하지 못한 점과 직접 수업에 활용해 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김은희, <뉴노멀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중·한국어 신조어 분석>, 인문사회 21, 2022
김환, 임진희,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방안 연구>, 한국기록학회, 2017
김현, 김바로, 임영상 공저, <디지털 인문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7
래리 A. 사모바, 리처드 E. 포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박진수, <Semantic Modeling for Data, 시맨틱 데이터 모형화>, 한빛미디어, 2022
오경진, 권기영, 홍명덕, 조근식, <온톨로지 기반 공공정보 번역 매쉬업 시스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
장범성, <신조어와 유행어로 이해하는 중국>, 차이나하우스, 2014

「Improving student interaction in, and satisfaction with, large classes using Kakao Open Chat: the case of an English Medium of Instruction (EMI) law course」

Shaun Justin Manning 교원, 김윤수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There are some major challenges to a law course taught in English to mostly South Korean students who already perceive law as a complex and foreign subject in itself. Students in this context are often hesitant to ask or answer questions, and thus, deeper engagement with course content is a challenge. Such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issues were exacerbated by online instruc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o overcome such challenges, a smartphone messenger platform called “KakaoTalk Open Chat” (hereafter, Open Chat) was used to provide a space in which to engage students and improve learning. This was met with overwhelming satisfaction among students, who were also highly satisfied with the class in general.

Broadbent and Lodge (2021) reported using a different messenger platform, Live Chat, to increase student opportunities to get one-on-one help from teachers privately and synchronously. HUFs also provides similar learning support options, such as WebEx for synchronous learning. Students may also get one-on-one help by emailing the professor directly with questions, or post questions on eClass. We ask, is there another way to improve student learning, by taking the easy access/convenience of Live Chat but making it visible to other classmates, so peers can learn from each other, while also making teaching more efficient for the teacher. Open Chat seems to have all these characteristics, so we ask, how does Open Chat help our students learn?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How to improve student engagement and satisfaction in a large EMI course using smartphone messenger application “Open Chat”

목적: The goals of this research are to:

- 1) Analyz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Open Chat” and
- 2) Propose ways of using Open Chat to meet student learning needs and improve their overall course experience

3. 연구 진행 내용

3.1 Class context: setting and participants

The study used the conversation records from KakaoTalk Open Chat used by 155 out of 190 registered students in three “International Commerce Law (국제통상법)” courses taught in the first semester of 2022.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legal framework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tudents are expected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WTO principles, how it affect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ow to resolve trade disputes arising from the rules of WTO law. “International Commerce Law” is a mandatory course required to complete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Law undergraduate curriculum. It is taught entirely in English to mostly native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completed at least one year at the university.

When taught offline, each course is designed to meet in-person once a week for around 3 hours with a target of 60 students. Students may post questions through the university’s LMS or email the professor, and answers are provided within 24 hours.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to discuss the content with the professor during two 10 minute class break times or after class. To encourage peer-to-peer learning and interaction, students are assigned to groups of five to seven members each. Throughout the semester, there are in-class

group discussion activities and groups are strongly encouraged to meet regularly to study together. The professor also holds at least one meeting with each group leader to identify and resolve problem areas that students may be having throughout the semester. This helps the professor to quickly make any needed improvements in the class, to improve student learning and development.

Howev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our course design had to change. Classes could be held online instead in synchronous format or asynchronous format through pre-recorded lecture videos posted on the university's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Although students could access the lecture for one week, students were also required to submit weekly assignments shortly after the scheduled lectures. Each lecture was followed up with a live online meeting with the professor going over the main points and answering student questions.

Challenges remained in how to maintain the quality of learning in an online environment, where students no longer had immediate feedback or physical access to discuss the course content with the professor or other classmates.

Given that there are already challenges for non-native English speaking students taking an EMI law course even in-person, we decided to implement several support methods to upgrade the learning experience. Of these, we present our findings from the use of KakaoTalk's "Open Chat" messaging platform.

3.2 Data collection

Although we have been using "Open Chat" since the second semester of 2020, this study focuses on our "Open Chat" records from the 15-week first semester of 2022. Our goal was to understand what made Open Chat so effective as a learning support method, including how the professor engaged students and how that knowledge transfer and engagement developed

throughout the semester.

We carried out both an optional online survey and focused group interviews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Open Chat as a learning support method, including how the professor engaged students and how that knowledge transfer and engagement developed throughout the semester. We also download the Open Chat transcripts for the classes. These were coded independently by both researchers and a collaborative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see Nowell et al, 2017).

3.2.1 Open Chat records

Anonymous Open Chat records were taken from students voluntarily joining Open Chat during the period of March 7th, 2022 to June 20, 2022. After the first class of the semester, guidelines regarding Open Chat were posted on LMS for each class (see Fig 1.)

To analyze the data, we logged the conversations into an Google spreadsheet and coded the data based on types of online interaction (see Table 2). Following Nowell et al. (2017), we each coded and recorded memos to each other in the shared spreadsheet, sharing our emerging ideas throughout the analysis.

Figure 1. Guidelines to students regarding use of Open Chat

“(OPTIONAL)”

To encourage a more interactive class, we will use "KakaoTalk Open Chat 카카오톡 오픈채트" to communicate

- Anonymous 익명, so use a nickname instead
- I will answer questions between 9 AM to 6 PM, Mon - Fri, in real-time (live 실시간). Questions asked outside of that time will still be answered within 12 hours
- If I don't answer right away, please help each other by answering your classmate's questions (if necessary, I will follow-up with additional comments)
- **Out of consideration for fellow classmates, please consider the time that you post. For example, avoid posting during very late evening or early morning hours**
- If you don't want to be bothered by other classmates' messages during certain hours, you can set specific times that you want to receive messages or turn off notifications, under Kakao Settings
- For questions that require more detailed answers or personal requests, please email me instead.
- **Join by clicking the link:** ((link removed for this research))
- **Code 참여코드:** ((code removed for this research))

3.2.2 Online survey

70 out of 130 registered students voluntarily responded to the anonymous online survey created through Survey Monkey (www.surveymonkey.com). The survey was distributed after the final exam on June 20, 2022 through links posted both on LMS and in the Open Chat rooms. Students were told this was optional and anonymous, to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and to improve future classes.

3.2.3 Follow-up interview

After the end of the online survey, respondents were advised about an optional 20 minute follow-up interview that would be held by Zoom. In this notice, the first 50 respondents were offered a complimentary 5,000 KRW Starbucks coupon. Once it was narrowed down to four interviewees, the actual compensation was 30,000 KRW e-Gift coupon for each interviewee.

Students who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focused group interviews responded through email and the Zoom interviews were carried out in August 2022. The grades for the first semester of 2022 had already been submitted by June 2022. Before each interview, interviewees were advised that their identity would remain anonymous and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only. The following are the main questions from the interview:

1. Compared to face-to-face classes, what unique challenges did you face with online classes in general?
2. In “International Commerce Law” this past semester, I used KakaoTalk “Open Chat” as a platform to interact with the professor and other classmates. What exactly did you like about this and why?
3. What did you not like about “Open Chat” and why? How could this be improved?
4. How did you interact with this “Open Chat” platform? ((for example, frequency of checking messages, asking questions vs reading other students’ questions, using Open Chat to study for exams, etc.))
5. If you have asked questions on “Open Chat”, please describe your experience. ((for example, did you try looking for the answers before asking, or did you immediately type out questions that formed in your mind; was it easier to ask questions through Open Chat, compared to asking in-person or by email?))

6. Did “Open Chat” help with connecting with your peers? With the professor? Please elaborate.

7. Once we return to face-to-face classes, would you find the use of “Open Chat” necessary? Why or why not?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Open Chat results

We reviewed the coded data to determine common themes, compared against the focused group interview results. Figure 2 is a sample extract from our coding log on a Google spreadsheet and Table 1 shows the results from our qualitative coding.

After the first reading of the data, we determined three main categories of topics that were talked about: “class content”, “administration” and “other”, as well as three main types of participants: “student”, “professor”, and “peer”, giving the nine categories in rows 4 - 12 in Table 1, below. They are described as follows:

1. Class content (-cont) was assigned when the talk referred to the topics of the class material (i.e., international trade law).
2. Admin (-admin) was assigned when the talk referred to administrative details (i.e., exam times, technical issues, etc.)
3. Other (-other) was assigned for all other talk. Usually this was things like greeting, thanking, encouraging, or apologizing.
4. Student (Stud-) was assigned any time a student directed talk to the professor or the class in general.
5. Professor (Prof-) was assigned to any talk by the professor.
6. Peer (Peer-) was only assigned when a student was talking to another student.

Figure 2. Sample of data analysis method.

20	Logs	Code	SJM Comment	JYK Comment
21				
22	[JYK] [5:31 PM] GATT 1947 is the treaty that was around before the WTO was founded. When the WTO was founded, it updated the GATT 1947 rules - this is now known as GATT 1994.	Prof-cont		
23				
24	For our class, when I talk about the GATT days, this is simply referring to the period before the WTO.	Prof-cont	This is not really responding to an individual but anticipating a class-wide issue... (another code?)	Hmm... I don't recall any more similar type of responses, but maybe we can input another code once we notice more than five of these responses
25				
26	[생각하는 라이언] [6:27 PM] 감사합니다 교수님 보내주신 답변 이해가 되었습니다.	Stud-other		
27				
28	----- Tuesday, March 15, 2022 -----			
29				
30	[배움록 제이지] [1:24 PM] Do we have to upload our assignments in form of word/6 한글 file, or can we just write down the texts on the website? Both are allowed?	Stud-admin		
31				
32	[rtx 3080] [1:27 PM] It is written on eclass that we can just type it in the website	Peer-admin		
33				
34	[JYK] [2:08 PM] You can just type it into the space provided on the eClass website (if you already submitted as a document/file 첨부파일, I will accept that as well)	Prof-admin		
35				
36	----- Monday, March 21, 2022 -----			
37				
38	[영지책 프로포] [11:20 AM] Hello Professor! I have two questions about Arbitration. Is Arbitration non-judicial method? (like good office, mediation, and conciliation) Does court intervene in the arbitration process?	Stud-cont	Do we count this as 2 questions or one move?? For now - one	I saw this as one question, followed up by another question that was just expanding on the first (for example, is this an apple? or an o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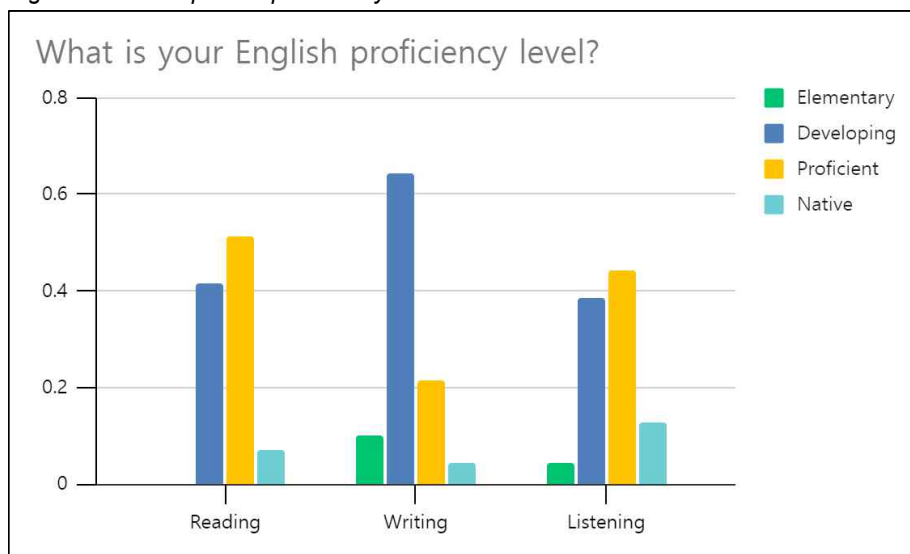
Table 1. Codes of online interaction

	Category	Code	Count
1.	Number of overall student comments/questions	Stud	130
2.	Number of overall professor responses to student comments/questions	Prof	112
3.	Number of peer responses	Peer	4
4.	Number of student comments/questions related to administrative matters (i.e. exam schedule)	Stud-admin	2
5.	Number of professor responses to student admin	Prof-admin	17
6.	Number of student responses to student admin	Peer-admn	1
7.	Number of student comments/questions related to content (i.e. case examples requested regarding a specific law)	Stud-cont	73
8.	Number of professor responses to student content Q	Prof-cont	77
9.	Number of student responses to student content Q	Peer-cont	2
10.	Student Other (e.g., thanking for the answer, salutation, apology, etc.)	Stud-other	55
11.	Professor Other (encouragement, acknowledge thanks etc.)	Prof-other	18
12.	Peer Other (e.g., thanking, encouraging between 2 or more students)	Peer-other	1

4.2 Online survey results

Seventy students responded to an optional, anonymous survey: 27 respondents male and 43 female. 67 out of 70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ir native language was Korean. Questions were to be answered on a scale of “strongly agree - agree - neither agree nor disagree - disagree - strongly disagree”, or could be skipped to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Figure 3 gives the degree of English proficiency of the 70 students.

Figure 3: Self-reported proficiency level



Of the 60 respondents who answer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ofessor provided timely support in responding to student questions, as if in a real face-to-face classroom setting”, 80% “strongly agreed” and 15% “agreed”. Of the 64 respondents who answered the question “The blend of pre-recorded lectures and live interaction through Zoom, Open Chat, etc. was a suitable way to learn about the subject matter”, 75% “strongly agreed” and 17% “agreed”. Of the 64 respondents who answered the question of “The KakaoTalk Open Chat platform was helpful in better understanding the subject”, 83% “strongly agreed” and 16% “agreed”.

4.3 Follow-up interview result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English. Four students volunteered and each interview lasted about 30 minutes. Th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thematically coded (see Nowell et al., 2017). There were four main themes that emerged from the interviews. These were that Open Chat provided better understanding, a less stressful way to communicate, relatively prompt feedback before the next class, and improved course satisfaction.

Higher quality understanding of law course content

Despite the shortcomings of some courses held online, the interviewees noted the strengths of certain online delivery classes which were well-prepared by professors. However, asking questions on Zoom was not convenient as they had to log in at the appointed time. They may not have thought of the question at this time, and only after reviewing later; or, they may have felt it was off-topic to ask at that particular moment. For our class, the Open Chat platform let students ask precisely what they wanted, and they could review before posting. Moreover, the professor was able to spend more time thinking about the answer and provide greater detail (see Section 4.3).

Overcoming fear of asking questions in English in public

Interviewees noted that Korean students may feel awkward asking questions in English during class in front of other students. However, Open Chat allowed students to remain anonymous while typing and editing their questions in written text format. This allowed students to feel more comfortable asking different types of questions, no matter how basic.

Prompt feedback

One interviewee noted that unless questions were asked in-person, students would have to email questions to the professor. Generally, their emails are not set up to give notifications of replies, so students would have to wait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which would at times even discourage them from beginning to write emails.

Open Chat resolved this problem by allowing quicker and more convenient ways of communication. KakaoTalk is used by over 90% of Korean residents,

and is easily accessible as a smartphone application (MOFA, 2019). There are options to turn message notifications on and off, and students can quickly be alerted to replies to sent messages. Users expect quicker feedback and in our case, this expectation was met, based on overall student survey results.

Better engagement and interaction

Interviewees felt that online classes in general removed the participation aspect both from students and professors. This also depended on the personality and lecture style of the professor, since even synchronous online or in-person classes could lack student engagement if the professor had students remain in the background. At the same time, live online or in-person classes could be a negative source of distraction for students if handled improperly.

Specifically, one problem identified was that constant questions could interrupt the flow of the lecture for other classmates. But Open Chat resolved this problem by dividing times set for lectures and Q&As. Students had more control over their learning.

4.4 Teacher reflections and conclusions

The usefulness of reflective practice for teachers is widely accepted in academia, as it helps teachers reflect on and improve future teaching decisions (Mann & Walsh, 2015; Farrell, 2007, 2015). This benefits both the teacher and future students.

From the personal reflections of the teacher that used Open Chat for this research:

Improvement in depth of learning and better assessment

There are various challenges to teaching large classes about complex concepts in a second language. At the end and beginning of each semester, I look for ways to improve college-level learning for my students, both in breadth and depth. I ask: how can I tap into different knowledge domains, when it is already

challenging for our students to acquire new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law in a non-native language? Am I providing enough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engage in critical analysis and apply their knowledge in a broader context? How do I assess the depth of student learning throughout the semester?

To check for basic understanding of the breadth of content, this can easily be done through weekly quizzes or assignments. But the challenge still remained on whether students were progressing throughout the semester, by applying,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ontent.

Open Chat as a live chat platform helped me to better gauge the depth of student learning week by week. This was based on my evaluation of student questions and comments. Below are examples of student questions, slightly modified for clarity, which reflected the depth of learning. These were not just questions asking for explanations of concepts. Rather, these questions showed that the students were applying their learned knowledge to new situations, analyzing by drawing connections among topics, as well as evaluating by critiquing a situation and taking a specific position.

“Hello professor! I have one question about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Today, we learned about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n the lecture, (there was the example) about the discrimination between SUV and hybrid cars which (other WTO Members could complain as a WTO law) violation. But I think it can be excused by applying 'public morals' exception like in the *EC-Seals* case. So my question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public moral' exception (here as well)? Thank you in advance!” (엄지척 프로도 [user name], ICL chat, May 9, 2022, 1:31 PM)

“Hello! Yesterday, I asked you about the progressive electricity tax rates in Korea. After you answered my question, I searched several news regarding this dispute. I could find the fact that U.S used anti-dumping duties against this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rticle, U.S used anti-dumping duties against 현대제철 and 포스코 (each 38.2%, 64.7%). I just want to know the legal basis about the anti-dumping duty of U.S. Because the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s not a subsidy which gave a financial support to specific company, I think it is not possible for U.S to apply unilateral measure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Is my comment right? Thank you for your reply in advance!"
(엄지척 프로도[user name], ICL chat, June 12, 2022, 4:59 PM)

Ability to provide more customized and detailed feedback to overcome limitations of large lectures

During lectures, important points may often get missed if the student is not paying attention at the right time or is unable to grasp the connotations in spoken English. But when I typed out explanations on the Open Chat platform, students could follow at their own pace and even use my explanations as study references. Also, students often note that they have stronger English reading skills, compared to listening skills. So, Open Chat allowed me another way to expand on the material, tapping into the average student's stronger language skill set, while allowing students to review confusing points at any time throughout the semester.

Also, I could go beyond the limited lecture time to expand on a concept by clearly writing out my explanations, step by step to fill in gaps in understanding. I did not have to worry about running out of time, and could use various examples to further build on class material. I also had freedom to use different text features to emphasize points, such as through the use of quotation marks or side notes in parentheses.

Simply put, I treated Open Chat as a smaller "section" of the overall large class. It was a way to get students to experience a large college-level course in a more holistic way, where students could have open direct access to the professor. I hoped to create a community where students could freely explore

their learning and interact with other classmates, despite being in a large lecture setting.

In this more comfortable space, I could also better encourage learning. For example, I could openly praise the anonymous student's comments and questions, as well as give assurances during times of student anxiety. As another example, I could rephrase and clarify student questions to make sure that this was understood by the rest of the class, and not just a one-on-one conversation with that student only. This was an attempt to draw in the class as a whole, instead of just being spectators on the outskirts.

Overall, students benefited by taking control of their education, learning at their own pace to apply, analyze and even evaluate without the added pressure of an in-person classroom setting. After all, learning goes on beyond the classroom, and the sparks ignite once the student is able to review the lecture, generate questions and expand learning on their own terms.

Action research cycle for classes in the future

I have used Open Chat since 2020. This allowed me to refer to the prior year's Open Chat records when I prepared for the same class a year later. For example, I could refer to Open Chat records from Spring 2021 when preparing for my Spring 2022 International Commerce Law course.

Each week, I reviewed content from the previous year's Open Chat records, and identified specific problem areas in student learning. This was based on the number of student questions on the same topic and student reactions to explanations that I gave. I used the records to anticipate potential student questions, and added explanations in advance in my current semester's weekly lectures. Simply put, this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reflect on gaps in student understanding and make adjustments for the following semesters.

At the same time, this may not always be effective. Instead, this could actually

interrupt the natural process of learning. This is because one way to learn is to interact with the content, think about it, and generate questions on your own. Once the professor gives an answer to the student's question, the student could naturally generate even more advanced questions in different domains of learning.

Overall, Open Chat provided a space for us to move outside the busy classroom setting, where there is a flurry of activity with the teacher talking, student listening, thinking and writing notes. Through Open Chat, I gained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students were thinking throughout the semester, and assessed the overall progress of the class. This helped me to adjust my teaching style and method, such as giving more examples to expand on a concept, and be more connected to the class as a whole. I believe my genuine interest and concern for student learning and growth was felt, which further motivated them to be more engaged in the class as well.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From the above discussion, the following tips may help professors use Open Chat effectively.

1. Communicate the purpose of the Open Chat (i.e., why it's being used)
2. Set clear guidelines for using Open Chat (e.g., times, professor response times, etc.)
3. Be aware of sensitive topics and facilitate polite discussion (e.g., by rephrasing and rewording posts)
4. When responding to a student's question, rephrase/clarify the question first to make sure you are answering the actual question they want answered and to engage other students
5. Keep in mind the linguistic diversity of HUFS students - not all understand English fluently; likewise, many international students do not understand Korean. Make language choices that benefit all students as much as possible.

We think that using Kakao Open Chat offers many benefits to teachers and students. Kakao Talk is used by over 90% of Koreans, so there is nothing new to download. Teachers may seem to be doing more work, but they can answer multiple students' questions with one post and not many emails. Students get a chance to think and study a bit before asking their question(s), so their questions are relevant and needed. Also, they may not have even thought of the question during the class because they are busy taking notes and listening to the lecture. The question comes up later, during review. Open Chat lets them ask without taking up lecture time.

Our collaborative discussions between one educator to another helped us to reflect on our teaching practices to improve student learning. We were reminded that while our teaching may stop once we leave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continues outside the classroom. We hope that using reflective practice through data collection and Open Chat outside of the classroom will help instructors to improve student interaction in class and allow for better learning.

Bloom, B. S., Engelhart, M. D., Furst, E. J., Hill, W. H., & Krathwohl, D. R.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1: Cognitive domain*. David McKay.

Broadbent, J., & Lodge, J. (2021) Use of live chat in higher education to support self-regulated help seeking behaviours: a comparison of online and blended learner perspectives. *Int J Educ Technol High Educ* 18, 17. <https://doi.org/10.1186/s41239-021-00253-2>

Farrell, T. S. C. (2007). *Reflective language teaching: From research to practice*. Continuum.

Farrell, T. S. C. (2015). Promoting teacher reflection in second language education: A framework for TESOL Professionals. Routledge

Hoque, M. E. (2016). Three domains of learning: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The Journal of EFL Education and Research*, 2(2), 45-52.

Mann, S. and Walsh, S. (2015). Doing reflective practice: a data-led way forward, *ELT Journal*, 69(4), pp. 351–362. <https://doi.org/10.1093/elt/ccv018>

「Applying Reflective Learning through Writing the Learning Journals」

Tae Young Choi 교원, 조문환 교원, Reid McLain 교원

1. Background

The importance of reflective learning in university education is widely recognized and it is generally included in university graduate attributes, programme objectives, and target core competencies. However, unless the facilitators adopt such practices into their teaching pedagogies through course delivery and assessment, it will be unreasonable to assume that learners have had opportunities to develop such skills. To gauge the learning effectiveness of 'self-reflection', we will implement the writing of a 'weekly learning journal' as part of course assessments and then study students' experiences.

2. Main Theme & Objectives

Main Theme

Is a 'Learning Journal' effective tool for stimulating students to reflect their learning experiences? If so, how so? and if not, what are the drawbacks?

Objectives

From this study, we expect to learn whether more direct approaches to reflection (i.e., requiring students to reflect and write about it) can be more effective than indirect ones (i.e., embedding reflection in teaching deliveries and/or assessments through various ways but may not be so obvious to students). We will us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to enhance and enrich our future teaching practices and to emphasize more experiential and reflective learning methods to be widely spread through the HUFS community.

3. Research Progress

3.1 Understanding How Reflective Learning Can Enhance Learning Experience

First, we acknowledged the significance of gaining a greater understanding of

'reflective learning (RL)' by examining the relevant literature. We had no intention to delve further into a theoretical discourse on the subject, but without a solid comprehension of bo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RL, we concluded that we would not be able to guide our study with a definite direction and objectives. Although we had a straightforward research question to determine whether RL is an effective tool for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and, if so, how we can integrate such a tool into our teaching practice matters the most.

Reflective learning has been a relatively recent pedagogical practice in higher education. One of the early works that emphasized experiential learning, where reflection is an essential component, is Kolb's (1984) study. He argues that learning is a process of construct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rough actively processing and reflecting on our experiences. According to Kolb (1984), learning is a dynamic circular process that involves five distinct procedures. These are direct experience, reflective contemplation, abstract conceptualization, theorizing, and experimentation. He emphasizes that without taking the time to reflect on our experiences, learning cannot occur. (Kolb, 1984)

Fullana et al. (2016) defined reflective learning and its effect in their study as follows;

"Reflective learning (RL) is a process of reflecting on all sources of knowledge that can help to understand a situation, including personal sources and experience. RL is a learning model that breaks with the established orthodoxy based on the positivist understanding of knowledge, which has led to a rift between the subject and object of knowledge and underestimates the place of the self and of subjectivity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knowledge."

The definition given above may be too technical for some due to the presumed knowledge required to understand it.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we have provided our students with the University of Worcester's study skills guide, which may provide us with more insight.

It said, “*Reflective learning is a learned process that requires time and practice. It is also an active process: involving thinking through issues yourself, asking questions, and seeking out relevant information to aid your understanding. Reflective learning works best when you think about what you are doing before, during, and after your learning experience. Reflective learning is therefore not only about recognising something new (new learning), it is also about seeing reality in a new way.*” (University of Worcester, 2012)

We can identify some key essence of reflective learning from the definitions presented above, which we will discuss in more detail below.

3.2 Essence of Reflective Learning

3.2.1 Reflection

Reflection is the process of actively exploring and questioning learners’ own experiences and knowledge, ideas, and assumptions in order to construct new understanding and meaning. Reflection is a form of critical thinking that allows the learner to be more aware of their own thoughts and their implications. It helps to draw conclusions, make decisions, and develop insights. In essence, reflective learning is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learners’ own thoughts and experience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mselves and the context around them. So the next essence of reflective learning is how reflective learners relate themselves to the learning they have experienced and reflected.

3.2.2 Relativity and Transference

Reflection allows learners to explore their own experiences and ideas in order to gain a deeper and more meaningful understanding of what they have learned. By engaging in reflective learning, learners can develop and strengthen their own individual thought processes, further developing their intellectual and emotional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they are learning. Reflection also allows students to draw upon their own personal experiences, values, and beliefs to gain insights into the topics they are learning. Ultimately, reflective learning allows learners to make

connections between topics they are learning about and their own lives, making the material more meaningful and helping them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not only the subject matter but also themselves. This process is called transference which is a goal of many pedagogical practices.

3.2.3 Engagement

When learners are able to make connections between what they are learning and their own lives, they become more interested in learning and, as a result, more engaged. Without this level of engagement, it can be difficult to maximize learning effectiveness through reflective learning. One of the best ways to engage students in reflective learning i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m to actively reflect on their own experiences and knowledge. This can be done by assigning reflective writing tasks, providing meaningful discussion questions, and encouraging students to ask questions and express their thoughts and opinions. Additionally, providing multiple formats for reflection (e.g., writing, audio recordings, video reflections) can help to ensure that all learners can participate and engage in the reflective learning process. (Lex, 2020)

3.3 Benefits and Challenges of Reflective Learning

3.3.1 Benefits

These studies suggest that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RL experiences had the ability to build a deeper awareness of their own learning, as well as become more discerning (Turner and Beddoes, 2007). It also enabled them to identify beneficial and improvable aspects of their attitudes towards learning and the profession (Langley and Brown, 2010; Williams and Wessel, 2004), augmented their motivation towards learning, and enabled them to be more imaginative (Turner and Beddoes, 2007). The studies likewise demonstrate that students acknowledge writing as a factor that helps increase understanding of those situations which serve as the basis for reflection (Vivekananda-Schmidt et al., 2011) and esteem reflective journaling as a help to better link theory and practice, sharpen the profession, improve coping abilities for realistic situations and provide a clearer comprehension of new information (Langley and Brown, 2010).

3.3.2 Challenges

Conversely, many studies also shed light on som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or instance, some learners report that they are finding it hard to comprehend the intentions of the experience (Langley and Brown, 2010). In certain studies, participants mention having felt uneasy at one stage of the process due to unfamiliarity of the task or the rigors of the learning and assessment activities. Turner and Beddoes (2007) underscore the unfamiliarity of students having to deliberate their opinions and attitudes, while Bush and Bissell (2008) accentuate the complexity of investigating emotions. Given that reflective learning should be based on personal experiences, when it is used as an assessment task, many studies allude to the hesitation expressed by learners in completing writing activities, emphasizing the tension between what should be revealed and what should remain personal and therefore confidential (Bush and Bissell, 2008; Glaze, 2001; Langley and Brown, 2010; Vivekananda-Schmidt et al., 2011). A potential dilemma with certain reflective-type tasks is underscored as the lack of freedom of expression that participants may face (Glaze, 2001). Lastly, one worry often mentioned by learners is a perceived lack of clarity in the assessment procedure of experiences based on RL (Vivekananda-Schmidt et al., 2011).

As highlighted in the literature review above, some of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reflective learning can include difficulties in expressing thoughts and ide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difficulties with self-reflection and self-assessment, and a lack of engagement with the material. Additionally, some learners may also find it difficult to think reflectively, as it can require them to engage in deeper critical thinking than they may not be so used to. Providing support and guidance can help to address these issues and ensure that all learners are able to engage in the reflective learning process.

3.4 Learning Journal as a Tool for Reflective Learning

3.4.1 Learning Journal (Task)

The University of Worcester (2012) defined a learning journal as “*A learning*

journal is a collection of notes, observations, thoughts and other relevant materials built-up over a period of time and usually accompanies a period of study, a placement experience or fieldwork. Its purpose is to enhance your learning through the very process of writing and thinking about your learning experiences. Your learning journal is personal to you and will reflect your personality and experiences."

As it is highlighted in the above definition, writing a learning journal is a great way to engage in reflective learning. As it can be observed, the definition above encompasses the essence of reflective learning we previously discussed. We expect that writing a learning journal could allow students to document their thoughts and reactions to course material, which can help them to better understand and process what they are learning. A learning journal could also enable students to gain greater insight into their own thought processes, helping them to reflect more deeply and critically on what they are studying.

3.4.2 Measurement & Assessment

One wa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reflective learning is to assess the quality of the reflective tasks students complete. As we assigned writing learning journals as one of the assessment requirements for the subject, we shall discuss some of the grounds why we believe it may be an effective tool. The assessment criteria were based on efforts, logic, and depth of the reflection and how it was expanded and expressed in writing, not so much on the structure and the rigor of the academic learning. This includes looking at the depth and complexity of the questions they ask, the accuracy of their self-assessment, and the level of insight they gain into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 topic or material. By evaluating the quality of their reflections, we could measure how effectively students are engaging in the reflective learning process. Additionally, we also measured learning effectiveness by assessing the tangible results of the reflective learning process, such as improved performances of quiz scores, class discussions, or written assignments and projects.

3.6 Students On-Boarding Procedures

To set up the project, we used Canvas by Instructure an effective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to collect the reflections, students who were not familiar with the service needed to join and set up their own accounts. This service allows more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instructors and could be helpful in this type of project. A copy of the Learning Journal instructions was posted on the service for students to refer to later. The task was also discussed in person during lecture time to help students be aware of the task. The original instructions are seen in Figure 1; Each class required adjustments to fit the theme of the class and the instructor's individual pedagogy. But the items were grouped in their own category as "Learning Journals," each of the lines representing one of the learning journal entries, as seen in Figure 2. Comments and Feedback were able to be seen by students in Canvas and are not included here for reasons of confidentiality and outside the scope of the project.

[Assessable Assignment 20%] Weekly Learning Journal: Information

Due	No Due Date	Points	None
-----	-------------	--------	------

You are asked to write a weekly learning journal throughout this course.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a good critical thinker should develop is learning from self-reflections. Through this task, you will record your journey to become a master critical thinker.

You can find more details about 'Learning Journal' in the following information;

[Learning Journals 2012.pdf](#) 

The following examples show what good/bad written learning journals look like. Just read these as an example, not a benchmark.

Your journal entry can be in any format (e.g. video on flipgrid, word document, handwritten texts (pdf/jpg format), infographics and texts on Miro board etc.) but you will need to discuss it with me so I can set up the individual spaces for you on the flipgrid/Miro board.

[Sample Learning Journal Entries.pdf](#) 

In week 13, you will nominate the top 4 journal entries (each entry will be marked as 5%) you wish to be considered for assessment purposes. Entry will commence from Week 5 and it will be posted hereunder. The due date for the entry will be at 11.59 pm every Tuesday for the remaining lecture weeks excluding week 7 as we have a mid-term examination.

Here is the video which explains how you can use critical thinking skills in a reflective writing which is what the learning journal is about.

Figure 1

Learning Journals 20% of Total

[Assessable Assignment 20%] Weekly Learning Journal: Information
[Week 5] Learning Journal #1 Due Apr 5, 2022 at 11:59pm ~5 pts
[Week 6] Learning Journal #2 Due Apr 12, 2022 at 11:59pm ~5 pts
[Week 7] Learning Journal #3 Due Apr 19, 2022 at 11:59pm ~5 pts
[Week 9] Learning Journal #4 Due May 3, 2022 at 11:59pm ~5 pts
[Week 10] Learning Journal #5 Due May 10, 2022 at 11:59pm ~5 pts
[Week 11] Learning Journal #6 Due May 17, 2022 at 11:59pm ~5 pts
[Week 12] Learning Journal #7 Due May 24, 2022 at 11:59pm ~5 pts
[Week 13] Learning Journal #8 Due May 31, 2022 at 11:59pm ~5 pts
[Week 15] Final Learning Journal #9 Due Jun 12, 2022 at 11:59pm ~5 pts
Nominating your best 4 learning journal entires Due Jun 15, 2022 at 11:59pm

Figure 2

It was also decided that instead of having all of the journals scrutinized and subject to the final grade, students would be able to select their best four journals to highlight for evaluation. Giving students their own agency for planning their semesters, as students oftentimes are overburdened with life, allowing them the flexibility to choose their best for evaluation. The percentage of the journal score for some classes had the journal worth 20% of the grade, whereas some other classes had the journal as part of the overall homework score.

3.7 Assignment Deliverable Adjustments

After weeks of receiving submissions and after a discussion at the second meeting, we completed a formative assessment of the program to see what things may need adjusting. The following items were modified from the original instructions to help move the program along.

- The original instructions included flexibility as to the format of the reflection; other media types were not allowed for the remaining journals..
- Written PDF reflections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for consistency and was used for the remainder of the semester.
- In some classes, a stated length of two pages emerged as a requirement. In

those particular classes, the criteria were changed. In other classes, this was not a change, and there was no length requirement in those classes. (It is noted here because this helped us evaluate the journal's effectiveness.)

Some deadlines and restrictions for late journals needed to be established, thinking that the longer a student waited to write about an event, the harder it would be for them to remember what happened.

3.8 Data Collection for Analysis

In order to keep the consistency in data collection, we assigned the final learning journal entry with a specified topic as below;

Topic:

Please reflect on your experience of writing a learning journal as part of this subject's assessments.

Please describe or explain the pros and cons of this assessment task, and consider how you feel about it compared to assessments in other classes (eg. Projects, presentations, exams, etc..). Explain which you think is more effective for your personal learning and why you think that.

The number of final reflection journal entries is shown below.

Subject Name	Number of Enrollment	Number of Final Journal Posted	% of Final Posting
Technical Communication and Presentation	12	10	83%
Speech and Presentation	43	38	88%
Leadership and Conflict Management	16	15	93%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for Convergence	14	14	100%
Current Topics in International Business	27	26	96%



As it can be seen above, we have received over 92% of our students who posted their final reflection about the experiences of writing a learning journal during the semester. From these journals, we have analyzed our findings based on our objectives for this study.

While all classes show a "high participation" rate for completing the journals, it is only in the two classes where the learning journal's value was perceived to be greater (20% of the grade) that you see stronger participation. Combining that with the added expectation of two pages of reflection helped drive bette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While there was reflective learning in the classes where the length requirement and points were not as valuable. We believe that the more robust requirements seemed to coordinate with the richness of reflection and quality of the journals. Driving the idea for future iterations of implementing Learning Journals in classes. Here are some other ideas that we were able to extract from our project.

[illegible]

Ignoring the common English words and particles, the word clouds reveal some of the benefits and challenges we were seeking to identify.

4.1 Findings

In order to test our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ed a textual analysis using the MaxQDA qualitative data analysis tool. We drew three key themes from the evidence gathered in our analysis that related to the research questions we formulated, which was used to illustrate the students' reflections on using the learning journal as a tool for reflective learning.

Pros/Benefits	"I can look at the situation objectively by organizing what I have done in the class. Through this view, I can learn one or more lessons. Besides, I can sort out my thoughts and motivate myself. I like it." "it felt like a review process, not burdensome because I feel more comfortable speaking than writing." "I could have time to organize and rethink the contents of the week's class, and that it made me focus more on the class to write a learning journal." "I found more things I was curious about or wanted to find out more, so my knowledge seems to have expanded." "I became interested in various fields by writing learning journals on various class topics." "I think the process of periodically leaving records and organizing thoughts is very important for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	---

	"I was able to naturally reflect on the activities I did in class and freely express my thoughts and feelings about them." "I was able to discover new things about myself, and gradually the idea that learning journal was a lazy assignment is disappeared." "I think it helps me with practicing English writing." "I started to think about why I am learning this after practicing critical thinking. I did not take what I learned because the professor taught me this. However, I thought about class materials critically, and I ended up that the textbook and the professor are right." "I can concentrate more in class than before. Maybe the idea that I have to write the learning journal after the class makes me concentrate on class materials." "Learning journals makes me review the class. I am ashamed that I don't usually review the class until the exam is close. Learning journals forces me to review the class and I am remembering what I learned more." "it is more important for us to think critically and make our own opinions than to accept the lecturer's opinions passively. Writing of learning journal is the way of thinking critically and making own opinions. It's very effective, I guess." "I could see myself more than just reflecting."
Cons/Challenges	"it is a little bit troublesome. However, this task is not that

	difficult or heavy, and I like having time to organize my thoughts. Thus, the tiresome issue is endurable.” “It was a little bit annoying because it was given in the form of an assignment, but it was relatively less repulsive because it did not give pressure and stress on the mind, such as tests and quizzes .” “there was no detail explanation or form for students who were new to it. It can be stressful for students to be evaluated as a learning journal for the first time.” “I was confused so that I couldn’t understand the different purpose of the classes which is required this learning journal in the beginning.” “Learning journals is too much work. It takes more time for me to write a learning journal than doing other assignments.” “So writing a learning journal every week burdens me.” “I hope there will be feedback on learning journals. Learning journals is too abstract to be the assessment for the class, because I cannot get the feedback. I won’t know if I am thinking correctly.” “It’s hard to know what I don’t know about the class material. When I write the learning journal, I concentrate on what I know, rather than what I don’t know.” “Since it is a learning journal, which emphasizes personal
--	--

	learning more than an essay, which has a strict grading process and feedback, it is not easy for an individual to understand if he made a mistake.” “writing only with our own opinions can lead us into the confirmation bias. When we think something is right, and if it seems quite rational, we often consider it as a truth.” “I think the more difficult problem to solve is because there are no accurate standards of grade. If the professors start to grade what we’ve learned, the true purpose of learning a journal wouldn’t really appear.”
Effectiveness/preference of Learning Journal as a reflective learning tool & assessment	“I don’t think there is a more effective way for personal learning than writing. This is because I can organize my thoughts by looking the things floating in my head.” “I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way I treated the class through this assignment. I could concentrate more on the class and earn a good habit of keeping records.” “I think reflection and learning journal is a effective way to easily remember the contents of the class.” “If the learning method of writing a learning journal is adopted while being related to the core subject of each subject,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learning is expected to increase.” “I think learning journal is very effective assignment than any other assignments. It can review the class things and can

	look back on myself and find out the now things on me.” “I think It’s more effective using learning journals as a tool to force the student to review the class, not as a tool for replacing assessment of this class.” “I would say that the learning journal is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 methods. But I believe that the learning journal will be more helpful to university students if they are given feedback despite how it may be counterintuitive for one to leave feedback on a personal journal.” “I would say that the learning journal is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 methods. But I believe that the learning journal will be more helpful to university students if they are given feedback despite how it may be counterintuitive for one to leave feedback on a personal journal.” “If I can choose a method, I would choose a journal way than exam, project, etc.” “As the saying goes, "A pen is stronger than a sword," I want to pick up a pen and become a strong person. If you want to be a better person, write a review of yourself.” “the learning journals are effective for my personal learning. Because speaking honestly, I would not personally rewrite and organize all the topics that we learned in class.” “I think I prefer learning journals over projects, presentations, and exams, because it made me a critical thinker. It was effective for my personal learning because it did not have any restrictions like other assignments, so it gave me
--	---

	freedom to express my learnings in different ways and a chance to think in different perspectives.” “I think reflection and learning journal is a effective way to easily remember the contents of the class.” “I think this activity can be very effective for understanding the lecture and for self-growth, for the beginning of a small change.” “I actually think it is more effective because during the process of reflecting back on learnings of each classes, it makes you think more deeply and helps you understand the learning while you try to write in detail.” “It was effective for my personal learning because it did not have any restrictions like other assignments, so it gave me freedom to express my learnings in different ways and a chance to think in different perspectives.”
--	--

From the above text extracts from students’ reflection journals, we have summarized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writing a learning journal in the following sections.

4.2 Benefits Identified

Generally, the students ha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experience than a negative one. It was expected that this type of task would be unfamiliar to students and so there was some resistance at first, but this soon changed. After analyzing 124 journals, the following list of positive aspects of journal writing were identified.

- Reflect and Analyze: Writing a learning journal allows learners to reflect on their progress and analyze how to better apply what they've learned to future situations.

- Enhance Understanding: It also helps them deepen their understanding by not simply memorizing facts but going deeper into their subject matter.
- Extend and Expand Learning: Keeping a learning journal can provide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research and explore new topics, as well as refine their existing knowledge.
- Strengthen Memory: By keeping a learning journal, they create a record of their knowledge and are more likely to recall information when needed.
- Personalize Learning: Writing in a learning style that is tailored to the individual student's needs and interests.
- Reflective Learning: Writing in a learning journal allows learners to reflect on what they have learned, allowing them to critique themselves and recognize areas for improvement.
- Creativity: Writing in a learning journal encourages creativity and helps to generate new ideas.
- Self-Assessment: Writing in a learning journal can help learners assess their own performance and measure their own progress. This will help them become self-aware and improve their learning experience.

4.3 Challenges Identified

The following list highlights the challeng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from students' reflections on their experiences of writing a learning journal.

- Time commitment: Reflective learning requires dedicated time and space to process and review experiences, but many people struggle to find the time to do this.
- Skill: Many people lack the necessary skills and experience to think critically and reflectively about their own experiences.
- Frustration: Reflective learning can be challenging emotionally and mentally, and learners can become frustrated with the process
- Motivation: Finding the motivation to engage in reflective learning can often be difficult, especially when the task may seem daunting or unappealing.
- Interruptions: Trying to engage in reflective learning can be difficult in busy or loud environments.
- Barriers to sharing: Learners may not be comfortable sharing personal

reflections with their peers or with the instructor, which can hinder the reflective learning process

- Difficulty connecting activities and thoughts: For reflective learning to be effective, learners must be able to apply their thoughts
- Superficial: Some students may be content to fabricate a response as a goal of homework finishing, rather than reflecting on what they have experienced

4.4 Discussion

To summarize, reflections are a form of critical thinking that enables learners to explore and question their own experiences and knowledge, develop insights, and make decisions. By engaging in reflective learning, students can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they are studying, as well as strengthen their own thought processes. Reflective learning is a means of process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by reflecting upon it and utilizing it to reach conclusions that are pertinent to the individual who is learning. It calls for taking a moment to consider one's experiences and evaluating them in order to gain a more comprehensive comprehension of oneself and the contexts one is in. This kind of learning encourages deep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nd reinforces vital competencies such as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and decision-making. Reflective learning can assist learners in making more enlightened decisions, figuring out why selected events took place, and recognizing areas to develop.

We believe writing a learning journal is a great way to help students engage in reflective learning, and an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reflection tasks and the tangible results of learning can be used to measure learning effectiveness. Challenges may arise, such as difficulty expressing thoughts and ide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and difficulties with self-assessment, but with the right support and guidance, all students can benefit from reflective learning. Writing a learning journal can be a great way to extend and expand learning. It can allow learners to reflect on what they have learned and consider how to take it forward. Learners can think through considerations such as the implications of what they have learned, how it relates to other concepts, how it can be applied to

other topics, and how they might apply it in the future. The learning journal can also help learners to develop their own deep understanding of the topic by encouraging them to explore and delve deeper into it.

※ 참고문헌

Bush, H. and Bissell, V. 2008. The evaluation of an approach to reflective learning in the undergraduate dental curriculum. *European Journal of Dental Education*, 12: 103-110.

Fullana, J., Pallisera, M., Colomer, J., Fernández Peña, R., & Pérez-Burriel, M. (2016). Refle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 qualitative study on students' perception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1(6), 1008-1022.

Glaze, J.E. 2001. Reflection as a transforming process: Student advanced nurse practitioners' experiences of developing reflective skills as part of an MSc programm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4, no. 5: 639-647.

Langley, M.E. and Brown, S.T. 2010. Perceptions of the Use of Reflective Learning Journals in Online graduate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Research*, 31, no. 1: 12-17.

Lex (2020). Reflection and Reflective Learning. [Conversation Transcript]. Retrieved from <https://lex.page/d/2237329a-7b29-4d5d-8506-744c3438aad6>

Kolb, D.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NJ: Practice-Hall, Englewood Cliffs.

Turner, de S. and Beddoes, L. 2007. Using reflective models to enhance learning: Experiences of staff and student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7: 135-140.



University of Worcester. (2021). Learning Journals. University of Worcester.
Retrieved from
https://drive.google.com/file/d/1WI-I4P4xNIWiG0sfQTKt0YfrfRi4UXAb/view?usp=embed_facebook

Vivekananda-Schmidt, P., Marshall, M., Stark, P., Mckendree, J., Sandars, J. and Smithson, S. 2011. Lessons from Medical students' perceptions of learning reflective skills: A multi-institutional study. Medical Teacher, 33: 846-850.

「 융복합수업모형으로서의 PBL (Problem-Based Learning) : 스페인어 작문수업을 중심으로 」

강필운 교원, 김승기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스페인어 교수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작문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배운 내용들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자 직접적인 지식이나 강의 대신에 학생들의 삶과 관련성을 지닌 실제 삶 속의 문제, 과제, 이슈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개별적, 협력적 학습활동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융복합 수업 모형으로서의 PBL(Problem-based Learning): 스페인어 작문수업을 중심으로

목적: 스페인어 학습자를 위한 PBL(problem based learning) 전략을 활용한 교수법 연구를 통한 교수학습방법의 제공과 함께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유발 및 학습참여를 통한 스페인어 교수모형의 틀을 마련하여 스페인어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수법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융복합 수업 모형으로서의 PBL(Problem-based Learning)>

PBL수업은 직접적인 지식이나 강의 대신에 학생들의 삶과 관련성을 지닌 실제 삶 속의 문제, 과제, 이슈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개별적, 협력적 학습활동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PBL의 특성은 융복합적 특성의 실생활 속 과제나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 또는 전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 지향하는 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교수학습모형이자 학습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간 이루어진 PBL 관련 많은 연구에 의하면 PBL수업의 교육적 효과는 우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전이,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 학습력 등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감성적 측면에서 볼 때도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증가하고, 동료 학습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 등의 인성적 교육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PBL은 인터넷과 디지털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PBL 방식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수업환경으로서, 특히 SNS의 활용을 기본적 전제로 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모임에서는 PBL이 융복합적 접근에 의해 학생들의 삶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여, PBL을 활용한 스페인어 작문 수업을 위한 하나의 모형개발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PBL은 학교교육에서 배운 바가 바로 현장, 실생활, 직장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방법으로서, Forgarty와 Levin이 설명하듯 비구조화되고 모호한 현실 세계의 문제와 이슈에 대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 지식과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수법이다. PBL은 흔히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시나리오기반학습(Scenario-Based Learning),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액션러닝(Action Learning)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교수학습모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협력적 학습’과 ‘실생활연계 과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곧, 실생활과 연계된 융복합적 문제 상황이 제시되면, 학습자가 학습의 중심이 되어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고 발표, 공유하는 학습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PBL은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경험 및 문제해결과 관련된 진행과정 중심의 학습’이기 때문에 생활과 지식을 연결시켜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있는 역량개발을 학습할 수 있다. 보통 PBL의 특성은 PBL 수업진행의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비구조적이며 복잡하고 여러 영역이나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문제’로부터 학습이 시작되며, 그것의 해결책 제안이 학습의 마무리가 된다.

둘째, 실제 상황과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이러한 학습활동과 내용의 다양한 방향과 탐색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문제중심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크게 팀별 학습과 개별학습과정으로 나누어 지는데 팀별학습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유, 개인 학습활동의 점검, 나아가 학습 자간 상호작용과 소통 등의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교수자의 역할>

PBL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이전의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PBL 수업을 위한 과제를 설계하고 제시하며, 수업진행과 운영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PBL 수업 모형 구성 요소>

1) 동기 유발하기

동기 유발 과정은 문제가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활동이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한다.

2). 문제 파악하기

문제의 비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학생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문제 파악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과제 수행 계획 수립하기

과제 수행 계획 수립하기는 팀 단위의 토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수립된 계획은 팀별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4) 문제 해결 모색하기

문제 해결 모색하기 과정에서는 제시된 문제의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탐색 활동이 이루어진다.

5) 결과 정리하기

개별, 팀별로 수행한 결과물을 종합하고 가시적인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① 문제 해결책 고안하기 제시된 문제의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② 학습 결과물 완성하기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의 결정체이자 과제 수행

전 과정의 최종 성과이며, 문제 해결책이 학습 결과물이다. 자신의 학습 결과물에 대해 자부심과 성취감을 가지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6) 발표 및 평가하기

학생들이 팀별로 도출한 해결안을 공유·비교·검증하는 단계로 발표와 평가는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 동료평가, 팀 평가로 나누어진다. ① 발표하기 발표는 주로 마지막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발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조 자료, 소품 등을 준비하여 시각적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발표 방식은 학생들의 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격려해야 한다. ② 평가하기 PBL 수업에서는 수행평가와 같은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BL 내용에 대한 평가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해를 적용하는 능력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평가하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했던 활동과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통해 평가한다.

< PBL수업 개발 및 적용>

융복합 모형으로서 스페인어 작문수업을 PBL수업사례로서 설계하기 위해서 PBL의 수업 설계와 관련된 연구 및 문헌들을 참고하여, 1) 실생활 기반 2) 자기주도학습 기반 3)협력 학습 기반 4) SNS활용 소통학습 기반의 PBL수업의 4가지 설계원칙을 도출하였다.

1) 실생활연계학습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 과제(문제)가 교수자에 의해 개발. 학습자는 전통적 수업환경의 학습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더 잘 기억하며, 학습한 지식을 실제 문제 상황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2) 자기주도학습

개별 학습자가 학습내용, 학습방법 그리고 학습관계를 포함한 전체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

3) 협력학습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통해 사고 영역을 확장시키며, 다른 사람의 견해를 자신과 비교하고 평가하므로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과 상호작용에 의한 지식의 구성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 기술과 상호존중과 같은

대인관계 기술도 개발하게 된다.

4) SNS를 활용한 소통학습

SNS와 e-Class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함으로써 협동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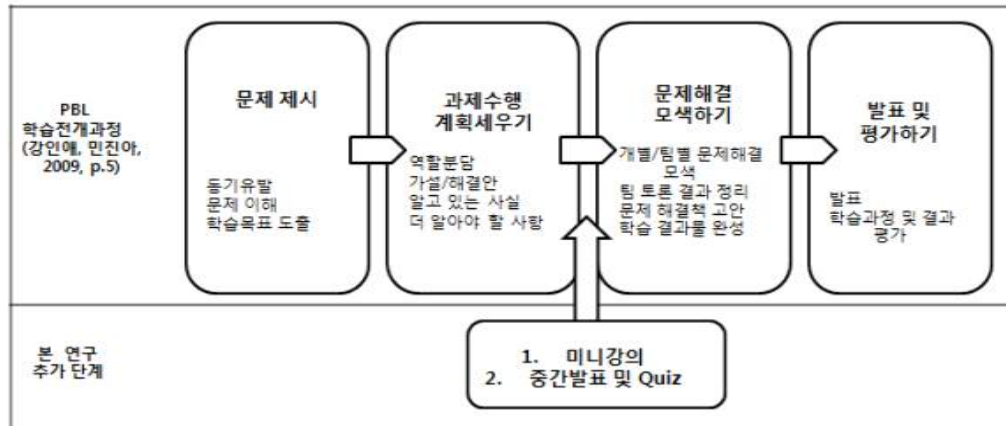
<PBL수업모형>

PBL 문제는 학생들이 배우기를 바라는 내용과 개념,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 열려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문제 구조이어야 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조화된 문제이어야 한다. 해결안이나 결과가 어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이어야 한다. 둘째, 실제적인 문제이어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존재하고, 이 상황 안에 문제를 둘러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문제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를 고려한 문제이어야 한다. 학습자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고 관련이 있어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문제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의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어야 한다. 넷째, 결과물에 대한 분명히 명시된 문제이어야 한다. 주어진 문제에 학습자의 역할과 기대되는 학습 결과물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융복합 수업 모형으로서 PBL(problem-based Learning)을 스페인어 작문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 PBL수업 단계 설계>



1) 문제제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문제제시단계로 PBL수업 설계의 관건은 실제적 문제 제시의 여부에 놓여 있다. Duffy & Johnassen이 주장하듯, 실제적 문제는 학생들에게 학습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고 능동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안 혹은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설명하며 나아가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PBL수업에서 제시하는 문제가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일 때,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문제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이다. PBL을 활용한 스페인어 글쓰기 수업도 그러하다. 따라서 PBL 문제의 설계에서 학생들의 실제 대학생활과 깊이 연관되면서도 학술적 글쓰기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 과제수행 계획

개인별로 선정된 문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한다. 그것은 문제에 대한 자기 점검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협동학습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게 한다. 다음으로, 모둠별로 협동학습을 통해 ‘과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개별적으로 수행한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물들을 종합하는 동시에 팀원들이 더 다양한 생각들을 제안하도록 한다. 그리고 도출한 결과들을 통해 하위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데 팀원들이 설정된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찰해 나가야 할지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팀원들이 분담해야 할 영역을 정해서 기술하고, 특

방에 올려 서로 잊지 않도록 독려한다.

생각(Idea)	사실(Fact)	학습과제(Issue)	실천계획(Plan)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한다.	개인 혹은 팀별 학습을 통해 제시된 가정을 뒷받침할 지식과 정보를 종합한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자신이 알거나 이해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한다.

3) 문제해결 모색하기

문제해결 모색하기 단계는 본격적인 글쓰기를 위한 준비단계로써 글쓰기의 구성과 특성, 그리고 표현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와 연동한 PBL수업은 (1)팀별 토론과 대안 조정, (2)팀별 개요 수정, (3)팀별 개요 제출로 구성되었다. 팀별 활동을 통해 개요에 대한 수정과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교수는 팀별 활동 시 피드백을 주고 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교수의 피드백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팀의 세부적인 방향 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팀별 개요를 토대로 개별 글쓰기를 진행한다.

4) 발표 및 평가하기

이 단계에서의 PBL수업은 개별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과 팀별 프레젠테이션 발표 준비로 구성할 수 있다. 개별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했다. 하나는 동료 첨삭으로 팀별로 구성원들의 개별 글을 돌려 읽으면서 첨삭을 하도록 했다. 다른 하나는 교수 첨삭이다. 교수 첨삭은 동료 첨삭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위한 협동학습으로 진행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문제가 다양한 해결방안의 제안에 있는 까닭에 필수적이다.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두 문제유형에 사뭇 다른 결과들을 분반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고,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에서 유의미한 팁을 얻도록 했다. 평가 기준은 프레젠테이션 발표의 기본 요건과 더불어 문제해결의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과 타당성 여부에 두었다.

이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크게 (1)주요 내용과 순서 확정, (2)역할 분담, (3)연습일정 확정으로 구성하였다.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대한 평가는 동료평가와 교수 피드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동료평가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발표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발표평가서’는 준비도, 이해도, 발표 분야로 나누어 총평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수의 피드백은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마무리된 후 종합, 정리하고 수정하였다.

PBL수업 전반에 대한 자기성찰은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PBL수업에서 자신이 배운 점과 어려웠던 점 등을 가감 없이 제시하도록 했다. PBL수업이 글쓰기에 있어서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여가 높아졌고, 다음에도 PBL수업을 듣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PBL수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팀 활동의 어려움과 과제의 부담감이었다. 팀 활동의 어려움은 여전히 팀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강의식 수업보다 과제 부담이 컸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PBL수업은 새롭지만 큰 부담이 따라 익숙한 강의식 수업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의식 수업에 대비해 성적에 대한 걱정도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PBL수업에서 팀별활동에 대한 선호도와 과목성적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했다.

스페인어 글쓰기 교육은 상당 부분 강의식 수업이 강세를 띠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대학의 글쓰기교육도 새로운 교수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PBL은 대표적 교수학습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페인어 글쓰기 교육에서 PBL수업은 부분적으로라도 기존 수업에 접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PBL수업은 학생들에게 스페인어 글쓰기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 유발과 실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수업 운영과정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선할 점도 적지 않았지만, PBL수업의 도입과 활성화는 필수적이라 본다. 향후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되지만 교육현장의 실제적 적용과 담론 형성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다양한 IT와 더불어 세계화로 인한 다문화시대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가진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움과 복잡함에 잘 적응할수 있는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소통능력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대학교육에서도 융복합 전공, 융복합 과목 등으로 이름 붙여진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다양한 학생 참여적, 학생주도적 학습방법을 채택하여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 역량을 지닌 인재 키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학습자중심, 또는 융복합적 수업모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PBL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선택하여 스페인어 작문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학생들이 융복합적 학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삶과 학습의 연관성,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통한 학습 주체로서의 인식, 다른 학습자들과의 협력적 학습을 통한 배움의 깊이와 이해를 더하고, 나아가 상호 배려와 이해 등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PBL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스페인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지 교실에서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 삶 속 경험과 얼마나 가깝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환경에서 오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재미, 또한 다른 학습자들과의 협력적 학습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성, 배려 등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등을 배우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BL 수업이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적 수업방식으로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의 과제와 도전은 특정 전공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전공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본 교수법 연구모임의 주제인 스페인어 작문 수업을 중심으로한 융복합적 수업 모형으로서의 PBL을 통해 바라본 PBL의 효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왜 PBL인가?의 질문에 대해 PBL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1) 관련성(relevance)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학습자 주변의 문제를 학습주제로 구조화시키면서 교과목 내용 간의 연관성을 향상시킨다.

2) 핵심 수업 내용의 정리(identification of core)

PBL은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정리 규정할 수 있다.

3) 일반적인 능력(generic competencies)

PBL은 그동안의 강의식 수업 형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및 팀 작업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능력을 습득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은 자연적으로 인성교육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4) 학습자 중심(student-centered)

PBL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해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이 특징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함양시키고, 심화학습을 촉진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학습 주제를 탐색

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며, 중요한 학습 내용을 스스로 탐구한다.

5) 통합(integration)

PBL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다양한 기초지식을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로 교과목과 연계하기 때문에 통합적인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다.

6) 동기화(motivation)

학습자 주변의 문제들을 주제로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한 학습자 중심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잘 유도한다.

7) 심화학습접근(deep approach to learning)

PBL은 심화학습을 촉진시킨다. PBL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수집이나 이론적 접근에서보다 더 많은 학습 자료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표면학습보다 심화학습으로의 자연스런 유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작문 수업은 PBL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영역으로 인식해 왔을 것이나 그러나 PBL 수업 모형을 활용한다면 작문 수업에서도 창의력, 특히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이 가능하다.

※ 참고문헌

- 공하림(2014). “대학 작문 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PBL) 적용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5,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7-42.
- 김도희(2016). “PBL을 활용한 글쓰기 강의 모형 연구 -<창의적 사고와 표현> 강의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3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5-52
- 박선옥(2016).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 설계 연구”, *어문론집* 65, 중앙어문학회, 187-213.
- 박애록(2018).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한 국어과 쓰기 수업 설계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진(2017). “PBL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의 실제”, *현대문학이론연구* 67, 현대문학이론학회, 409-436.
- 최정임, 장경원(2019). PBL로 수업하기, 학지사
- 허재영(2012). “대학 작문 교육의 현실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선행 연구의 흐름과 실태 분석을 통한 표준 교육과정을 제안하며-”, *교양교육연구* 6(1), 한국교양교육학회, 99-124.
- Jumariati, & Sulisty, G. H.(2017). “Problem-Based Writing Instruction - Its Effect on Students' Skills in Argumentative Writing”, *Arab World English Journal (AWEJ)* 8(2), Arab Society of English Language Studies, 87-100.
- Kumar, R., & Refaei, B.(2017). “Problem-Based Learning Pedagogy Fosters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out Writing”,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roblem-Based Learning* 11(2), Available at: <https://doi.org/10.7771/1541-5015.1670>

「Transcreation (창의번역)을 위한 번역 교수법 연구」

고선정 교원, 한진아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최근 넷플릭스의 영상 콘텐츠와 웹툰과 같은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번역이 콘텐츠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앞으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만큼, 문화콘텐츠 시장은 더욱 확대 될 것이며 예상되며, 번역 인력 수요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K-드라마와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인기 드라마나 웹툰과 관련된 상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가수와 배우가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K-뷰티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 교육도 영상 번역, 웹툰 번역, 광고 번역 등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번역 실습을 해보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영상, 웹툰, 광고 번역과 같이 번역에 창의성이 요구되는 번역은 Translation과 Creation을 합친 Transcreation(창의번역) 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모임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생들의 번역 역량과 창의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의번역에 초점을 둔 수업을 진행하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아내고자 했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Transcreation (창의번역)을 위한 번역 수업 설계 방안

목적: 본 모임의 구성원들은 학부의 영어 번역 수업과 통번역대학원의 노어 번역 수업을 맡고 있다. 연구 대상은 2022년 2학기 번역 수업을 듣는 학부 전공생과 통번역대학원생이며, 학부생은 30명, 통번역대학원 학생수는 6명이다. 연구 대상의 교육 과정과 수업이 진행된 언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번역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 번역 수업에서 한국어-영어, 한국어-러시아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고, 학부와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의 번역 실력을 고려하여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각각의 과정에 맞춰 번역 수업을 설계해 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물은 영어와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번역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학부와 대학원 번역 수업에서 창의 번역 수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 진행 내용

본 연구는 기존의 번역 수업과 달리 학습자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창의 번역에 초점을 둔 수업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서 어떤 수업 모형이 적합한지 논의했다. 논의 과정을 거쳐 수업 모형을 설계한 다음, 연구자들이 맡은 수업의 학생들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학부생의 경우 통번역 전공이나 번역 수업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고, 번역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와 웹툰을 번역 텍스트로 진행하기로 했다. 통번역대학원생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통번역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졸업후 진로와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번역대학원 졸업 후에 통번역사이자 트랜스크리에이터로 많이 활동하는 광고 분야가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광고 텍스트 번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3.1. 이론적 배경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Transcreation'에 대한 정의를 연구 목적에 맞게 규정해 보았다. Transcreation은 'Translation'과 'Creation'의 합성어로 광의적으로는 번역에 창의성이 요구되는 번역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주로 광고나 슬로건 번역이 창의번역의 한 유형으로 구별되긴 했으나, 이러한 유형의 번역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광고뿐만 아니라 영상과 웹툰 번

역에서 현지화(localization)를 위해 언어,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더불어 원천 텍스트(Source Text)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창의성을 영어와 러시아어의 언어적 전환 과정에서도 손실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번역 전략, 또한 번역의 불가능성을 뛰어 넘는 참신한 번역 전략을 창의적인 번역으로 보고, 그런 창의적인 번역 전략을 번역 실습을 통해 유도해 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마케팅 번역이나 K-드라마와 K-웹툰과 같은 문화콘텐츠 번역에서 번역사의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기존 텍스트 번역과 어떻게 다른지 번역 실습을 통해 그 차이점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즉 일반 번역과 창의 번역의 차이점을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고, 창의 번역을 시도해 보려면 학생 스스로가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 교수법 모델로 Bruner의 ‘발견 학습(discovery learning)’ 모델을 참고할 수 있었다.

Bruner의 발견 학습은 전통적인 설명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 가지 대안적인 수업 방식으로 주목을 받아왔다(박채형, 2004). 이때 ‘발견’은 학습자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혼자서 찾아낸다는 의미라기보다, 교과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수자의 적극적인 개입은 지양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수자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실에서 이러한 ‘열린’ 분위기는 창의성 교육에 필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 ‘교실에서의 사회적 분위기’외도 연결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수업 분위기가 학습 경험 설계에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변형전, 2019). 이를 번역 수업에도 적용해 본다면, 학생들이 과제로 번역을 해오고, 과제문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용어와 해석을 제공했던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습자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열린’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업 설계를 위해 브루너의 발견 학습의 절차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Bruner(1960)의 발견 학습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호기심에 의해 동기화된 탐색(exploration)을 하는 동안 발견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이라 주장하며,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학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때 학습자는 교과 영역 바깥에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스스로 다시 정리하고 변형하여 지식을 습득해 나가게 된다. Bruner(1960)의 발견 학습 절차는 ‘과제의 파악-가설의 착상-가설의 검증-적용, 발전’으로 이뤄진다.

본 연구의 관건은 이러한 발견 학습 모델을 창의 번역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다. 그러려면 기존의 번역 수업 방식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

다. 한영 번역 수업은 대부분 한국어 또는 영어 원문을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원문뿐만 아니라 번역문도 제시하고, 그 번역문에서 번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수정 번역’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시한 수정 번역에 대해 수업 시간에 논의를 하면서 각자의 수정 번역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설계했다. 이는 기존에 번역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교수자의 의견 제시 대신 학생들이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거쳐 번역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창의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어 창의적인 번역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학습 절차에 따른 발견 학습 모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창의 번역 수업을 위한 발견 학습 모형



연구의 다음 단계는 창의 번역 수업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발견 학습 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각각 학부 영어 번역 수업과 통번역 대학원 노어 번역 수업에서 발견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3.2. 연구 진행 방식

(1) 학부 영어 통번역전공 (30명)

영상과 웹툰 번역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해왔듯이 영상과 웹툰과 같은 문화콘텐츠 분야 번역가를 육성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상과 웹툰 번역은 기존 번역 수업에서 중심이 되었던 텍스트 번역과 비교했을 때 이미지를 고려하고 글자 수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영상 번역은 번역 수업 커리큘럼에서 일부 다뤄진 바 있으나 웹툰 번역은 아직까지는 비중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영상과 웹툰 번역과 같은 문화콘텐츠 번역 교육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 드라마와

네이버 웹툰 번역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번역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번역(translation) 교육'과 구별되는 '창의번역(transcreation)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번역 수업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와 네이버 웹툰 번역 실습을 발견 학습 모형에 따라 학습 절차를 수행했다. 교수자는 넷 플릭스 드라마와 네이버 웹툰 가운데 번역 이슈가 될 만한 번역 사례를 선정하여 원문과 함께 공식 번역문을 제시했다. 이때 번역 이슈는 교수자의 관점에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원문의 발화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경우 또는 한국과 영미권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 등 중심으로 번역 사례들을 선정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네이버 웹툰의 경우 <여신강림>에서 번역 사례를 수집했다. 두 작품 모두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만큼 번역의 품질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각각의 사례에 대한 수정 번역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수정 번역 과제의 경우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과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정 번역 과제 가이드라인

사례1~10까지 원문(ST)과 번역문(TT)을 비교 분석하여

- 1) <Comment> 란에 번역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해 주세요.
- 2) 만약 번역문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하고 싶다면 수정 번역을 제시해 보세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면 공란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과제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각각의 번역 사례에 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했다. 아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수정 번역 과제 사례들이다.

[그림2]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정 번역 과제 사례

<예시1>

제 5화 “우당탕탕 vs 권모술수”		
-재판이 끝난 뒤에 권민우 변호사와 우영우의 말다툼 장면 (18:30)		
ST	TT	수정번역
권민우: 무슨 우당탕탕 우영우도 아니고 우영우: 이 권모술수 권 민우가!	권민우: It's not like you're Wild Card Woo Young-woo. 우영우: You Tactician Kwon Min-woo!	

<예시2>

제9화 “피리부는 사나이”		
-우영우와 이준호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먹으며 공부하는 여자 아이에게 방구뽕씨에 대해 물어 보려 하자 아이가 시간이 없다면서 하는 대사 (32:55)		
ST	TT	수정번역
여자아이: 저 늦었어요. 스터디 카페 가야 되는데	I'm late. I <u>have to go</u> to the study café.	
COMMENT		

이러한 양식을 바탕으로 <수정 번역> 부분에 학생들이 대안 번역을 제시하고 <comment> 란에는 공식 번역문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번역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기술하도록 했다. 위의 <예시1>과 <예시2>에 대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수정 번역을 제시했다.

[그림3]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학생들의 수정 번역 사례

<예시1>에 대한 A학생의 수정 번역

ST	TT	수정번역
권민우: 무슨 <u>우당탕탕</u> 우영우도 아니고 우영우: 이 권모술수 권 민우가!	권민우: It's not like you're Wild Card Woo Young-woo. 우영우: You Tactician Kwon Min-woo!	권민우: It's not like you're Wild Card Woo Young-woo. 우영우: You Dirty-trickery Kwon Min-woo!

COMMENT

‘권모술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온갖 술책을 꾀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이다. 하지만 ‘Tactician’은 ‘책략가, 모사’ 등 권모술수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기 때문에, 원문에서 의도한 바를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ST에서는 ‘우당탕탕 우영우’, ‘권모술수 권민우’의 4글자-3글자 라임이 핵심으로 돋보인다. 그런데, TT에서는 ‘Wild Card’와 ‘Tactician’의 어절이 동일하지 않아, ST만큼 라임의 리듬감이 잘 살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모술수’가 내포한 부정적 의미를 더욱 살리고 ‘Wild Card’와 라임을 맞출 수 있도록, ‘Tactician’ 대신 ‘Dirty-trickery’로 수정 번역했다.

<예시2>에 대한 B학생의 수정 번역

ST	TT	수정번역
여자아이: 저 늦었어요. 스터디 카페 가야 되는데	I'm late. I <u>have to go</u> to the study café.	I'm late. I <u>have to go to</u> the reading room.

COMMENT

사례3 코멘트: Study café는 영어권 국가에는 없는 독특한 문화이다. 아이가 스터디 카페에 도착하고 그 공간이 드라마에 등장했다면 스터디 카페라고 이야기해도 외국인들이 이해하겠지만 대사로만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study와 café의 결합은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reading room 이라고 하는 것이 더 괜찮은 번역일 것 같다. 열람실, 독서실이라는 뜻이고 주로 일반주택 등 안에 흔히 서재처럼 존재하는 조그마한 공간을 말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찾았다.

A학생과 B학생의 수정 번역과 <Commnet>에 대한 설명에서 학생들이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번역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번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며, 대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특히 B학생의 경우 자료 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어휘를 습득해 나가며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교수자는 네이버 웹툰의 공식 영어 번역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각각 사례에서 번역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어디인지, 학생들이 수정 번역 과정에서 집중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림4] <여신강림> 수정 번역 과제 사례

3. <여신강림> 6회 남자주인공에게 만화책을 추천하는 장면



[그림4]에서 한국어 원문의 “똥!작!”은 공식 번역문에서 “masterpiece”로 번역되었다. “똥작”이 ‘명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는 'masterpiece'로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똥”은 ‘ㅁ+ㅌ’의 결합 대신 ‘ㅌ+ㅣ’ 결합을 통해 시각적으로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발음이 나는 언어 유희적 표현인데 영어 번역문은 그러한 유희적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번역이었다. 학생들은 “똥작”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MZ세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번역의 문제에 대해 교수자가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예시를 보고 번역 이슈를 ‘발견’ 했다.

다음으로 과제를 통해 예시와 관련된 번역 이슈를 논의한 뒤 ‘똥작’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대안 번역을 학생들에게 제시해보도록 했다. 이때 웹툰의 경우 말풍선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대안 번역을 제시할 때 말풍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글자수를 고려할 것을 강조했고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다음과 같이 과제 양식을 제시했다.

[그림 5] 웹툰 수정 번역 과제 양식

3. <여신강림> 6회 남자주인공에게 만화책을 추천하는 장면



과제 피드백 시간에는 여러 학생의 번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공식 번역보다 잘 된 번역이 어떤 번역인지 함께 논의해 보았다. 이를 위한 과제 Review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리고 피드백은 개개인의 번역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문장에 대한 전체 학생의 번역본을 함께 리뷰하면서 학우들의 수정 번역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보았다.

[표1] <여신강림> 학생들의 수정 번역 취합본

<Review2>	
1813	UH...AH..OH GOT IT! HAVE YOU READ THIS ONE? IT'S SATOMU'S DEBUT COMIC. A HOLY MASTERPIECE!
2077	Auh..ah.....did you see this? It's Satomu's debut comic. And It's <u>an</u> masterpiece.
1370	UH..AH..TH..THIS ONE! HAVE YOU SEEN THIS? IT'S SATOMU'S DEBUT COMIC. IT'S <u>rnasterpiece</u> .
1677	UH... AH... TH-THIS ONE! IT'S WRITER *SUTOMU'S DEBUT
1884	WELL.. H.. HAVE YOU WATCHED THIS BEFORE? IT IS THE DEBUT WORK OF SATOMU, FREAKING GREAT!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번역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번 끝자리 네 자리로 표시해서 전체 공유를 했다. 학우들의 번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1370” 학생의 번역이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답했다. 1370 학생의 경우 “masterpiece”에서 “m”을 “r+n → rn”으로 표기해 “rnasterpiece”라는 번역을 제시했는데 이는 시각적으로 “m”과 유사해 보이지만 “r”과 “n”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땡작”과 유사한 언어 유희적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웹툰 번역의 공식 번역에 대한 수정 번역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웹툰의 언어적 특성이기도 한 신조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번역 이슈를 스스로 발견하고, 대안 번역을 창의적으로 모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6명)

트랜스크리에이션은 ‘번역’(translation)과 ‘창조’(creation)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혼성어(Gaballo, 2012; Pedersen, 2016; Malenova, 2017)로서, 이 두 가지 의미 요소를

개념의 주요 근간으로 한다(선영화, 2021).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떤 텍스트에 대하여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수행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노-한 미디어 번역 수업을 진행하면서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특징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짧은 문장으로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설명 번역을 진행하였다.

박주식(2012)은 ‘쇼핑몰의 의인화 전략’을 연구한 논문에서 의인화 전략은 비대면 상호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감과 인간적 친밀함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이 아이’나 ‘요 아이’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실물을 볼 수 없는 구매자들이 상품과 쇼핑몰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어 이러한 의인화 전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인터넷 쇼핑몰들은 CAT 툴이나 여러 번역기를 활용하여 판매자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즉 온라인쇼핑몰들은 AI 번역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언어로 제품 설명 페이지를 만들고 서비스 하고 있다. 따라서 원문으로 잘 작성된 제품설명이라 할지라도 AI 번역기를 통해 생산된 번역 결과물들은 구매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텍스트 유형은 창의적 재번역, 즉 트랜스크리에이션이 요구되는(이상빈, 2016) 텍스트이다. 한승희(2017)는 ‘텍스트 유형에 해당하는 광고문을 대상으로 번역모드별로 결과물의 언어적 변이를 비교·분석한다면 기계와 구별되는 인간의 언어 수행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가 기계번역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연구를 위해 쇼핑몰의 제품 설명 번역텍스트를 검토한 결과 AI번역기를 이용한 텍스트들에 더 많은 수정작업과 트랜스크리에이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트랜스크리에이션 실습을 위해 학습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의 한국어와 러시아어 제품 설명을 분석하여 제품의 판매 목적을 고려하여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실시하였다. 학습자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노과에 재학중인 노한미디어번역 수강자 6명이며, 각각 5개의 제품설명에 대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문 수집은 러시아어권(러시아, CIS) 판매자가 알리바바 사이트에 업로드한 상품으로 선별하여 제품설명을 트랜스크리에이션하는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총 30개 상품의 제품 설명 번역을 진행하였다.

6명의 학습자가 참여한 트랜스크리에이션 실습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 (1) 트랜스크리에이션에 대한 개념 설명
- (2) 트랜스크리에이션 과제 제시 및 설명
- (3) 연구활동동의서 서명
- (4) 트랜스크리에이션 수행 결과물 취합 및 공동검토

(5) 설문지 제공

6명의 학습자는 러시아어권 판매자가 알리바바 사이트에 업로드한 제품의 러시아어본과 한국어본을 각각 5개씩 선별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검토한 뒤 제품 목적에 맞게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실시하였다. 트랜스크리에이션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2] 트랜스크리에이션 실습과정

단계	트랜스크리에이션 수행방식
1	알리바바 러시아어/한국어 사이트 제품검색
2	알리바바 러시아어 서비스 페이지에서 러시아어권 판매자가 업로드한 제품 5개 선별 후 동일상품을 한국어 서비스페이지에서 검색
3	한국어 제품설명 검토 후 제품의 용도/목적에 맞게 트랜스크리에이션 수행

6명의 학습자는 상기 표2의 사항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수행 예시는 [표3]에 명시되어 있다.

[표3] 쇼핑몰 제품설명 트랜스크리에이션 과제 예시

Комплект Свободной одежды из 2 предметов, Женская одежда из мягкого хлопка, летняя повседневная одежда, Женский комплект оптом

>= 400 шт.

15,00 \$

Размер

XS

S

M

L

XL

2 XL

Цвет

Время
выполнения
заказа ⓘ

Quantity (шт.)

1 - 10000

> 10000

Примерное время (в днях)

30

Подлежит согласованию

러시아어 제품설명: Комплект Свободной одежды из 2 предметов, Женская одежда из мягкого хлопка, летняя повседневная одежда, Женский комплект оптом

한국어 제품설명: 2 개 세트 느슨한 옷 여성 의류 부드러운 코튼 여름 캐주얼 착용 의류 여성 세트 대량

트랜스크리에이션: 품이 여유롭게 빠진 투피스를 소개해요. 부드러운 면사로 편직한 여름 데일리 의류랍니다. 대량 구매도 가능해요

다음은 학습자들이 수행한 트랜스크리에이션 과제의 결과물의 일부이다.

[표4] 과제 결과물 1

원문	 Лидер продаж, милый мягкий игрушечный кактус, танцующий электронный кактус, плюшевые игрушки
한국어	뜨거운 판매 댄서 선인장 귀여운 부드러운 박제 장난감 전자 흔들어 춤 선인장 플러시 장난감
트랜스크리에이션	판매시장 선점 인싸템 귀엽고 부드러운 선인장 장난감 춤추는 선인장, 보들보들 선인장 인형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번역본은 기계번역임을 알 수 있다. ‘плюшевый’의 뜻은 벨벳과 비슷한 부드러운 보풀이 있는 옷감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plush’로 번역된다.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이를 음차하여 ‘플러시’로 번역되었다. 학습자는 제품의 사진을 참고하여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수행하였고, 옷감의 이름이 아니라 옷감의 특성을 살려 ‘보들보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Лидер продаж’의 한국어 번역은 ‘뜨거운 판매’로 되어 있는데, 이는 판매를 선도한다던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인싸템’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질문해 보니, 이 제품이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위해 제품을 고르는 어른들이며, 최근에는 스스로를 위해 장난감을 구매하는 어른들도 많다고 하였다. 이는 러시아어 원문의 단어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한국어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대상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5] 과제 결과물 2

원문	Наши цели: расширение рынков сбыта, так как мы постоянно ищем дистрибуторов и запуск при изготовлении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линий. Мы будем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з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сможем договориться как настоящие друзья.
한국어	우리의 목표: 판매 시장의 확장,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통 업체를 찾고, 새로운 제품 라인의 제조 출시. 우리는 협력을 감사하고 진정한 친구로 합의에 올 수 있습니다.
트랜스크리에이션	판로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유통 업체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새로운 생산 라인 구축입니다. 모든 협력사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협력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표5]는 학습자가 업체의 회사소개 부분을 번역한 것으로 ‘сможем договориться как настоящие друзья’ 진정한 친구라는 표현을 살리지 않고, 한국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협력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자국어 번역의 사례로 볼 수도 있으나, 트랜스크리에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인 회사소개의 내용 뿐 아니라 틀 전체를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6] 과제 결과물 3

원문	То, что это лучший способ, что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автрак, обед, ужин, есть какая-то закуски, чаепития-и вы добавляете торт к пище в конце приема пищи.
한국어	그것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어떤 종류의 간식, 차 마시는-그리고 당신은 식사 끝에 음식에 케이크를 추가합니다.
트랜스크리에이션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간식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함께 드세요.

[표6]은 시베리아 견과류의 상품설명이다. 한국어 기계번역은 원문의 내용을 직역하고

있다. 한국어 기계번역본은 상품설명으로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무리는 없다. 그러나 학습자가 번역한 ‘이렇게 드셔보세요!’의 경우 SNS 상품광고에서 사진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상품 설명 방법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기의 예시 외에도 학습자들은 제품의 용도와 텍스트에 목적에 맞춰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상큼한 맛이 은은하게 퍼지는’이나, ‘~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끝맛이 깔끔합니다’라는 표현 등은 원문에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에 따라 학습자들이 표현을 만들어 내었다. 학습자들에게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했는지 질문한 결과 먼저 러시아어 원문의 뜻을 파악하고 직역 또는 의역을 한 뒤 전체적으로 제품의 용도와 텍스트 목적에 맞게 수정번역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한국어 기계번역본을 참고하였으나 번역을 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어 원문에서 번역을 했다고 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K-드라마, K-웹툰, K-뷰티와 같이 한류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현지화(localization)를 위해 영상, 웹툰, 광고 번역의 특성을 고려한 번역 수업의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유형의 텍스트 번역에서는 글자수의 제약과 이미지를 고려하고, 현지화를 위해 각국의 문화적/언어적 차이를 고려해 원문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번역사의 창의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번역 수업과 차별화되는 번역과 창의성이 결합된 트랜스크리에이션, 즉 창의 번역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Bruner의 발견 학습 이론을 토대로 번역의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한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이러한 수업 방식을 적용해 보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학부생과 통번역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학부 영어 통번역전공

창의 번역에 중점을 둔 수업 방식에 대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설문 조사 문항

1. 과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 과제 중에서 번역가의 창의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표7] 문항 1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답변
A학생	여신강림 웹툰 번역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웹툰 그림 상의 말풍선 안에 압축적으로 문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과정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줄임말이나 은어를 외국 독자들이 잘 받아들이 수 있도록 번역하는 과정 역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B학생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미디어를 위주로 직접 번역 실습을 해 본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웹툰 번역 실습이 재밌었습니다.
C학생	웹툰과 드라마/OTT 번역 했을 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게임 번역 위주로 할 생각인데 나중에도 기회가 된다면 웹툰이나 OTT 콘텐츠 번역도 해 볼 상각이어서 번역하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표8] 문항 2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답변
A학생	웹툰 번역,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용어나 유행어 등을 잘 적용해야 원문의 느낌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번역가의 창의성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 것 같다.
B학생	웹툰 분야가 번역가의 창의성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원작을 읽고 특정 감정을 느낀 부분을, 외국 독자 역시 번역된 작품을 보고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감정을 살리는 일에 번역가의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특성상 줄임말이나 은어, 유행어 등이 많은 웹툰 속 문장이나 단어를 적절히 번역하는 데에 창의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C학생	번역가의 창의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은 여신강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종 신조어는 물론, 줄임말, ㅇㅇ, ㄴㅇ와 같은 초성, 오빠, 누나와 같은 한국식 호칭 등이 많이 나와 지역으로도 어렵고, 도착어의 문화적 부분을 잘 몰라 의역으로도 어려웠던 과제 같습니다.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OTT 영상을 활용한 번역 과제와 웹툰 번역 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번역가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웹툰 번역을 꼽았는데, 번역 실습을 통해 알게 된 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6명)

학기 말에 진행하는 설문조사의 항목 중 트랜스크리에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항목은 다음의 세 항목이다.

1. 번역가의 창의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던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2. 직접 번역하는 것과 수정 번역 중에 어떤 것이 번역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3. 어떤 요소가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①독자/시청자 평가, ②출발어 이해력, ③도착어 표현, ④기타())

노-한 미디어 번역 수업에서는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자막, 인터뷰, 유튜브 영상, 포럼 연설 등의 번역을 수행하였다. 설문 1의 내용은 번역가의 창의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던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학습자들은 영화 번역과 쇼핑물 번역을 선택하였다.

[표9] 설문 조사 결과 1

영화 번역(4명)	영상 번역의 경우 단순 대사만 번역뿐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주제, 연출 의도, 작가의 인생관을 해석하여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으로 축소번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어 해석을 넘어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인쇄물 번역과 달리 화면, 음악, 연기, 어투, 호흡 등 화면과 일치하는 번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영화 번역이었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 것도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을 한국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과정보다 많았고, 비꼬는 장면이 나왔을 경우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배우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필요했고.... 한국어로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경우에 한국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찾아서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창의성을 많이 필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1:1 대응 번역을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감탄사나..... 관용구 등은 표현이 언어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창의적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되 같은 임팩트를 전할 수

쇼핑몰 번역 (2명)	있는 표현을 써야했다. 따라서 영화번역이 창의성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영화 자막번역이었습니다. 이해가 힘들었던 부분은 제 상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쇼핑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뜻과 맥락이지만 어떻게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 고객의 호감과 관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쇼핑몰 번역입니다. 구미가 확 당기게 번역을 하려다 보니 표현을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설문 1의 결과 학습자들은 영화번역에 번역가의 창의성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는 번역문이 작품의 내용 뿐 아니라 분위기까지 나타내야 하고 배우의 캐릭터와 말투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사가 가진 뉘앙스와 자국화가 어려운 내용의 경우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 번역을 선택한 학습자들의 경우 광고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고객의 호감과 관심을 얻고 이목을 끌고 흥미를 이끌어 내도록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쇼핑몰 번역에 창의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설문 2의 내용은 직접 번역과 수정 번역 중 번역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4명의 학습자들은 수정번역을 선택하였고 2명의 학습자들은 직접번역을 선택하였다.

[표10] 설문 조사 결과 2

수정번역(4명)	기계 번역 결과물을 수정 번역함으로써 번역 텍스트의 질적 향상과 번역 시간 단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번역 능력 향상에 수정 번역이 조금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기계 번역을 통한 번역이지만, 크리틱을 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재확인하고 창의력을 이용하여 번역해야해서 개인적으로 재미있고, 번역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능력 향상에는 수정번역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역량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리 기계 번역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분명 각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표현과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알리바바 쇼핑몰 사이트를 번역하면서, 그냥 번역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번역해야 좋을지 굉장히 고민되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수정번역은 시간도 절약되고 오히려 초벌 번역을 토대로 더 좋은 표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표현도 배워가면서, 더 나은 표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수정번역이 번역 역량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번역하는 것보다 수정 번역하는 것이 번역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바바 쇼핑몰 사이트의 상품설명의 경우, 사실 쇼핑몰 사이트 번역의 질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번역본을 크리틱하면서 하는 수정 번역이 일단 직접 번역보다 쉬웠고, 내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해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질 낮은 번역본이지만 간혹 참신하고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직접번역(2명)	알리바바 쇼핑몰 사이트 수정번역은 두 언어 모두 엉망이었기 때문에 직접 번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출발어가 비문이 아닌 완전한 문장이라면 수정번역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본인은 구글 번역기를 써서 포스트에디팅형식으로 번역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니 번역이 쉬웠다. 수정번역이 확실히 번역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에는 확실히 직접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직접 번역을 해보고 구글 번역을 돌려 문장 구조를 비교해서 수정한다면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번역이 더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때 했던 과제의 경우 원문 자체가 이상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도착어 표현이 생각 안나는 경우 원문이 가지는 표현에서만 머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정번역을 선택한 학습자들은 번역문을 크리틱 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를 체험했다. 원문의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도착어 표현에 대한 고민을 할 경우가 많은데, 이미 번역본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번역본에 있는 어휘나 표현보다 더 나은 표현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번역 결과문 측면에서는 최종 번역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학습자에게는 더 나은 표현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번역 역량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3은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객관식 문항(①독자/시청자 평가, ②출발어 이해력, ③도착어 표현, ④기타(텍스트 분석, 맥락 및 상황 이해)을 제시하고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부학습자들은 답변에 대한 부연설명도 기술하였다.

[표11] 설문 조사 결과 3

1	③도착어 표현
2	③-①-②) 제가 문학 번역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출발어를 이해해도 도착어가

	악하니 독자의 평가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어 이해력이 부족해도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 이해력을 메꿔서재미있고 적절하게 표현하면 독자의 평가가 우수한 경험이 있어서 위의 순서로 생각합니다.
3	3가지 모두다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출발어 이해력(②) à 도착어 표현(③) 독자/시청자 평가(①)’순으로 중요도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번역이든 출발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나 표현의 의도를 잘 알아야 그에 맞춰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적절한 도착어 표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독자와 시청자의 평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4	③도착어 표현
5	도착어 표현 - 독자/시청자 평가
6	출발어 이해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도착어 표현, 독자/시청자 평가 순입니다. 출발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도착어 독자나 시청자가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오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습자들은 트랜스크리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도착어 표현(4명)과 출발어 이해력(2명)을 선택하였다. 도착어 표현과 출발어 이해력을 선택한 이유는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해야 제대로 된 도착어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 두 가지 항목에 역점을 둔 이유는 독자와 시청자 평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최근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흥행 배경에는 스타 번역가가 있고, 그들이 가장 잘 하는 것이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상시의 설문 문항은 수업 진행중에 이루어진 질의 응답을 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평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독자/시청자 평가’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다르게 학습자들은 다른 항목을 선택했다. 이는 통번역대학원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번역대학원에서의 중요한 평가 기준은 ‘정확성/충실성’이기 때문에 트랜스크리에이션에 대한 평가기준을 질문해도 원문을 제대로 이해해서 최대한 표현해 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4.2. 활용방안

최근 다양한 플랫폼의 출현과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덕분에 번역의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번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번역 인력 수요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번역을 접할 수 있는 교육, 특히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사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창의번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모임의 구성원은 창의 번역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를 각각 영어와 러시아의 언어적 특성을 고

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번역 실력을 균형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수업의 과제를 분석하고 학습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창의번역의 기대효과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기존의 번역 수업에서 잘 접하지 못했던 텍스트 번역이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언급했던 발견 학습 모델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번역은 향후 다른 언어의 번역 수업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본 연구모임은 학부생과 통번역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을 때 두 과정에서 원문을 1차적으로 번역하기보다 공식 번역문을 접하고, 2차적인 수정 단계를 통해 번역에 대한 생각을 다듬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번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업 모형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제 수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번역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는 Bruner의 발견 학습에서 강조했던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고 적용해 나가는 학습 과정이 학생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열어두는 열린 수업 분위기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더 정교하게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전통적인 번역 수업 방식과 다른 번역의 창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려면 번역 수업의 커리큘럼에서 정치, 법률, 시사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번역 수업 외에 학생들의 창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 번역’ 수업을 별도로 개설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박주식 (2012) 온라인 쇼핑몰의 의인화 전략 - 사회적 실재감을 중심으로 -, 경영과 정보연구, 31:2, 143-172.
- 변현정 (2019)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팀 기반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경험 설계원리 개발. 창의력교육연구, 19(1), 89-122.
- 선영화 (2021) 학부 번역교육의 맥락에서 바라본 트랜스크리에이션의 개념적 유용성 연구 - 광고번역 결과물의 텍스트 내적·외적 분석을 통한 실증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25:1, 73-118.
- 이상빈 (2016). 트랜스크리에이션, 기계번역, 번역교육의 미래. 통역과 번역. 18(2), 129-152.
- 한승희 (2017) 기계번역·인간번역·트랜스크리에이션의 문체 비교 : 광고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2, 163-188.

「‘하프 플립러닝(Half-Flipped Learning)’을 적용 중국어 교과 수업 설계」

최향란 교원, 고은미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었다. 다가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로 당겨진 온라인 수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때, ‘플립러닝’을 활용한 수업 모델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주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중국어 교과 수업 설계

목적: ‘플립러닝’은 구성주의 기반의 오프라인 융합 교수-학습 방법으로, 등장 이후 디지털 시대 교육의 대안으로 떠올라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 다양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거꾸로 교실’로 번역되어, 수업 시간 교수자의 강의를 수업 전 동영상으로 대체되며, 수업 시에는 심화학습, 토론 학습 등 창조적 학습을 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플립러닝’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동영상 제작, 온라인 전략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었으나, 이는 현재 많이 해소되었다.

이제는 온라인 활용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설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플립러닝은 오프라인 설계에 있어서 기존의 연습 문제 풀이가 아닌 다른 창조적 과제, 고차원의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자들의 진일보한 연구가 요구된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학생들의 기초 어학 실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기존의 어학 수업은 텍스트 독해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다.

이에 본 교수법 모임은 기존 수업 모델에서 탈피하여, 어학 실력의 획기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과제 개발을 중심으로 한 플립러닝 중국어 교과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교수법 모임은 당초의 계획하였던 오프라인 과제 개발 중심의 플립러닝 교과 수업 모델 개발에서, ‘하프 플립러닝’의 개념을 도입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 설계로 주제를 변경하였다.

3. 연구 진행 내용

3.1. 서론

본고는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하프-플립러닝 수업(Half-Flipped Learning)’을 설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방법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 플립러닝 방식을 중국어 수업에 도입하는 연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 설계한 ‘하프-플립러닝 수업’은 기존의 플립러닝 수업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에서 ‘플립’은 영어 ‘flipped’의 음역어로 ‘뒤집다’라는 의미이다. 즉, 플립러닝은 ‘inverted learning’ 또는 ‘backwards classroom’으로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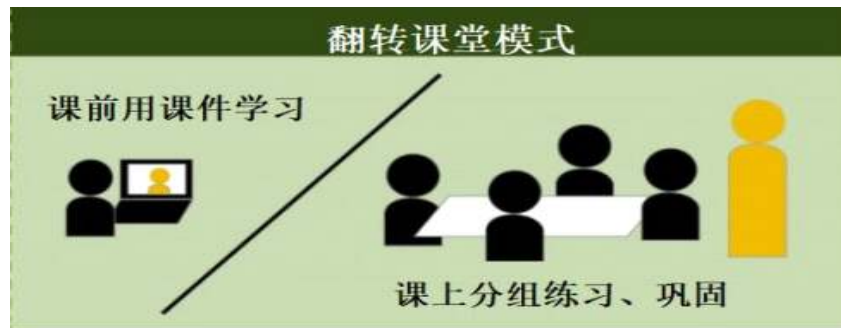
기존의 수업 방식은 ‘수업 중 교수’→‘수업 후 복습’ 방식을 사용하는데, 플립러닝은 해당 과정을 거꾸로 진행한다. 즉, 수업 전에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자료로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고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이다. 이 수업 모델은 학생을 주체로 하여, 학생들이 교실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자극하고, 수업 분위기를 개선하며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플립러닝 수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교재 선정에 있어 중국어 교수자들은 여전히 출판된 교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내용이 지루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둘째, 수업 전 단계에서 중국어 교수자들이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학생들에게 시청하게끔 하는데, 동영상 형식의 강의 파일은 화면을 클릭할 수 없기에 학생들의 능동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발음 연습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하다. 셋째, 기존의 플립러닝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 전에 학습을 완료하고, 수업 중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연습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특정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기존 플립러닝 수업은 현재의 대학 교육 체제에 적합하지 않다.

플립러닝 수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脱口秀大会S4’를 교재로 채택하여 ‘e-book’으로 제작했다. 토크쇼의 내용이 유머러스하며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새로운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적 흥미를 유발한다. 둘째, 본고는 교재를 만들 때, Wakelet, Sutori, Hihaho 등 웹 기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든 단어와 문장을 클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태블릿, 스마트폰의 동기화되어, 수업 중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플립러닝 수업의 ‘수업 전 부분’을 ‘수업 시간’에 배치하여 이를 중국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하프-플립러닝 수업’ 모델을 설계할 것이다.

2. 하프-플립러닝 수업의 개념

플립러닝 수업의 기본모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플립러닝 수업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플립러닝 수업에서는 수업 전에 교수자가 미리 녹화한 동영상이나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수업 중에는 미리 학습한 내용을 조별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더 잘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용 연습을 한다. 이 때 교수자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의 역할만 한다.

2.1 하프-플립러닝수업 모형

하프-플립러닝 수업의 기본모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하프-플립러닝 수업

<그림2>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프-플립러닝’에서, 교수자는 중국어 자막이 있는 동영상 강의를 틀어주고, 우선 듣기와 독해를 연습시킨다. 그 다음은, 학생이 휴대한 컴퓨터나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교수자가 제공한 e북 링크로 들어가서, 새 단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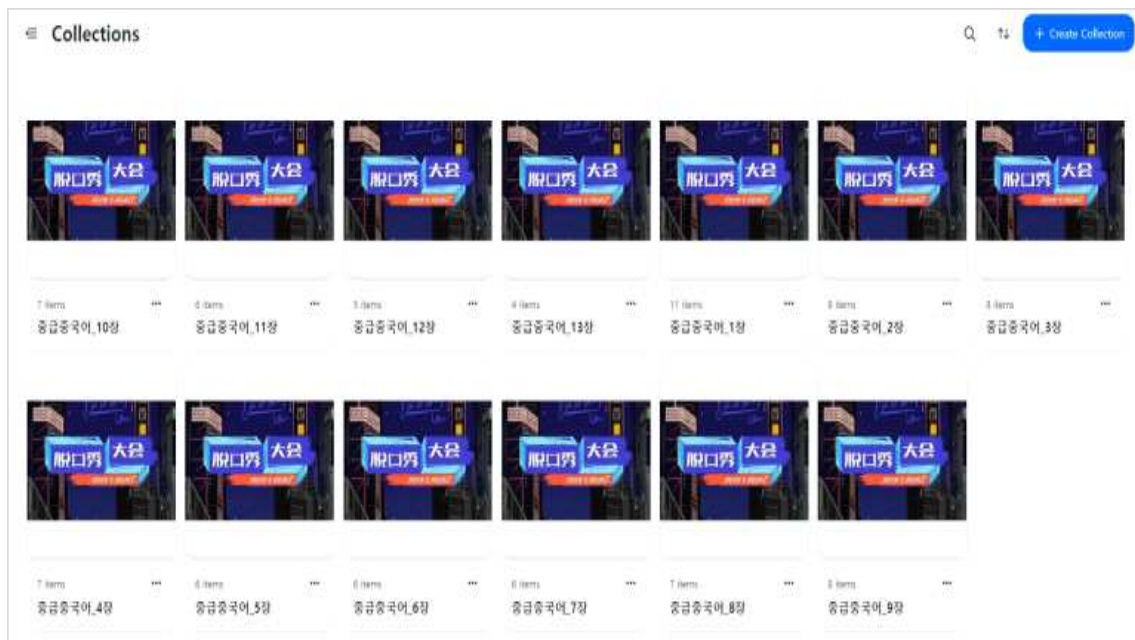
본문을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발음 교정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면 적절하게 지도를 할 수 있다. 다음 절차로, 교수자는 해당 수업에 관련된 문법 포인트와 배경 문화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조별 토론을 진행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2.2 하프-플립러닝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sutori’, ‘wakelet’, ‘edpuzzle’, ‘hihaho’등이 있다.

① Wakelet¹⁾

Wakelet은 학생들을 위한 리소스 및 정보 모음을 구성하고 선별할 수 있는 무료 가상 학습 도구이다. 원격 학습을 위한 수업을 만들기 위한 완벽한 도구라 할 수 있다. Wakelet에서는 동영상, 웹 사이트, 텍스트, 이미지, PDF 파일, 영상 직접 촬영, Google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리소스 등이 포함된 컬렉션을 생성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 wakelet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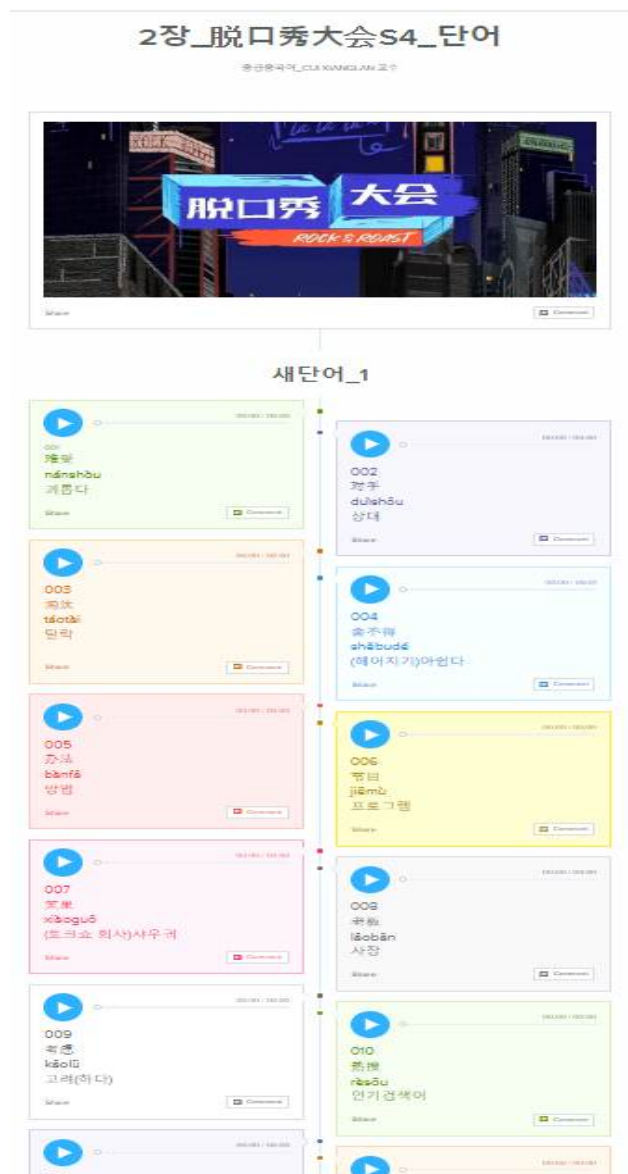
<그림 3>과 같이 한 학기를 15주라고 가정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남은

1) Wakelet의 조작 방법은 박정원 (2022:34~51) 참고.

13주간의 수업을 Wakellet 컬렉션 13개(Collections)로 정리하고, 매주 수업 일주일 전에 다음 수업의 컬렉션 링크를 학생들에게 공유하여 다음 수업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방과 후 복습에도 활용될 수 있다.

② Sutori

Sutori는 데스크탑에 설치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타임라인을 생성하고 즉시 서비스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Sutori는 텍스트와 이미지는 물론 사운드, Youtube 영상, 링크, 상호작용(퀴즈), 코멘트, 공유(Embed), 파일 등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4> 단어 오디오북

오디오북 脱口秀大会S4

문장들 위에, 글자마다 발음표와 음운표가 표시되어 있다



본 오디오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방송된 脱口秀大会S4의 모든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脱口秀大会S4—杨波1



2장

001 脱口秀 의정하세요	002 我太难受了(我太难受了) wǒ tài nánshou wǒ tài nánshou wǒ tài nánshou 너무 괴롭네요 너무 괴롭네요
003 脱口秀 의정하세요	004 脱口秀 의정하세요
005 脱口秀 의정하세요	006 脱口秀 의정하세요
007 脱口秀 의정하세요	008 脱口秀 의정하세요
009 脱口秀 의정하세요	010 脱口秀 의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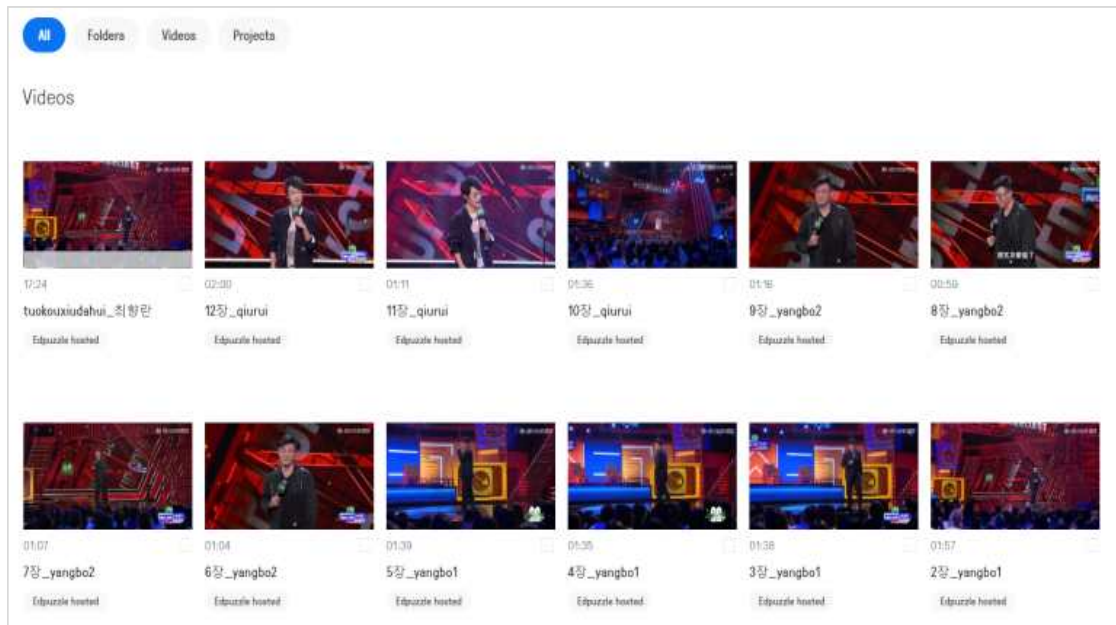
<그림 4> 본문 오디오북

<그림 4>와 같이 sutori를 이용하여 타임라인 기반 단어 오디오북(audio book)을 제작

하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으로 듣기와 발음을 연습할 수 있다.²⁾ 본고에서는 sutori의 공유 링크를 사용하여 제작된 오디오북을 해당 wakelet 페이지에 각각 삽입하여 수업 시연 및 수업 전 및 방과 후 연습을 한다.

③ Edpuzzle

Edpuzzle 영상 기반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도구이다.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 파일을 쉽게 업로드할 수 있고, 학생이 접속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수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비디오 소프트웨어인 YOUTUBE는 일부 저작권 제한으로 임의로 편집해서 업로드할 수 없지만, Edpuzzle은 그런 제한이 없다.



<그림 5> edpuzzle 예시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주로 Edpuzzle의 비디오 수집 기능을 사용하여 챕터별로 클립된 코스웨어 비디오를 Edpuzzle로 전송하고, Edpuzzle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wakelet 페이지에 삽입하여 수업 초기에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다.

④ Hihaho

Hihaho는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즉시 만들 수 있는 쉬운 'Do-It-Yourself' 도구이다.³⁾

2) sutori의 오디오북 제작 방법은 박정원(2022 : 6~31)

3) Hihaho의 조작 방법은 박정원(2022 : 54~79)

Hihaho는 오버레이를 추가하여 비디오를 대화식으로 생성할 수 있다. 대화형 장을 추가하거나, 대화형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에 연결하여 영상을 시각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Hihaho 기능 화면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haho는 카탈로그, 팝업 메뉴, 일시 정지 화면, 점프, 텍스트, 이미지, 소리, 스크롤 텍스트, 하이라이트, 등급, 링크 비디오 또는 양식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그림 7> 일시 정지 후 질문



<그림 8> 선택문제 예시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 정지 화면’ 기능을 사용하여 관련 질문을 삽입하여, 교수자가 문장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림 8>와 같이 ‘문제’ 기능을 사용하여 연습 및 복습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동영상에 핫스팟, 하이라이트 및 디지털 줌 효과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이미지의 특정 부분으로 끌어서 설명 또는 링크를 열 수 있다. 또는 동영상에 클릭이 가능한 투명 필드를 설정하고 텍스트와 오디오를 스크롤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2.3 하프-플립러닝 수업 설계

본고에서는 교재를 주차 별로 다음 그림과 같이 wakelet 컬렉션으로 정리하고, 학생들이 예습과 연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공유한다.



<그림 9> wakelet 컬렉션 제3장

<그림 9>와 같이 각 컬렉션 아래에는 ‘복습’, ‘동영상’, ‘배경 문화’ 등 6개 항목을 나열하다. 복습과 핵심정리 항목은 Hihaho를, 동영상은 edpuzzle를, 새 단어와 본문은 sutori를 사용한다. 배경 문화는 wakelet에 바니두 링크나 영상 링크를 바로 삽입해서 연결한다. 수업 시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앞에 위치한 4개 항목은 1교시에 진행하고, 마지막 3개는 2교시에서 진행한다.

본 수업 설계는 한 학기에 13주 과정으로 구성되며, 주당 두 시간 1교시와 2교시 각 50분씩 소요된다.

2.3.1 1교시 수업 설계

第一课时安排



<그림 10> 1교시 수업 설계

<그림 10>과 같이 1교시 수업은 주로 새로운 단어와 본문의 발음 부분을 연습하는데, 이는 기존 플립러닝 수업의 수업 전 과정에 속한다. 우선 교수자는 학생들이 지난주 수업에서 토론할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한다. 다음 절차는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동영상을 보여주며 학습 개요를 설명한다. 그 다음은 학생들 각자가 새로운 단어와 본문을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교수자가 학생의 발음을 평가하고 발음을 교정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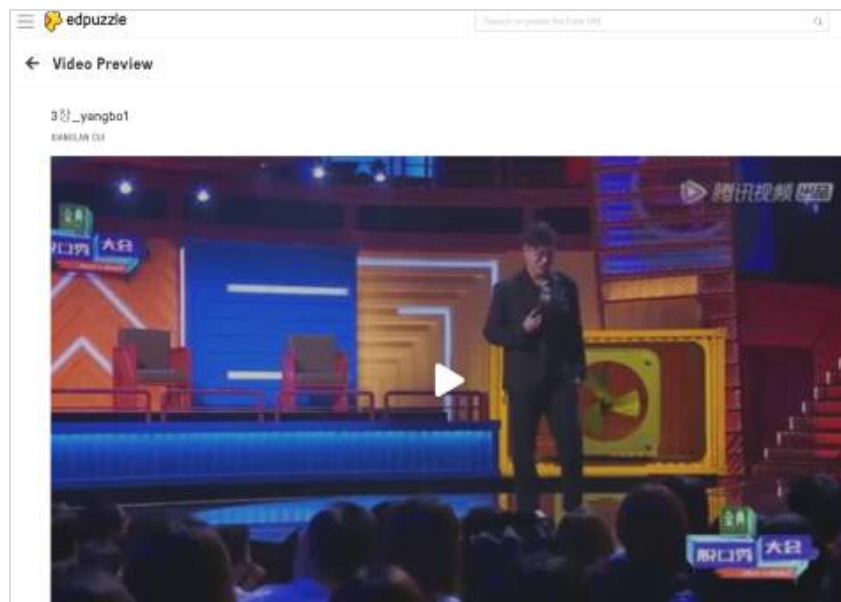
우선, 지난주 수업의 말하기 토론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그런 다음 ‘복습’ 항목을 열어 지난주 수업 내용을 복습한다.



2장_yangbo1.mp4

<그림 11> '복습'항목 예시

이어서 '동영상' 항목을 열고, 본 수업의 동영상을 재생하여 수업을 시작한다.



<그림 12> '동영상' 항목 예시

다음으로는 '새 단어'와 '본문'을 열고, 이 장의 새 단어와 본문을 배우고 발음을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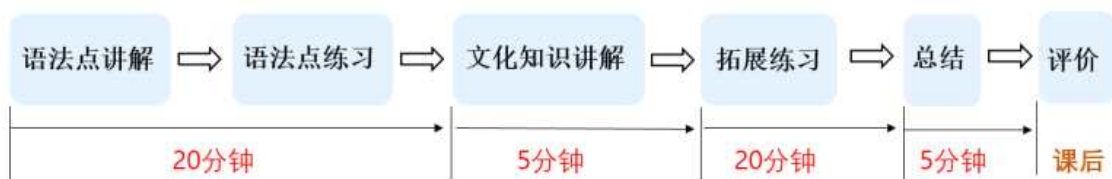


<그림 13> '새단어' 예시

<그림 14> '본문' 예시

2.3.2 2교시 수업 설계

第二课时安排



<그림 15> 2교시

<그림15>과 같이 2교시 수업은 주로 기존 플립러닝 수업의 토론과 연습을 수행하는 교실 수업 부분에 속한다. 우선 교수자가 문법 포인트를 설명하고, 학생들은 연습문제를 통해 충분히 연습한다. 다음 절차는 해당 수업에 관련된 역사 지식과 사회문화를 소개한다. 그 다음은 해당 수업에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그룹별로 토론을 진행하여 배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교수자는 2교시가 끝나면 학생들이 그룹별로 토론한 뒤 업로드한 오디오를 평가하고 오류의

원인을 분석해 다음 수업 1교시에서 설명한다.

우선, '핵심정리'를 열고 본 수업에서는 강조해야 할 문법 포인트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16> 문법 설명



<그림 16>문법 연습

이어서 '배경 문화' 항목을 클릭하여 문화 지식을 설명한다.



<그림 17> 홈페이지
삽입



<그림 18> 동영상 삽입

마지막으로 교수자가 수업 내용과 관련된 토론주제를 부여하고, 4~5명의 학생이 한 팀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 20분 동안 토론한다.



<그림 19> 그룹별 토론 예시

2교시가 끝나면 교수자는 업로드된 그룹 토론 오디오를 평가한다. 토론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오류와 어휘 사용 오류 등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설명해주고, 오류를 줄이도록 한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본 교수법 모임의 연구 결과인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이북 제작은 중국어 교과

수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 내용은 교내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었다. (최향란 저, 基于多媒体软件的“半”翻转课堂教学设计——以对外汉语教育为中心, 중국연구 2022.12.30)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본 모임은 플립러닝 수업을 개선을 목적으로, 중국어 교과 수업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플립러닝으로 적합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해당 수업 모델은 교재 선택, 교과 자료의 배열 및 수업 시간 설계의 차별화를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중국어 사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 참고문헌

- 박유진(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중국 문화>의 플립 러닝 수업 지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원(2022), 『큐레이션 플랫폼』, 서울: 아우라, (ebook)
- 임가나·나경희(2017), 「Flipped Learning 기법의 활용이 대학생의 영어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언어학 연구』, 44
- 이유화(2020), 「플립트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 대한 수준별 학습자들의 인식, 만족도, 영어독해 및 영어말하기 성취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9호
- 장상군(2018), 「플립트 러닝을 활용한 성인 중국어회화 학습이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상군·정선영(2021), 「플립트 러닝을 활용한 성인 중국어회화 학습이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教育論叢, 38
- 曹馨月(2022), 「基于翻转课堂的初级汉语综合课线上教学设计」, 安阳师范学院, 硕士学位论文
- 陈春艳(2021), 「“翻转课堂”教学模式在对外汉语初级综合教学中的应用」, 『山西青年』, 第2期
- 冯宪超 (2016), 「以学生 为本的“ 半反转课堂”教学在高等教育中的应用」, 『教胃教学论坛』, 第3期
- 高亦琦(2022), 「基于翻转课堂模式的对外汉语高级口语课线上教学设计」, 哈尔滨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和晓敏(2022), 「翻转课堂在线上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 上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黄坤 (2018), 「半翻转课堂教学模式在大学英语听说课教学中的实证性研究」, 『理论观察』, 第6期



- 梁新彧(2022), 「“翻转课堂”教学模式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研究」, 『中国民族博览』
- 廖慧娟(2022), 「翻转课堂教学模式在线上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研究」, 广西大学, 硕士学位论文
- 蒙小凤·张茜雯(2021), 「基于SPOC的汉语国际教育核心课程翻转课堂教学探索与实践」, 『中国多媒体与网络教学学报(上旬刊)』, 第2期
- 谭莹莹(2022), 「翻转课堂应用于对外汉语口语教学的SWOT分析」, 『现代商贸工业』
- 薛瑛(2021), 「翻转课堂模式在对外汉语中级综合课程教学中的应用探究」, 『食品研究与开发』, 第3期
- 杨晶(2022), 「基于翻转课堂的对外汉语闭环式多媒体线上教学刍议」, 『汉字文化』
- 杨九民·邵明杰·黄磊(2013), 「基于微视频资源的翻转课堂在实验教学中的应用研究——以“现代教育技术”实验课程为例」, 『现代教育技术』, 第23期
- 闫健楠(2022), 「翻转课堂在对外汉语教学中的教育理论与实践」, 『山西青年』
- 游雪芹(2022), 「基于支架式教学法的线上对外汉语初级口语课教学设计-以《酒店入住》为例」, 吉林外国语大学, 硕士论文.
- 袁平(2018), 「基于PBL教学法的하프-플립러닝的教学研究」, 『科技教育』, 第24期
- 王霜霜·柴闫(2021), 「基于“翻转课堂”的泰国高校汉语教学设计——以《苹果一斤多少钱》为例」, 『汉字文化』
- 王洪晓(2022), 「基于翻转课堂的中级汉语综合课《代沟》线上教学设计」, 安阳师范学院, 硕士学位论文
- 吴燕芳·张海涛(2021), 「基于微信的翻转课堂模式在国际汉语综合课的应用探析」, 『中国市场』, 第2期
- 张芝兰·李晓琴(2021), 「“翻转课堂”教学模式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研究」, 『汉字文化』, 第4期
- 张丽媛·王业奇(2022), 「基于翻转课堂理论的线上汉字教学模式研究」, 『现代语文』
- 钟彩虹·陈迁(2021), 「“翻转课堂”在对外汉语初级综合课的实践与分析」, 『科学咨询(科技·管理)』, 第2期
- 张旋(2022), 「基于SPOC的翻转课堂教学模式应用研究——以中职《计算机应用基础》课程为例」, 江西科技师范大学, 硕士论文.

「플립러닝에 기반한 초급 일본어 교수법 연구」

권도영 교원, 김영주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대학의 전공으로 처음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교수자는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가? 이 단순한 물음에 모임의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해왔다. 읽기와 쓰기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와 같은 어학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모범답안은 구성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로 구성원들이 고민한 것은 ‘대학에서의 전공’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경로로는, 대학을 제외하고도 중·고등학교를 필두로 사설학원과 시민강좌나 개인교습 등과 같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도 초급 일본어 수업에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미 일본어 기초를 다지고 온 학습자와 마주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런 학습자들에게 초급 일본어 수업은 졸업을 위한 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외부에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온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의 교육으로서 초급 일본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고민이 이 모임을 결성한 배경에 뿌리 깊이 자리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고민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의의 탐구라는 문제와 맞닿아있다. 지금의 대학이 인격 도야를 위한 보편적 진리의 탐구라는 과거의 가치와는 다른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박상태(2006) 참조). 과거에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언급되는 일이 없었던 학습자의 역량을 중요시하는 대학 교육 과정은 대학이라는 기관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과 자격기준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증거이자 대학이 사회적 기능을 의식하는 교육 기관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박민정(2008) 참조). 이런 흐름은 소비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을 벗어난 학습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회적 기능에 중점을 둔 교육이 반드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자는 오히려 인격 도야를 위한 보편적 진리의 탐구라는 가치가 소비중심의 사회에 던져진 개인을 구제할 하나의 무기이자, 다른 교육기관과는 구별되는 대학의 경쟁력이 되리라고 믿는다.

두 번째 동기는 CO-VID19를 경험하는 동안 변화한 환경을 연구의 계기로 들 수 있다.

CO-VID19가 전세계로 확산된 후, 한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지만, 보고서 작성자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매번 수업영상을 녹화하여 게시하였다. 즉, CO-VID19를 경험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물음이 이번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만든 하나의 동기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이 담당한 ‘강독’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관련되어 있다. ‘강독’은 말 그대로 교수자가 지정된 교재를 읽고 강해(講解)하는 내용으로 전개하는 전통적 교수법이다. 이 전통적 교수법의 중심에는 지정된 교재를 읽고 해설하는 교수자가 있고, 교재가 변하지 않는 한 교수자는 매번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교수자는 기존의 수업 내용을 보완하면서 내실을 단단히 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수법에서 학습자가 수업의 중심에 자리 잡기 어렵다. 교수자가 가진 지식을 진열하듯이 펼쳐놓는 방식이 되기 쉬워서,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수업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강독’과는 다른 형태의 교수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능력에 대응 가능한 수업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다. 플립러닝은 교수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수업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일본어 교육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선행연구로는 조대하(2016, 2021), 염미란(2017, 2018), 권영성(2017, 2019), 설근수(2019), 곽은심·박재환(2020), 노주현(2021), 정희영(2022)등이 있지만, 개별적 적용을 통한 실증이 여전히 부족한 듯 보인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현대일본어독해(2)’ 과목의 실제 플립러닝 적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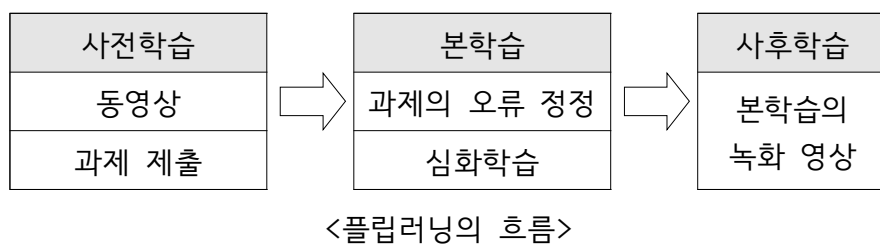
목적: 플립러닝을 실제로 초급 일본어 수업에 적용하고 학습자들의 학습효과와 학습태도 등에 관한 정보공유가 부차적인 목적이다. 주된 목적은 초급 일본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플립러닝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즉, 초급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플립러닝 방식을 실제로 적용해서 문제점을 살피고 보완·보충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 진행 내용

연구는 플립러닝을 실제로 수업에 적용하고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의 해법에 관하여 연구원들이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플립러닝을 수업에 적용한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 내용을 보고한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은 2학기 <현대일본어독해(2)>라는 과목이다. 1학기 <현대일본어독해(1)>과 연속되는 과목으로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강독 이다. 일본어대학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술도서편찬위원회(2013)가 집필한 교재 『현대일본어첫걸음』을 매주 한 과씩 진행하며 어휘, 문법, 표현 등 기본적인 일본어를 가르치고 배운다.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는 총 16인으로 이들의 국적은 10인이 한국인, 2인이 일본인, 4인이 중국인이었다. 총 15주 수업 중에서 중간·기말 시험을 제외하고 수업은 13주 동안 진행하였다. 그 중 앞으로 전공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일본사를 간략히 정리한 수업을 제외하면 총 12주를 기초 일본어 학습에 사용하였다.

매주 수업은 사전학습을 위하여 동영상을 e-Class ‘온라인강의’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업로드는 대면수업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이루어졌다. 학습자들에게는 이 동영상을 시청한 후 대면수업 이틀 전까지 과제를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에 제출하도록 유도하였다. 대면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의 오류 정정을 중심으로, 관련 문법의 심화학습과 문학작품 감상 등 추후에 학습하게 될 전공 관련 내용을 더붙어서 다루었다. 대면수업은 학습자들이 추후에 복습할 수 있도록 zoom으로 녹화하여 영상을 e-Class에 게시하였다. 이상의 흐름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플립러닝의 흐름>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앞서 우선 초급 일본어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요인들을 먼저 기술하고자 한다. 수업을 설계하면서 예상한 부분인 동시에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만든 요인들이다.

3.1. 플립러닝 시행의 어려운 점

3.1.1. 학습자들의 수준 차이

앞서 연구모임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잠시 언급한 내용이지만, 일본어의 기초를 다지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어의 지식을 습득하여 기초 레벨을 뛰어넘은 학생들이 있었다. 반면, 학습자 중에는 몇몇 히라가나(平仮名)를 혼동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런 학습자들 간의 격차는 사전 학습을 위한 동영상의 난이도나 분량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 물론 권영성(2019)이 제시한 것과 같이, 이후 학습자가 서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3.1.2.에서 언급하는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듯 보였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보고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것이 이번 연구에서 CO-VID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준비했던 녹화영상을 사용한 이유의 하나이다. 참고로 CO-VID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준비했던 녹화영상을 편집 없이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처음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 사이의 수준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사전학습을 위한 동영상 준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듯 보였다. 강의 평가 문항 중에서 “교수자는 학생의 이해정도를 고려하여 수업을 준비하였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서 성취도가 높았다는 사실에 비춰 생각하면 평가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심화 학습 부분에 대한 피드백으로 여겨진다. 학습자들 사이의 수준차가 심화 학습에 대한 이해도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1.2. 평가의 문제

수업의 평가는 출석, 과제, 수업태도, 중간·기말시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영 비율은 출석 10%, 과제 20%, 수업태도 10%, 중간·기말시험 60%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학습의 참여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평가의 공정성을 묻는 강의평가 항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점수는 4.79로 평가의 공정성은 적절하게 유지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대면 수업에서 가산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가산점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발표를 지원하는 모습이나 그런 태도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학습자가 있었다. 상대평가 제도 속에서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학습자들의 의식이 드러난 부분으로 해석하는데, 이런 의식을 가진 학습자들 사이에서 협력이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권영성(2019)이 그 효용

성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 간의 협력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이다.

보고서 작성자는 상대평가는 대학 학점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제도로 알고 있다. 경쟁을 통해서 학습자의 성취도에 변별력을 만든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이번 수업과 같이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가 많은 경우에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사회구성원 사이의 협력이라는 역량 교육을 위해서라도 현행의 평가 방법은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사전학습

3.2.1. 동영상

수업은 이상에서 이야기한 현실적 문제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수업은 교수자가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e-Class에 게시한 동영상을 학습자가 시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상이 15분을 넘지 않는 길이가 많았지만, 학습자들의 수준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준비했던 100분 정도의 녹화영상을 편집 없이 사용하였다. 다만, 학습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동영상 시청의 의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해당 동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레벨의 학습자는 동영상을 통한 사전학습을 건너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학습자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였지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과제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일이 잦았다. 초급 수준의 일본어를 이미 배운 듯 보이는 학습자의 경우에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을 때는 어휘의 세세한 의미 등에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

학기 초반에 동영상 시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e-Class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동영상 시청을 유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기 중에 수업의 길이에 관해 불만을 호소하는 학습자가 있었다. 사전학습의 동영상까지를 출석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호소였다. 결국 그 학습자는 자신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사전학습을 위한 동영상을 어느 정도에서 타협할 것인가 즉, 동영상의 길이와 해설의 깊이 사이의 균형에 관한 고민으로 이끌었다. 여전히 그 균형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전학습 동영상의 길이와 해설의 깊이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시간적 부담을 극복하고 사전학습 동영상을 시청한 학습자들이 수행한 과제의 질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 사전학습 동영상의 길이와 학습자들의 피로도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 게시한 100분보다는 짧아야겠지만, 학습자들

의 레벨에 맞추어 해설의 분량과 동영상의 길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2. 과제 제출

과제는 학습자의 학습정도를 파악하는 목적과 학습자 개개인이 사전학습 동영상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과제의 내용은 사전학습 동영상에서 해설한 교재 『현대일본어첫걸음』의 해당 과를 손으로 옮겨 적는 것이었다. 매주 교재 한 과 분량을 진행하였으므로 학습자들은 매주 교재 한 과를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문형 습득과 한자·새로운 어휘의 암기를 유도하고자 의도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학번과 이름을 적은 과제를 사진 파일 형태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자가 과제의 오류를 확인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였으므로 제출 기한은 대면수업 이틀 전으로 정하였다.

학기 초반에는 과제의 오류가 적지 않아서 본학습 대면수업 시간을 모두 할애하여 그를 정정하였다. 학기가 진행 될수록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줄어서 심화학습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과제에서 보인 오류의 종류는 문자를 표기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부터 잘못된 문장 해석과 한국어 맞춤법까지 다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를 표기하는 잘못된 습관은 줄었지만, 그 외에는 경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학습자 개개인의 실력에 맞춘 교수법에 관한 고민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과제의 경향에 있어서 특징적인 인상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자들이 급하게 과제를 한다는 것이다. 과제 완료 후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지 갈수록 오타자가 눈에 띄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창구로도 사용되었다. 구글 클래스룸의 비밀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한국어 맞춤법과 같이 본학습에서 다루기에는 애매한 내용에 관한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

3.3. 본학습

3.3.1. 과제의 오류 정정

강의실에서 대면수업으로 진행된 본학습은 크게 두 단계로 설계하였다. 하나는 과제에서 발견한 오류가 들어있는 문장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사전에 제출된 과제에서 오류가 포함된 부분의 사진을 갈무리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사진을 제시한 이유 즉, 문장의 오류를 물었다. 교수자는 오류가 일어난 범주에 관한 정보를 일체 알려

주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습자들은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올바르게 정정하였다. 학습자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시간의 지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류의 범주가 어휘인지 문법인지 등의 힌트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과제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고 오류를 판별하는 학습자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이유로 과제의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은 그룹별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과제의 오류 정정을 통해서 사전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그룹 활동이나 염미란(2017)과 설근수(2019)가 제안한 것과 같이 SNS를 기초 일본어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교육인프라 확보라는 측면에서 대학 차원의 에듀테크(edutech)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2년도부터 시행하는 ‘디벗’정책(김지광(2021))을 응용하여 학습자들이 휴대하는 스마트기기를 강의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디지털 환경을 강의실로 끌어들이므로써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동시에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강의실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 오류의 정정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참여도는 높았다. 참여하는 학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한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학습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확인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는 점이 집중도를 높였고 또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의 경우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다. 한국어로 다른 학습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소극적인 태도의 원인이라 생각한다.

3.3.2. 심화학습

심화학습은 매번 정해진 패턴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여타 교육기관과는 다른 대학의 교육이라는 특성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과제에서 오류가 많았던 부분은 보충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어휘의 해설과 어학연구의 기초적 용어에 관한 해설이나 짧은 문학 작품의 감상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대학에서 배우는 기초 어학 수업이 단지 언어 스킬의 습득을 넘어서 언어의 구조, 인간과 언어의 관계 등 보편적인 진리에 관한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에게 환기시키고자 의도하였다. 그런 이유로 심화학습에서는 학습자 주도형 수업을 고집하지 않았다. 다만, 이 심화학습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예문으로 제시한 일본어 문장의 읽기와 해석은 학습자들에게 위임하였다.

참고로 기존의 강독 중심의 수업에서는 시간의 부족으로 위에서 이야기한 심화학습의 내용을 수업에서 다룰 수가 없었다.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는 매주 한 과의 페이스로 교재

를 진행하기에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학습자들의 선행학습을 동반하는 이번 수업 형태에 서는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3.4. 사후학습

사후학습으로는 학습자들이 본학습 단계에서의 내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대면수업을 녹화하여 e-Class에 게시하였다. 2023년 01월 13일 현재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47회, 34회, 13회, 8회, 10회와 같이 초반에는 높지만 학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반에는 대략 10회 이하를 유지하였다. 본학습에서 놓친 부분의 확인 또는 내용의 재확인을 의도한 사후학습의 목적에서 생각하면 적절한 조회수로 보이지만, 조회수의 변화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학습 피로도에도 관련이 있는 듯 여겨진다. 이하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학습자의 학습 피로도 개선 문제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삼아 더욱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연구 결과

무엇보다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학습자들의 높은 성취도이다. 다른 학기와의 구체적 비교가 어려운 관계로 보고서 작성자의 인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의 경우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모두 A+ 이상의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성취도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상에서 언급한 수업 방식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학습자의 성취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고, 한국어를 어려워한 외국 국적의 학습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경우도 있었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결과에서도 이런 양상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30점 만점의 중간시험 평균은 26.05점, 표준편차는 7.85였고, 기말시험은 30점 만점에 평균이 25.65점, 표준편차 8.28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았던 두 명의 학습자를 제외하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평균은 각각 28.93점과 28.65점으로 높았다. 표준편차 또한 1.90과 2.50으로 대다수 학습자들이 고르고 높은 성취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성과는 사전학습부터 시작된 학습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한다. 교수자가 설계한 수업을 잘 따라준 학습자들 덕분에 이번 연구에서는 적용한 수업 방식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습자들이 투자한 시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전학습으로 100분 정도의 동영상 시청 후 과제를 수행하고 다시 과제의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 동안 들인 시간을 생각하면 ‘어학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유클리드의 격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를 항간에서 비틀어 만든 이 말은

어학 공부를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기초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기하학 공부에 관한 유클리드 격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수강해야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피로도를 생각하면 학습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피로도를 확인한 과정을 중심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정리한다.

본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하였지만, 과제 제출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이 가진 학습의지를 살필 수 있었다.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기한 내에 과제를 제출하였다. 높은 성취도는 이런 참여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참여도의 이면에서 학습자들은 높은 학습 피로도 또한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사실을 강의평가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설문은 총 6개의 항목을 실시하였다. 객관식 응답이 3문항, 주관식 응답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식은 수업 방식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과, 만족스러웠던 부분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항목,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있었고, 주관식은 후자의 두 항목에 관한 자세한 의견과 기타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 있었다.

마지막 대면수업 시간에 실시한 설문에는 16명 전원이 참여하였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다. 실제로 답변한 설문 문항 중에는 무응답도 있었다.

먼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관한 답변을 살펴보면, 16명 중 9명이 ‘대면수업’을 선택하였다. 학습자들이 대면수업의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을 생각하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5번 문항의 개선점에 관해 적은 의견과 조합하여 생각하면 학습 수준의 차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개선점에 관한 응답 중에는 과제의 오류 정정 시에 ‘쉽고 간단한 부분’에 대한 생략을 제안이 있었는데, 이 제안에서 미뤄 생각하면 개개인의 학습수준에 맞춘 대면수업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다. 이 사실은 강의평가의 ‘교수자는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고려하여 수업을 준비하였다’는 항목 평점이 4.23으로 평균인 4.53보다 낮은 이유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응답으로는 무응답 3명, ‘과제’ 2명, ‘녹화영상’ 2명이 있었다.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수준에 맞춘 수업에 대한 요망은 ‘만족스러웠던 부분’을 묻는 2번 문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수 응답 중에는 ‘어학이나 문학작품에 관한 추가 정보’ 6명, ‘반복 학습이 가능한 점’ 8명이었고, ‘과제에 대한 강사의 피드백’이 14명으로 가장 높았다. 과제의 오류는 본 수업에서도 다루었지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개별적 피드백 또한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자 개개인에 맞춘 수준의 수업을 희망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2022년 현대일본어독해(2) 수업진행방식에 관한 설문조사

- 이번 학기 수업 방식에 만족합니까?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선택 가능) ()
①반복 학습이 가능한 점 ②과제에 대한 강사의 피드백
③어학이나 문학작품에 관한 추가 정보 ④기타
 - 2번 문항에서 기타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녹화영상 ②과제 ③대면수업 ④기타
 - 4번 문항에서 기타를 선택한 경우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그 외에 수업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 설문제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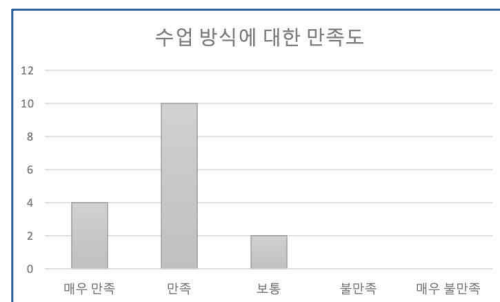
<설문 문항>

다만, 강의평가에서는 ‘보통이다’로 답변한 비율이 높고, ‘아니다’와 ‘전혀아니다’라는 답변도 있었다. 보고서 작성자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수업내용 이해에 적합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한 것에 있다고 받아들인다. 즉, 강의평가의 결과는 이번 학기에 실시한 수업방식이 기초 일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학습자들의 평가를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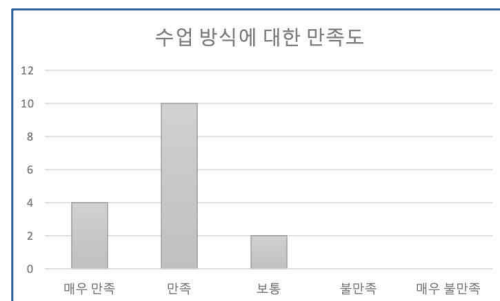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번 학기에는 학습자들의 성취도가 높았다. 기초 일본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 중에는 이번 학기의 수업방법이 이해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방법을 둘러싼 학습자들의 상반된 모습이 일견 모순처럼 여겨져서 해석의 곤란을 느끼기도 했지만, 설문의 6번 항목에 있는 하나의 답변에

마지막으로 수업 방식에 관한 학습들의 만족도에 관한 내용이다. 강의평가에서 ‘교수자는 수업내용 이해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였다’는 항목은 3.93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하지만, 이 평점은 학습자들의 성취도나 설문조사의 1번 항목 결과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듯 보였다.

일견 강의평가의 질문과 설문의 질문은 ‘수업내용 이해에 적합한 수업방법’과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로 그 내용이 달라 보인다. 그러나 수업이 학습자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결국 양쪽의 질문은 모두 수업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의 결과를 강의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매겨 평균을 내면 4.12가 되어 강의평가와 얼추 비슷하다.



<설문 답변 결과>



<설문 답변 결과>

서 해석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답변에는 다른 1학년 수업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다는 수업에 대한 감상이 적혀있었다. 높은 성취도와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감상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꼈지만, 동영상과 과제로 이루어진 사전학습의 부담이 학습자들의 학습 피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답변과 학습자들의 높은 성취도로부터 이번 수업 방식이 기초 일본어를 이해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학습자들이 학습량에서 기인한 학습 피로도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설계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미 일본어를 배운 학습자들은 더 큰 피로도를 느꼈으리라 추측한다.

4.2. 활용방안

이번 연구를 정리하면서 대학의 전공과목인 초급 일본어 수업을 학습자 주도형으로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학습자들이 보편적 진리탐구의 매개로 언어를 바라보는 시선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이유라 여겨진다. 다만, 초급 일본어 수업에서는 언어 스킬의 학습에 관해서는 학습자 주도형의 방법으로, 이후의 전공과 연계된 심화 학습은 교수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학습자가 어학적인 스킬을 습득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진리탐구의 길로 접근할 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여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역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학습자 주도형과 교수자 중심의 수업방법을 적절히 융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초 일본어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학습 피로도를 경감해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연구과제를 새로이 획득한 것을 성과로 들 수 있겠지만,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수업 방법 모색은 대학 조직 레벨에서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혜정(2017) 「플립 러닝의 도입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대학 교양일본어의 전통적인 수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日本語教育』 81,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곽은심(2020) 「플립러닝을 도입한 초급 교양일본어 수업의 실천연 : 플립러닝의 학습효과와 교실내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51,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권영성(2017) 「플립러닝의 도입과 일본어교육」 『일본어문학』 77, 일본어문학회
- 권영성(2019) 「플립러닝을 적용한 일본어 수업의 실천연구」 『일본어교육연구』 48,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김지광(2021) 「스마트 기기 휴대 학습 「디벗」, 어떤 정책인가요?」 『교육정보』 245호, <https://webzine-serii.re.kr/스마트기기-휴대-학습-「디벗」-어떤-정책인가요/>
- 노주현(2021) 「大学のオンライン日本語クラスにおける反転授業の実践—初心者向けの専攻科目「基礎日本語文法」の場合」 『일본어학연구』 69, 한국일본어학회
- 박민정(2008)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教育課程研究』 26-4,
- 박상태(2006) 「하이트헤드의 교육론과 대학 교육 개혁」 『동서철학연구』 제42호
- 설근수(2019) 「4次産業革命時代の言語教育方法論の研究—「初級日本語の教育」を中心に—」 『일본문화연구』 72, 동아시아일본학회
- 염미란(2017)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교양 일본어의 신수업 제안—SNS를 활용한 수업 스타일—」 『日本文化學報』 73, 한국일본문화학회
- 염미란(2018)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대학 교양일본어 수업의 교수학습 모형 탐구」 『日本語文學』 1(79), 한국일본어문학회
- 정희영(2022) 「하브루타 기반 플립드러닝 일본어과 수업모형 개발」 『일어일문학연구』 123, 한국일어일문학회
- 조대하(2016) 「플립러닝(Flipped Learnig)을 활용한 일본어교육 사례 연구」 『일본어문학』 72, 일본어문학회
- 조대하(2021) 「‘학습자중심수업’을 도입한 일본어교육 연구」 『일본어문학』 92, 일본어문학회

「영미문화 · 영화 수업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수법 연구」

김수연 교원, 김현정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본 모임은 영미문학 · 문화학과 학생들에게 영미권 문학과 문화를 특히 영상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텍스트 분석에 집중된 문학 수업 외에도 인문학을 기반에 둔 다양한 융합 과목을 통해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래 목적 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법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영미문학 · 문화학과는 2015년 학과명을 영문학과에서 현재 이름으로 바꾼 후 문화연구 관련 과목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명과 달리 교강사 대부분이 문학박사인 관계로 전문성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2학기 처음으로 문화연구 전공 강사분을 모셨고, 전임교원도 영상이론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학과에서 열리던 문화, 영화 관련 과목을 다시 점검해 보고 영상연구에 초점을 둔 최근 신설된 과목들을 중심으로 더 효과적인 교수법을 고안하고 시행하기 위해 학과의 두 문화 연구자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수업 전문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민을 해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연구자는 다양한 영상 문화 콘텐츠를 통해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기대와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 영화 강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최종적으로 문화, 영상연구라는 과목명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세부적으로 어떤 강의를 이루어져야 할지 연구를 진행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영미문화 · 영화 수업 교수법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목적: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과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일상에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빠르게, 초국가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미문화와 영상을 중심에 둔 교수법 제고를 위한 연구는 이러한 변화로 달라진 학생들의 학습법에 대한 고민을 그 바탕에 둡니다. 즉 기존 문자 텍스트가 아닌 영상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익숙해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영상을 기반에 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새로운 교육 환경에 발맞춘 교수법 연구를 진행하여 어떤 수업 활동과 과제가 효율적이고 적합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더욱 전문적인 수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상해보고자 합니다.

3. 연구 진행 내용

연구는 문화연구 과목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계획안과 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학과에서 열리는 <문화와 텍스트> (1), <문화와 텍스트> (2), <영미문화특강> (1), <영미문화특강> (2), <영미문화과영상> 등의 수업에서 영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고 회의를 진행하며 피드백을 나누어 수업 자료와 계획서를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특히 집중한 과목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와 텍스트> 과목입니다. 본 과목에서 기본적인 영화 용법과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흐름을 학습한다면 고학년 수업에서 진행되는 영미문화와 영화를 모두 다루는 다양한 비교연구 수업을 더 수월히 들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문화 수업의 경우 영문학개론과 같은 기초 개론 수업이 부재하기 때문에 교강사에 따라 수업이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텍스트의 차이가 큼니다. 저학년 문화, 영화 수업은 학생들과 문학 텍스트와 영상 텍스트를 읽는 행위의 차이와 공통점에 관해 이야기하며 시작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화” 텍스트의 전반적인 특징과 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개괄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영화에 있어 “적극적인 보기”(active looking)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며 첫 수업을 시작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영화, 필름, 시네마 등의 용어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가장 친근하고 대중적인 장르이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친숙함이 오히려 비판적 읽기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Richard Barsam과 Dave Monahan의 *Looking at Movies: An Introduction to Film*라는 영화 기

본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영화를 비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며 문화, 영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위에 언급한 교재의 첫 챕터를 학생들에게 읽고 오게 한 뒤 첫 수업 때 나눠볼 수 있는 토론 질문들입니다.

Questions for Review

1.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e word movie? Has your perception changed since reading this chapter? In what ways?
2. How is the experience of seeing a movie different from watching a play? Reading a book? Viewing a painting or photograph?
3. Why has the grammar of film evolved to allow audiences to absorb movie meaning intuitively?
4. In what ways do movies minimize viewers' awareness that they are experiencing a highly manipulated, artificial reality?
5. What do we mean by cultural invisibility? How is this different from cinematic invisibility?
6.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meaning?
7. How might your previous experiences of a particular actor influence your reaction to a new movie featuring the same performer?
8. What are some of the other expectations that can affect the way viewers react to a movie?
9. What are you looking for when you do a formal analysis of a movie scene? What are some other alternative approaches to analysis, and what sorts of meaning might they uncover?
10. At this point, would you say that learning what a movie is all about is more challenging than you first thought? If so, why?

영화를 읽는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토론 진행을 한 뒤 구체적인 영화 용법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과목마다 주제가 달라지겠지만 영화 수업의 시작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영화 용어를 가르쳐주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 용어 정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mise-en-scène

- How do the actors move within a scene?
- How is lighting used?
- How do the sets or locations contribute to the effect of a scene or the film as a whole?

<https://www.youtube.com/watch?v=AvO8-925Edc>

Editing

- How long does each shot last? Better: What is the rhythm of the editing?

<https://www.youtube.com/watch?v=WOVroZM6NCo>

- What sense comes out of the ordering of shots? (flashback)

- Close ups always followed by extreme long shots (Long, medium, close)

<https://www.youtube.com/watch?v=GRD7f2Wo0CM>

<https://www.youtube.com/watch?v=YVVTZgwYwVo>

- Graphic match cuts (e.g. psycho)

Sound

- How does music (or lack thereof) function? (*Psycho*)
- How does ambient sound work in the film? Do we see the source or the sound, do we know exactly what we're hearing? How do the chosen sounds work? What about volume (loud/off), timbre (muffled, clear...), pitch (high/low), etc?

Cinematography

- How does the camera movement in a given instance connect with the preceding and subsequent shots?
- How does the camera move in relation to character's movements?
- Are the colors saturated or muted? If black and white, is it high contrast or low contr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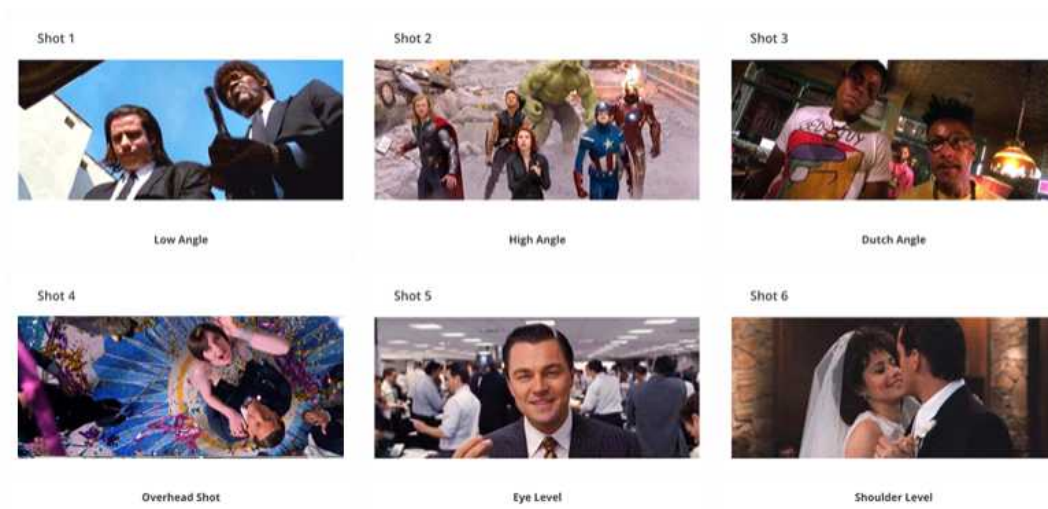
1. exposure
2. lighting
3. camera position & mov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ZF6O93noHRc>

Nar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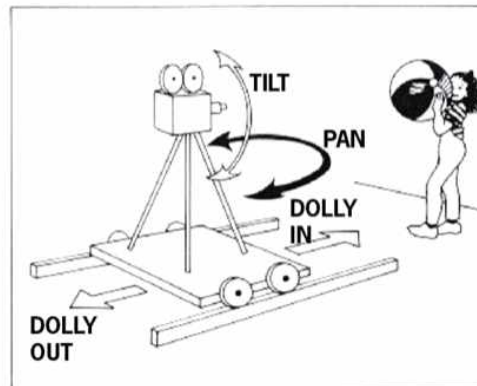
- What aspects of the story are shown directly and what are merely alluded to or implied? (Cultural Invisibility)
- Does the film tell the story through certain specific characters rather than others?
- Does it tell the story in a way that is favoring certain characters over others?
- Where does it begin and where does it end in relation to the events?
- In what order is the story told?
 - Chronological?
 - Using flashbacks or flash-forwards?
 - Non-chronologically?
 - Backwards?
 - Stream of consciousness?
 - Otherwise or ambiguously? (Experimental)

Camera Angle



기본 용어 정리 후 영미권 영화 공부를 위해 초기 클래식 할리우드 시절부터 50, 60년대, 또 2000년대 할리우드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수업 진행을 계획했고 구체적인 수업 자료를 아래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문화 텍스트를 위치시킨다는 것의 의미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역사적 텍스트로 영화를 바라본다는 것과 이를 다양한 연출법과 연결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영화의 언어를 읽어내는 데 효율적인 공부법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교수법 연구를 통해 구체화한 수업 자료입니다.

Camera Movement: Pan, Tilt, Dolly



The Birth of American Cin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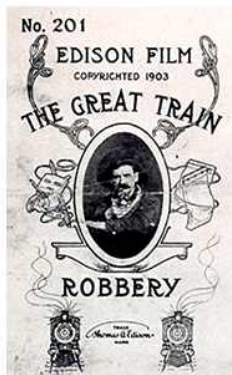
- _____ and his assistant William Dickson wanted to build:
 - 1) a device for recording movement on film
 - 2) another device for viewing the film
- Dickson devised a motor-powered camera that could photograph motion images, called “**kinetograph**” in 1890.
- In 1891, Dickson also designed an early version of a projector, called “**kinetoscope.**”



“The Founding Fathers of Modern Film”

Lumière brothers (Louis and Auguste)

- created their own combo: movie camera and projector
- a more portable, hand-held, and lightweight device that could project movie images to several spectators
- “Cinematographe” (patented in 1895)
- *Workers Leaving the Lumière Factory* (1895)
- Georges Méliès : *A Trip to the Moon* (1902)



Important Early Films

The Great Train Robbery (1903)

- The first Western film with a storyline.
- Used cross-cutting [교차편집] and rear projection [배경/후면 영상].
- The first national smash hit film.

The Birth of a Nation (directed and co-produced by D. W. Griffith, 1915)

- The first American epic feature film.
- Controversial for its portrayal of African Americans and of the Ku Klux Klan (KKK).



The Big Five Studios of the 1920s

1. Warner Brothers Pictures
2. MGM
3. Fox Film
4. RKO Pictures
5. Famous Players-Lasky (Paramount)

The Three Little Studios

1. Universal Pictures
2. United Artists (Charlie Chaplin)
3. Columbia Pictures



The Golden Age of Hollywood: from 1930 to 1948

- Most of the films were still black-and-white.
- 1930s: the decade of the sound and color revolutions (Technicolor).
- Development of **film genres**, such as gangster films, musicals, historical biopics, social-realism films, light-hearted screwball comedies, westerns, and horror.

Genres Films

- Early gangster films
- Horror films
- Musicals
- Adventure films
- Epics
- Westerns



The Great Depression (since 1929)

- Attendance at theatres was drastically affected, although it was still between 60-75 million per week.
- Filmmaking both reflected realism of the Depression period and provide escapist entertainment.

The Hays Production Code (mid-1934 to 1968)

- Included censorship of language, references to sex, violence, and morality.
- Pre-code years: until mid-1934

The Dawning of the 1950s

- Post-war affluence, conformity, middle-class values
- The rise of fast food restaurants
- The all-electric home as an ideal
- The advent of television
- The rise of drive-in theaters for young teenaged couples



Hollywood's War against Television

- 1.33:1 before the 1950s (similar to a television screen)
- Attempts at technical advances with wide-screen experience and color (Cinerama, 3D, CinemaScope, VistaVision)
- Hollywood lost the struggle against television, because wide-screen films were enormously expensive to produce.



<http://www.cinerama.com/city/407.htm>

Sociopolitical Contexts of the 2000s

- Major terrorist attacks on 11 September, 2001
- Natural disasters of Hurricane Katrina in 2005
- Financial meltdown around 2008
- Domination of Google (1998), Amazon (1994), YouTube (2005), Facebook (2004), and Twitter
- New tech products, such as laptops, the iPod, Skype, Blackberries, and smartphones
- Television moved from analog to digital broadcasting (new flat-screens)

The After-Effects of 9/11

- <Black Hawk Down> (Ridley Scott, 2001):
a disastrous helicopter mission in Somalia in 1993
- <25th Hour> (Spike Lee, 2002):
a post 9/11 examination of racial hatred
- <United 93> (Paul Greengrass, 2006):
The first 9/11 related feature film from Hollywood on the 5th-year anniversary



Major Hollywood Studios in the 2000s

Time Warner (formerly Warner Bros.) Time Warner	20th Century Fox (purchased by Rupert Murdoch's News Corporation) News Corporation	Viacom (formerly Paramount) VIACOM
Sony (formerly Columbia Pictures) SONY	Walt Disney (joined with Pixar) The Walt Disney Company	NBC Universal (owned by GE and merged with NBC, formerly Universal) NBC UNIVERSAL

These six companies farmed out the production of their films to dozens of other independent companies and in-house pseudo-indie companies, such as Warner's New Line Cinema, Fox's Searchlight, and NBC Universal's Focus Features.

Hollywood Studios continued

- American Online (AOL), owner of CNN and the <Time> publishing empire, purchased Time Warner for \$182 billion: the most expensive and largest corporate acquisition in the US history.
- In 2005, Viacom's Paramount Pictures acquired **DreamWorks** for \$1.6 billion.
- In 2009, **DreamWorks** ended its relation with Paramount and signed with **Disney**.
- In 2009, **Disney** purchased comic book and action hero company **Marvel Entertainment** for \$4 billion.
- Shareholders of 21st Century Fox and Disney voted to approve **Disney's** \$71.3 billion buyout of major Fox assets in 2018.



A Wide Range of Best Picture Oscar Winners

2000	<i>Gladiator</i>	Ridley Scott's big-budget sword-and-sandal epic
2001	<i>A Beautiful Mind</i>	Biopic of a schizophrenic mathematician, John Nash
2002	<i>Chicago</i>	The first musical to win the top honor since <Oliver!> (1968)
2003	<i>The Lord of the Rings: The Return of the King</i>	11 Oscar Wins
2004	<i>Million Dollar Baby</i>	Director/Actor Clint Eastwood's tearjerker on a female boxer
2005	<i>Crash</i>	A surprise win over <Brokeback Mountain>
2006	<i>The Departed</i>	Long-awaited win of 64-year-old Martin Scorsese
2007	<i>No Country for Old Men</i>	Coen Brothers' Best Director-winning independent film
2008	<i>Slumdog Millionaire</i>	Bollywood -inspired film from the British director, Danny Boyle
2009	<i>The Hurt Locker</i>	Dir. by Kathryn Bigelow; the lowest grossing winner of all time

Other Oscar Notables for the 2000s

- African Americans won in both Best Actor and Best Actress Oscar categories for the first time in 2002: Denzel Washington for <Training Day> and Halle Berry for <Monster's Ball>.
- <The Hurt Locker> directed by Kathryn Bigelow (**the first female filmmaker ever to win in the Academy's history**) defeated the biggest blockbuster of all time <Avatar> (2009) directed by her ex-husband.



An Era of Documentary Films

- Director/writer/producer/star Michael Moore's <Bowling for Columbine> (2002): the first documentary to compete in the Cannes Film Festival's main competition in 46 years. Won an Oscar. The highest-grossing documentary of all time, soon to be surpassed by his another, R-rated film <Fahrenheit 9/11> (2004)
- <March of the Penguins> (2005): the highest-grossing nature documentary



Blockbusters of the 2000s



- 200 mil. dollars for the new bar for a blockbuster: <Spider-Man> grossed over the 100 mil dollars in a single weekend!
- Many event films cost \$200 million: <Pirates of the Caribbean: at World's End> (2007), most expensive picture ever made at \$300 mil.
- <Avatar> earned \$ 2.788 billion worldwide
- Close relationship of blockbuster series with comic-book superheroes, fantastical tales, CGI-animated characters, TV series (<Sex and the City>, 2008), Broadway musicals (<Hairspray>, 2007), and rides at theme parks!

<http://www.pixar.com/films/monsters-inc>



Blockbusters of the 2000s

- Many of these huge money-making franchise blockbusters were the top-grossing films of their individual years in the 2000s, except the year 2009: <A _____>
- <Harry Potter> <Spider-Man> <Shrek>, <The Lord of the Rings> <Shrek> <Star Wars> <Pirates of the Caribbean> <The Dark Knight> ...
- There are too many major film franchises in the 2000s to list!

Pixar's Domination as Feature-Film Animator

- <Monsters, Inc.> (2001)
- <Finding Nemo> (2003)
- <The Incredibles> (2004)
- <Cars> (2006)
- <Ratatouille> (2007)
- <WALL-E> (2008): the most-nominated animation film in the Oscar history along with <Beauty and the Beast> at SIX nominations
- <Up> (2009): the second animated film ever nominated for Best Picture following <BB>; one of the top moneymakers of the year at \$293 million



<http://www.pixar.com/films/monsters-inc>

Technological and Special Effects Innovations

- **Performance capture:** a digital blend of live performance and animated elements. (motion capture, emotion capture...)
- **How it works:**
 - 1) Actors wear heavy, dot-sensor-covered spandex body suits and a helmet, and act out their scenes in isolation from other sets.
 - 2) Expressions and movements are first recorded by digital cameras as 3D moving data points.
 - 3) Afterwards, the digitally-recorded performances were embellished by artists and integrated into a virtual environment. Ex) Gollum, Dr. Manhattan, Avatars



위와 같이 역사적 흐름 안에서 뮤지컬, 서부, SF, 애니메이션,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공부하며 영화라는 문화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또 새로운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지 학생들이 고민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텍스트 분석은 본인의 생각을 글로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습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방법을 다루는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John E. Moscovitz의 *Critical Approaches to Writing about Film* 과 Stephen Prince의 *Movies and Meaning: An Introduction to Film*을 바탕으로 어떻게 영화라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주장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수업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래는 강의 계획서 예시입니다.

Date Texts Presentation / Assignment

9/7 Introduction

9/14 The 1930s: 1 *Gone with the Wind* (1939)

Epic/Romance

9/21 The 1940s: 2 *Casablanca* (1942)

War/Romance

Presentation #1



9/28 The 1950s: 3 Singing in the Rain (1952)

Musical

Presentation #2

10/5 The 1950s: 4 The Searchers (1956)

Western

Presentation #3

Journal due (pick TWO out of 1-3)

10/12 The 1960s: 5 Splendor in the Grass (1961)

Teen/Social Issue Drama

Presentation #4

10/19 The 1960s: 6

2001: A Space Odyssey (1968)

Sci-fi/Space Opera

Presentation #5

10/26 Midterm Exam

11/2 The 1970s: 7 The Godfather (1972)

Crime

Presentation #6

11/9 The 1980s: 8 Platoon (1987)

War Film

Journal due (two out of 4-6)

11/16 The 1990s: 9 Forrest Gump (1994)

Drama

Presentation #7

11/23 The 2000s: 10 The Blind Side (2009)

Sport/Race

Presentation #8

11/30 Special Week: 11 Aladdin (1992, 2019)

Animation v. Live action

Journal due (two out of 7-9)

12/7 The 2000s: 12 Avatar (2009)

Action/Fantasy

Presentation #9

12/14 Makeup Week

12/21 Final Exam Journal due (two out of 10-12)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문화, 영화 수업에 해당하는 과목 전반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상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개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 콘텐츠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영화 개론 수업을 위한 강의 계획서 예시를 고안하고 수업 때 활용할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학년 수업에서 영화 용어와 할리우드 역사를 꼼꼼하게 숙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에 맞게 한 학기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나아가 영화 분석에 도움이 될 과제로 글쓰기 연습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토대로 학생들이 매주 영화를 보고 미리 짧은 감상문이나 질문거리를 온라인 토론 보드에 올리고 이를 수업 때 들여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영화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내주면 좋을 것이라 의견을 나눴고, 이에 교강사의 재량하에 중간, 기말 평가를 에세이로 진행을 하는 것 역시 효과적일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과 내 문화 및 영화 수업의 전문성과 확장을 위해 1) 문화 관련 강좌의 경우 교강사 불문 과목명에 부합하게 영화 및 영상 문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꾸리는 것을 지키고 2) 영화 독법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개론 수업에서 꼼꼼하게 다루며 3) 고학년 대상으로 열리는 더 심화된 영화 수업과 더불어 개론 수업에서도 역시 영화 텍스트를 분석하는 글쓰기 연습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의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첨부한 계획을 기본 토대로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참고문헌

- Blue, Manon. *Turning Mirrors Into Windows: Teaching the Best Short Film*. Libraries Unlimited Inc. Publishers, 1984.
- Boggs, Joseph M. *The Art of Watching Films*.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1991.
- Bone, Jan and Ron Johnson. *Understanding the Film: an Introduction to Film Appreciation*. Lincolnwood IL: NTC Publishing, 1997.
- Corrigan, Timothy. *A Short Guide to Writing About Film*. NY: Longman Publishing, 1998.
- Costanzo, William V. *Reading the Movies: Twelve Great Films on Video and How to Teach Them*. Urbana IL: NCTE, 1992.
- Giannetti, Louis. *Understanding Movies*, Eigh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1999.
- Golden, John. *Reading in the Dark: Using Film as a Tool in the English Classroom*. Urbana IL: NCTE, 2001.
- Monaco, James. *How to Read a Film: The Art, Technology, Language, History, and Theory of Film and Media*.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Monahan, Dave and Richard Barsam. *Looking at Movies: An Introduction to Film*. NY: WW Norton & Company, 2018.
- Moscowitz, John E. *Critical Approaches to Writing about Film*.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2000.
- Prince, Stephen. *Movies and Meaning: An Introduction to Film*. Boston: Allyn & Bacon, 2001.

「 참여학습이 저개발국가 상황의 이해에 미치는 효과 :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

김수원 교원, 김계리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Said의 1978년 저서 *Orientalism*은 서구 바깥을 바라보는 유럽중심적 시각 (Eurocentrism)의 한계에 관한 글이다. 국제학, 특히 국제정치 혹은 국제관계학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미와 서유럽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중심적 시각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유럽 중심의 사고 및 교육은 여전하다. (Bilgin, 2016). 국제개발 협력 연구 및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계의 힘과 경제의 구조를 유럽의 역사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이전의 역사까지 유럽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오류이다.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 유럽을 중심에 두는 사고는 르네상스 시기에 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의식적 작업은 근대 유럽의 역사를 고대 그리스와 직접적인 연결선 상에 위치시킴으로써, 유럽은 세계의 다른 지역(others)에 빛을 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그릇된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Mignolo, 2003).

비서구권(others)의 시각에서 국제적(international)인 구조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제학에서 참여식 교수법(participatory pedagogy)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유럽 중심의 사고의 오류를 이해하고 세계 힘의 구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참여식 교수법 혹은 참여 학습에서 학생이 수업 내용이나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Andersena & Ponti, 2014). 참여식 교수법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행위의 주체(agents)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 (Kumpulainen, et al., 2009). 특히 학습자의 입장에서 실천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국제학과 같은 과목에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식 교수법은 중요하다. 참여식 교수법을 통해 학습자는 행위자로서 대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대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유럽 중심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학의 내용과 구조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국제학 교육에서 유럽 중심적 시각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한다.

목적: 참여 학습을 통해 국제학 지식에 내재한 서구중심성과 힘의 구조를 이해하고, 비서구권의 시각에서 새롭게 국제 구조를 이해한다. 특히 참여 학습을 세계적 저개발 지역의 역사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균형 있고 비편향적이며 대안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세계적으로 저개발 지역에 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 구조에서 우리의 위치를 스스로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연구 진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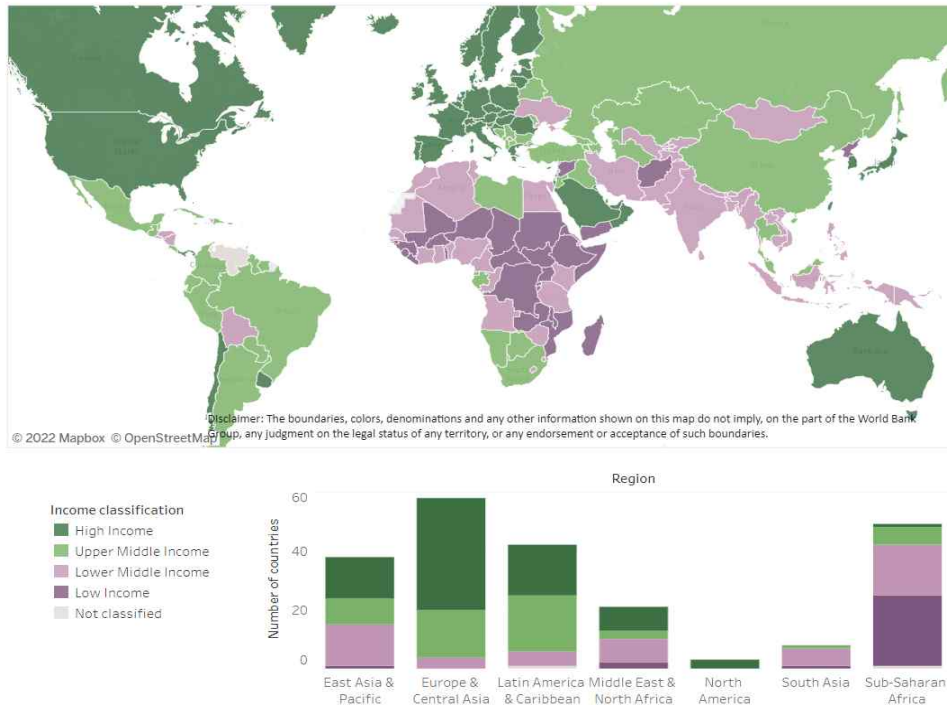
사례 1:

- 과목: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Global Age
- 대상: 국제지역대학원, 국제학과 신입 대학원생(1학기)
- 참여 학습법: 세계지도 색칠하기

이 과목은 국제지역대학원 국제학과에 입학한 대학원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 협력, 국제정치, 국제경제의 기본적 이론의 틀과 연구 주제를 알려주는 맛보기 과목으로 세 트랙의 교수진이 함께 진행하는 co-teaching 과목이다. 사례1에서 소개하는 참여 학습은 이 중 첫 번째로 진행된 국제개발 협력 수업 5주간 중에 진행한 학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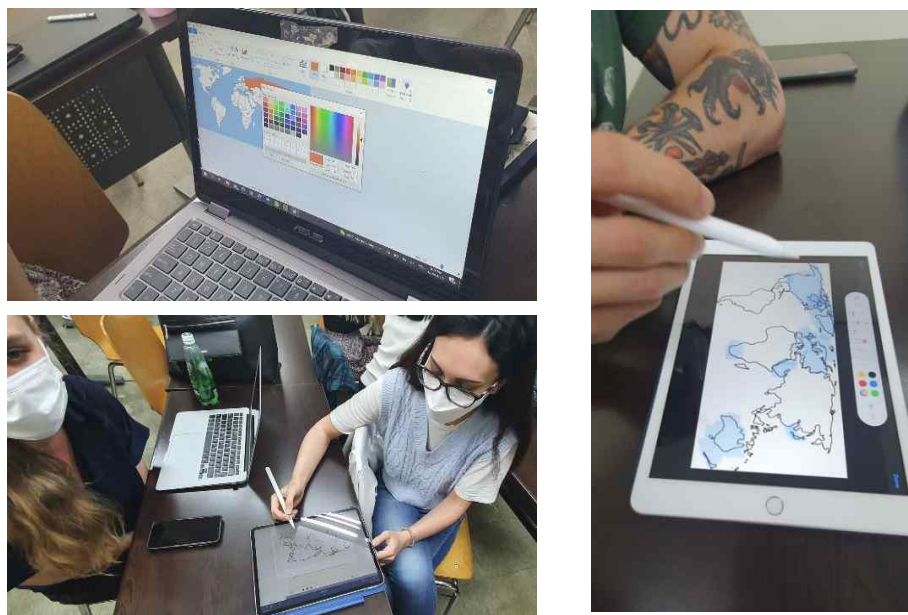
세계지도를 색칠하는 이 참여 학습은 학생들이 저개발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룹별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조사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세계의 국가들을 그룹 짓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선진국, 중소득국, 저소득국의 구분 대신 지구적 불평등과 국제개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보는 참여 학습을 시작하기 전,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국제개발 협력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쓰이는 데이터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세계지도를 소개한다[그림 1]. 이어서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그룹 지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다양한 세계지도를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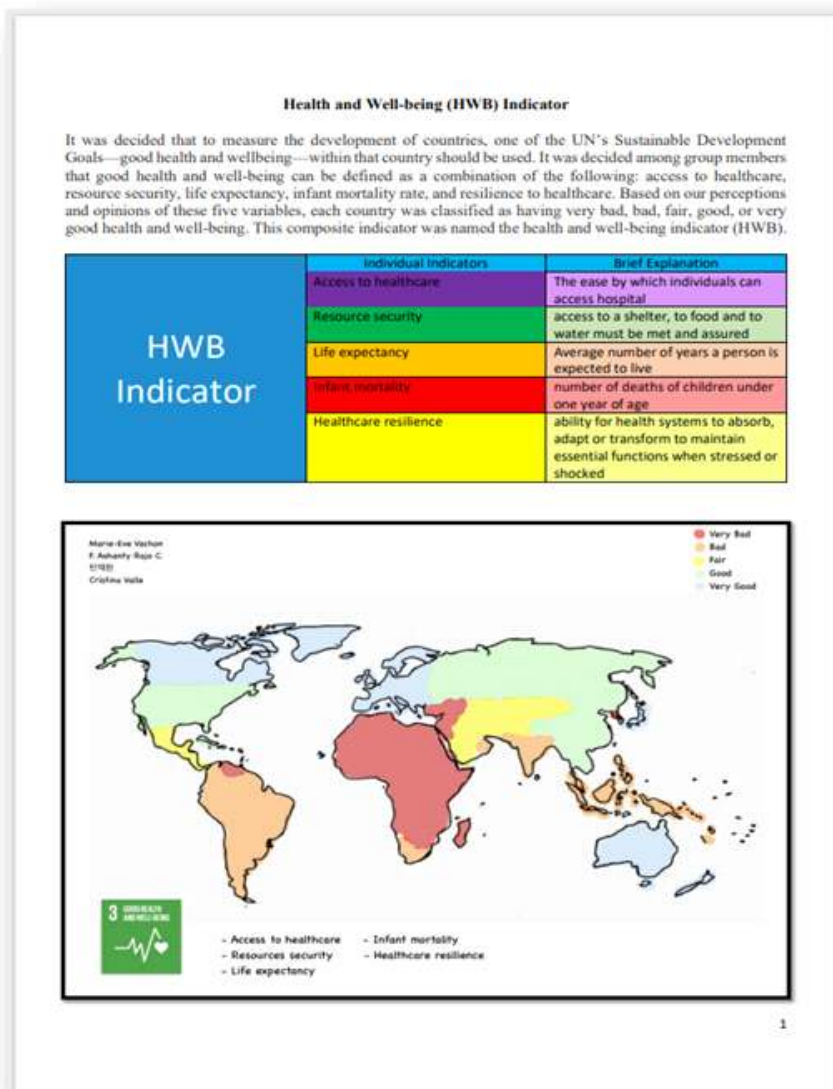
[그림1] 소득 수준별 세계 그룹 지도 (Hamadeh, et al., 2022)

설명 후 학생들은 약 4~5명으로 조를 만들어 세계 개발과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덱스를 설정하고 그 인덱스를 바탕으로 세계지도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림2].



[그림2] 다양한 디바이스와 앱을 활용하여 세계지도를 만드는 학생들

이 중 한 그룹은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여 자신들만의 고유한 개발 인덱스를 만들었다. 건강과 웰빙지수, HWB(Health and Well-being) Indicator라고 이름 붙인 이 인덱스는 의료시설 접근 정도, 자원 안보, 기대수명, 유아 사망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값으로, 이 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세계의 국가를 매우 열악, 열악, 보통, 양호, 매우 양호로 나누어 그룹화하였다[그림3]. 이 지도를 발표한 이후 다른 학생들은 본인들의 지도 작성 경험에 근거하여, 기대수명은 높을수록 좋고 유아 사망률은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 이러한 역방향 지수들을 어떻게 감안하여 종합 지표를 만들었느냐 등의 실질적인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그림3] Marie-Eve Vachon, F. Ashanty Rojo C., 탄재원, Cristina Valle학생의 그룹이 개발한 HWB지수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세계지도

국제개발 협력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이 전통적인 원조공여국으로 활동하면서 규범을 만들어온 영역이며, 이들 국가 외의 신흥 공여국들은 종종 기존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일탈국으로 묘사되고 비난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국제학의 유럽 중심적 시각의 한계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Naím, 2007).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개발 지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지도를 다시 그려보는 이 작업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의 그룹화, 즉 ‘선진국’과 ‘후진국’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세계를 이해하는 시각 변화를 위한 초기 학습활동으로 추천할 만하다.

사례 2:

- 과목: African Socioculture
- 대상: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 참여 학습법: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과 개별 맞춤형 학습

이 과목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2학기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사회문화의 이론과 실재에 대해 다룬다. 이 수업은 학기 내내 플립드 러닝 방식과 개별 맞춤형 학습을 통해 진행하였다. 플립드 러닝은 기존의 방식을 뒤집는(Flip) 학습이며 개별 맞춤형 학습은 학습자가 독립적이며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디자인하며 교수자는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학습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플립드 러닝은 기본적으로 강의 방식이나 강의 장소에 대한 기존 관념을 뒤엎는 것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강의 전에 미리 과제를 통해 개별 학습을 진행하고 강의실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심화 시키는 방식을 따른다. 플립드 러닝을 개발한 미국의 샘(Sam)과 버거만(Bergmann)에 따르면 학생들은 강의 내용을 흡수하는 것보다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힘들어하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교원들의 밀착 지도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정도의 과제를 미리 지정해주고 한 주 동안 충분히 고민한 다음 강의를 통해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두 가지 교수법은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태도에서부터 서구중심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였다. 즉, 국제학 특히 저개발국가를 바라보는 서구의 정형화된 텍스트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수업에서 탈피하고 수업 전에 미리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각 주치의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동료와 함께 토론하면서 새로운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탐구하고자 함이다.

아래는 [표 1]은 수업 진행에 대한 간략한 예시이다.

1주차	수업 진행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매주 하나의 주제와 학습 텍스트가 미리 주어지며, 학습자는 한 주 동안 이를 공부하고 자신의 주제와 연관시켜 충분히 고민한다. 강의에서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한다. 교수자는 모든 학습자의 텍스트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학습자의 토론 순서에 이해도가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면 보완해 준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는 심화 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발전을 꾀한다. 동료 학습자들은 발표자의 고민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의 주제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꾀한다.			
2주차	한 학기 동안 발전시켜 나갈 각자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동안 연구를 진행해 온 내용 또한 공유하였다. 자신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학습하고 싶은 사회문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학기 동안 개별 연구를 디자인하였다. 중간평가와 기말 평가를 통해 이를 발표하고 동료평가(peer review)로 더욱 발전시키기로 한다. 교수자는 중간평가와 기말 평가에 각각 제출한 연구 제안서를 검토하여 피드백을 준다. 각 학습자의 관심 주제와 지역은 아래와 같다.			
	학습자 A	학습자 B	학습자 C	학습자 D
	Diaspora /카리브해	Ethnicity/ 탄자니아	Afro-Centrism / 남아공	Immigration/ 북아프리카와 유럽
3주차	3주차 사회문화이론의 주제는 '이주(Migration)'로 진행하였고 각 학습자의 선행학습 텍스트와 선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학습자 A	Migration as a factor of Cultural change Abroad and at Home: Senegalese Female Hair Braiders in the United State (Cheikh Anta Babou) A 학습자는 이주와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가지고 변동을 다룬 텍스트를 미리 학습하였다.		
	학습자 B	African Patterns of Migration in a Global Era: New Perspectives (Abdoulaye Kane and Todd H. Leedy) B 학습자는 다민족 사회에서 특정 민족의 민족성 발전과 주변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주와 이후의 다양한 패턴을 다룬 텍스트를 미리 학습하였다.		
	학습자 C	School Migration: A Major Concern in Historically Disadvantaged Schools in South Africa (Myra Maboya) C 학습자는 국제사회 안에서 남아공의 주체적인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이주하는 남아공 사람들의 사례 연구를 다룬 텍스트를 미리 학습하였다.		
	학습자 D	Migration, Governance and Geopolitical Conflict in Africa: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oroccan Algerian Migration Policies (Mohammed Ouhemmou) D 학습자는 북아프리카와 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럽으로의 이주를 알제리와 모로코 국경 문제와 연관시켜 진행한 연구를 미리 학습하였다.		

[표 1] 아프리카 사회문화(African Socioculture) 수업 진행 예시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 수업을 통해서 7주차에는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동료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6주차에는 소논문을 작성하였다. 본 강의는 자신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이론과 실재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담론과 관점을 탐구하고 자신의 관점과 비교하면서 연구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능력과 자신감을 함께 키웠다. 뿐만 아니라 동료와 함께하는 토의 시간을 통해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고 자신의 논지를 설득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연습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구 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점을 몸소 익혔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학습 과정과 학습 내용에서 모두 서구의 시각에서 탈피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다양한 시각을 탐구하는 것을 지향하는 강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플립드 러닝과 개별 맞춤형 학습 그리고 세계지도 만들기는 학습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의 탈피’가 단지 수사학적 용어에 머물지 않고 쉬운 것으로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실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1의 경우 학습자들은 흥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지도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아주 만족하는 피드백을 주었다. 지도 제작은 이성적으로 알던 것을 몸소 체험하여 자신만의 세계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례2의 개별 맞춤형 학습은 특히나 학습자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이 있었다. 대부분의 수강자가 석사 2학기 과정에 있어 아직 충분한 이론적 토의와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를 통해 자신의 주제를 다양한 이론에 적용해보고 이론과 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하는 연습을 통해 아프리카 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자의 피드백은 학습자의 자신감 상승과 학습 의욕 고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사례 1의 세계지도 제작과 같은 경우 제작 방법에 대한 요령을 보다 체계화 시키고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부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반면 사례2와 같은 강의 진행 방식은 수강자의 숫자가 4~5명 안팎일 때 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수강자가 많을 경우에는 각각 학습자가 발언할 기회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활발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수자 또한 한 주 동안 개별 학습자들의 과제를 충분히 연구하고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자가 많을 시에는 각 학습자들

에 대한 밀착 지도가 어려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본 연구는 진행하는 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수자들이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기회와 알맞은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수자들 스스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강의 철학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모임이 단발성 모임에 그치지 않고 지난 연구에 대한 자기반성과 더 나은 교수법을 위한 끝없는 탐구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Andersena, R. & Ponti, M., 2014. Participatory pedagogy in an open educational cours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istance Education*, 35(2), pp. 234-249.
- Bilgin, P., 2016. How to remedy Eurocentrism in IR? A complement and a challenge for The Global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Theory*, 8(3), p. 492-50.
- El Miedany, Y. 2019. Flipped learning. In *Rheumatology Teaching* pp. 285-303.
- Hamadeh, N., Rompeay, C. v., Metreau, E. & Eapen, S. G., 2022. *New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2022-2023*. [Online] Available at: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new-world-bank-country-classifications-income-level-2022-2023> [Accessed 30 August 2022].
- Kallick, B., & Zmuda, A. 2017. *Students at the center: Personalized learning with habits of mind*. ASCD.
- Kumpulainen, K. et al., 2009. *earning bridges - Toward participatory learning environments.*, Helsinki: CICERO Learning.
- Mignolo, W., 2003. *The Darker Side of the Renaissance: Literacy, Territoriality, and Coloniz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Naim, M., 2007. Rogue Aid. *Foreign Policy*, March/April.
- Said, E. W., 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현대 그리스어 커리큘럼 연구」

김예진 교원, 한이슬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그리스어는 특수 외국어로서 국내 대학 중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그리스·불가리아 학과에서 유일하게 가르친다.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리스어와 한국어가 필요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길 바라는 이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4학년 과정만으로 학생의 언어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학과에서 운영 중인 그리스어 수업은 1, 2학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2학년까지 마친 학생은 중급 정도의 그리스어를 구사하지만, 3학년에는 언어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4학년에는 FLEX 시험을 위한 대비 수업만 운영된다.

현재와 같은 학과의 언어 수업 구성 배경에는 언어 수업 시수의 부족 문제나 학생들의 부전공 및 제2전공 등으로 인한 수업 참여에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언어 수업의 구성 틀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가능한 시수 안에서 학생들의 언어 실력 향상에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한다.

우선, 현재 커리큘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그리스의 현지 대학 내 어학당들은 꾸준한 교재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면서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과의 기초 그리스어 단계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오랜 세월 고정된 채 변화하지 않아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그리스 현지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로서의 그리스어 학습 교재를 조사하여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에 적합한 형태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또한, 3학년과 4학년 시기에 언어 수업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언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가적 활동들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아야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리스 대학과의 언어 연수 프로그램이나 학생들 간의 스터디와 같은 활동들의 운영 방식을 찾아보고, 학생들이 졸업 전에 C1 수준의 그리스어 실력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현대 그리스어 커리큘럼 연구와 제안

목적: 특수외국어 중 현대 그리스어 교육은 그 규모가 작다. 그리스 불가리아 학과에서 지난 19년 동안 조금씩 변경된 전공 외국어에 할당된 시간과 학생들이 졸업시험 FLEX를 위해 도달해야하는 언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교재가 존재하지만 어떤 교재도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각 학습자 군의 상황이나 교육기관의 내부적 요소 등 외부적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하는 교재를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재연구의 성과는 교육의 제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알려주며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서종학, 이미향:2007). 어떤 언어를 가르치든 보조교재를 쓰지 않는 교사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완벽한 하나의 교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재를 분석하고 교육기관의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교재를 사용한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에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

짧은 시간 내에 중급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교재를 선택하고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은 현재 그리스학과의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에서 제시하는 유럽연합 기준 그리스어 학습수준을 알아보고, 현실적인 수업 시수에 맞추어 새로 사용하고자 하는 교재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교재의 도입과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그리스어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다.

3. 연구 진행 내용

1. 현재 학과 내 그리스어 커리큘럼 현황 분석

효과적인 커리큘럼 제안을 위해 현재 학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리스어 수업의 시수와 전공필수 여부 및 총 언어 강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표1> 2022년 현재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전공 그리스어 과목 시수

학년	언어 과목	시간
1학년 (전공필수)	초급그리스어강독(1)-2시간	14시간 (학기당 7시간)
	초급그리스어강독(2)-2시간	
	초급그리스어문법(1)-2시간	
	초급그리스어문법(2)-2시간	
	초급그리스어회화(1)-3시간	
	초급그리스어회화(2)-3시간	

2학년 (전공필수)	중급그리스어문법과강독(1)-3시간 중급그리스어문법과강독(2)-3시간 중급그리스어작문과회화(1)-3시간 중급그리스어작문과회화(2)-3시간	12시간 (학기당 6시간)
3학년 (전공선택)	한국어-그리스어통번역연습1-2시간 한국어-그리스어통번역연습2-2시간	4시간 (학기당 2시간)
4학년 (전공선택)	FLEX그리스어1-3시간 FLEX그리스어2-3시간	6시간 (학기당 3시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기당 시수는 보강주간 1주를 포함하여 16주이다. 실제 시수를 15주로 보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면 13주 동안 온전한 수업이 진행된다. 1학년은 일주일에 7시간씩 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한 학기 시수로 계산하면 91시간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2학년의 한 학기 총 언어 강의 시수는 78시간이다. 3학년은 26시간이고, 4학년은 39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하지만 1학년과 2학년은 언어 과목이 전공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3학년과 4학년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전공필수 과목이 1, 2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3, 4학년에는 선택적으로 언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언어 수준은 1, 2학년 시기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학년은 학생들이 제2전공과 부전공 등으로 인해 언어 수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커리큘럼은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언어 공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학생들의 그리스어 수준 향상을 저지하고 있다.

먼저, 4학년이 되면서 졸업 요건인 FLEX를 위해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언어를 접하지 않아 다시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FLEX 시험은 C1수준으로 맞추어져 있는데(<표2> 참고), 이는 1,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도달하는 수준보다 약 한 단계 높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언어에 대한 공백 시간 및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시험에 대한 이중의 부담을 느낀다. 또한, 언어 공백은 계속해서 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준다. 물론 학생의 의지에 따라 학과에서 협력하는 다른 언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지만, 이는 학생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언어의 습득은 꾸준한 접촉과 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그리스어는 국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기에 언어의 접촉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언어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더 많은 접촉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어의 통역이나 번역에 대한 외부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나 경험 미흡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과 운영 측면에서 언어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가능한 언어 수업 시수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학년 별 언어 수준에 대한 커리큘럼을 재설정하고, 그리스에서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교재들을 활용하며 학생들에게 맞는 그리고 시대에 맞는 학습 방법을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I. 그리스의 어학 정책과 주요 대학 어학당의 운영 분석

2011년 그리스 교육부의 그리스어 담당 센터는 그리스어 능력 인증 시험 문제의 등급과 유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이전 A, B, C, D로 나뉘어 있던 시험은 유럽 공통으로 통용되는 A1, A2, B1, B2, C1, C2 등급으로 나뉘며, 기준이 세분화된다.

<표2> 그리스어 능력 인증 시험 기준

언어 수준	수준별 특징	
기초적 언어사용	A1	자신에게 친숙한 일상적 표현과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문구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을 소개할 수 있고, 사는 곳, 아는 사람, 소유물 등 개인정보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상대방이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A2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예: 매우 기본적인 개인 및 가족 정보, 쇼핑, 지역 정보, 업무)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문장 및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한 익숙하고 일상적인 작업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용어로 자신의 상황, 환경을 설명하고 필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자립적 언어사용	B1	직장, 학교, 여가 시간 등에서 정기적으로 접하는 주제에 관해 공통 언어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요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내에서 여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 자신이 알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자신의 의견, 계획, 경험과 꿈 등에 대해 간결하게 이유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B2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논의를 포함,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잡한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원어민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명확하고 상세한 글을 작성할 수 있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설명할 수 있다.
숙달된 언어사용	C1	비교적 긴 텍스트의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고 내포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준비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학문적, 직업적 목적을 위해 언어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자세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C2	읽거나 듣는 것 거의 모두를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말 또

		는 글로 된 서로 다른 기본 정보를 요약하고 일관되게 재구성할 수 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구별하면서 매우 편안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	--	---

새로운 시험 등급 기준에 따라 시험 응시자들은 자신의 등급을 선택하여 시험을 신청한다. 각 등급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네 영역에서 각각 일정 점수를 넘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가령, 읽기에서 만점을 받아도 말하기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다면 통과하지 못한다. 이는 언어 학습자가 하나의 영역에서만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고루 어학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다.(M. Karakýriou: 2014)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와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에 있는 국립아테네대학교와 국립테살로니키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어학당을 운영하며 외국어로서의 그리스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을 양성한다. 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외국어로서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어학당들도 커리큘럼에 변화를 주며, 네 영역을 고루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웠다. 각 대학의 어학당은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수강 신청자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시수가 많은 코스 혹은 적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 두 주요 대학의 어학당 프로그램

대학명	어학 프로그램
국립아테네대학교	8개월 프로그램(주당 20시간) 8개월 프로그램(주당 15시간) 8개월 프로그램(주당 6시간) 6개월 프로그램(주당 15시간) 6개월 프로그램(주당 6시간) 3개월 프로그램(주당 15시간)-210시간 ERASMUS (주당 6시간) 회화(주당 6시간) 여름 어학 프로그램(주당 20시간-한 달만 운영)
국립테살로니키대학교	1년 프로그램(주당 20시간) -584시간 1년 프로그램(주당 10시간) 4개월 프로그램(주당 20시간) 8개월 프로그램(주당 4시간) 3개월 봄학기 프로그램(주당 20시간)-232시간 3개월 봄학기 프로그램(주당 10시간) 여름 어학 프로그램1, 2, 3(주당 20시간-한 달만 운영)

<표3>은 그리스의 주요 두 대학교가 운영하는 어학당의 어학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두 어학당은 10월에 학기를 시작하고, 아테네대학교의 어학당은 다음해 5월까지, 테살로니키의 어학당은 6월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장기 코스이다. 그중 테살로니키 대학

교의 1년 프로그램은 매일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을 9개월간 듣는 코스로 총 584시간의 시수로 운영된다. 앞선 <표1>에 따르면 우리 학과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듣는 언어 수업 시간은 총 234시간이며, 이는 단순 비교에 따르면 주중 매일 3시간 씩 수업하는 3개월 코스의 어학당 수업과 비슷한 시수를 갖는다. 물론 언어 학습만을 목적으로 압축된 시간 안에 훈련하는 어학당과 대학교의 학과 수업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학과에 지정된 언어의 시수가 한 언어를 학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보여진다.

<표4> 두 주요 대학 어학당에서 사용하는 교재

대학명	교재
국립아테네대학교	Ακολουθώντας το κείμενο [아테네대학교 출판부]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Ανακαλύπτοντας το κείμενο ΚΛΙΚ στα ελληνικά Γράφω Ελληνικά Ελληνικά με την παρέα μου 등 총 150여개의 교재 및 디지털 자료
국립테살로니키대학교	ΤΑ ΠΑΙΔΙΑ ΠΑΙΖΕΙ [테살로니키대학교 출판부]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ΤΑΞΙΔΙ ΣΤΗΝ ΕΛΛΑΔΑ ΚΛΙΚ στα ελληνικά Ελληνικά Ορίστε! 등 총 70여개의 교재 및 디지털 자료

또한, 조사에 따르면 두 대학의 어학당은 모두 상당한 수의 교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테네대학교의 어학당은 약 150여개의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 테살로니키 대학의 어학당은 약 70여개의 교재를 활용한다고 한다. 또한, 등급에 따라 문학, 문화 등의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는 별도로 있다. 물론 모든 교재가 한 시즌에 사용되지는 않으며, 가르치는 교수자가 학생들의 언어 수준과 상황에 따라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대학의 어학당은 모두 대학교 자체에서 출판한 언어 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교재 활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테살로니키 대학의 어학당은 기초 수준인 A1, A2의 기준에 따라 A반에서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ΤΑΞΙΔΙ ΣΤΗΝ ΕΛΛΑΔΑ>, <ΚΛΙΚ στα ελληνικά>, <Ελληνικά>, <Ορίστε!>, <Επικοινωνήστε Ελληνικά>, <Ελληνικά Τώρα 1+1>의 교재를 교수자 재량껏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본교재와 더불어 보충 교재로 <Τα παιδιά παίζει>, <Αυτό Ακριβώς!>, <Ορίστε! Βιβλίο Δραστηριοτήτων>, <Λοιπόν>, <τι λες;>, <Τα Ελλην

ικά είναι ένα ... παιχνίδι>, <Άκου να δεις>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학습 활동과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교재 중 <Επικοινωνήστε Ελληνικά> 시리즈의 경우, 우리 학과에서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교재이다. 하지만 이 교재는 2002년 첫 출판을 한 책으로, 물론 꾸준히 개정판이 출판되고 있지만,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기에는 내용과 커리큘럼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그리스 내의 어학당들처럼 새로운 학습자 그리고 새 시대에 맞춰 연구, 개발된 다양한 동시대의 교재들을 주 교재로 혹은 보조 교재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Ⅲ. 현 수업 진행 현황 및 현 교재와 후보 교재 비교

2022년 2학기 기준 1학년 수업은 <Επικοινωνήστε ελληνικά 1> 18과까지 진도가 나가고 마무리 되었고, 2학년은 <Επικοινωνήστε ελληνικά 2> 11과까지 진도가 마무리 되었다. 1학년 수업에서 마치지 못한 6개의 과를 마무리하고 2권으로 넘어가야하는 상황에 수업 시수까지 적어지게 되므로 2학년을 마칠 때 교재를 전부 다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교재의 선택이 불가피하며, 이는 교수자와 학생의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시수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그리스어 교재는 <Ελληνικά στο π+φ>이다. 이 교재는 2014년에 처음 출간되어 다른 교재들에 비해 실생활에서 사용가능한 언어표현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연구자 본인 역시 그리스어를 가르치면서 새로 출간되는 여러 교재를 살펴보던 가운데 이 교재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리스 불가리아 학과와 그리스 테살로니키대학 그리스어 학당과 trail-made 프로그램으로 2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겨울방학 그리스어 연수의 담당 교수님께서 추천을 했고, 해당 책으로 그리스어 공부를 한 학생들이 교재의 구성이 흥미롭고 훨씬 언어수업이 즐겁다고 설문조사에 답한 바 있다. 그리스 현지의 현대 그리스어 교재들은 보통 그리스 대학 내 어학원 기준 일주일 20시간 시수 기준으로 맞춰있기 때문에 20과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대학 전공 시수에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시리즈를 활용하는 것이 수업진행에 훨씬 효과적이고 상황에 잘 맞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다음 표를 통해 현 교재와 새로 도입하고자하는 교재의 구성을 살펴보겠다.

<표5> 1학년 수준 교재에 수록된 문법목록 비교

	Επικοινωνήστε ελληνικά 1 (현 교재)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추천 교재)
구성	총 24과(복습장 제외 20단원) 6,12,18,24: 복습단원 /연습문제 별도	총 10과 (복습장 제외 8단원) 5,10 복습단원
수	A?	A1, A2



준 영 내 용 과 목	1과	-	1과	동사 είμαι 현재형/ A동사 현재형 정관사 주격 단수/ 명사 단수 주격
	2과	동사 είμαι 현재형		
	3과	A동사 현재형 명사의 주격과 목적격 단수 정관사	2과	-ος, -ας, -ης/ -η, -α/ -ο, -ι, -μα B동사 현재형, AB(불규칙) 현재형, 관사와 명사: 목적격 단수, 인칭대 명사 3인칭 단수 τον, την, το (목 적격)
	4과	인칭대명사 소유격		전치사 με, σε, για, από + 목적격 정관사와 부정관사
	5과	B1동사 현재형 중성명사 단수와 복수	3과	장소부사, 의문 대명사, 관사와 명 사 복수 목적격, 인칭대명사(목적 격, 직접 목적어), 소유 대명사
	7과	지시대명사 명사 단수 주격 -ος, -ας, -ης/ -η, -α/ -ο, -ι, -μα μου αρέσει 구문 현재형	4과	형용사(단수, 복수), 형용사 명사의 성수격 일치, 비교급, B2 동사 현 재형, μου αρέσει 구문 현재형
	8과	형용사 주격, 의문대명사	6과	Γ1(-ομαι), Γ2(-αμαι) 현재형, 빈도 부사, 시간지정 표현(목적격과 함 께), 명사 소유격 단수
	9과	B1동사 현재형, 불규칙 동사, Γ1 1 동사 현재형 형용사 주격, 목적격 명사와 정관사 주격, 목적격 단수		
	10과	B2 동사, Γ2 동사 현재형 빈도부사, 시간지정 표현(목적격 과 함께)	7과	A,B동사 단순미래, 접속법 의문 형용사(πόσος/η/ο)와 부사(πόσο)
	11과	부정관사 주격, 목적격 단수, 전 치사표현		
	13과	명사 주격 복수, 형용사 주격, 목 적격, 의문 형용사(πόσος/η/ο)와 부사(πόσο)		
	14과	국적, 색상 형용사 μου αρέσει 구문 현재형 주어변화		
	15과	단순미래 είμαι 와 A동사	8과	A,B 동사 단순과거, 시간 부사, 과

	미래표현에 사용되는 단어들 전치사 με +목적격		거관련 표현, 여성명사(-ος), 형용사(묘사)
16과	A동사, 불규칙동사 B1, B2, Γ 1, Γ2 동사 단순미래	9과	장소부사, A,B 동사 명령법, 명사 호격
17과	숫자 형용사		
19과	접속법		
20과	단순과거 Είμαι, A동사, πάω, έρχομαι, 단순과거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 인칭대명사, 의문대명사		
21과	지소사		
22과	비교급, 최상급		
23과	가능, 명령법,		

<Επικοινωνήστε ελληνικά 1>은 총 24과로 구성되어있고 <Ελληνικά στο π+φ>는 총 10과로 구성되어있다. 복습단원을 제외하면 전자는 20단원 후자는 8단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전자는 출간시기가 이른 만큼 2011년부터 적용 된 유럽 언어 공통 기준의 언어학습 수준을 처음부터 따르고 있지 않아 A수준의 어느 정도까지를 담고 있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반면 새로 도입하고자 제안하는 후자의 교재는 A1과 A2의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례로 <Ελληνικά στο π+φ>에서는 학습자가 단순과거 시제를 전반적으로 다 배우게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여러 개의 단원으로 구성된 <Επικοινωνήστε ελληνικά 1>에서 학습자는 단순과거를 몇몇 동사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문법사항이 많이 들어 있는 단원과 그렇지 않은 단원이 섞여 있는데, 이는 문법사항 누적에 대한 피로를 줄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으나 함께 묶어서 학습할 때 효율적인 문법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수업 시수가 충분하다면 문제 될 것 이 없겠지만 24과에 달하는 양은 1주일에 1과씩 나간다고 해도 이미 실제 수업 가능한 13주를 훨씬 넘어선다. 따라서 양질의 수업을 진행하며 복습까지 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현대 그리스어 교육 환경에 맞추어 주어진 시간 안에 해당 문법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지금 사용하는 <Επικοινωνήστε ελληνικά>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방대한 내용을 각 단원 안에 모두 전달하려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각 단원의 구성만 보아도 회화와 독해지문, 문법소개가 특별한 틀이 없이 산발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와 달리 <Ελληνικά στο π+φ>는 각 단원마다 회화(언어사용) 위주에서 언어 기능적 부분, 문법, 독해지문 순으로 구성이 되어있어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나누

어 수업을 진행하기에도 용이하다. 1학년 과정에서 1권을 2학년 과정에서 2권을 다 나가는 방식이지만 실제 진도를 다 나가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에, 부족한 수업 시수 안에서 효율적으로 여러 언어정보를 실제 언어생활 예를 들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대학에서 전공 언어에 할당된 수업 시수와 학습량을 고려했을 때 후자의 교재가 훨씬 나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표는 1학년 과정에 관련된 것만을 다루었지만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2>를 다루게 되는 2학년에서는 수업시간도 일주일에 6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간략하면서도 내용을 담아 다루는 교재의 선택은 필수이다.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2> 는 총 12과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의 복습과를 빼면 총 10개 단원이다. B1, B2 단계에 해당하는 문법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 어휘적인 수준만 높인다면 1수준까지 도달하기에도 적절한 밑거름이 되는 구성이다. 다음은 2학년 수준의 현 교재와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2> 교재의 문법목록을 비교한 표이다.

<표6> 2학년 수준 교재에 수록된 문법목록 비교

	Επικοινωνήστε ελληνικά 2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2
1과	명사 소유격 (중성명사) 소유관련 표현	1과 명사와 형용사 활용 (소유격 단,복수) 소유관련 표현/숫자 1,3,4 능동동사의 과거진행과 단순과거
2과	단순과거 A, B1,B2동사, κάθομαι 부정관사 소유격	2과 인칭대명사/ 능동동사의 단순미래, 미래진행/ 단순 접속법
3과	단순 명령법 A,B1,B2,불규칙 동사, 장소부사, 수량 대명사, 형용사	3과 명사 -ση, -ξη, -ψη Μόνος,-η-ο, όλος η-ο, αυτός/ή/ο και εκείνος-ο -μαι 형태 동사 현재형 Υποθετικός/λόγος Α' είδος
4과	명사 복수 소유격, 의문 대명사, 인칭대명사(직접 목적어)/	
5과	인칭대명사 (간접목적어)/ 형용사 -ός, -ιά/-ή, -ο, όλος,-η,-ο,	4과 여성명사 -ος/음절이 달라지는 명사 복수형 -δες/형용사 -ής-ιά-ί/ 부정 대명사 κανένας καμία/καμιά κανένα, κάποιος,α-ο και μερικοί,ές,ά 부사 καθόλου, πουθενά ποτέ
7과	Γ1, Γ2 동사 현재형 형용사 복수 소유격, 숫자 소유격	

8과	Γ1, Γ2 동사 단순미래, 접속법 부사 -α, -ως	5과	중성명사 -ος 능동분사 현재형 : -οντιας -ώντιας / 능동동사 명령형(단순, 지속) /부사/형용사 πολύς πολλή πολύ 부사 πολύ
9과	Γ1, Γ2 동사 단순과거		
10과	인칭 대명사 명령법(직접, 간접 목적어), 양과 관련된 대명사와 형용사	7과	단순미래와 접속법 -μαι로 끝나는 동사 /지소사 /미래진행, 접속법 진행형 -μαι 로 끝나는 동사/ 관계대명사 ο οποίος η οποία, το οποίο / που /관계 부사 όπου / 기수와 서수/복수형태가 두 개인 명사들 ο χρόνος ,ο λόγος
11과	과거진행 A,B1,B2,불규칙 동사, 여성 명사 -η, εις/αν και 구문		
13과	Γ1, Γ2 동사 과거진행형 과거진행형과 단순과거 사용, 현재 분사 A,B1,B2,불규칙 동사,	8과	-μαι 동사의 단순과거 / 형용사 -ης-α -ικο / 문장성분 ότι, πως που / 형용사 -ύς-ιά-ύ/부사 -ιά
14과	대명사 κάποιος,-α,-ο		
15과	인칭대명사(직, 간접 목적어), / 명령법, /비교급, /최상급	9과	형용사, 부사 최상급/ 능동, 수동 동사의 과거완료, 대과거, 미래완료
16과	과거완료 (모든 유형 동사)/ 미래완료 (모든 유형 동사)		
17과	Γ3, Γ4 동사 모든 시제 중성명사 -ος/Mόνος,-η-ο, 미래진행 (모든 유형 동사)	10과	-μαι 동사의 과거진행 /명사 -έας
19과	시간 형용사 명령법 진행(모든 유형 동사)		
20과	가능법 B, 형용사 -ων, ουσα, ον	11과	과거진행형을 사용한 가능법/ 조건문 Α', Β' Γ' /수동형 문장 / -μαι 동사의 단순 명령법 /중성명사 -ν , -ς
21과	시간 표현, 복합 형용사		
22과	형용사 -ύς-ιά-ύ 대명사 καθένας, καθεμία, καθε να		

23과	대명사 ὅσος.-η,-ο 부사 ὅσο		
	Γ1, Γ3, Γ4 수동형 동사 접속사, 접속부사		

2학년 과정에서는 다양한 심화 문법들이 등장하고 수업 시간이 1학년보다는 줄어들게 되므로 기존 교재의 내용을 다 배울 시수가 충분하지 않다. 단순한 교재의 구성만 본다면 하더라도 13주라는 실제 수업 진행 시수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하는 것에는 현 교재의 단위 수와 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두 교재에서 다루는 문법항목은 순서가 다를 뿐 거의 일치하고 있고, 새로 제안하는 교재에서는 문법사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예: 비슷한 형태의 문법을 묶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물리적 양을 줄이고 이해도까지 높임).

IV. 새로운 커리큘럼 제안

1) 수업의 구성과 교수자

성인 외국어 교육은 인지능력이 성숙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목표언어와 학습자의 모국어를 모두 잘 알고 있는 교수자의 설명이 이해도를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를 학년별로 적절히 분배하여 최고의 효율을 끌어내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현재 1학년 수업은 100% 그리스인 교수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전공 수업관련 피드백에서 기초 부분에서 한국인 교수의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해마다 나오고 있다. 실제로 1학년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한국인 교수의 다른 수업에 들고 와 질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생각보다 간단한 설명으로 이해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 문법과 강독은 한국인 교수가 회화와 작문은 원어민 교수가 진행한다면 양질의 수업을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학년에 주로 발생하는 언어수업의 공백은 학과 차원에서 수업의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3학년에 공백이 너무 커지면 졸업시험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 3학년 수업에서 언어관련 수업은 그리스어 통번역 연습 (1)(2)로 일주일에 단 두 시간 뿐이다. 통번역의 경우 한국인 교수와 그리스인 교수가 각각 그-한, 한-그를 맡아 시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실제 통번역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진행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3학년 중 계속해서 언어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고급 수준의 언어강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학년 때 치러야 하는 졸업시험 Flex 그리스어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

정이다.

2) 교재

2022년 1월에 학과 전공언어 담당 교수의 그리스어 초급 교재 ‘언어평등 그리스어 첫 걸음’이 발간되었고 유료 영상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보충이 가능해졌으나 해당 서적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초급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공 수업 어느 단계 이상에서는 그리스 현지 교재를 반드시 사용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리스 현지 언어 사용 동향을 담은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생생한 현지어를 경험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 19년간 사용해 온 기존 교재는 동사변화, 즉 시상체계에 대해서는 숲을 보여주기 보다는 나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상형태를 매우 혼란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수업 시간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한국인의 사고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를 둘 다 구사하는 교수진이 학습자의 모국어로 설명을 더해준다면 충분히 더 빠른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수업시간에 통합적으로 동사의 형태, 의미적 접근을 다루어 학생들이 시상체계를 하나 씩 다루는 것보다 훨씬 이해도가 높아진 바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2022년 2학기 2학년 중급 그리스어 문법과 강독 수업에서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2(중급)> 교재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언어실습과 독해 등에 사용해 보았는데, 그리스에 대한 지역학적 지식과 더불어 언어 활용하는 것이 훨씬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각 단원에서 제시하는 언어사용의 예시가 실용적이며, 그리스에 대한 지식도 더불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연습으로만 그치지 않는 점이 <Ελληνικά στο π+φ> 시리즈의 강점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당연히 부교재의 병행과 다양한 문장을 접하는 것이 과제 등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제한 된 시간 내에서 활용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교재로 판단된다.

3) 수업시간 외 활용

현재 그리스어 전공은 다양한 수업 외의 활동을 통해 언어학습을 보충하려 노력하고 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그리스어 멘토링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싶은 편입생, 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1년부터 겨울방학마다 4주과정의 온라인 어학 연수를 진행 중이다. 소수로 구성된 (최대 6명) 학생들이 테살로니키 대학 그리스어 어학 당과 trail-made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받는다. 학교에서 제작하는 홈스 콘텐츠 앱 그리스어 강의 초급이 열려 있으며 2023년 1, 2월 중으로 중급 과정이 제작완료 될 예정이므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밖에 학과 차원의 학술 행사로 그리스어 말하기 대회와 그리스어 브이로그 영상 공모전, 그리스어/한국어로 출간되는 독립출판 프

로젝트 <안녕 그리스>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낼 때 훨씬 흥미도와 집중도가 높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서종학, 이미향. (2007). 한국어 교재론. 서울:태학사.

Αρβανιτάκης, Κλεάνθης. (2011). *Επιכוινωνική επικοινωνία I. Αθήνα : Δέλτα*.

Brown, H. D.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Εφης Γκαρέλης κ.ά. (2012). *Ταξίδι στην Ελλάδα I. Αθήνα : Γρηγόρης*.

Λήδα Τριανταφυλλίδου, Μαρίνα Κοκκινίδου, Χριστίνα Τακούδα, Ειρήνη Σειχίδου, Κατερίνα Σταυρούλου (2014), *Ελληνικά στο παθ 1*, Gutenberg.

Λήδα Τριανταφυλλίδου, Μαρίνα Κοκκινίδου, Λέλινα Παντελόγλου (2019), *Ελληνικά στο παθ 2*, Gutenberg.

Μαρία Καρακώρυγος, Βικτωρία Παναγιωτίδου και Νιόβη Αντωνοπούλου (2014), *Τα νέα επίπεδα και η νέα δομή του πιστοποιητικού ελληνομάθειας του Κέντρου Ελληνικής Γλώσσας, Κέντρο Ελληνικής Γλώσσας*.

※ 인터넷 자료

Οδηγός για την πιστοποίηση Ελληνομάθειας

(http://www.mfa.gr/bulgaria/images/stories/sofia/docs/Odigos_gia_tin_pistopoihsh_Ellinomathias.pdf)

아테네대학교 어학당 교재

https://www.greekcourses.uoa.gr/genikes_plirofories/biblia/egcheiridia/

테살로니키대학교 어학당 교재

<https://smg.web.auth.gr/may2019b/wp-content/uploads/2022/11/%CE%A3%CE%9D%CE%95%CE%93.%CE%B5%CE%B3%CF%87%CE%B5%CE%B9%CF%81%CE%B9%CE%B4%CE%B9%CE%B1.%CE%9D%CE%BF%CE%B5%CE%BC2022-compressed.pdf>

「 석사과정에서의 번역학 이론을 접목한 한-일 번역 교재 연구 」

남슬기 교원, 송신애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본 모임에서는 지난 학기 교수법 연구 모임을 통하여 작성한 교재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발전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번역 대학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일, 일한 일반 번역 강의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에 대한 적절한 번역 전략을 학습하고 전문 번역사로서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을 학습목표로 삼고 있다. 이때 교수자가 준비하는 텍스트는 시의성 및 교수자의 통번역 실무 경험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균형잡힌 학습 계획 설계라는 측면에서 교수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한편 통번역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1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학습 부담 및 흥미를 잃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지난 학기 작성한 교재를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의의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석사과정에서의 번역학 이론을 접목한 한-일 번역 교재 연구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1학년생을 대상으로

목적: 기존에 작성한 교재를 수업 현장에 적용한 후 교재의 의의 및 개선점 도출

3. 연구 진행 내용

3.1 1회차 연구 모임

지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1학년 1학기 번역수업에서 다룬 텍스트를 분류한 결과 정보적 텍스트로 신문기사, 방송뉴스, 보고서 등이 있었고 표

현적 텍스트로는 아동문학, 미디어번역(자막), 작용적 텍스트는 연설문과 광고가 있었다. 텍스트 타입을 기준으로 분류한 과제물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았다.

<표-11>

텍스트 유형	한일번역(1반)	일한번역(1반)	한일번역(2반)	일한번역(2반)
정보적 텍스트	3주차 보고서	3주차 신문기사	12주차 잡지 기사	2주차 신문기사
	4주차 신문기사	4주차 방송기사	13주차 산업 동향	3주차 보고서
	5주차 실용서	11주차 회의 속기록	14주차 과학 기술	
		13주차 법개정 가이드라인		
표현적 텍스트	6주차 문학	5주차 공공기관 홈페이지(왕실)	7주차 에세이	4주차 칼럼
		7주차 아동문학	9주차 문화 예술	5주차 아동문학
작용적 텍스트	7주차 광고	6주차 관광(PPT)	3주차 연설문	6주차 홍보, 관광
	11주차 서신	15주차 역사 기록물		7주차 광고

다음 학기인 2022년 1학년 2학기 번역수업의 경우 한일, 일한 산업경제번역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텍스트 장르에 따라 고른 분포가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결과는 아래의 <표-2>와 같다. 한일번역(1반)의 경우 교수가 '산업경제 관련 텍스트'와 같이 강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2>

텍스트 유형	한일번역(1반)	일한번역(1반)	한일번역(2반)	일한번역(2반)
정보적 텍스트	강의계획서에 정보 제공 없음	2주차 일본경제	1주차 보고서	3주차 신문기사
		4주차 세계경제	2주차 학술서	3주차 보고서

- 1) 강의계획서에서 제시된 교재를 Reiss의 텍스트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분류한 것이다. 정보적 텍스트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plain communication of facts)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표현적 텍스트는 '창조적인 작문(creative composition)'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의 저자가 언어의 미학적 차원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작용적 텍스트는 '행위적 반응 유발(inducing behavioral responses)'을 위해 쓰여진 문서로 수신자(독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기 때문에 대화적인 언어형식을 취한다.

		11주차 회의 속기록	14주차 과학 기술	12주차 보고서
표현적 텍스트		4주차 경제칼럼	7주차 홈페이지	4주차 칼럼
		5주차 경제에세이	9주차 사업소개서	6주차 ppt
		13주차 자막	12주차 드라마 자막	7주차 강연문
		6주차 홈페이지	10주차 서신	5주차 브로슈어
작용적 텍스트		7주차 광고동영상	11주차 연설문	7주차 광고
		11주차 관광홍보물		11주차 연설문

1학년 2학기에는 ‘산업경제’라는 분야로 좁혀서 번역 수업이 이루어졌다. 해당 주제 분야를 떠올리면 형식이 갖춰져있고 정보가 중시되는 정보적 텍스트가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드라마 자막과 광고, 연설문 등 다양한 텍스트 장르를 수업중에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보아 번역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 수업의 목표는 고루게 분포된 텍스트 장르의 제공 및 이에 따른 적절한 번역 전략의 제시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었다. 더불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번역 교재 작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3.2 2회차 연구 모임

번역 수업 운영을 살펴보면 해당 주차 수업이 이루어지기 1주일 전에 학생들에게 과제가 주어지고 이에 대한 학생의 번역물을 교수자 및 동료학습자가 평가 및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 교수자는 텍스트 장르에 따른 적절한 번역 전략을 선택하기 위한 판단재료를 번역브리프를 제시한다. 번역 브리프란 번역을 의뢰하는(받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요구 및 텍스트에 관한 정보를 담은 번역 의뢰서(translation commission)²⁾로 단순히 ST(source text)를 TT(target text)로 단어나 문장 차원에서 옮기는 작업이 아닌 텍스트 생산 과정 전체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다음은 과제 제출 시 교수자가 제시한 번역 브리프의 사례이다.

2) Nord(1997: 59-62)

<표-3>

사례1	1. 의뢰인: (주)OO 서비스 기획팀 2. 의뢰 내용: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개발팀에게 배포되는 사내용 안내 자료입니다. 살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000000@naver.com) 4. 기한: X월 XX일 XX시
사례2	1. 주제 : (주)XX골프채 판촉 광고 2. 예상 독자 및 목적: 한국지점 영업점에서 광고/판매를 위한 번역 요청 3. 워드파일로 제출해주세요.(원문 x, 번역문만) 4. 기한: X월 XX일 XX시
사례3	제목: 졸업 축하 번역 주제: 피스 마타요시 나오키의 졸업축사 ‘베드엔딩은 없다, 우리는 도중이다’ 번역목적: 졸업식에 참석하는 보호자를 위한 번역 게재매체: (졸업)식장 내에서 배포되는 팸플릿
사례4	제목: 認知行動変容アプローチ(지역:인지행동변용 어프로치) 번역목적: 한국 정신의학회 가입 클리닉과 정보 공유 게재매체: 학회 가입 클리닉 내 비치
사례5	제목: 1919-1924における柳宗悦の言論活動とメディアの役割(1819-1924 야나기 무네요시의 언론활동과 미디어의 역할) 번역 목적: 학술대회 발표원고의 (자막)번역, 환경을 고려하기 게재매체: 현장 대형스크린 하부에 표시됨

위와 같이 번역 브리프는 번역을 의뢰하는(받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요구 및 텍스트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스스로 가변적인 상황 맥락을 고려하며 번역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두 연구자 모두 과제 제출 시 번역 브리프를 제공하였으며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실제 상황과 같이 개인적으로 추가 문의하도록하여 최대한 명확하게 번역 가이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건 속 실제로 제출한 학생들의 과제를 분석해본 결과 나타난 학생들의 오류 유형 및 사례는 아래와 같았다.

(1) 예상 독자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선택

우선 예상 독자의 연령에 따른 어휘 선택으로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였으나 독자층이 읽을 수 없는 한자에 대한 정보 없이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 ST: (목록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TT1: (長寿湯) わたしの すんでいる まちには……

[BT1: (장수탕)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TT2: (せんとう) わたしの すんでいる まちには…

[BT2: (목욕탕)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해설: (長寿湯) 위에 ちょうじゅゆ 와 같이 후리가나를 달아주거나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변경해주는 것이 적절함.

위의 학생의 경우 제목과 연관이 있는 장수탕을 강조하고 싶어서 해당 표현을 그대로 적었다는 점에서 문맥 및 전체적인 통일성 측면의 이해도는 높았지만 독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다음은 예상 독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어휘 선택의 사례이다. 아래는 건설협회 회보 번역을 요청한 과제로 예상독자는 건설협회 회원사의 임직원이었다.

예) ST: (교량의) 거더라고 불리는…(생략)

TT1: ガーダーと呼ばれる… [BT: 거더라고 불리는]

TT2: 橋桁と呼ばれる… [BT: 교각이라고 불리는]

TT2의 학생의 경우 거더를 그대로 직역하지 않고 다리 기둥을 뜻하는 ‘교각’으로 번역했으며 TT1의 학생의 경우 원문의 거더를 그대로 유지했다. TT2의 학생의 경우는 거더라고 표현이 익숙치 않아서 ‘교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는 번역사와 예상 독자간의 지식의 불균형에 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TT2가 오역이라고 볼 수 없지만 건설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를 같은 전문가가 읽는 데 있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이유로 다른 어휘를 선택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례 4)에서 제시한 ‘정신의학 클리닉 비치용’ 자료의 경우 의학적 정보 외에 실제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 클리닉을 찾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으나 상담의 형태로 증상이 개선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원내에 비치된 자료를 포함하여 음악, 조명, 쿠션 등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보적 텍스트로 판단하여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그 보호자에게 ‘배려’가 필요한 어휘선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가령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보자.

예) ST: 決めつけ思考に気づいたときには' 良いことも良くないことも起きている
現 実に目を向けて' 先に向かう工夫をしてください°

[BT: 단정부터 내리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에는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그
일이) 발생한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을 해보세요]

TT1: 단정 짓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일단은 내일을 향해 한 발 내딛어봅시다.

TT2: '단정짓기식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면 좋은 일이란
나쁜 일이란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TT1의 번역은 상당히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출하여 실제 환자 및 보호자
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다고 각주를 통해 설명해 주었다.

<TT1의 번역자의 전략>

1)단정 짓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일단은 내일을 향해
한 발 내딛어봅시다.이 문장 전체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독자를 정신의학과에 내원한 일반인
환자로 상정한다면 본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때 들었던
임상심리학 수업에서 내담자에게 '노력해봐라' '사고방식을 바꿔봐라' 등의 조언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장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다소 과도한 개입인가 불안하기도 합니
다.

자신이 한 번역과 그 전략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논거를 제시할 것을 두 교수자
가 강조한 만큼 학습 경험과 해당 전문가(교수자)의 의견을 떠올려 번역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인지행동변용'이라는 다소 어려운 제목이지만 텍스트는 '마인드풀니스
(MINDFULNESS, 마음챙김)'가 주된 내용이며 따라서 전체적으로 심리상담가의 조언을 구
어체로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반면 TT2는 다소 번역어 역출이 까다로운 용어를 간결하고 독자에게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번역을 생산하였다. '工夫'라는 표현은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것' 또는 '그 방법'
이라는 뜻인데 ST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TT2의 번역에서 '노력해 보세요'라는 번역이 ST와 의미 상 커다란 간극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상기 두 학습자 외에 다른 번역에서도 메모를 통해 '자료를 조사하니 피해
야하는 말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고민을 한 학습자나 '초벌번역에서는 어렵지 않았는데
찾아볼수록 상처줄 것 같아 무섭다' 등의 의견을 주었다. 다만 TT2의 학습자가 '그것까지
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번역물의 수용자를 더 이해하고 고민하는 번역이 어려운지 조금

알 것 같다는 의견을 토론 시간에 공유해 주었다. 1학년의 경우 ST에서 벗어나거나 ST의 뉘앙스, 표현, 단어에서 TT로 도착하는 과정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번역브리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문체의 선택

팜플렛에 기재되는 스피치 원고가 과제로 제출된 경우였는데 예상 독자는 졸업식에 참가하는 학부모였다. 이에 구어체가 적절한지 문어체가 적절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였는데 제출된 과제는 아래와 같다.

예) ST:ハッピーエンドはない' 僕たちは途中で

[BT: 해피엔딩은 없다, 우리들은 도중이다]

TT1: 해피엔딩은 없다, 우리들은 도중이다.

TT2: 해피엔딩은 없으며 우리들은 현재진행형입니다.

TT1로 번역한 학생의 경우 원문이 보통체이므로 현장감을 살려 번역문도 보통체로 선택했다. 한편 TT2의 학생은 예상 독자가 학부모이므로 보통체보다는 경어체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ST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강연자의 원고를 사전에 번역하여 대형 스크린 하부에 자막으로 제시하는 형태였다. 교수님은 학습자들에게 학술대회용 자료가 이미 번역 및 배포되었고 행사장에는 동시통역사가 통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이는 원고 전체에서 반복된 표현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존 번역과 같이 친절하게 풀어주거나 설명을 첨언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제 번역에서는 많은 것을 학습자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예) ST: 柳の文章は全文にわたり' 朝鮮の人びとへの親しみと尊敬と' 朝鮮の人びとに
敬意をもつことのない日本の圧政への批判に貫かれている°

[BT: 야나기의 문장은 전체적으로 조선의 사람들에게 대한 친근함과 존경과 조선의 사람들에게 경의를 가지지 않는 일본의 압정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되어 있다.]

TT1: 야나기의 글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선 사람에 대한 친밀함과 존경 조선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탄압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습니다

TT2: 야나기의 글은 조선인에게 친밀감과 경의를 표하고 조선인을 존경하지 않

는 일본의 압제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TT1은 ST의 문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실제 현장에서 이 자막을 보고 있는 독자와 아무리 원고를 읽는다고 해도 평서체로 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고 자신의 번역 전략을 설명했다. TT2는 문체에 대한 이슈보다 ‘조선의 사람들’, ‘조선인’에 대한 번역어 선택이 적절한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고 스스로의 번역 전략에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공유해 주었다.

위 사례의 경우 모두 문체 오류는 아니지만 문체가 전체 번역 텍스트의 성격과 인상을 좌우하는 큰 부분이므로 반드시 클라이언트(이 경우는 교수자)에게 문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3) 민감한 어휘 및 표현의 선택

한일 외교 관련 텍스트에서 국가명이 나열된 경우의 어순, 또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어휘, 더불어 인명과 소속과 관련된 번역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아래의 사례의 경우 한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본 국적의 임직원에게 자사의 경영이념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번역 업무였는데 학생에 따라 번역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예) ST: 한국전쟁이후 기댈 수 있었던 것은...(생략).

TT1: 韓国戦争後' 頼りにできたのは... (BT: 한국전쟁 이후...)

TT2: 朝鮮戦争後' 頼りにできたのは... (BT: 조선전쟁 이후...)

한국전쟁의 경우 일본에서는 韓国戦争(한국전쟁)이 아닌 朝鮮戦争(조선전쟁)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은 일본인의 경우 朝鮮戦争(조선전쟁)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해당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TT2의 학생은 내용 전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선전쟁’이라고 번역했다. 한편 TT1의 학생은 한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본 국적의 임직원이므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을 것이며 자사에 대한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에서 굳이 일본식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한국전쟁’이라고 번역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또한 양쪽 모두 오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번역 브리프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재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 클라이언트에게 번역물 제출 시의 번역사의 코멘트

번역 브리프를 클라이언트가 번역 의뢰를 하는 장면을 예상하며 교수자가 메일 형식으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이다. 이에 학습자는 교수자에게 메일로 번역물을 첨부하여 회신하며 본문에 인사말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하였다. 아래는 학생들이 메일 본문에 기재한 내용의 사례이다.

예1)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수정하여 제출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2) 안녕하세요?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3) 담당자님 귀하

안녕하세요,

번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문화에 맞게 다소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중에서 가장 무난한 것은 2번이다. 1번과 3번의 학생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변경점을 알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변경된 부분에 대한 사전 상담 없이 진행된 경우라면 불안감과 더 나아가 불쾌감까지 줄 수 있다.

1번의 경우 원문에 비문과 부자연스러운 연결 등이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다듬었다는 뜻이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불안감을 주면서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보인다.

3번의 경우 의뢰받은 텍스트가 한글 파일(hwp)이었는데 일본에서는 한글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word)을 사용하므로 워드 파일로 수정한 것을 이렇게 언급했다고 한다. 양식 변경이라는 판단은 적절했으나 이렇게 눈에 띄는 큰 변경점은 번역 완성물을 제출할 때가 아닌 의뢰를 받은 즉시 상담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3.3 3회차 연구 모임

2회차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학생들 오류 유형 등을 살펴본 결과 번역사가 번역 브리

프를 보고 텍스트 장르 및 주제에 따라서 적절한 번역 전략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텍스트 내적인 번역 업무뿐 아니라 고객 - 번역 텍스트 - 번역사 간의 번역 행위 전반에대한 설명을 해주는 이론 중 하나로 Hölz-Mantari의 번역행위론이 있다. Hölz-Mantari 자신의 전문번역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번역행위론은 통번역의 시작에서 완료까지의 과정에 개입하는 당사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해당 이론은 번역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일련의 참여자들과 역할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로 설명하고 있다. 즉 번역사가 클라이언트(의뢰인, commissioner)로부터 번역 의뢰를 받고 번역사(목표 텍스트 생산자, target text producer)는 해당 문서를 번역하고 이후 번역된 문서를 '목표 텍스트 수신자(target text reader)'가 읽는다.

즉 텍스트 장르에 따른 번역 전략 모색을 위하여 번역 브리프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 텍스트 내적뿐만이 아니라 의뢰를 받고 납품하기까지의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객이 선호하는 문체를 구현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번역사가 선택 및 고민해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하는 부담 또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석사과정 1학년은 번역을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문자의 치환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번역이 관련자들의 상호작용,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번역브리프는 번역 결과물을 의뢰인의 목적과 번역문의 용도 및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하기 위해 번역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신지선,2008). 기존의 단어나 문법 등 텍스트적 평가에서 벗어나 번역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기능주의의 관점에 따라 제시된 개념(Reiss&Vermeer, 1984:113)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보용 브로슈어를 번역하는데 의뢰인은 다양한 관형어 등을 활용하여 생동감있게 표현해 주는 것을 기대하지만 번역사는 원문 텍스트와의 정확성을 우선하여 평이한 느낌의 번역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연설문 번역 시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해주길 원했으나 실제 번역된 문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을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소통 문제로 인한 오역 및 번역의 완성도 결여 등은 결국 번역사와 번역텍스트의 생산자, 의뢰인 등 각각의 번역행위자 간 번역의 스코프스, 문체, 선호하는 표현 등 번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통번역대학원 1학년 학생들에게 언어적 능력 뿐 아니라 소통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위에 나타난 학생들의 오류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텍스트 외적 부분으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이다.

1) 문체의 선택

- 문어체/구어체
- 만연체/간결체

2) 독자층에 따른 선택

-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
- 일반인 대상/ 전문가 대상
- 성인 대상/ 청소년 대상 / 아동 대상

3) 기타

- 텍스트 내 생략 및 추가 설명 여부 및 그 방법
- 번역 텍스트 양식 변환 유무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2인의 연구자는 통번역 대학원 한일과 1학년 번역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작성을 위하여 연구 모임에 참여하였다. 지난 학기에 번역학 이론을 적용한 교재를 시범적으로 작성해보았으며 금번 학기에는 교육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평가 및 개선점을 도출해보았다.

먼저 먼저 범용성 있는 교재가 되기 위하여 실제 번역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텍스트 유형을 이론적 토대 위에 분석하고 그렇게 추출한 텍스트 유형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무, 교육현장에서 교수자(또는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번역 브리프를 교재에 담아 번역물에 맥락을 설정했다. 번역학 이론을 적용할 범용성 있는 교재 작성에 참여하여 의식함으로써 기존에 간주관적이었던 강의계획서 상의 교재 배치가 텍스트 장르별, 목적별, 번역 전략별 등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번역 브리프 제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학생들의 오류 및 고민 사항들을 살펴보고 번역 브리프 외에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지난 학기의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상 독자에 따른 정중도의 선택, 문체의 선택, 생략 및 부연 설명 여부의 선택, 번역물 제출 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사의 코멘트 등 번역 브리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내용을 교재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금번 연구에서는 1학년 1학기생을 대상으로 범용성 있는 교재 연구를 목표로 하였으나 1학기 수업에 비해 2학기 수업은 산업경제번역과 같이 수업의 주제 분야가 좁혀졌다는 점, 또한 교재 적용 기간 및 학생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교강사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전달하는 도제식 수업이 주를 이루는 통번역 대학원 1학년 수업에서 범용성있는 교재를 작성 및 발전시키고자 시도했으며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곽중철, 박지영, (2013) 번역행위자 간 소통 문제 연구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에 대한 클레임 사례를 중심으로 -, 통번역학연구, 17-3, pp1-22
- 노드, 크리스티안. (2006). 번역행위의 목적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신지선. (2007). 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번역학연구, 8(2),75-101.
- Munday, Jeremy. (2016).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England: Routledge.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영국: St. Jerome Pub.
- Reiss,K., & Vermeer,H.J. (2010). 일반 통번역 이론 기초.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스팟(Spot)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의 학습효과와 효율성 연구」

이선희 교원, 민경만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Covid-19로 인하여 최근 교육 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나 PC 혹은 노트북 등의 기기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부는 2022년 교육과정 권고안을 통해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실수업을 구축하고 원격수업 등의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방식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간의 유연한 연계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자 개별 맞춤형 수업을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 대학 강의실의 주요 학습자는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¹⁾이다. 이들은 PC,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났으며 내 안의 다양한 모습(페르소나)을 아바타로 표현하고, 아바타를 통해 친구를 만나서 게임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3D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 ‘메타버스(Metaverse)’를 디지털 세상이라고 인식한다(고선영 외, 2021: 7). 메타버스는 과거 이러닝(E-Learning)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반 교육에서 한 차원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세대가 살아가게 될 메타버스는 그 영역을 점차 교육 분야까지 확장시켜 나가려고 한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 실재감이 높은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고 학습 몰입도 및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교육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박진철, 2021: 119). 하지만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교육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모임에서는 초급 중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 분석, 스팟을 활용한 초급 중국어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스팟을 활용한 초급 중국어 수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이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1)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원어민(Native speaker)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로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의 세대를 지칭함.

대주제: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 방안 연구

목적: 본 모임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수 및 학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기반의 중국어 교육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장기화되면서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21년 7월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하고 디지털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메타버스를 선정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 환경과 가치관에도 점진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메타버스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활용은 아직 출발 단계에 가깝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교수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구체적인 중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모임에서는 중국어 교육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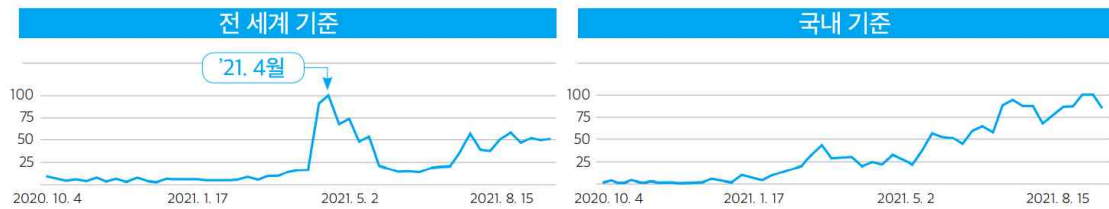
3. 연구 진행 내용

본 모임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중국어 수업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을 분석하고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스팟을 활용한 중국어 초급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스팟의 사용법을 익혔으며 스팟을 통해 학습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스팟을 활용한 초급 중국어 수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1)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메타버스 시장규모에 대한 전망과 메타버스 검색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21)은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1년 307억 달러(약 34조 1,077억 원)에서 2024년 약 2,969억 달러(약 329조 8,559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김보은□김민지, 2021: 14). 또한, 메타버스 검색량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표1>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 검색량



출처 : 구글 TREND, NIA 분석(2021.9월)

메타버스(Metaverse)는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로서, Meta는 ‘초월성’과 ‘변형성’을 의미하고 Universe는 ‘세상’ 또는 ‘우주’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 세상을 뜻한다(이현정: 80, 2021; 이승환·한상열, 2021: 1).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슨(Stephenson, Neal)의 SF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가상의 나라 메타버스에 진입하기 위해서 아바타로 구현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렇듯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단어는 SF소설에서 처음 탄생하였지만, 교육 분야에서의 메타버스는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 중 몇 가지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메타버스에 대한 기존 정의

기관 및 연구자	정의
고선영 외(2021)	현실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일상 활동과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3D 기반의 가상세계
김보은·김민지(2021)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현실과 가상세계가 공존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상호작용이 강화된 학습
김상균(2021)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
박상준(2021)	물리적 현실과 가상 공간이 융합된 것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상호 연결하는 공간
이승환·한상열(2021)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ASF, 2021)	가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화된 가상공간의 융합이며,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 교차점, 결합이 일어나는 세상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IEEE, 2014)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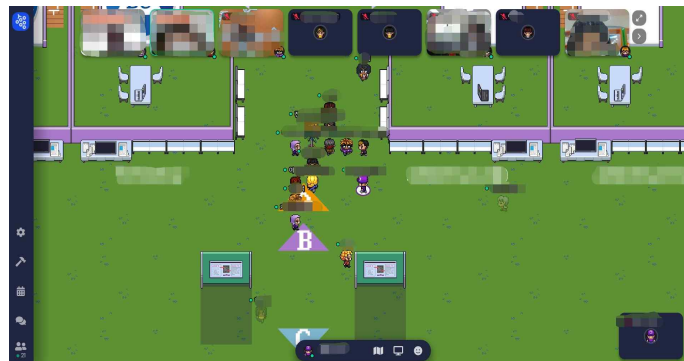
Rev Lebareadian(2021)(출처: NVIDIA)	디지털과 현실을 불문하고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플랫폼
-----------------------------------	---

(참조: 김보은 · 김민지(2021), 홍희경(2021), 류선숙(2022)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정의를 재정리하였음)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이며 이용자가 아바타를 통한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4가지 유형은 가상세계(virtual worlds), 거울세계(mirror world),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s)으로 나눌 수 있다(Smart, Cascio, & Paffendorf: 2007). 메타버스는 기존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영역에서 활용되던 것에서 교육 분야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2) 메타버스 플랫폼: 공간을 통해 진화하는 교육

(1) 게더타운(Gather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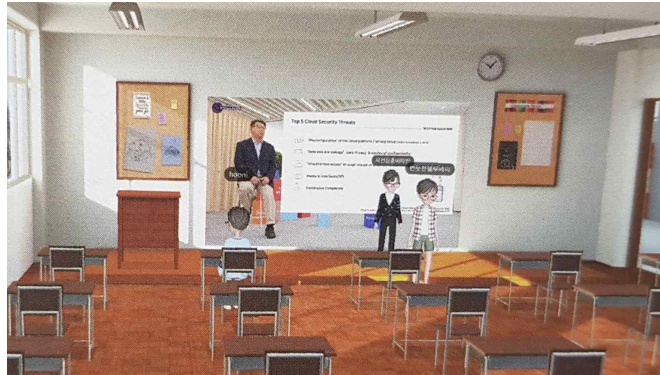


<그림1> 게더타운 화면

게더타운은 2D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다양한 맵의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교육 현장의 거울세계로 확장성이 크며, 기존에 사용하던 웹사이트나 게시판, 가상세계, 증강현실 솔루션을 바로 연동할 수 있다.

게더타운은 오브젝트 기능이 다양하며 플랫폼 안에서 자체적으로 게임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활용하던 웹사이트들과의 연동이 가능하여 호환성이 높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자료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가상공간을 아바타가 이동하기 때문에 실재감을 느낄 수 있고, 아바타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해서 상대방 아바타와 소통할 수 있다.

(2)이프랜드(if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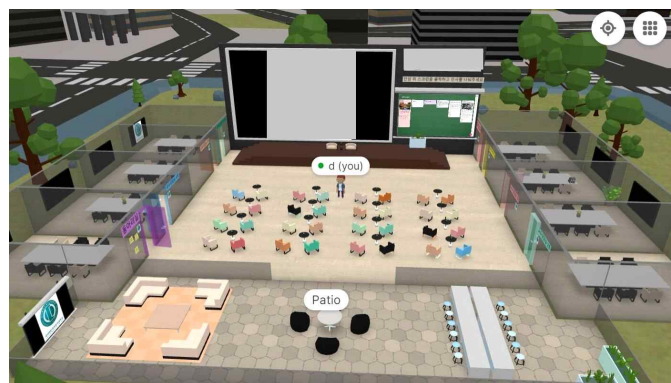


<그림2> 이프랜드 화면

이프랜드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PDF 파일, 영상 자료 공유 기능과 음성 대화 기능을 지원한다. 모바일 기반인 이프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60개 이상의 감정 표현과 모션을 지원하는 아바타를 통하여 생동감 있는 표현과 소통을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이프랜드에서는 호스트가 참여자의 입장을 막을 수 없고, 특정 참여자의 마이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또한,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로딩 시간이 걸리고 데이터 소비도 크다는 문제가 있다(변문경 등, 2021: 92-93).

(3)스팟(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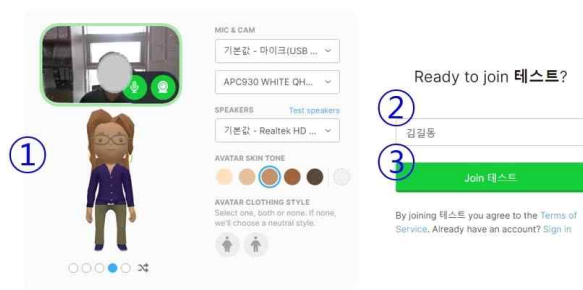
<그림2> 스팟 화면

스팟은 3D를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호스트는 규모와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스팟에서는 입체적 공간을 경험할 수 있고, 아바타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스팟과 게더타운은 플랫폼 자체의 기능은 큰 차이는 없으나, 스팟의 경우 3차원인 만큼 컴퓨터 사양이나 환경에 따라 게더타운 보다는 가동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아바타의 형태는 물론 아바타의 시점도 1인칭 및 3인칭 시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바타의 조정 각도를 360도 조정이 가능하여 시각적으로 더 몰입감이 높다. 특히, 3차원의 맵 공간을 직접 구성할 수 있고 교수자의 카메라나 모니터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상을 공유하거나 스티커 메모를 활용해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수업 적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이문영, 2022: 232).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중 스팟을 이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3) 스팟의 조작 및 기능 검토

(1)접속하기



①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https://spotvirtual.com>에 접속한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마이크, 웹캠, 스피커, 아바타를 설정한다.

②사용자 이름(별명)을 입력한다.

③JOIN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2)기본 조작법

가. 이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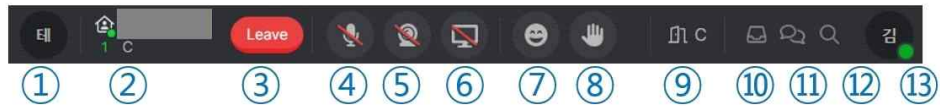
①아바타의 이동: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왼쪽 버튼을 짧게 클릭하면 아바타가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 또는 키보드의 방향키(W, A, S, D)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②화면의 이동: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한다.

③화면의 확대 및 축소: 마우스 휠을 위로 밀면 화면이 확대되고, 아래로 밀면 축소된다.

④화면 시선 변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시선이 360도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하단 메뉴



- | | | |
|-------------------|-----------------|------------|
| ①Organization(조직) | ②현재 스페이스 및 룸 위치 | ③스페이스 나가기 |
| ④마이크 | ⑤웹캠 | ⑥화면공유 |
| ⑦이모콘티 | ⑧손들기 | ⑨룸 공간 안 채팅 |
| ⑩알림함 | ⑪다이렉트 메시지 | ⑫검색 |
| ⑬개인설정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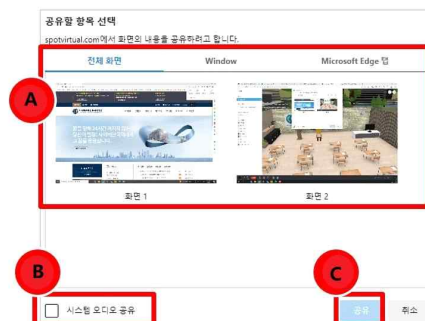
다. 상호작용



①의자에 앉기: 의자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Sit down'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는데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다.

②물건 집기(컵, 연필, 노트 등): Pick up이 가능한 오브젝트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Pick up'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는데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다.

③공유 자료 보기: 모니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확대 보기 및 모니터 상단 메뉴 일시 정지, 빨리 감기, 소리 조정, 끄기 기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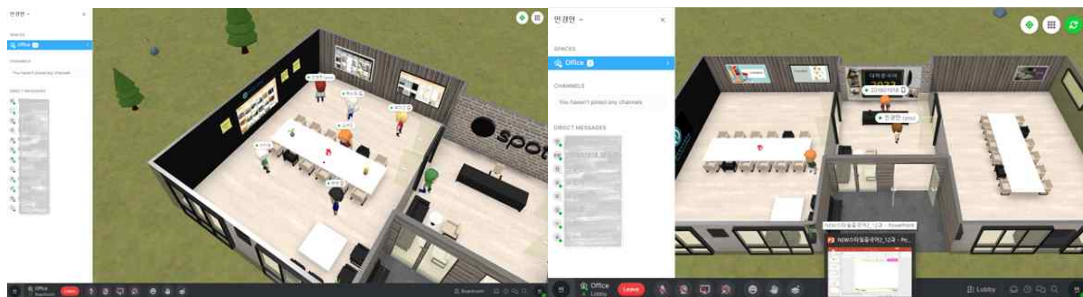
④자료 공유하기: 화면 공유를 클릭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화면을 선택한다.(A:전체 화면, 열려있는 창, 브라우저 탭, B:'시스템 오디오 공유'여부 선택, C:'공유'클릭하면 화면이 공유됨)

⑤채팅하기: 같은 룸에 있는 멤버 전체와 채팅을 하거나 특정 멤버와 1:1채팅을 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1) 자료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버스 플랫폼 스포티 중국어 학습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 2학기(10월-12월)에 스포티를 활용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초급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였고, 2022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2월 7일까지 설문지를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림3〉 스포티를 활용한 초급 중국어 수업 화면

설문대상은 본교 초급 중국어 수업에 참여한 19명의 학생이며, 그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1부를 제외한 총 1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표3〉 설문지의 응답자 분석

	구분	명	비율(%)
성별	남자	1	5.6%
	여자	17	94.4%
연령	21세 이하	13	72.2%
	21-25세	4	22.2%
	25-30세	1	5.6%
스팟 이용 시 사용하는 주요 기기	노트북	11	61.1%
	데스크탑 pc	1	5.6%
	핸드폰	1	5.6%
	태블릿 pc	2	11.1%
	혼용	3	16.7%

<표3>을 보면 응답자 중에 여학생은 94.4%, 남학생은 5.6%였으며, 연령은 21세 이하가 72.2%, 21-25세가 22.2%, 25-30세가 5.6%로 나타났다. 스팟 이용 시 주로 사용하는 기기로 노트북 등 PC를 많이 선택하였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스팟이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 설문 내용 분석

<표4> 설문 내용 및 결과

구분		명	비율(%)	구분		명	비율(%)
흥미성	1(아주 높다)	7	38.9%	학습 몰입도	1(아주 높다)	6	33.3%
	2(높다)	8	44.4%		2(높다)	8	44.4%
	3(낮다)	3	16.7%		3(낮다)	4	22.2%
	4(아주 낮다)	0	0%		4(아주 낮다)	0	0%
상호작용 수준	1(아주 높다)	6	33.3%	학습 만족도	1(아주 높다)	4	22.2%
	2(높다)	7	38.9%		2(높다)	6	33.3%
	3(낮다)	5	27.8%		3(낮다)	7	38.9%
	4(아주 낮다)	0	0%		4(아주 낮다)	1	5.6%

스팟을 통한 초급 중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특성인 흥미성과 상호작용은 스팟에서도 나타났으며 83.3%의 응답자가 스팟에 대해 높은 흥미성을 느꼈으며, 응답자 중 72.2%가 스팟이 상호작용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평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바타를 통해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다른 아바타와 교류하며 기타 웹사이트와 연동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 및 흥미성을 유발시킨다고 하였다.

둘째,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아바타 및 오프라인 교실과 흡사한 가상공간은 학습 몰입도를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스팟의 플랫폼적인 특징은 3D를 활용한 입체적인 그래픽이며 이는 교실과 최대한 동일한 모습의 환경을 구축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학습 몰입도가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아바타 등 다양한 가상현실의 요소들이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학습 시에는 역으로 주의를 흐트려 지속적인 학습의 몰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스팟을 활용한 초급 중국어 수업에 대해 학습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 (44.5%)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의 몰입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김나랑, 2022: 232), 본 연구에서는 학습 몰

입도(77.7%)에 비해서 학습 만족도(55.5%)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스ڨ트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학습 만족도가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스ڨ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외국어를 배울 때는 대면으로 배우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교수자가 스ڨ트 사용법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지 못하였거나 스ڨ트이라는 메타버스 환경에 최적화된 외국어 학습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3) 결론

본 모임은 초급 중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검토한 후 초급 중국어 수업에 스ڨ트를 활용하였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스ڨ트를 활용한 학습은 학습자들의 흥미성과 상호작용을 높여 학습 참여와 학습 몰입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어 교육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학습자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학습이므로 학습자의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교수자는 스ڨ트 활용 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학습전략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래 사회의 학교는 ‘점진적 변화 > 점진적 파괴 > 파괴적 혁신’의 과정을 겪으며 진화할 것이다(이선희, 2019: 214). 교수자들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메타버스 환경에서 과연 어떤 요인이 학습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일지 그리고 스ڨ트에 알맞은 중국어 학습전략은 무엇일지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선영 · 정한균 · 김종인 · 신용태(2021), 「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 『정보처리학회지』, 28(1).
- 김나랑(2022), 「메타버스 특성요인과 학습 몰입 및 학습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게이미피케이션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연구』, 31(1).
- 김보은 · 김민지(2021), 『교육공학자가 말하는 메타버스』, 유비온.
- 김상균(2021),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베가북스.
- 류선숙(2021), 「메타버스(Metaverse) 기반의 한국어 교과목 설계에 대한 가능성 탐색」, 『교양 교육 연구』, 16(2).
- 박상준(2021), 「미래 사회에서 메타버스 교육의 방향」, 『미래융합교육』, 2(2).
- 박진철(2021), 「한국어 교육에서의 메타버스(Metaverse)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언어문화학』, 18(3).
- 변문경 · 박찬 · 김병석 · 이정훈(2021), 『메타버스 에듀테크』, 다빈치books.
- 이문영(2022), 「메타버스를 적용한 기초의학 수업에서의 실재감, 학습몰입 및 학습자 인식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6(7).
- 이선희(2019), 「자기주도적 중국어 성조학습을 위한 음성시각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19.
- 홍희경(2021), 「메타버스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와 융합』, 43(9).

인터넷 검색

-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2021.11.24.),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82513>)
- 이승환□한상열(2021), 「메타버스 비긴즈(BEGINS): 5대 이슈와 전망」(이슈리포트 IS-11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http://spri.kr/posts/view/23197?code=issue_reports)
- ASF(2007), 「Metaverse roadmap: Pathways to the 3D web」, Retrieved from <http://Metaverse.roadmap.org>
- NVIDIA(2021), 「What is the Metaverse?」, Retrieved from <http://blogs.nvidia.com/blog/2021/08/10/what-is-the-metaverse/>
- Smart, J., Cascio, J., & Paffendorf, J., 「2007). Metaverse roadmap overview: Pathways to the 3D web」, Retrieved from <https://www.metaverseroadmap.org/overview/index.html>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표준화와 교수법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고태진 교원, 박경은 교원, 박정경 교원, 최성은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본 모임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전문교육기관 수주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 운영위원 및 언어별 책임교수로 활동하며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운영을 담당해 온 실무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2018~2021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 결과 진행된 각 언어별 교육과정 표준화와 그 적용 결과 및 실효성을 점검하고 언어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특수외국어교육 표준화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표준화와 교수법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목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서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교육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18년부터 본격화된 교육과정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이전에 부족했던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이뤄낸 것은 국내 특수외국어교육 발전에 있어 큰 성과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재의 표준화 이후 이를 실제 대학 교육과정에 대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상황과 성과에 대한 진단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표준화 시행 이후 현재 교육과정의 긍정적 변화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특수외국어교수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언어별 개발 성과물인 표준교육과정과 로드맵 등의 자료를 토대로 언어별 표준화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3. 연구 진행 내용

3.1 언어별 특성 비교 분석

3.2 언어별 표준화 내용 및 교과과정 적용 결과 비교 분석

3.3 언어별 표준화의 내실을 더하기 위한 개선 방안

외국어 학습 관련 ‘표준교육과정’은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과목, 교재, 시험문제 등을 개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지도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교육과정은 교육환경이나 교육 대상,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참조기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이 ‘참조기준’은 교과과정 편성, 교수요목 설계, 교재 집필,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 외국어 교육의 전반에서 기본원칙이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다.¹⁾ 따라서 각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은 특수외국어 교육 표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교재 및 평가문항 개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언어별 표준화의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언어별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3.1 언어별 특성 비교 분석

본 연구의 대상 언어인 폴란드어, 스와힐리어, 힌디어 및 태국어는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로 지정한 “특수외국어”에 속해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유럽,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유형론적으로 한국어와 차이점이 클 뿐만 아니라 각 언어별 특성도 차이가 큰 언어들이다. 이러한 언어들의 한국인 대상 교육의 표준화를 논함에 있어 언어별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폴란드어는 인도유럽어에 속하는 슬라브어의 한 분파인 서슬라브어에 속한다. 폴란드어 사용 인구는 본토의 인구를 포함 총 5천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러시아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슬라브어이다. 폴란드 본토에 거주하는 폴란드인은 대략 3천 8백 5십만 명에 달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폴란드 이민자는 2천만 명 정도로 한국인 재외국민(약 7백 5십만 명)의 3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만 약 60만 명이 폴란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독일, 영국, 리투아니아 동남부, 우크라이나 서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도 상당수의 인원이 폴란드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폴란드어는 라틴 문자를 사용하며 자음 36개, 모음 7개가 있다. 유형론적으로 굴절어로 구분된다. 폴란드어는 같은 슬라브어 계통에서도 문법이 복잡한 언어로 간주되는데, 명사의 경우 성이 3개, 격이 7개이며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고 러시아어와 달리 호격이 존재한

1) 김중섭(2010).

2) 최성은 외(2019).

다. 동사 역시 시제, 인칭, 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시제는 3개(과거-현재-미래)인 경우도 있고 5개(과거완료-과거-현재-미래완료-미래)인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이중음자와 삼중음자 등이 있어 발음에 있어서도 학습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스와힐리어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아프리카-아시아어(Afro-Asiatic), 니일-사하라어(Nilo-Saharan), 니저-콩고어(Niger-Congo), 코이산어(Khoisan) 등의 4대 어족 중 니저-콩고어족의 반투어에 속하는 언어다. 스와힐리어는 동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교통어(lingua franca), 즉 서로 모어가 다른 집단 간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다. 과거에는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동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이백여 년 동안 스와힐리어의 쓰임이 내륙으로 확산되면서, 현재 동아프리카의 광범위한 지역에 스와힐리어 화자가 분포되어 있다. 언어별 사용자를 집계하고 있는 기관인 SIL International Ethnologue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스와힐리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15,754,860명이고, 제2언어로 사용하는 화자수는 82,300,000명으로 추산된다. 일부 학자에 따라서는 스와힐리어 화자가 최대 1억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³⁾ 스와힐리어는 과거 아랍 문자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폴란드어와 마찬가지로 라틴 문자에서 기원한 로마자를 사용한다. 유형론적으로는 전형적인 교착어에 속하는데, 명사 중심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문장 안에서 명사의 부류에 따라 다양한 격 접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한편 아시아 대륙의 언어인 힌디어는 인도유럽어족의 인도이란어파에 속하는 언어로 영어와 함께 인도의 공용어로 자리하고 있는 언어이다. 인도 인구 약 14억명 중 43% 이상의 모어인 관계로 전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모국어 화자를 보유한 언어이기도 하다. 인도어는 폴란드어나 스와힐리어와는 달리 고유의 문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사용되는 문자는 데바나가리 문자로 이는 인도 대륙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여러 문자의 기원이 되기도 하였다. 문법은 기본적으로 산스크리트어에서 발전해 왔다. 어순은 SOV이나 간혹 SVO로 사용되기도 한다. 명사, 형용사, 동사 등 다양한 품사가 복잡하게 공용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문자와 문법의 이중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태국어는 현재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의 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다.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유형론적으로 어족을 살펴보면, 태국어는 중국 남부, 인도 북동부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주로 성조 언어들의 어족인 타이-까다이(Tai-Kadai) 어족에 속한 것으로 분류된다. 같은 그룹에 속한 라오스어와 태국어는 유사성이 매우 높다. 태국어는 고립어로 어형의 변화가 없고 성조어라는 특성이 있다. 문장 구조는 SVO형의 구조이며 순수 태국어는 주로 단음절어이다. 이렇게 문법적 학습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태국어는 그러나 힌디어와

3) 박정경 외(2019).

마찬가지로 고유의 문자를 보유하고 있다. 타이 문자는 브라흐미계 문자로, 다른 여러 동남아시아 지역 문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인도 문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자음과 모음, 그 외 기호를 합치면 100여개의 문자를 완전히 익히고 성조 규칙과 예외 등을 익혀야 읽고 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 학습에 큰 어려움이 있다.⁴⁾

힌디어와 태국어의 경우 이러한 문자 학습의 난이도로 인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과정 표준화 당시 아시아언어공통기준으로서 A0 등급을 마련하였는데, A0 등급은 영어의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위해 제시되었다. 이는 A1 교육에 앞서 문자 및 발음 익힘의 과정으로 A1 단계에서 포함하기에는 상당수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별도의 과정으로 추출하여 개발한 것이다.⁵⁾

3.2 언어별 표준화 내용 및 교과과정 적용 결과 비교 분석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특수외국어 교육 표준화에서 참고한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에는 외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활동과 언어능력 수준을 기술하기 위한 세분화된 척도 체계(총 6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 6개의 척도는 가장 기초단계(A1)부터 모국어 수준에 가까운 숙련 단계(C2)까지의 언어 숙달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표1. CEFR의 단계별 언어 숙달 등급과 내용>

등급		내용
기초적 언어사용 Basic User	A1	구체적인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익숙한 일상적 표현들과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상에 관하여 묻고(예를 들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대화상대자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간단한 방식을 의사소통할 수 있다.
	A2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분야(예를 들어 신상, 가족, 물건 사기, 업무, 가까운 주변지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익숙하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 교환이 주가 되는 경우, 반복적인 단순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수단으로 자신의 출신과 교육, 직접적인 주변지역,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을 기술할 수 있다.

4) 박경은 외(2019).

5) 고태진 외(2021).

6) Council of Europe(2001).

자립적 언어사용 Independent User	B1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고 업무, 학교, 여가 시간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익숙한 주제와 개인적인 관심분야에 대해 간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경험과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꿈과 희망, 목표를 기술할 수 있으며, 계획과 견해에 대해 짧막하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B2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 토론도 이해한다. 쌍방 간에 큰 노력 없이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폭 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시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숙달된 언어사용 Proficient User	C1	수준 높고 비교적 긴 텍스트의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고 내포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어구를 찾는 일이 흔하지 않다. 사회생활, 직업생활,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에서 언어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텍스트 연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C2	읽거나 듣는 것을 거의 모두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로 된 다양한 자료에서 나온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근거와 설명을 조리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아주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복합적인 사안을 다룰 때에도 비교적 섬세한 의미차이를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참조 기준을 바탕으로 특수외국어 각 언어별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한 결과를 비교하면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⁷⁾

7) 본 표의 내용은 각 언어별 교육과정 및 로드맵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표2. 연구 대상 특수외국어의 단계별 기준 비교>8)

단계			폴란드어			스와힐리어			힌디어			태국어		
			시수	학기	어휘수	시수	학기	어휘수	시수	학기	어휘수	시수	학기	어휘수
A0	자모 및 음운체계 입문		해당 없음 (A1에 포함하여 교육)			해당 없음 (A1에 포함하여 교육)			30~60	1-1	100	60~80	1-1	100
A	A1	입문	200	1-1, 1-2	700	170	1-1, 1-2	900~1,000	110~180	1-1, 1-2	840	200	1-1, 1-2	900~1,000
	A2	초급	400~450	2-1, 2-2	1,500~1,600	260	1-2, 2-1	2,000~2,500	310~460	1-2, 2-1, 2-2	1,730	320~400	1-2, 2-1	2,000~2,500
B	B1	중급	650~700	3-1, 3-2	3,000~4,000	430	2-2, 3-1	3,500~4,500	710~910	3-1, 3-2, 4-1	3,080	520~600	2-2, 3-1	3,500~4,500
	B2	중상급	800~850	4-1, 4-2	5,000	600	3-2, 4-1	6,000~7,000	1310~1510	4-1, 4-2	4,780	720~800	3-2, 4-1	6,000~7,000
C	C1	고급	1000~1200	- 9)	7,000~8,000	860	4-2	8,000~9,000	2210~2410	-	6,780	920~1200	4-2	8,000~9,000
	C2	원어민	어려움	-	10,000 이상	어려움	-	10,000 이상	2500시간 이상	-	9,280 이상	1200시간 이상	-	10,000 이상

8) 표에서 “시수”는 누적 학습 시수를, “학기”는 학부과정에서 해당 등급을 교육하는 통상적인 학기를, “어휘수”는 누적 어휘의 개수를 의미하며, 예시한 학습 시간과 학기, 어휘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9) “학기” 중 C1 또는 C2등급의 공란은 학부 과정에서의 교육만으로는 해당 등급에의 달성이 어려움을 의미함

위에서 볼 수 있는 언어별 차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1) 한국어와의 언어학적 거리의 차이가 각 특수외국어 교육의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확립에 있어 차이를 유발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그 차이에 있어서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이 정한 선행 기준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EFR이 규정한 언어학적 거리에 따른 등급별 교육 시수는 다음과 같다.

<표3. CEFR이 규정한 언어학적 거리에 따른 언어 교육 시수(언어 전체)>

등급 \ 언어 구분	언어학적으로 먼 경우	언어학적으로 가까운 경우
A1	170	60
A2	260	120
B1	430	180
B2	600	280
C1	860	380
C2	어려움	780

현재 연구 대상인 폴란드어, 스와힐리어, 힌디어, 태국어의 경우는, 일본어 등 한국어와 언어학적으로 가까운 경우들과는 달리 문자나 음성적 특성, 어순, 형태, 통사 등 모든 면에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 먼 경우로 분류된다. 그런데 바이링구얼 또는 원어민 수준인 C2가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Near native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의 자립적 사용자인 C1 단계를 달성하는 데에 860시간의 학습으로 과연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CEFR이 유럽언어들 간의 학습에 있어 공통된 표준을 만들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과연 이 기준을 한국인에게 특수외국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근원적 반론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2) 제기된 1의 질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언어를 학습하는 시수 기준을 산정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현재 개발된 특수외국어별 표준교육과정에서의 단계별 성취를 위한 학습 시수 기준은 주로 각 언어별로 학부 교육을 실시했던 선행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역산하여 규정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언어 또는 지역학을 특화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 또한 한국인이 배우기 어려운 언어는 모국어와의 차이가 큰 언어라는 점이 언제나 난이도와 정비례하지는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스와힐리어와 한국어는 유형론적으로는 같은 교착어이지만, 고립어로 유형적으로 다른 태

국어 문법을 학습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학습 난이도가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굴절어인 인도유럽어족의 언어들을 학습할 때 고립어나 교착어를 학습할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더 추가되며 이것은 얼마큼의 시수를 추가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 문자가 어려운 언어라고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보다 과연 학습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것인지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문자가 어렵기로 유명한 태국어 교육에 있어 싱가포르국립대학교와 같은 서구권 대학들은 입문 단계에서 문자로 바로 돌입하지 않고 국제음성기호(IPA)를 활용해서 회화를 먼저 교육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이후 어느 정도 태국어에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문자를 가르쳐 학생들이 문자 학습의 지난한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A1단계를 달성하는 시수는 더욱 짧아질 수 있다. 문자를 학습하는 것을 반드시 선행 단계로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다.

(4) 각 단계별 학습자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시수가 언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몇 가지의 질문을 남긴다. 첫째는 “각 단계에 관한 언어별 표준교육과정의 기준이 균일한가?” 이다. 즉, 이러한 시수 차이가 단계별 숙달도에 대한 인식이나 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둘째는 “시수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한 차시 교육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는 “학습자가 그 단계에 도달함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이다. 현재 표준화 평가 문항 등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 역시도 그 내용적 표준화와 균질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 학습에서 B1 수준의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의 평가를 통과해야 B1 단계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수업 내용과 질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5) 필요 어휘 수의 규정에 있어서도 세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언어별 유형론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어휘의 표제수를 규정한 것이 명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고립어인 태국어에서는 조어 방식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합성으로, “가게”라는 말의 뒤에 “약을 파는 가게”는 “약국”이 되고, “책을 파는 가게”는 “서점”이 되는데 이때 가게, 약, 책, 팔다 뿐 아니라 약국과 서점도 각각의 표제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교착어나 굴절어의 경우 접사의 사용이 두드러지므로 파생이 주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표제어의 선정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은 표제어의 개수의 차이를 만들게 될 것이므로 기준에 관한 명확한 해설이 수반되어

야 학습자들에게 각 단계의 어휘 수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될 수 있다.

(6) 표준교육과정은 비단 학부 교육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학부 교육과정에 이를 적용하다 보니 단계와 학기/학년이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학습자와 교수자들에게 모호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표준교재의 적용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A2단계를 한 학기나 한 학년이 아닌, 여러 학기나 여러 학년에 걸쳐서 교육한다고 할 때, 12개 단원 단 권으로 개발되어 있는 현행 표준교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교수진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공유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같은 교재의 내용을 서로 다른 학기나 학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단계별 교육 과정을 더욱 세분화한 교육과정과 교재가 필요해지는 이유다.

(7) 구성원들의 특수외국어교육 표준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하여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1단계 4년간 교육과정, 교재 및 평가문항 등에 있어 표준화를 이루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하여 K-MOOC 및 사이버 강좌 등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일반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학부생 및 일반인 대상 특수외국어 강의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으나, 정작 학생과 교강사진 등 구성원의 상당수는 이러한 사업 성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의 표준화와 관련한 이해를 제고하고 표준화 이후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표준화에 그 피드백 내용을 환류하여 미비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여 더 내실있는 교육의 표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3 언어별 표준화의 내실을 더하기 위한 개선 방안

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특수외국어교육 표준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언어별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 및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적용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특수외국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와의 언어학적 거리와 학습의 단계별 난이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고찰하여 이러한 분석 내용을 표준교육과정의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표준교육과정의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단계별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타

으로 한 교재를 개발하여 학습자들에게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과정은 가이드라인이며 교재 역시 표준교재만을 모든 과목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표준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과목명과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부교재 또는 보충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 표준화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 있음
- 언어권별 또는 전체 내외국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교육과정과 교재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표준화 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심을 증대하여 실질적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특수외국어 및 잠재적 특수외국어, 나아가 외국어 교육 전반에 있어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하고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태진(연구책임자) 외. (2021). 힌디어 표준교육과정 A0, A1, A2, B1, B2, C1, C2(통합본).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국립국제교육원. (2017a).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정책보고서.
- _____. (2017b).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정책보고서.
- 김중섭. (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박경은(연구책임자) 외. (2019). 태국어 표준교육과정 A1.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박경은 외. (2022) Standardizing Thai Language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of Critical Foreign Languag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한국태국학회논총, 28(2), 277-307.
- 박정경. (2018).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아프리카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5집, 61-88.
- 박정경. (2021).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에서의 스와힐리어 학부 교육 내실화 과정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62집, 45-72.
- 박정경(연구책임자) 외. (2019). 스와힐리어 표준교육과정(A1).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법제처. (2016a).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
- _____. (2016b).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최성은(연구책임자) 외. (2019). 폴란드어 A1 표준교육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Council of Europe. (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K. Park, J. Choi, S. & Koh, T. (2019). Policy Making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towards Globaliza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of Critical Foreign Languages in Korea. *The New Educational Review* 139-147.

「번역과 트랜스크리에이션 융합 교육」

선영화 교원, 이상빈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번역 생태계와 번역가의 지위에 위협을 초래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조적 번역’은 향후 인간 번역가가 인공지능을 상대로 자신의 전문성을 차별화할 수 있는 잠재적 영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업계가 ‘번역 개념/수행’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상당한 관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번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학계에서 인식하는 번역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원문을 “문자 그대로 옮겨내는”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번역가의 역할 영역은 여전히 ‘언어기호 중심적’, ‘언어적 등가’를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 이전”(pre-cultural turn)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번역가의 자기 이미지 또한 ‘기술자’(technician), ‘복제자’(copier), ‘필경사’(scribe)와 같은 역할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Katan, 2014; Katan, 2018).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모임은 광의의 번역 개념의 한 유형으로서 ‘창조성’을 수행의 근간으로 하는 트랜스크리에이션(transcreation)을 학부 번역교육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학부 번역교육 프로그램에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 및 교과목을 도입하여 번역 교육과의 융합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모임의 목적이다. 특히 학부 과정은 전문대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 기간이 길고, 번역에 대한 인식 및 지식 기반이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의 소양을 쌓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선영화, 2019: 219).

본 연구모임에서는 번역과 트랜스크리에이션의 융합을 통해 번역을 전공하는 학부생에게 ‘포괄적 관점의 번역’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적 번역가의 자기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학부 번역 교육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번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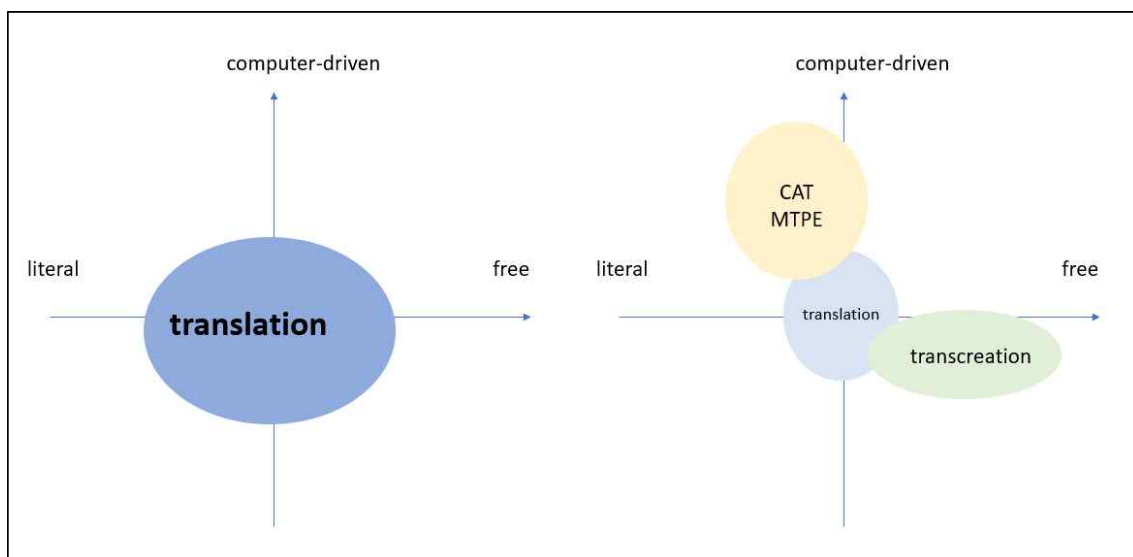
대주제: 트랜스크리에이션(transcreation) 교과목 도입 및 번역 교육과의 융합

목적: 학부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살펴본다.

- (1) Pre-action: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 (2) Action: 트랜스크리에이션 교과목 실행을 위한 세부 사항
- (3) Post-action: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을 설계 · 실행한 후의 후속 조치

3. 연구 진행 내용

최근 번역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이 크게 변화되었다. 번역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과거의 번역 교육 환경(좌) vs 변화된 번역 교육 환경(우)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 도입을 위해 개념 확립, 사례 분석, 트랜스크리에이션 실습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1 트랜스크리에이션 개념

대개 학생들은 트랜스크리에이션의 개념조차 모르는 상태이므로 교수자는 트랜스크리에이션의 개념, 관련 업계의 현실, 학계의 논의, 교육 현황 등을 학생들이 충분히,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1.1 업계, 학계 상황

- 국내외 LSP 업계가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떤 실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한다. ⇒ reality check 필요
- 되도록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이 좋다.
- '아름다운' 현실만 소개하지 말고 트랜스크리에이션과 관련된 논란, 사건, 문제 등도 함께 소개한다.

3.1.2 개념 정의

- 지금까지 소개된 트랜스크리에이션 정의를 간단히 소개한다.
- 용어 사용과 관련된 업계/학계의 '이견', '논란' 등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transcreation이라는 용어를 거부하는 학자도 있음을 기억하라!)
- 가장 최근에 트랜스크리에이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가령 다음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Transcreation is a type of translation characterized by the intra-/interlingual adaptation or re-interpretation of a message intended to suit a target audience, while conveying the same message, style, tone, images and emotions from the source language to the target languag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audience. This reinterpretation of the message may imply adaptations that move away from the original text to a greater or lesser extent to fit the original purpose, transmit the original message and overcome cultural barriers. For such reasons, it is present in persuasive and communicative contexts. (Mar Díaz-Millón & María Dolores Olvera-Lobo 2021: 12)

3.1.3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의 필요성 인식 공유

- 학생들이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면 교육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 새로 도입되는 교과목이므로 학생들이 기존의 번역 교육과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의 상관성, 위계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트랜스크리에이션 수업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배경지식을 가졌는지 등을 설문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학생들의 기대와 니즈(needs)를 조사하는 일은 일반 번역 교육보다 중요하다.
- 트랜스크리에이션에 필요한 능력은 일반적 번역 능력과 접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수강생의 성향 및 (트랜스크리에이션 수업에서의) 학습 성취도와 실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학기 초반에 각 학생의 번역 능력 및 강점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텍스트 유형별(정보적, 표현적, 설득적 텍스트 등)로 간단한 샘플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3.2 사례 연구(case studies)

학생들이 트랜스크리에이션 실습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다양한 분야에서 트랜스크리에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학기 초반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강의 중심으로 소개하고 트랜스크리에이션의 의미를 함께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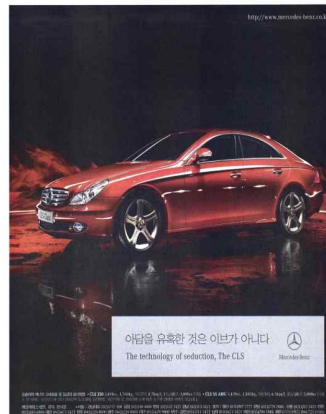
3.2.1 광고 등의 분야

트랜스크리에이션은 광고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만큼 사례 분석은 이 분야에서 시작한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mple: advertising (2)



이상빈(2017) 광고와 젠더번역: 수입자동차 인쇄광고의 남성타깃 번역전략



자동차 광고의 트랜스크리에이션 사례(아담과 이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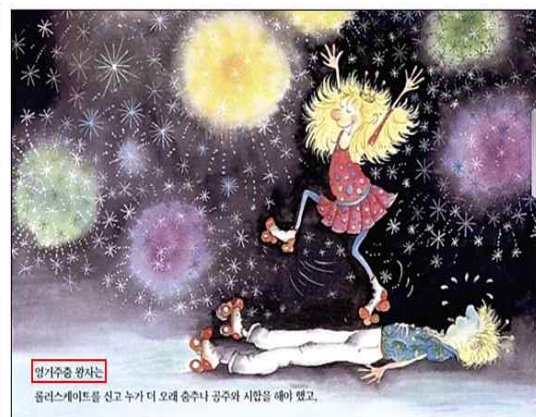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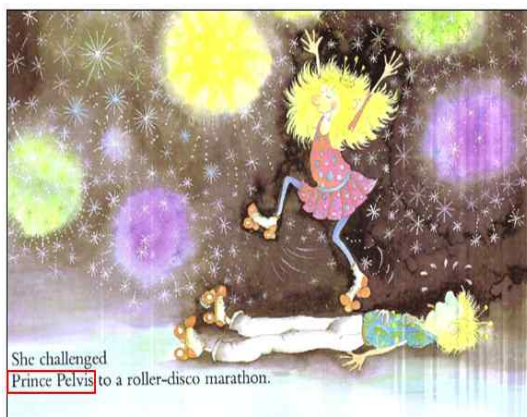
광고 텍스트는 트랜스크리에이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거론되지만 ‘번역’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존재할 정도로(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원문’과 ‘결과물’의 차이가 극명하다. 따라서 트랜스크리에이션에 대한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저항감은 줄이려면 트랜스크리에이션이 적용된 광고 텍스트를 유형화해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일반적 번역과의 접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헤드카피(head copy)만 트랜스크리에이션 대상이고 바디카피(body copy)에는 일반적 관점의 번역이 적용된 사례는 기존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접근 가능한 트랜스크리에이션이다(실제 LSP 업계의 ‘트랜스크리에이션’ 직무에서도 이런 유형의 텍스트를 작업 대상으로 한다). 상기의 사례처럼 언어기호뿐만 아니라 시각기호 변화가 동반되는 사례는 ‘마케팅’ 영역에서 논의되는 텍스트라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확장적 관점의 번역 개념을 수용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언어기호와 시각기호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멀티모달텍스트 번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언어기호 이해 능력’을 적극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급진적 형태의 트랜스크리에이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일반적 관점의 번역 수행에 전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2.2 문학 분야

시, 아동 그림 문학에서 트랜스크리에이션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아동 문학이나 그림책 등은 트랜스크리에이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 텍스트에 비해 ‘일반적인 번역’과의 접점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생소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창조적 번역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번역’과 ‘트랜스크리에이션’ 간의 괴리감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도 번역에 창조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효과적이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그림책’에 사용된 고유명사의 유머 번역 사례를 트랜스크리에이션의 관점에서 소개할 수 있다. 상황 맥락과 시각기호를 동시에 고려한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는 점에서, (번역 과정에서) 비언어기호 고려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그림책에 적용된 유머 트랜스크리에이션 사례(“Prince Pelves” → “엉거주춤 왕자”)

3.2.3 기타

학생들이 트랜스크리에이션 사례를 직접 찾도록 한다. (기억하자.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트랜스크리에이션 사례를 수집, 소개하기 전에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하자.

내용	확인
(1) 시각기호(visual sign)가 포함된 텍스트인가? (물론 시각기호가 없는 텍스트도 활용할 수 있다)	√
(2) 가상의 텍스트가 아닌, 실제 출판된(활용된) 텍스트인가?	√
(3) 원문이 ‘실제로’ 어떻게 트랜스크리에이션 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위 ‘샘플’(답안?)이 있는가?	√
(4) 국내 사례와 국외 사례를 함께 제시했는가?	√
(5) 트랜스크리에이션의 단계(phrase)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수자는 트랜스크리에이션의 초안(draft) 단계, 중간 단계, 최종 단계(final product)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구했는가?	√

번역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도 트랜스크리에이션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실습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례를 소개하면서 트랜스크리에이션 결과물의 언어적, 수사적 특징 등을 눈여겨 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반 번역 교과목 내에서 광고 번역 실습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교수자가 소개한 트랜스크리에이션 사례 혹은 다른 학생들의 결과물을 ‘참고’하고 ‘응용’해 자신만의 새로운 창조적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수업에서는 동일 원문에 대한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총 두 차례 진행했다). 예를 들어 광고 트랜스크리에이션 사례를 제시하면서 헤드카피에 적용된 말장난의 원리(예: 수직적/수평적 동음이의어)나 ‘병렬 구조(parallelism)’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직역에 가까웠던 혹은 트랜스크리에이션을 포기했던) 1차 결과물을 수정하면서 이러한 수사적 기법을 응용해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품질을 높이는 사례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물을 설명하는 저널의 양적, ‘질적’ 측면도 1차 트랜스크리에이션에 비해 2차 수정 트랜스크리에이션이 보다 충실해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3 교육 실행(training and education)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은 일반 번역과 달리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므로 과제 시간, 논의 시간 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실제 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3.3.1 교수법 및 학습 방법

-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은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를 염두에 두고 전체 교육을 진행한다.
- 학생들의 피드백, 토론 등이 교육의 핵심임을 기억하자.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의 효과는 교수자의 하달식(top-down) 강의가 아닌, 학생 간의 수평적 토론을 통해 극대화된다.
- 학생들에게 ‘자문할’ 기회를 주자. 예를 들어 과제를 할 때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널로 기록하도록 한다. 이러한 저널을 트랜스크리에이션 결과물과 함께 제출토록 하라. 이 저널을 통해 교수자는 평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미리 검토하여 과제를 유형화하고, 수업 시간에 각 유형을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각 트랜스크리에이션의 장단점을 찾아내도록 한다. 교수는 각 과제물을 평가하지 말고,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자, 중재자 역할에 치중한다.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등의 소그룹 학습 활동은 참여자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사고와 창조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Kusssmaul, 1995; 조상은, 2008; Kelly, 2005/2014). 따라서 개인 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되, 일부 단원에서 in-class transcreation을 병행해 간단한 트랜스크리에이션 과업을 수행하는 소그룹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전체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 하나의 원문에 대해 트랜스크리에이션을 두 번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하다. 수업 전 1차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수행할 때는 학습자 개인의 창조성과 번역/트랜스크리에이션 능력이 반영되지만, 수업 이후 2차 수정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면 토론 및 피드백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체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트랜스크리에이션은 급진적 형태의 번역이므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피드백이나 토론이 자칫 피상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예컨대 광고 원문에서 소구하려는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에서 상당히 벗어났더라도 유려하고 재치 있는 글솜씨가 드러난 결과물은 ‘우수한’ 트랜스크리에이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따라서 토론이나 피드백을 진행하기 전에 (트랜스크리에이션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해) ‘원문에서 전달하는 의도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

다.’ 등의 기준을 사전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3.3.2 학습자료

- 트랜스크리에이션 수업에서의 학습자료는 일반 번역 수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트랜스크리에이션 사례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교수자 간 학습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 담당 교수들이 관련 DB를 만들어야 한다.
- 이전 학기에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이 학습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동일한 원문을 사용한다 해도 과제 결과물을 천차만별이므로 매학기 학생 과제를 유심히 살펴보고, 샘플 답안(?)으로 활용한다.
- 광고, 기술문서, 시, 아동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교대로 사용한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분야의 원문을 자주 사용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잃기 쉽다.
-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실습은 주로 영한 트랜스크리에이션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의 A언어를 고려하여 한영 트랜스크리에이션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한다.
- 텍스트 유형만을 고려하지 말고 텍스트의 ‘내용’에 신경쓰라. 예를 들면 유머 번역을 다루면서 트랜스크리에이션을 논할 수 있다. 말장난(wordplay) 번역을 연습하면서 트랜스크리에이션의 속성을 논할 수도 있다.
- 샘플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제시할 때 두 개 이상을 제시하면서 비교할 수 있게 하라!
- 원문을 ‘재창조’하는 ‘대담한’ 접근이 필요한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특성상 주제 분야에 대한 학생의 관심도와 흥미, 텍스트 사전 경험이 결과물의 품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자료가 특정 장르나 분야에 치우쳐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제 분야와 장르를 고려하기 위해 사전에 수강생의 니즈를 조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선정한 트랜스크리에이션 실습 자료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결정한다. 전통적 관점의 번역 접근과 트랜스크리에이션이 혼재된 원문(예: 그림책, 헤드카피와 바디카피가 함께 있는 광고, 영상 번역 등)은 실습 앞쪽에 배치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높은 창조성이 요구되는, 즉 트랜스크리에이션의 비중이 높아지는 원문을 배치한다.
- 실습 자료를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트랜스크리에이션 사례 수집 및 소개 시 고려사항>을 참고한다. 다만 샘플 답안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응용 없는 모방’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트랜스크리에이션의 대표적 분야인 광고·마케팅 번역의 경우, 다국어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원문과 샘플 답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높은 만큼 모방의 위험

성이 존재한다(일단 공식 결과물을 접하면 여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창조성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수업 시점에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트랜스크립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DB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3.3.3 평가

- 평가에서의 기본 접근법은 evaluation이 아닌, assessment이다.
- 교수평가(teacher assessment)를 제한하고, 동료평가(peer assessment) 방식을 다른 수업보다 많이 사용한다. 각 트랜스크립션 결과물에 대해 모든 학생이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좋다.
- 트랜스크립션은 번역보다 주관성 개입이 큰 만큼, 평가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저항이 클 수 있다. 강의 계획서에 평가 방식을 매우 상세하게 공지하여야 하고, 수업 초기부터 평가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동료평가를 시행할 때도 피드백(qualitative assessment)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피드백 최소 분량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생들이 트랜스크립션의 단점만을 지적하도록 하지 말고 장점도 언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원칙을 활용하여 평가 방식의 다변화 및 융합을 꾀해야 한다. 가령, 교수자 평가 70% + 동료평가 30%로 최종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업계 전문가(independent rater)의 독립평가(10%,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를 편입할 수도 있다. 관련 사례는 Lee(2018)을 확인하라.
- 동료평가가 시행되는 경우, 익명성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동료평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우리 대학과 같은 곳에서는 학점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동료평가가 전체 학점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하다면 동료평가의 질, 참여도 등도 학점에 반영한다. 다른 학생의 과제물에 대해 각 학생이 부여한 피드백을 교사가 평가하면 피드백의 품질을 매우 높아진다.
- 피상적인 피드백이 되지 않도록 평가 항목을 구성해 제시하고, 자유롭게 작성하는 서술형 피드백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평가의 중심을 차지하기보다는 한 학기 동안 수행하는 과제가 평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및 비율을 구성한다.

3.4 후속 조치(follow-up action)

3.4.1 강의 평가

- 강의가 연속성을 가지려면 강의 평가 결과를 다음 학기 수업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강의 평가 틀에 의존하지 말고, 주관식 문항을 강화하여 수업의 방향, 방식, 과제 난이도, 평가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 학생들이 제출한 저널을 다시 보면 수업 재설계에 도움이 된다.
- 트랜스크리에이션 교과목은 학생 대부분이 처음 접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기가 종료된 이후뿐만 아니라 학기 중반부에 수업에 대한 중간 피드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학교 중간 평가와는 별도로 시행). 중간 피드백에는 수업 자체의 장점 및 보완점 뿐만 아니라 과제 및 학습 활동 수행과 관련한 어려움 혹은 니즈를 자유롭게 기재 하도록 한다(익명 보장). 취합한 피드백은 유형화해 학생들과 공유하고 후반부 수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안내한다.
- 중간 평가 피드백과 수업 종료 후 진행한 강의 평가를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장점은 강화하고 보완점은 개선하여 다음 학기 수업에 반영한다.

3.4.2 다음 학기 수업 준비

- 강의 평가의 결과를 코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수업 설계에 반영한다.
- 트랜스크리에이션 수업처럼 혁신적인 수업은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 운용하면 좋다. 최소 3개의 액션 사이클(action cycle)을 시행하라. Lee(2019)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첫 수업의 결과가 좋을 수만은 없다. 교수자는 강의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교과목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 아직 국내 학부에 트랜스크리에이션 수업이 도입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수업을 도입할 때 판단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 트랜스크리에이션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후속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논문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트랜스크리에이션을 독립 교과목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경우 다른 교과목에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데, 그 경우 본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트랜스크리에이션에 특화된 번역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모임

에서 제안하는 교육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향후 교과목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번역 수업의 일부 단원을 할애해 트랜스크리에이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트랜스크리에이션 개념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번역 문제를 해결할 때 창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3. 연구 진행 내용>에서 기술한 사항을 해당 교과목 운영에 접목할 수 있다.

- 학회나 세미나 등에서 본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면 학계의 연구자 및 교수자와의 소통을 통해 트랜스크리에이션 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번역 교과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트랜스크리에이션 혹은 창조적 번역의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경험적 사례는 연구 결과를 보충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참고문헌

- 선영화. (2019). 『트랜스크리에이션 시대로의 창조적 전환을 준비하며: 개념 연구 및 국내 LSP 업체 인터뷰를 통한 이론·실무·교육 차원의 고찰을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이상빈. (2017). 「광고와 젠더 번역: 수입자동차 인쇄광고의 남성타깃 번역전략」. 통번역학연구, 21(2), 85-108.
- 조상은. (2008). 「창조성 훈련을 위한 번역 수업 제안 - '토론식 협동 수업'을 중심으로 -」. 통역과 번역, 10(2), 175-195.
- Carreira, O. (2022). Is transcreation a service or a strategy? A social study into the perceptions of language professionals. *Babel*, 1-10.
- Díaz-Millón, M., & Olvera-Lobo, M. D. (2021). Towards a definition of transcrea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Perspectives*, 1-18.
- Díaz-Millón, M., Gutiérrez-Artacho, J., & Olvera-Lobo, M. D. (2022). Transcreation and creativity in higher education: A task-based learning experience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Handbook of research on using disruptive methodologies and game-based learning to foster transversal skills* (pp. 68-86). IGI Global.
- Dybiec-Gajer, J., Oittinen, R., & Kodura, M. (2020). *Negotiating translation and transcre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Springer Singapore.
- Galvin, R. (2022). Transcreation and self-translation in contemporary Latinx poetry. *Critical Inquiry*, 49(1), 28-54.

- Kassawat, M. (2020). Decoding transcreation in corporate website localization into Arabic. *The Journal of Intern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7(1-2), 69-94.
- Katan, D. (2014). Uncertainty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s: Time to transcreate? *Cultus*, 7, 10-19.
- Katan, D. (2018). Translatere or transcreare: In theory and in practice, and by whom? In C. Spinzi, A. Rizzo, & M. L. Zummo (Eds.), *Translation or Transcreation?: Discourses, Texts and Visuals* (pp. 15-38). Newcastle upon Tyne :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Kelly, D. (2005/2014).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Kussmaul, P. (1995). *Training the Translato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Lee, S-B. (2018). Exploring a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interpreting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Triangulating data on interpreter performance assessment.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2), 166-187.
- Lee, S-B. (2019). Scale-referenced, summative peer assessment in undergraduate interpreter training: self-reflection from an action researcher. *Educational Action Research*, 27(2), 152-172.
- Martín, M. M. (2020). Transcreation as a way to promote employability in translation training: Adding value to translation training. *HERMES: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Business*, 60, 125-139.
- Spinzi, C., Rizzo, A., & Zummo, M. L. (Eds.). (2019). *Translation or transcreation? Discourses, texts and visual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한국어 신조어 교수법 연구 」

송혜원 교원, 한운정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한국어 신조어는 탄생, 인식, 확산,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중들에 의해 활발히 사용된다. 특히 젊은층의 주도적인 사용으로 전 세대간으로 확산되어 표준어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내 · 외의 한국어 학습자는 일상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그리고 방송,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무수한 신조어를 접하며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신조어 교육은 일반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학습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하여 한국어 신조어 교수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신조어 교수 · 학습

- 중 ·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목적: 국내 · 외 거주 중인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 수업에서의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하여 신조어 교수 · 학습 방안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한국어 신조어를 이해하고 나아가 신조어가 발생한 사회 ·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본 연구는 한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어 신조어를 동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정확히 이해, 표현하고 더 나아가 신조어에 반영된 한국의 사회 ·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진행된 신조어와 영상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를 살펴본 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

대로 영상매체와 신조어를 선정하여 한국어 중급, 고급 수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조어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세계 곳곳의 한국어교육 현장의 학습자들은 여러 언어·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세대라 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도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시대의 변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환경 역시 다양해졌기에 학습자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환경에 대해 적합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교수·학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별히 최근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학문 목적이거나 특수 목적 외에도, 흥미 위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매체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한국어 신조어나 유행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신조어는 그 일시적인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사전으로 의미를 이해하기보다, 신조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해당 표현의 의미를 유추하고 이해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멀티미디어 즉 영상매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자료들은 특정 영상 혹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 중에 적용하는 위주의 논의가 주를 이었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흥미롭게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조어를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수·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3.1. 한국어 신조어와 영상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에 관한 선행연구

영상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신조어 교육 방안 연구에 앞서 한국어의 신조어 연구의 흐름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 연구의 흐름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조어의 특성과 한국어 교수법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조어는 시대적, 문화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로서 언중들 간의 의미 이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가운데 신조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대학생들의 92%가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¹⁾ 김다은,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 2006에서 “신조어는 새로 나온 사상이나 테크놀로지를 지칭하기 위한 문명의 반영물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이처럼 신조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성과 여기에 더해 ‘기술’이라는 인공적인 요소가 반영된 언어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언어 교수와는 다른, 차별적이며 독특한 교수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언어 영역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는 신조어를 기재하거나 필수 어휘 목록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

1) 이주미, 이연경 「대학 학부 신입생의 한국어 신조어 사용 인식에 대한 연구」 2022, 인문사회21, 제13권 2호

는데, 이는 신조어가 가지는 생성, 소멸 등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사위(2013)에서도 “신조어는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초 어휘 및 교재 개발과 관련된 어휘 선정에서 제외되었다.”²⁾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조어에는 일시적 특성이 있고 언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한국에서의 언어생활, 특별히 대학 생활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빈번한 신조어 사용에 노출되어 있으나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신조어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신조어가 일회적, 일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변화와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화 인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국어 신조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이주미, 이연정(2022)은 한국 대학 학부 신입생의 한국어 신조어 사용 인식 연구를 위해 학부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학생들의 92%가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고, 하루 자신의 언어 생활에서 신조어 사용 비중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전체 67.5%의 학생들이 인터넷 매체나 친구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학생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의 사용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³⁾ 김다은(2006)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조어는 언어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삶의 방식이나 사유의 지평을 넓혀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78%가 신조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⁴⁾ 한국에서 여러 목적으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라면 신조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배가될 것이 자명하다. 다행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어 신조어 연구는 위와 같은 한국어 신조어의 특성을 밝히고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위(2013)에서는 한국어 초,중,고급에 따른 효과적인 신조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간의 학자들의 신조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남기심(1983)에서부터 한상(2012)까지 정리했다.⁵⁾

하지만 매체를 활용한 신조어 교육 방안에 대한 모색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대현(2016)에서는 매체를 활용한 신조어 토의, 토론 형식으로 학습함으로써 신조어가 가지는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업에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어 교육 이전에 외국어 교수법에 있어 영상매체를 활용한 연구들은 최근 두드러지게

2) 이사위, 「신조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2013,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3) 이주미, 이연정 「대학 학부 신입생의 한국어 신조어 사용 인식에 대한 연구」 2022, 인문사회21, 제13권 2호

4) 김다은,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 2006, 도서출판 작가

5) 신조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p.6

등장하고 있다. 이충현(2008)에서는 전 세계적인 외국어 교육의 추세는 의사소통 및 언어의 4가지 기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의 통합적인 능력 신장과 함께 멀티미디어 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은 개방적 학습 활동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는 콘텐츠에 따라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실제적 환경 창출, 흥미 및 동기 부여, 역동적이고 다양한 학습 자료와 활동 및 피드백 제공, 학습 과정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⁶⁾.

영상매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모형들도 연구되었다. 김광자(2000)에서는 19세기에 시청각, 매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활용되었고 인류는 이러한 매체를 새로운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교육공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 매체로서 영상매체는 시청각 학습의 중요도와 함께 성장해 갔는데, 교수·학습 과정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되는 매체는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정서적인 공감과 반응을 폭넓게 이끌어낼 수 있고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이대현, 2016, 재인용). 이대현(2016)은 매체 학습의 장점에 대해 논하며, 매체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학습 목표에 관련한 개념습득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게 되며, 매체 학습은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보다 정확하고 간략하게 명료하게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기억을 돕는다고 하였다. 김수정 외(2021)에서는 2011년부터 ‘소셜’, ‘미디어’의 단어가 출현하면서 신조어와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발전되었다고 밝혔다.

3.2. 연구 방법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한국의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였다.

설문조사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신조어 교육 방안 연구

1.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한국어 신조어를 알게 됩니까?

- ☐ 텔레비전
- ☐ 라디오
- ☐ 신문, 잡지
- ☐ 인터넷

6) 이충현(2008), 멀티미디어와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 무슨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예: You Tube ‘코리안브로스’, TV ‘아는 형님’)으로 한국어 신조어를 많이 알게 됩니까?

3. 2번에서 답한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어 신조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 ☐ 매우 도움이 된다.
- ☐ 도움이 조금 된다.
- ☐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 ☐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4. 최근에 많이 들어 보거나 의미가 궁금한 한국어 신조어가 있다면 모두 써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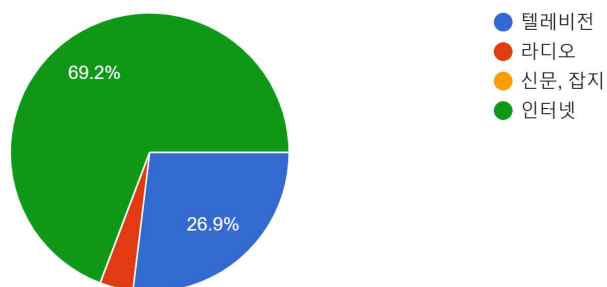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3. 설문조사 분석

질문에 답한 응답의 통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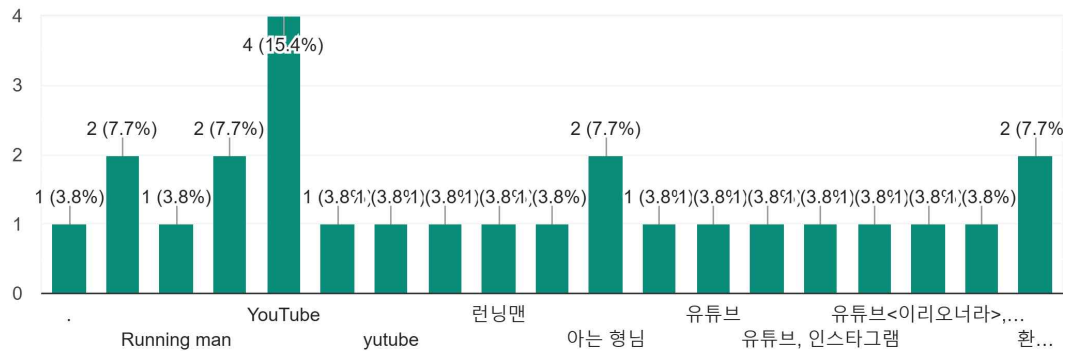
1.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한국어 신조어를 알게 됩니까?

응답 2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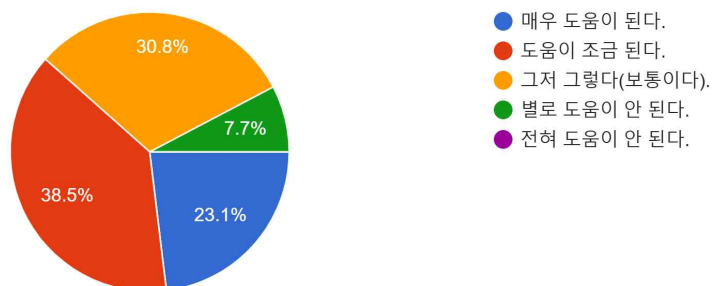
2. 무슨 프로그램(예: You Tube '코리안브로스, TV '아는 형님')으로 한국어 신조어를 많이 알게 됩니까?

응답 26개



3. 2번에서 답한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어 신조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응답 26개



4. 최근에 많이 들어 보거나 의미가 궁금한 한국어 신조어가 있다면 모두 써 주십시오.

응답 26개

갑통알(3), 킹받다(2), 현타(2), 삼귀다(2), 카공(2), 존맛탱, 웃안웃, 갓생, 어쩔티비, ㄱ 보 즈 ㄱ,
안물안궁, 스몸비, 그 잡채, 스겔, 사바사, 케바케, 여름이었다, 광탈, 오홍누, 오운완,
멍청비용, 암울하노, 내또출임, 아재개크, 홈피스, 곰살, 길끼빠빠, 닝바닝, 꾸안꾸, 불소, JMT,
열공, 꽃길, 밥약, 혼술, 혼밥

3.4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신조어 교수·학습 모형

앞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인터넷의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 신조어에 노출되고 이를 학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신조어가

한국의 사회·문화 현상을 대표하며 시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신조어 교육을 위해서 한국의 사회·문화상을 반영하는 신조어로 교수·학습 어휘를 선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교수·학습 대상으로는 사회·문화적인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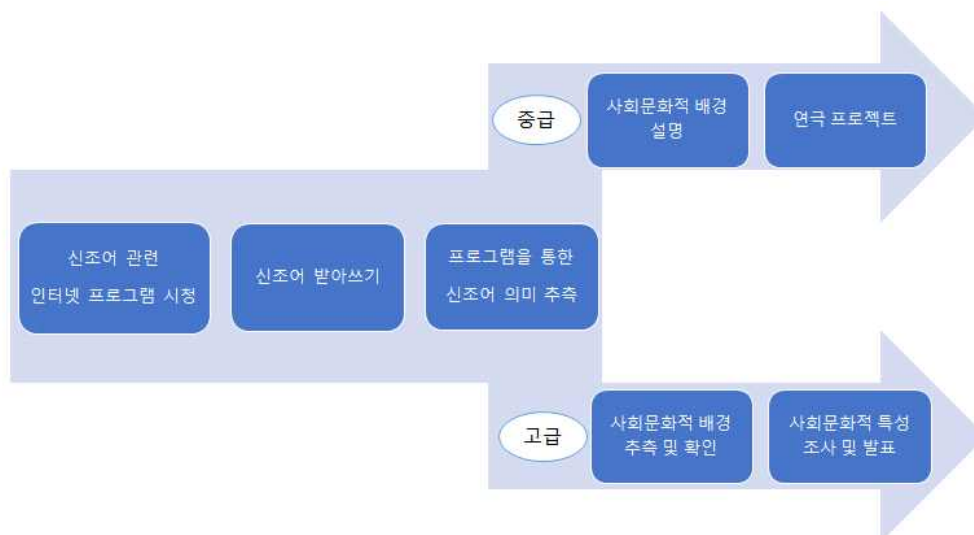
<표 1> 효과적인 신조어 교육을 위한 수업 구성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함과 더불어 신조어 교육을 프로젝트 발표 학습 모형과 접목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이 수업 모형은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국내 체류 중인 중·고급 수준의 외국인 대학생 100분간 진행하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먼저 수업은 다음 <표 2>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표 2>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신조어 교수·학습 모형



1)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신조어 학습을 위한 중급 단계 교수·학습 모형

중급 단계에서 신조어 교육은 신조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극을 통해 학습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습 동영상은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신조어가 제시될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 역할극 혹은 간단한 연극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상으로 선정한다.

① 신조어 관련 인터넷 프로그램 시청 단계

수업의 진행 절차로 먼저 교사가 선택한 신조어 관련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한다. 교사는 학습자 수준과 요구 사항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선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대학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K-대학생 99%가 공감하는 대학생할 모음>으로 선정하여 수업 모형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⁷⁾.

프로그램의 내용이 팀플(팀 프로젝트, 팀 발표)와 연관이 있는 주제이며, 약 7분간의 영상으로 문맥을 통해 수업에서 이해하고 진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사회 현상도 엿볼 수 있으며, 외국인 대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신조어들이 상당 부분 등장한다.



② 신조어 받아쓰기 단계

다음으로 학생들은 처음 듣는 어휘 및 표현, 그리고 신조어들을 확인한다. 교사는 앞 단계에서 영상 이해를 위한 전체 시청을 진행한 후, 이번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신조어에

7) 유튜브 채널 <연고티비 <https://www.youtube.com/watch?v=4qDb5LzYlbA>>의 영상을 활용함. 교수 학습 모형을 위해 설계된 수업 내용 안에는 총 8분간의 영상 중, 뒤에 약 1분간 나오는 이벤트를 제외하고 총 7분간만 활용한다.

집중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영상을 보여 준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조어와 어휘 및 표현들을 메모하고 교사는 이를 목록화 한다.

③ 프로그램을 통한 신조어 의미 추측 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신조어 목록을 정리한 후, 교사는 신조어와 신조어 외에 새로운 어휘 및 표현들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신조어 학습 수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신조어 외에 내용 이해에 필요한 표현들은 간략히 짚는 수준으로 진행한다.

신조어 목록을 제시한 후, 교사는 모둠 활동을 위해 교실 환경에 따라 학생들을 3-4명으로 모이게 한다. 모둠으로 모인 학생들은 프로그램 내용의 맥락을 통해, 그리고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통해 추측하게 한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나온 신조어의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다.

④ 사회·문화적 배경 설명 단계

모둠 활동으로 학생들이 추측해 낸 신조어의 의미들을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모든 신조어를 제시하지 않고 모둠별로 2개 정도의 신조어 목록을 발표하여 수업을 유연하게 진행한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면 교사는 신조어에 따른 사회 문화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때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여 주거나 사진, 그래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연극 프로젝트-결과물 산출 단계

한국어 신조어 수업의 마지막 단계로, 교사가 신조어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으로 작은 연극 혹은 역할극의 형태로 결과물을 산출해낸다. 세 번째 단계에서 모뎀지었던 학생들은 영상 안에 등장하는 대학생들처럼 간단한 연기를 해 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신조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역할극을 위한 대본을 작성하고 모둠별로 연습을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관련 신조어나 조사 과정에서 찾은 신조어를 활용할 수 있다. 연극 준비가 끝난 후에 학생들은 모둠별로 나와 연극을 한다.

2)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신조어 학습을 위한 중급 단계 교수·학습 교안

<표 3>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신조어 중급 단계 교수·학습 교안

학습 주제	대학 생활에 필요한 신조어	100분
학습 목표	1. 신조어의 의미를 알고 사회 문화적 배경도 이해할 수 있다. 2. 신조어를 활용한 팀 프로젝트(연극)를 할 수 있다.	
활용 프로그램	<K-대학생 99%가 공감하는 대학 생활 모음>	
학습 단계 (시간)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도입 (10분)	▶ 대학 생활과 관련된 도입 질문을 한다. T. 여러분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해 보니까 어때요? 어렵거나 힘든 것이 있어요? 혹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 영상(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신조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T. 여러분이 대학 생활 중에 한국 친구들에게서 들은 신조어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제시 및 설명 (20분)	<u><K-대학생 99%가 공감하는 대학생활 모음> 영상 시청</u> ▶ 오늘 학습 목표로, 영상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들을 배울 것임을 소개한다. T. 오늘은 여러분과 한국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거나 듣게 되는 신조어들을 배울 거예요. 먼저 영상을 봅시다. ▶ 영상 내용에 대해 확인하며 이해 정도를 묻는다. T. 영상의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영상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 중 모르는 것이 있어요? ▶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하면서 영상에 등장하는 신조어들을 받아 쓰고 이를 목록화한다. T. 영상에 어떤 신조어들이 나와요? ▷ 국룰, 출첵, 꿀TIP, OMG, 팀플, 취준, 꿀잼 ▶ 영상에 등장하는 신조어들의 의미를 모둠별로 모여 추측하거나 조사하여 알아보게 한다. T. 팀별로 모여 신조어들의 의미를 알아보까요?	처음~0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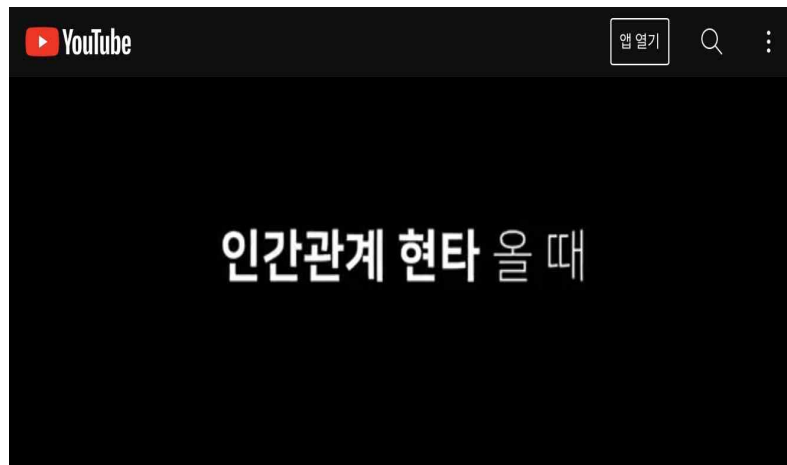
연습 (30분)	▶ 모둠별로 모여 알아낸 의미를 발표하도록 한다. T. 신조어의 의미를 모두 조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조사한 신조어들의 의미를 발표해 봅시다. ▶ 신조어에 의미와 함께 이러한 신조어가 생성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설명한다. T. 이 신조어들은 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취준’이라는 단어는 ‘취업 준비(생)’이라는 의미인데,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취직이 어려워졌지요? 그러다 보니 취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이해해 주는 분위기도 생겼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처럼 팀 과제를 할 때 취준생은 그걸 팀 대표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이야기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신조어들을 진행한다)	해당 대사 장면 캡처
활용 (35분)	▶ 신조어 학습의 확장을 위한 작은 연극 혹은 역할극을 진행한다. 모둠별로 활용할 신조어와 역할을 정한다. T. 이제 오늘 배운 신조어를 활용하여 작은 연극을 해 보겠습니다. 팀별로 모여 오늘 배운 신조어들을 활용하여 대학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연극으로 만들어 보세요. 먼저 대본을 쓰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세요. 오늘 배운 신조어 중 3개 이상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신조어가 있으면 같이 사용해서 연극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 연극 준비가 끝난 후에 학생들은 모둠별로 나와 연극을 한다. T. 준비가 다 되었으면 팀별로 나와 연극을 해 봅시다. ▶ 연극 발표가 끝나면 학생들과 발표에 대한 감상을 서로 공유한다. T. 오늘 친구들의 연극을 보니 어땠어요? 그리고 신조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무리 (5분)	▶ 비교문화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나라에서도 사용되는 대학생들의 신조어들을 조사해오는 과제를 제시한다. T. 여러분 나라에도 한국과 같은 대학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들이 있을 거예요. 신조어 한 두 개를 조사하고 그 의미도 같이 알아 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 과제를 제시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3)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신조어 학습을 위한 고급 단계 교수·학습 모형

고급 단계에서의 신조어 교육은 신조어 그 자체의 의미만을 이해하고 사용하기보다는 신조어 생성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습 동영상은 신조어가 제시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을 선정한다.

① 신조어 관련 인터넷 프로그램 시청 단계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신조어 교수·학습의 해당 동영상으로 웹드라마 **픽고**⁸⁾를 선정했다. 해당 웹드라마는 주로 20대 대학생들이 출연하여 대학생활, 사회생활, 연애생활, 취업 등 한국 사회에서 현재 20대의 고민, 생활, 꿈 등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이다. 고급 학습자들은 해당 에피소드(총 10분 22초) 중 한국의 술 문화, 선후배 문화, 학연 문화가 반영된 처음부터 2분 12초까지의 영상을 시청한다.



#웹드라마 #인간관계 #현타

인간관계에서 현타 오는 순간

② 신조어 받아쓰기 단계

고급 단계에서는 신조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표현들도 기록한다. 이는 고급 단계에서의 신조어 학습이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생성되었음을 인지하고 해당 신조어가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지를 교실에서 논의하고 조사하고 발표하기 위함이다. 해당 에피소드에 제시된 신조어는 ‘현타’, ‘열공’이며 사회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단어 및 표현으로는 ‘인맥, 학연, 끌어주고 밀어주다, 선(을)넘다’이다.

③ 프로그램을 통한 신조어 의미 추측 단계

동영상에 제시된 신조어의 의미를 동영상의 내용과 함께 추측해보도록 한다. 대부분 동

8) 유튜브 채널 <웹드라마 픽고PICKGO <https://www.youtube.com/watch?v=nOtLchKUEBY> >

영상 내용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므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조어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다.

④ 사회 문화적 배경 추측 및 확인 단계

고급 단계에서 한국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신조어와 다양한 표현들과 접목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해당 동영상의 내용과 줄거리를 확실히 이해한 후, 어떤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징이 그 속에 반영되었는지를 이야기 나눈다.

가령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에피소드는 한국의 뒤꼍이 문화, 선후배 문화, 학연 등의 인연을 중시하는 문화 등이 시청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를 한국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학생들의 자국에서는 비슷한 문화가 있는지, 이러한 문화가 어떤 신조어와 해당 표현(예: 학연, 선을 넘다, 술자리 가는 것도 투자다) 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한다.

⑤ 사회 문화적 특성 조사, 발표 단계

수업 시간에 본 동영상 프로그램에 나타난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둠 별로 조사한 후, 발표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인 뒤꼍이 문화, 선후배 관계, 학연을 조별로 나누어 조사하고 이러한 사회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분석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미리 해당 주제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여 학생들의 발표 때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인터넷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조어 학습을 위한 고급단계 교수·학습 교안

<표 4>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신조어 고급 단계 교수·학습 교안

학습 주제	대학 생활에 필요한 신조어	100분
학습 목표	1. 신조어의 의미와 생성 배경을 통해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2.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활용 프로그램	<웹드라마 픽고 PICKGO: 인간관계 현타올 때 >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비고
도입 (10분)	▶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도입 질문 T. 한국의 특별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T. 그 중 한국에서 인간관계의 특성(직장, 학교, 선후배, 동료 등)과 관련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 영상(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알게되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신조어에 대해 이야기 하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T. 여러분이 대학 생활 중에 한국 친구들에게서 들어보거나 궁금한 신조어가 있나요? 뭐예요? ▶ 더불어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며 느낀 인간관계, 선후배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T.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나 학교에서의 선후배 관계가 여러분 나라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거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제시 및 설명 (20분)	<웹드라마 픽고 PICKGO: 인간관계 현타올 때 > 영상 시청 ▶ 오늘 학습 목표로, 영상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 이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들을 배울 것임을 소개한다. T. 오늘은 여러분과 한국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거나 듣게 되는 신조어들을 배울 거예요. 먼저 영상을 봅시다. ▶ 영상 내용에 대해 확인하며 이해 정도를 묻는다. T. 영상의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영상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 중 모르는 것이 있어요? ▶ 다시 한 번 영상을 시청하면서 영상에 등장하는 신조어와 문화와 관련 있는 특별한 표현들을 메모해 보도록 한다. T. 영상에 어떤 신조어들이 나와요? 처음 들어본 표현들이 있나요? ▷ 등장하는 신조어 정리: 현타, 열공 ▷ 신조어 이외의 사회 현상을 드러내는 표현 정리: 인맥, 학연, 끌어주고 밀어주다, 선넘다 ▶ 영상에 등장하는 신조어, 처음 듣는 표현들의 의미를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추측하거나 조사하여 알아보게 한다. T. 신조어들의 의미를 알아보까요? T. 여러분이 들은 낯선 표현들은 대부분 한국의 인간관계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들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02:12
연습 (20분)	▶ 모둠별로 모여 알아낸 의미를 발표하도록 한다. T. 신조어의 의미를 모두 조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조사한 신조어들의 의미를 발표해 봅시다.	해당 대사 장면

	▶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교사는 피드백한다. T. (예1)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의미죠. 이 영상에서 주인공은 왜 ‘현타’라고 했죠? 자기만 모르는 단톡방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만 제외된 것이 왜 충격적이었을까요? 한국의 ‘우리’ 또는 ‘소속감’ 의식 때문이 아닐까요? (예2) ‘뒤풀이’는 어떤 일이나 모임을 끝낸 뒤에 서로 여흥을 즐기는 일을 말해요. 한국에서는 보통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한국 사람들은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업무나 공식적인 일을 할 때에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신조어와 사회 문화 현상을 반영한 단어, 표현들을 정리한다.)	
활용 (45분)	▶ 뒤풀이 문화, 선후배 관계, 학연과 관련한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 조사하여 자기 나라 문화와 비교하여 발표하기 T. 한국의 뒤풀이 문화, 선후배 관계, 학연과 관련한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자기 나라 문화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 신문 기사, 조사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고 모둠별로 발표합니다. ▶ 발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한다. T. 발표 내용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모둠(3-5명) 별 조사, 발표. ----- <u>모둠활동</u> <u>시간배분 참고</u> -조원들과 이야기 나누기 (5분) -조사하기(10분) -정리하기(15분) -발표하기(15분)
마무리 (5분)	▶ 과제: 현재 학생 모국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신조어를 조사하고 그러한 신조어가 탄생하여 사용되는 사회 문화적 배경 알아보기 T. 여러분 나라에도 현재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들이 많은 텐데요, 그러한 신조어를 하나 선택해서 그 의미와 함께 왜 그런 신조어가 탄생되었는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조사해 오는 것이 과제입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신조어가 가지는 특징 즉, 생성, 발전, 유행, 소멸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일반 어휘와 동일하게 학습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신조어에 담긴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조어를 배우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사회 문화상이 담긴 동영상 자료를 신조어 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동영상 자료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 접근이 쉬운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교수·학습의 용이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유튜브로 한국어 신조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동영상에 한국어 신조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매우 높은 퍼센트로 나타났다.

이에 중급과 고급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이용한 한국어 신조어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중급은 신조어 이해와 표현을 중심으로, 고급은 신조어에 반영된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한 발짝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도록 했다.

앞으로 동영상 활용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와 방법으로 한국어 신조어 학습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신조어 교육은 한국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조어는 신조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중요성을 두고 교수·학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이 교수법 모임을 통해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고 또한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물을 실제로 수업에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쌓인 자료와 결과물을 바탕으로 여러 학술지나 연구 논문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7),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 개발, 새로문화
김다운(2006),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 도서출판 작가
김수정 외(202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조어 연구 동향과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신조어
에 관한 인식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92집
박갑수(1998), 『한국방송언어론』, 집문당
이대현(2016), 매체를 활용한 신조어 토의·토론 교수 학습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사위(2013), 신조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이주미 외(2022), 대학 학부 신입생의 한국어 신조어 사용 인식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13권 2호
이충현(2008), 멀티미디어와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종강정(2021),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신조어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플랜스페이스(2022), 『콘텐츠와 글쓰기로 매출 올리는 SNS 마케팅』, 성안당

<참고 사이트>

연고비티 <https://www.youtube.com/watch?v=4qDb5LzYlbA>

웹드라마 픽고PICKGO <https://www.youtube.com/watch?v=nOtLchKUEBY>

「수강자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PBL 및 토론중심 교수법 적용방안 연구」

양우진 교원, 윤시내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최근 대학 교육은 수강자의 비판적 사고와 논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의자 또한 수강생의 원활한 토론문화 정착과 비판적 사고를 가능케 하기 위해 기존의 교수중심의 교수법을 보완하고 수강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교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모임 참여자 또한 오랜 기간 강의를 통해 수강자의 융합적 사고능력 향상과 지식의 내재화를 위해 고민하였고, 2022년 제2학기에 담당하였던 강좌에 적용하기 위한 교수법 연구모임을 수행하였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수강자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PBL 및 토론중심 교수법 적용방안 연구

목적: 본 연구모임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Problem based learning, 즉 수강생의 창의적 접근을 통해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교수법을 연구하여, 참여자가 담당하는 강의에 적용해보는 한편 향후 강의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 교수법 연구 및 방향설정 : 밥 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모임은 구성원의 강의 전/후 매주 유선통화 및 오프라인 회의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모임 구성원은 강의자가 수강자의 창의적 사고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경험적 자산을 서로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수강자의 비판적 사고를 독려하면서도 비판이 좋은 아이디어를 파괴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한편, 각자가 담당하

는 과목에 적용해보았다.

우선, 본 모임을 통해 구성원은 파이크(Bop Pike)의 지적과 같이 연구모임이 지향하는 창의적 교수법을 비판적 사고능력을 중심으로 수강자의 학습 능력과 기존의 지식, 그리고 이를 조화롭게 하는 응용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일련의 교수법으로 정의하였다¹⁾. 곧, 우리가 지향하는 교수법은 교수자의 효과적인 지식전달 뿐 아니라 교수자와 수강생, 그리고 수강생 간 협력과 공감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모임은 ‘수강자 중심의 교육’,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법과 협력적 교육모델’이라는 두 축을 설정하여 선행연구 및 이를 적용해보는 과정을 수행했다.

1) 언어학 강좌 : 수강자 중심의 교육

먼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의 사회화에 맞추어져 있으며, 교수자는 사회적 가치를 담보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전달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체계에서 교수자와 수강자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수직적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강의에 있어서도 교수자가 중심이 된 교육체계가 형성되었다. 곧, 전통적 방법의 교육은 ‘위로부터, 그리고 밖으로부터 강제되는 교육’으로 정의되었다²⁾.

그러나 듀이가 언급했던 것처럼, 교육의 최종적 목표가 수강자의 창의적 역량증진을 통해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강의 및 교육에 있어서도 교수자가 아닌 최종 수요자, 즉, 수강자의 학습효율과 지식 내재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 경우, 밥 파이크가 제안한 것처럼, ‘교수자가 지도(Instructor-led)하는 참가자 중심 교육(Participants Centered Education)’이 고려될 수 있다³⁾.

‘텍스트로 배우는 우즈베크어’ 수업은 중앙아시아학과의 전공 교과로 초급 우즈베크어, 초급 우즈베크어 회화작문, 중급 우즈베크어, 중급 우즈베크어 회화 작문 등의 수업을 통해 초·중급 수준의 우즈베크어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일반적인 언어 학습 교재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를 분석하며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인문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밥 파이크는 해당 정의에서 더 나아가 기본적 원칙을 바탕으로 최신의 연구결과가 반영되어 수강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해서 발굴케 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밥 파이크, 김경섭·유재필 공역, 『밥 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 (파주:김영사, 2004), p. 21

2) 존 듀이(John Dewey)는 위의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육은 수강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John Dewey, *Experience And Education*, (NY: Simon & Schuster, 1997), p. 15-17

3) 밥 파이크(2004), p. 21

따라서 본 수업은 언어 교과이지만, 단순히 언어 학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언어를 ‘매개체’로 활용하는 수업으로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 분석하고 우즈베크어만의 독특한 표현과 용어를 학습하여 우즈베크어 구사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주제 심화 학습을 통해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대한 전문 지식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수업이다.

따라서 교수법 회의를 거쳐 본 교과에도 수강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참가자 중심 수업(PCE, Participant-Centered Education)의 모델을 적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언어 교과이기에 매시간 학습자들의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을 미리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BL, 즉 문제 기반 학습을 언어 교과에도 부분적으로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이 수업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⁴⁾. 특히 이번 학기 수강생들은 지난 학기에 진행된 ‘텍스트로 배우는 우즈베크어1’에 연이어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새로운 교수법의 적용은 지난번과 같이 설명식 강의를 예상했던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보이는 반응과 지난 학기 강의평가와 비교하여 그 효과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 국제관계학 강의 :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PBL교수법과 협력적 교육모델

수강자의 창의적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수강생의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사고체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들이 수업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직적 사고체계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강조되는 체계이고, 수평적 사고체계(내지는 확산적 사고)는 특정한 답을 도출하기보다는 조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강조되기 때문에 복잡한 국가간 관계를 다루는 학문에서는 두 체계 모두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곧, 논리와 이론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정보의 배열을 기초로 하는 수직적 사고와 기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일련의 ‘창조’활동을 거치는 수평적 사고체계는 모두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있다.⁵⁾

‘유럽의 위기와 전략적 대응’ 과목은 유럽이 직면한 안보위기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각국 혹은 행위자 간 전략적 대응을 살피는 과목이다. 따라서 국제관계학을 중심

4) 해당 강좌에서는 언어학 강좌에서 적용하기 다소 어려운 ‘문제해결기반 학습방식(PBL)’에서 ‘문제(Problem)’를 ‘Project’로 확대-적용해보았다.

5) 조이 길퍼트(Joy P. Guilford)는 ‘수렴적 사고(Convergent Production)’를 넘어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제안했다. 곧, 유일한 답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위해 논리 간 조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적을 참고할 것. Guilford, J.P.,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Y: McGraw-Hill Education, 1967), Guilford J.P., *Way beyond the IQ*, (NY: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1977)

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극항로, 환경문제와 신냉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토대와 응용, 그리고 창의적 대안의 제시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중심으로 행위자의 행동을 파악하는 경우 수직적 사고체계가, 북극항로, 환경문제와 같이 국가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적 사고가 강조되기도 하며, 수강생은 사고체계의 선택에 앞서 본질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두어야만 한다.

한편, 에드워드 드 보노(Edward De Bono)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수강자의 창의적 역량 향상을 위해 논리적 대립 위주 교육보다는 학생 간 협력에 초점을 둔 방식이 강조된다⁶⁾. 특히 지나친 논리적 비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수강자의 논리적 비판을 최소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강의의 토론은 기존의 찬반 토론 형태를 넘어 그룹 토론과 ‘외교활동’이라는 조정 활동을 거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수강자는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분석과 더불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수직적-수평적 사고를 모두 체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강자 간 협력을 강조할 수 있다.

예컨대, 본 강의에서 진행되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진행되었던 토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양 측과 이를 중재하는 독일 등 서방국가 측이 등장하고 있다. 즉, 한 번의 토론에서 수강생은 전쟁당사자와 이를 중재하려는 제3자의 입장이 모두 경험하였으며, 양측의 ‘조정’을 위해 ‘외교활동’이라 불리는 능동적이며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서방측 발표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 측의 의견을 전달-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 연구적용 I : PBL 교수법과 협력적 모델 - ‘유럽의 위기와 전략적 대응’

본 강의는 유럽이 직면한 안보위기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각국 혹은 행위자 간 전략적 대응을 살피고 유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의자는 전반부의 이론강의와 함께 중-후반부의 사례분석을 본 강의의 큰 축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본 강의는 유럽의 분쟁사례를 문제로 제시하고, 수강생이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토론을 위한 비판적 사고 증진, 그리고 논리적 의견의 조정,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활동’⁷⁾ 중심의 그룹 토론을 수행하였다.

6) 에드워드 드 보노, 『생각의 공식 : 창의성을 학습하는 11가지 생각의 도구』, (서울: 더난출판, 2010), p. 144-151

7) 본 강의에서는 토론시간 내, 그룹 구성원이 다른 그룹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생각을 교류하는 것을 ‘외교활동’으로 안내하였음. 예컨대 국가간 그룹토론의 경우 각 그룹 내에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등으로 역할을 세분하여, 각국의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실 등 부서간 국제협업활동을 장려하였음.

본래 본 강의는 전반부의 이론강의와 더불어 토론의 형태는 찬반토론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모임에서 수행한 선행연구 및 회의결과에 따라서 토론 형태를 그룹 중심 토론으로 진행하였으며, 토론 마지막에는 결의문을 발표하여 그룹 내에서도 의견을 조율토록 하였다.

<강의 주차별 강의주제와 토론수행>



<토론 결과에 대한 그룹별 결의문 발표>



<강의 주차별 강의주제와 토론활동>

주차	강의주제	토론
1주	오리엔테이션 : 분쟁과 협력 - 국가의 협력과 분쟁은 무엇이며, 국제관계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토론: 힘에 의한 약육강식 vs 공존 가능한 이상적 체제 - 내가 생각하는 국제체제의 현실과 이상,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국가간 협력과 갈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힘에 의한 '약육강식의 국제체제' - 모두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이상적 국제체제' - 유물론에 기초한 착취적 '상부-하부구조의 국제체제' - 관념의 변화에 따라 재편이 가능한 '모듈적 국제체제' ↓ 국가분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어디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2주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 국가간 갈등과 협력, 그리고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분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운다. 토론: 자주국방과 공동방위 - 사드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미국의 관계에서 각국의 당국자가 되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해본다.	Discussion 사드문제와 한-중, 한-미관계 :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적 접근 https://www.youtube.com/watch?v=xq936MfNakI https://www.youtube.com/watch?v=tasHmf8p2c https://www.youtube.com/watch?v=7u8du7Eliw
3주		휴강
4주	1차세계대전의 배경과 결과 - 1차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고, 유럽 제국주의의 전개와 1차세계대전을 연결하여 본다. 토론: 빌헬름과 비스마르크 대외정책 인식과 선택 - 빌헬름과 비스마르크의 상이한 외교기조를 살펴보고, 그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관점을 평가한다.	비스마르크-빌헬름 체제와 전쟁에 대한 인식? 비스마르크 : 참전을 거부한다. 이번 사라예보사건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동맹국 오스트리아의 합법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가 참전하게 될 경우 세르비아를 지원하는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참전으로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독일이 추구했던 세력균형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이미 독일이 달성한 기득권, 외국과의 전쟁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참전요청을 정중히 거부하고 세르비아에 외교적 압박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비스마르크와 빌헬름의 안보 전략의 차이는 전쟁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한다. 비스마르크는 세력균형에 중점을 두어 가급적 전쟁을 피하려 했고, 빌헬름에게는 정상화 세력균형보다 전쟁을 통한 확실히 극적인 경쟁우위와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보하고자 했다. 사라예보사건에 대해 비스마르크와 빌헬름2세가 얹은 토론한다면, 어떠한 의견이 더 국익을 담보하는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는가? 또한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무엇일까? 빌헬름 2세 : 참전에 중한다.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비보는 동맹국의 비극이자, 한 국가의 동맹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다. 또한 세르비아는 가려져 있지 않고 이해관계인 오스트리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합법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동맹국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쟁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전의사를 밝히야 한다.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생존과 확실히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력과 연계할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오랜 기간 산업화와 근대화정책으로 중립한 중립이 되어있으며,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의 합법요청을 거부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주차	강의주제	토론
5주	유화정책과 억지(Deterrence) : 제 2차세계대전 - 2차세계대전 직전 영국과 독일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화정책과 억지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해본다. 토론: 세계대전 발발원인 : 리더십 vs 국제체제 - 2차세계대전의 배경과 결과를 살펴보고, 발발원인 중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2차세계대전의 발발원인과 안보체제 이탈리아는 1934년 총통 베니토 무솔리니의 구상대로만 행동했던 데-레토만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세적 팽창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2차세계대전 발발요인에서 이탈리아, 시노사의 상황은 본질적 문제인가? 결국적으로 이탈리아는 2차대전의 주범인 동시에 본질적 요인이다. 이탈리아는 하나의 '요인'이었을 뿐,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세계균형 : 필자한 힘의 균형은 필자국을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절단안보 : 주권의 일부를 양보한다면, 결과적으로 필자국을 견제할 수 있다. 절단안보의 개념은 세계균형과 어떻게 다른가? 양자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는 국제체제는 무엇인가? 2차세계대전 발발요인에서 이탈리아, 시노사의 상황은 본질적 문제인가?
6주	중동문제와 유럽의 안보 - 1, 2차 걸프전쟁과 최근 난민에 대한 이슈까지, 중동과 유럽의 역사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유럽-미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본다. 토론(그룹): 걸프전쟁에 대한 프랑스-미국 정상회담 - 중동문제를 바라보는 프랑스, 미국의 정책 당국자가 되어, 자국의 이해를 증진해본다.	

주차	강의주제	토론
7주	냉전과 유럽 - 냉전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사례에도 적용해본다. 또한, 최근 한국-폴란드의 대규모 방산계약과정을 이해하여, 유럽 안보 상황을 이해해본다. 토론(그룹): 집단안보 vs 자조(self-help) - 생존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인지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토론해본다.	생각해볼 문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소한은 일국과 일국간의 국지전이 있으나, 점차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립국이었던 유럽 또한 이권과는 달리 각국이 처한 경제-안보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국가별 상이한 전략들이 수립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의 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원칙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집단안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분쟁을 강조하던 유럽의 위기임은 인정하나, 러시아와 같이 강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식량안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상이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권에 존재했던 나토 등 집단안보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 자조(Self-help)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과거와는 달리, 일국은 일국이 식량안 위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현실주의적 국제체제를 증명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우크라이나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주의의 원칙이 다시 증명되고 있다.
8주	중간고사: 이론과 사고 : 국제체제 주요이론과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9주	유럽의 주요분쟁 : 아일랜드 - 아일랜드 독립문제에서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의 대응과정을 살펴본다. 토론(그룹):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입장 vs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의 입장 - 아일랜드 독립문제에 대한 아일랜드 공화국, IRA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상호 설득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아일랜드 독립문제에 대한 토론  1921년, 아일랜드 공화국은 영국 정부와 독립문제를 논의하면서 분쟁지역인 북아일랜드를 영국에 할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세계대전이 발발한 현재, 영국이 이 문제에 순진하게 나오는 지금이 순간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다면, 영국의 아일랜드 독립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독립문제에서 북아일랜드를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658년 이전까지 이 지역은 아일랜드인이 살던 지역이었으며, 북아일랜드는 가장 발전된 지역 중 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독립에 있어, 하나된 의견을 보아야 할 때이다.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입장 세계대전과 각종 문제로 영국이 순진히 개입하지 못하는 이때가 독립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이다. 북아일랜드는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되찾아올 수 있다.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의 입장 우리는 왜 독립을 하려 하는가? 이미 북아일랜드는 원래도 우리의 영토였으며, 해당 지역에도 수 많은 아일랜드인이 살고 있다. 이를 없이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순수일 뿐이다. 현실주의의 입장 민족주의와 국가 자유주의의 입장 공화국-영국 구성주의의 입장 시민단체(국내)

주차	강의주제	토론
10주	유럽의 세력균형과 대미정책 - 냉전이후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요 안보체제를 이해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토론(그룹): 우크라이나 사태 종결을 위한 3자 정책토론 (우-러-서방) - 3국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본다.	토론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토론 2013년 유로마이단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극도로 멀어졌다. 2014년 크림 사태 이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했으며, 2014년에는 돈바스지역의 독립문제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돈바스지역의 친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하에 친러친을 신조했고, 이젠 전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전쟁의 장기화는 모두에게 불행이다. 어떤 입장에서든 말이다. 현실주의 입장 자유주의 입장 구성주의 입장 서방측 : 중재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불법적인 권원을 감행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 될 수록 우리의 경제에는 부담이 된다. 우크라이나 측 러시아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성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수 차례 유린했다. 우리의 영토를 회복할 때 까지 협상은 어렵다. 러시아 측 우크라이나는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서방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돈바스 지역 외 친러시아 주민을 압박해왔다. 이런 우리의 협을 보여줄 때 이다.
11주	냉전 위기과 북극문제 - 냉전당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 역사과정을 살펴본다. - 북극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환경문제의 관점, 북극항로의 관점을 살펴본다. 토론(그룹): 북극항로 개척과 주요국의 대응(미-러-EU) - 북극항로에 대한 주요국의 당국자 되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토론을 수행한다.	냉전 전과 북극 북극항로와 주요국의 대응 북극해 북극항로 현황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주요국들의 대응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주요국들의 대응 https://www.youtube.com/watch?v=dbmpOFAI4c https://www.youtube.com/watch?v=2U-YcYRW6T4

주차	강의주제	토론
12주	새로운 유럽의 위기 - 유럽통합과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 4차산업혁명 및 유럽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 살펴봄, 이를 바라보는 이론을 점검한다. 토론(그룹): 유럽의 새로운 위기 대응에 대한 해법 :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적 관점 - 각각의 관점에서 이론간 공통점을 찾아보고 새로운 이론적 규칙을 도출해본다.	관점과 사례 현실주의적 관점 - 세력균형 - 불확실성과 부정부채제 - 강성권력, 연성권력 - 국가간 경쟁과 협력  자유주의적 관점 - 이익의 조화(집단안보) - 개인과 국가(인권 등) - 제도주의적 자유주의 - 비정부기구의 역할  구성주의적 관점 - 객관적 사실과 사회적 사실 - 국가간 상호인식 - 여성문제와 젠더이슈 - 영화 및 미디어 이슈 
13주	과제수행주간: 자신이 선택한 유럽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개요 작성	
14주	강의정리	- 강의운영 및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정리 - WEBEX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토/일/월 20:00-24:00)
15주	보강주 (WEBEX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13:30-15:30) / 개별첨삭	
16주	기말고사 : 유럽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페이퍼 제출	

- 연구적용 II : 수강자 중심 교육 - '텍스트로 배우는 우즈베크어 2'

본 수업은 언어학습과 더불어 언어를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 분석과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대한 지식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진행했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강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적용해보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 시간에는 수업 소개 및 수업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참가자 중심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수강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자 흥미 있는 분야와 더 알아보거나 배워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말콤 놀즈(Malcom Knowles)는 성인 교육은 스스로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자기 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함양을 위해 수업 계약서 작성을 권장하였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도 이를 '수업계획서'란 이름으로 적절히 변형하여 학습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수강신청의 이유와 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것, 각오 등을 간단하게 작성한 후 교수자의 확인을 받고 수업 노트 앞에 붙이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매 수업 시간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상기할 수 있게 하였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수업계획서>

수업계획서 학번: 이름: 저는 텍스트로 배우는 우즈베크어2 과목을 수강하면서 _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수강신청 이유 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것 출석 관리 각오 날짜: 서명: 교수 확인란

또한, 지난 학기 강의평가에서 다소 높았던 수업 난이도와 교수자가 활용한 수업자료의 적절성이 지적되었던바, 이번 학기에는 수강생들의 우즈베크어 수준과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한 텍스트를 직접 선정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었다.

2주 차에는 우즈베크식 유머를 읽고 분석하는 시간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는 우즈베크 일화에 나오는 표현을 학습함과 동시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표현이 복잡하지 않은 주로 간단한 텍스트 위주로 선정하

여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머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비하적 양상을 두고 학습자들 사이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성 의식 및 변화하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각자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토론 준비 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관련 주제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면서 토론 주제에 적합하고 교수자와 같이 읽고 분석하면 좋을 텍스트를 선정하여 교수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였다.

〈학습자들이 공유한 현대 우즈베크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소논문〉

www.scientificprogress.uz «SCIENTIFIC PROGRESS» Scientific Journal
ISSN: 2181-1601 Volume: 1, ISSUE: 5

**YANGI DAVRDA O'ZBEKISTONDA XOTIN-QIZLAR ROLINING
RIVOJLANISH BOSQICHLARI**

Gavharoy Shavkatovna Latipova
Toshkent davlat sharqshunoslik universiteti magistranti

ANNOTATSIYA

Maqolaning mazmuni Markaziy Osiyo, xususan O'zbekistonda xotin-qizlar hayoti, tarixiy taraqqiyoti, huquqiy vakolatlari kengayishi, ularning jamiyat hayotida tutgan o'rni, globallashuv jarayonlariga ta'siri bilan bog'liq jarayonlar tahlilidan iborat. Shu o'rinda, O'zbekistonda xotin-qizlarni huquqlari va ularni qo'llab-quvvatlashga doir mexanizmlar, tarixiy rivojlanish jarayonlari, ularga berilayotgan imkoniyatlar va qiynayotgan masalalar hamda qator takliflar keltirib o'tilgan.

Kalit so'zlar: Etnik qadriyatlar, oila, farzand tarbiyasi, din omili, sharqona mintalitet, nikoh, gender tengligi

교수자에게 공유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3~4주 차 수업에는 텍스트를 같이 읽고 분석한 뒤 학습자들이 스스로 조사해 온 내용을 근거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였다. 교수자는 코멘트로 역사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우즈베크 여성의 지위 및 역할과 우즈베크 여성의 지위를 엿볼 수 있는 속담 및 관용어를 소개하며 관련 논제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수업 마무리에는 우즈베크 사회에서의 여성의 시대별 이미지 및 우즈베키스탄의 성 평등 문제, 우즈베크 여성의 미래에 관해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고 1분 페이퍼를 작성하도록 하여 첫 PBL 적용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게 하였다.

5~6주 차 수업은 현지 뉴스 기사 텍스트 분석으로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 전 미리 학습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웹 서칭하여 서로 교환한 후, 같이 흥미 있게 읽을 만한 기사를 투표로 선정하여 교수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5~6주 차 수업자료로 활용된 뉴스 기사>



\$ USD: 11288.44
₽ Rub: 158.18
€ Eur:

📅 25/Sentabr/2022 Hamkorlik

“Vatandoshlar” jamoat fondi vakillari Xanguk xorijiy tillar universitetida o‘zbek tilini o‘rganayotgan Janubiy koreyalik talabalar bilan uchrash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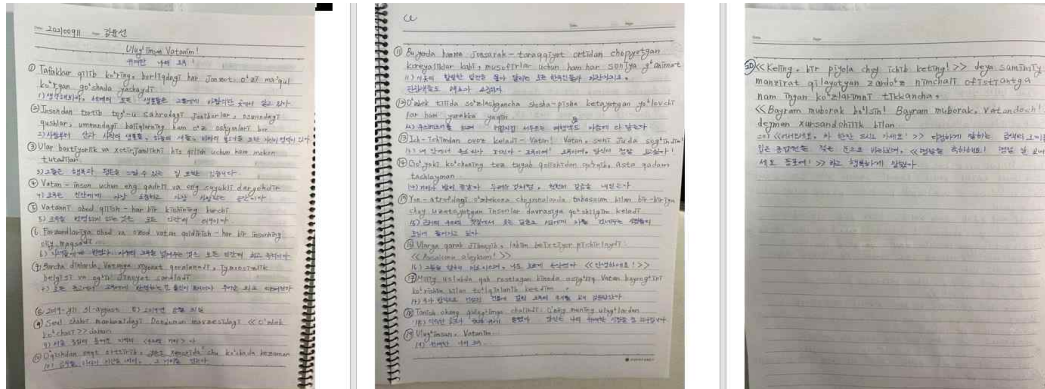
SEUL. 25 sentyabr. /“Dunyo” AA/. “Vatandoshlar” jamoat fondi boshchiligidagi O‘zbekiston delegatsiyasi vakillari Janubiy Koreyaning Xanguk xorijiy tillar universitetida bo‘lib, ushbu ta‘lim muassasasida o‘zbek tilini o‘rganayotgan koreys talabalari hamda ularning o‘qituvchilari ishtirokida “davra suhbat” o‘tkazdi, deya xabar bermoqda “Dunyo” AA muxbiri.



해당 뉴스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외 우즈베크어의 위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수자는 ‘우즈베크어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국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란 질문을 던진 후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차주에 토론을 진행하여 학습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수업 시간에는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몰랐던 내용에 대해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고, 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였다.

7주 차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새롭게 출판된 교과서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교과서에서 포함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가치 덕목을 이해하고 우리와 비슷한 점 및 다른 점을 비교해보고, 9~10주 차에는 한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음식 전문점 주인의 성공 이야기가 실린 현지 신문 기사를 읽고 주제를 두 가지로 확대하여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전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음식 문화를 살피고, 우즈베키스탄 국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해 분석한 후 PMI 토론을 하여 중앙아시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중앙아시아 권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7주 차에 맞춤 개별 과제를 부여하여 학습자들은 자기가 읽고 싶은 주제 중 적절한 난이도를 갖춘 텍스트를 선정하여 키릴어를 라틴어로 변환하며 분석하도록 하였고, 중간시험 이후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일대일 코칭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이 선택한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제〉



11~14주 차에는 4주에 걸친 대본 완성 후 분석하기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하였다. 다만 수강생의 수가 적어 팀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어렵고 전공 교과임에도 각기 다른 학번의 학습자들이 모여 있어 서로 간에 서먹한 모습을 자주 보였으므로 친밀도 형성을 위해 모든 수강생을 한 팀으로 묶어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전 학습 자료들의 선정 과정처럼 이번에도 영화/드라마 중에 원하는 것으로 서로 의논을 통해 선택하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주도로 우즈베크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학습자들이 직접 계획을 세워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도록 강의실 안팎에서 학습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였고,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을 두고 코멘트 하는 방식으로 함께 수정을 거쳐 완벽한 작업물을 완성 후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학습자들의 교실 내 활동 모습〉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 및 적용결과 I : PBL 교수법과 협력적 모델 - ‘유럽의 위기와 전략적 대응’

국제관계 및 정치학을 기초로 한 본 강의는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법을 적용하기 바람직한 과목으로, 학기 전후 수강생의 역량증가가 매우 가시적이었다. 특히, 강의 초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수강자 또한, ‘그룹’이라는 소속감 부여,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정 등을 수행한 결과, 강의 후반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자의 자세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본 교수자가 수행했던 수직적-이론강의 보다는 PBL 및 그룹 토론을 통해 이론학습을 수행한 결과, 지식의 내재화가 매우 유의미했다는 점이다. 수업 내 토론에서 수강자는 능동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수업 후에도 자발적 토론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강의 중반부 부터는 이미 높은 수준의 이론적 이해를 담보하게 되었고, 강의 초반보다 더욱 원활한 토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수강자는 강의 초부터 운영되었던 소통창구(WEBEX를 활용한 질의응답 채널)의 이용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그룹 내에서 부여된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주차의 강의내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곧, 수강자는 매우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했으며, 대부분의 수강자가 중간고사-과제-기말고사에서 높은 수준의 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평가에 있어 본 강의는 중간고사는 비판적 사고를 위한 지식습득 및 인식론(이론에 대한 견해 작성)을, 과제는 능동적으로 탐색한 유럽의 이슈와 이에 대한 관점 탐색을, 기말고사는 과제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른 수강자와 자발적 토론을 통해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획하였는데, 이 또한 PBL 교수법의 취지에 부합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상대평가가 강제되는 상황에서 수강자 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학습효과가 높았던 수강자들의 경우 수업에서 진행된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나, 평가가 이뤄지는 상황(과제 및 기말고사 에세이)에서는 수업만큼의 상호존중과 배려가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곧, 상대평가 제도, 특히 평가과정에서 수강자는 서로를 이미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임을 통해 수행된 그룹 토론과 그룹 내 역할설정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강의 설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된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연구 및 적용결과 II : 수강자 중심 교육 - ‘텍스트로 배우는 우즈베크어 2’

지난 학기 강의평가에서 지적되었던 난이도를 조절하고 학습자들의 창의성 함양을 도모

하기 위해 지난번과는 다른 PBL 및 토론중심 교수법을 적용해 보았다. 언어 교과는 완벽한 토론 수업이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언어 교과에서도 일부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수자는 강의 기간 동안 전통적인 설명식 교수법을 탈피하고 학습자들의 확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향상을 위해 학생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어 학습 주제와 학습 계획을 수강생들에게 전적으로 넘기고 최대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재가 없어 난이도를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수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관심이 가는 주제를 두고 스스로 학습하며 더욱 많은 시간을 자기 주도 학습에 몰두할 수 있었고, 언어 교과임에도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교과에서 잘 다루지지 않는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하면서 동시에 언어도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는 학생들의 평가가 있었으며, 강의평가도 지난 학기에 비해 좋아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언어 교과에도 창의적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 교수법을 적용한다면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이와 연계된 언어 교과를 증설한다면 언어를 매개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은 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다루지 못했기에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 마틴 노왁 · 로저 하이필드, 허준석 옮김, 『초협력자: 세상을 지배하는 다섯가지 협력의 법칙』, (서울:사이언스북스, 2012)
- 밥 파이크, 김경섭 · 유재필 공역, 『밥 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 (파주:김영사, 2004)
- 에드워드 드 보노, 『생각의 공식 : 창의성을 학습하는 11가지 생각의 도구』, (서울: 더난출판, 2010)
- 정성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공학윤리교수법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 접근법의 응용-”, *윤리연구*, 제85권 0호, 2012
- 조연순 외, 『창의성 교육: 창의력 문제해결력 계발과 교육방법』,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 John Dewey, *Experience And Education*, (NY: Simon & Schuster, 1997)
- Guilford, J.P.,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Y: McGraw-Hill Education, 1967)
- Guilford J.P., *Way beyond the IQ*, (NY: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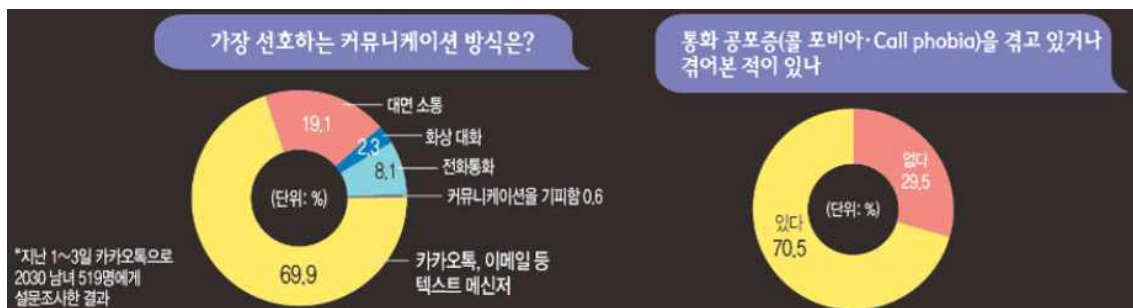
「공학 계열 전공 수업 교수법 모임」

남윤호 교원, 오세홍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 이상은 2019년 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대면’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이 보편화되면서 코로나 세대로 불리우는 20대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게 생겨난 ‘대면 공포증’ 혹은 ‘통화 공포증’에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이 있음

- 1) ‘10명 중 7명 통화 공포증 (국민일보, 2023.1.7.)’
- 2) ‘MZ세대 신 소통법…비동기 커뮤니케이션(매경 ECONOMY, 2021.11.2.)’
- 3) ‘학업, 취업, 코로나’로 스트레스 폭발 중인 비운의 세대 20대들 사이서 생겨난 신종 공포증 4 (인사이트, 2021.1.11.)’.



[그림 1] 코로나 세대가 가진 대면 소통 공포증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자료 출처, 국민일보, 2023. 1. 7 (kmib.co.kr))

- (그림 1)에 보인 것 처럼 2023년 1월 7일자 국민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19~39세 남녀 519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19명 중 70.5%에 해당하는 365명이 ‘통화 공포증을 겪은 적이 있거나 겪고 있다’고 답했음
- 그리고 응답자의 69.9%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비대면 온라인 텍스트 메신저를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으로 꼽았으며 대면 소통은 19.1%로 비대면 방식의 1/3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보편적인 상황이었던 직접 소통의 상황이 코로나

세대들에겐 심리적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 감염증이 완화되어 대면 수업이 재개된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됨

- 이공계 전공 수업의 특성상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교육 내용이 달라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대면 상황에서의 의사 소통 특히 학생 본인의 궁금증이나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공포감을 느껴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1) 학생 측면에서 궁금증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에 따른 전공 과목에 대한 관심도 저하 및 학업 능력의 저하
- 2) 교강사의 입장에서 학생들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함에 따른 학생과의 눈높이 차이 발생
- 3)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비대면 상황에 익숙해진 코로나 세대가 다시 대면 소통 상황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코로나 세대인 학생들의 전공 수업에 대한 적절한 관심 유지 및 학업 능력 증진, 교강사와 학생 사이의 적절한 피드백을 통한 눈높이 맞추기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를 위해, 코로나 세대 학생들이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익명 실시간 메신저를 수업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활용하였을 때 전공 수업에 대한 학업 능력 증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없어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음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실시간 익명 메신저를 전공 수업 도구로 활용하였을 때의 학습 능력 증진 효과 탐구

목적:

- 1) 전공 수업에 활용 가능한 실시간 익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선정
- 2) 비대면 익명 메신저를 활용하였을 때의 학업 성취도 증진 효과 탐구
- 3) 비대면 익명 메신저를 활용하였을 때의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증진 효과 탐구

3. 연구 진행 내용

A. 교수법 연구를 위한 전공 수업 선정

교수법 연구를 위한 전공 수업 선정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함

- 1) 학과 정원 (35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전공
- 2)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부 기초 전공
- 3) 전임 교원이 진행하는 전공

2022년도 2학기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에서 개설한 전공 수업 중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세 개의 강좌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 디지털 공학 (1학년 전공 필수 과목, 수강생 41명)
- 2) 공업수학 (2학년 전공 필수 과목, 수강생 48명)
- 3) 의용전자 및 실습 (2학년 전공 선택 과목, 수강생 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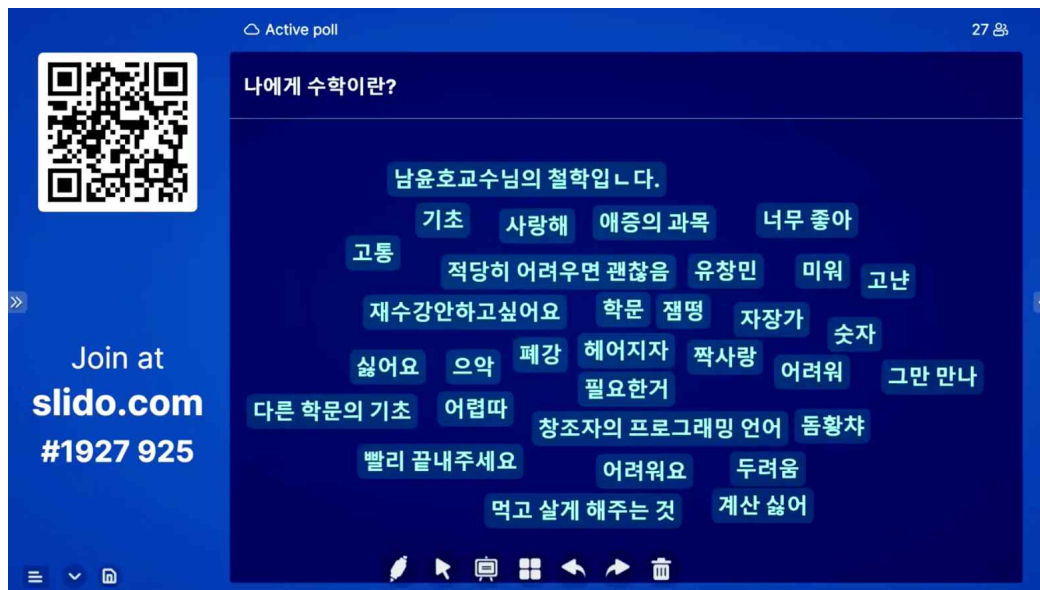
B. 대면으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탐구

- 세 개의 전공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전체 수강생 135명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 진행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함께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문을 진행함
- 설문에 응답한 학생 107명 중 85%에 해당하는 91명의 학생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지만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답변함
-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한 설문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 중 72.5%에 해당하는 66명의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공포감을 느꼈었다고 답변을 함. 그 구체적인사유와 관련하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 질문자가 주목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본인만 이해하지 못 한 것 같은 생각’, ‘질문이 수업을 방해할 것 같은 생각’, ‘다른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 등으로 조사되었음
- 위의 설문과 함께 실시간 익명 메시지를 수업 시간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전원이 실시간 익명 메시지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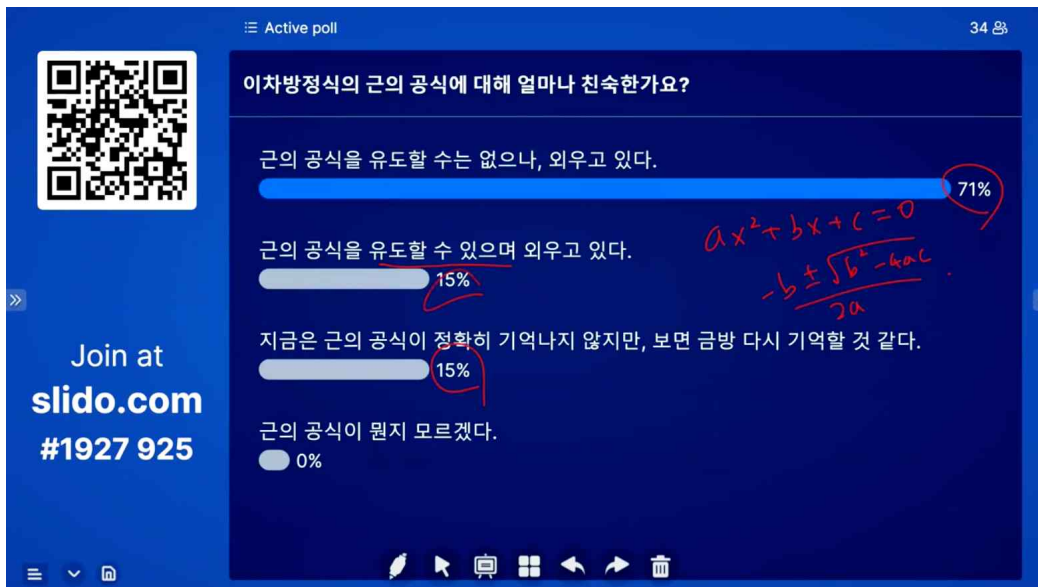
C. 전공 수업에 활용 가능한 실시간 익명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선정

-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선정함
 - 1) 실시간, 익명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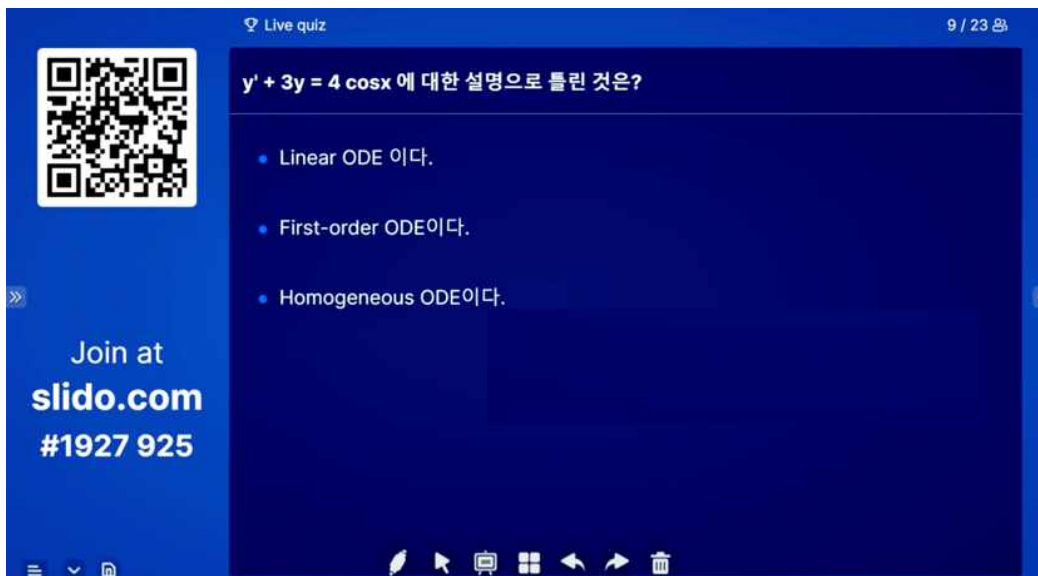
- 2) 무료로 사용 가능
- 3) 강의 노트 제작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와 연동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slido(<https://www.slido.com/>)'를 선정함
- Slido는 파워포인트와 연동이 가능하며 실시간 설문 기능을 통한 수업 피드백 및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퀴즈 기능이 제공됨
- 학생들은 (그림 2)에 보인 것처럼 강의자가 제시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나 PC에 Slido를 설치한 후 접속 코드를 입력하면 익명으로 설문이나 퀴즈에 답변 가능함



[그림 2] 실시간 익명 메신저 slido를 이용한 실시간 설문 사용 예. 좌측 상단에 보인 QR 코드나 좌측 하단의 접속 코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답변 가능하다



[그림 3] 실시간 익명 메신저 slido를 이용한 실시간 설문 사용 예. 수업 내용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행 지식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는 소통이 가능함



[그림 4] 실시간 익명 메신저 slido를 이용한 실시간 퀴즈 사용 예. 수업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수업 내용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실시간 퀴즈 기능을 사용

D. 선정된 익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수업 진행

- 실시간 익명 메신저 (Slido)의 전공 수업 활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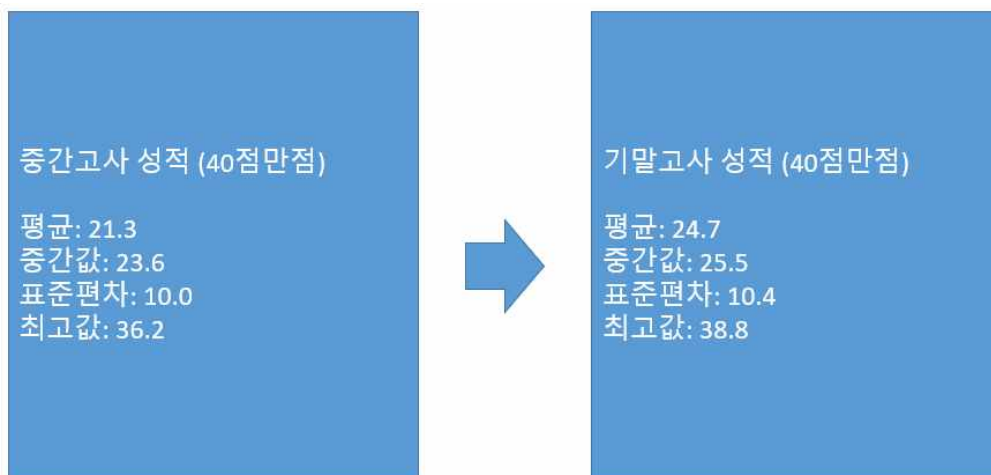
방법으로 전공수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분석함

- 1) 중간 고사 이전에는 비대면 익명 메신저를 활용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함
- 2) 중간고사 이후에는 선정된 비대면 익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함
- 3) 결과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Slido의 기능 중 (그림 2)와 (그림 3)에 보인 실시간 설문 기능과 (그림 4)에 보인 실시간 퀴즈 기능만 사용하기로 정함
- 4) 비대면 익명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외에는 수업의 다른 조건은 가급적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함
- 5)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의 비교를 통해서 실시간 익명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효용성을 확인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A. 연구 결과

-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 실시간 익명 메신저를 수업에 활용한 후 실시한 기말고사와 활용하기 전에 실시한 중간고사의 성적을 비교함 (단, 중간 혹은 기말고사 중 한 개 이상의 시험에 미응시한 학생들과 백지 상태로 답안을 제출한 학생 5명은 결과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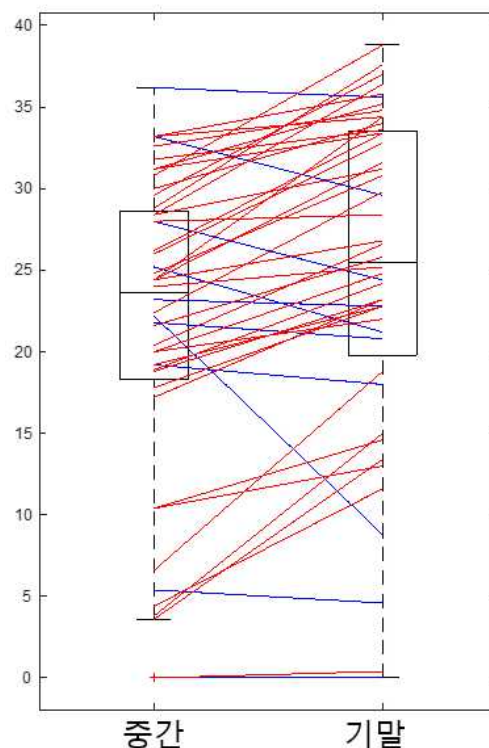


[그림 5] 실시간 익명 메신저 slido를 이용한 결과. Slido를 사용한 기말고사가 사용하지 않은 중간 고사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성적이 향상됨

- (그림 5)는 전체 학생들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 비교 분석 결과임. 전체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중간고사 성적 대비 기말고사 성적이 21.3점에서 24.7점으로

3.4점 (8.5%) 상승하였고 중간값과 최고값 역시 각각 1.9점, 2.6점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공계 전공 수업의 특성상 중간고사 범위가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을 기말고사 범위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성적 상승을 보여주는 결과임
- 개별 학생들의 성적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2학년 전공 수업인 공업 수학을 수강한 48명의 학생들의 성적 변화 추이 결과를 (그림 6)에 도시함
- 붉은 선이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성적이 상승한 학생들을 파란 선이 성적이 하락한 학생들의 추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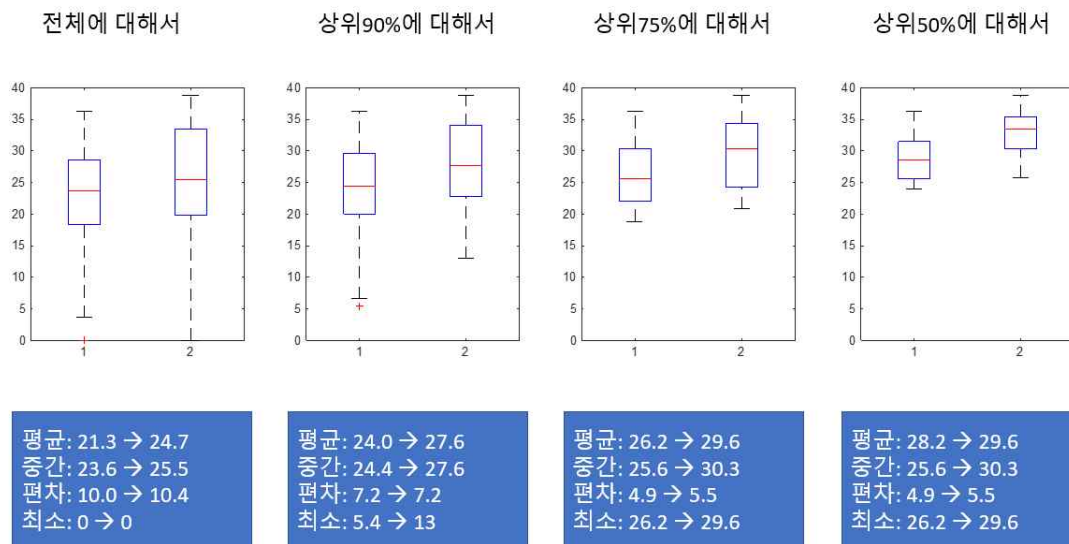


[그림 6] 실시간 익명 메신저 slido를 이용한 결과. 붉은 선은 중간고사와 비교하여 기말고사 성적이 오른 학생들의 성적 변화 추이를, 파란 선은 중간고사와 비교하여 기말고사 성적이 떨어진 학생의 성적 변화 추이를 나타냄.

- 전체적으로 성적이 상승한 학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중간고사 성적이 낮았던 하위권 학생들의 기말고사 성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실시간 익명 메신저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며 특히 하위권 학생들이 기초실력 향상에 유의미한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그림 7)은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의 실시간 익명 메신저의 수업 활용에 대한 효과의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상위 90%, 75%, 50%로 점수 구간을 세분화하여 성적 변화를 비교한 결과임
- 상위 50% 학생들의 경우 기말고사 평균 점수가 중간고사 대비 1.4점 상승한데 비해 상위 75% 학생들의 경우 3.4점, 상위 90% 학생들의 경우 3.6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실시간 익명 메신저의 수업 활용이 기초 학습 능력의 향상이 더욱 요구되는 중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역량 증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림 7] 실시간 익명 메신저 slido를 이용한 결과 분석.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 상승 결과의 분석을 위해서 점수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결과를 분석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 금번 교수법 연구모임을 통해 진행한 실시간 익명 메신저의 전공 수업 활용 효과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통에 익숙해진 코로나 세대들의 전공 학습 능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함

- 본 연구를 통해 실시간 익명 메신저를 사용한 후 실시한 기말고사 성적이 사용 전인 중간고사에 비해 평균 점수 기준으로 약 9%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상위권 학생들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얻음
- 이상에서 보여준 실시간 익명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연구 결과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함
- 다만 결론 분석에 있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학기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친밀도가 높아져 서로 간에 대면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기회가 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추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됨

※ 참고문헌

- 코로나 일상 시대의 대학 비대면 수업을 위한 온라인 수업설계 모형 개발, 2021, 임정훈, 교육정보 미디어 연구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교수 및 학습자 상호작용,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참여도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21, 권선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만족도 연구: A 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강좌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2020, 유지은, 기독교교육정보
- 비대면 수업의 강점과 한계 분석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효과적 수업 운영방안 탐색: 수도권 A 연구중심 대학 교육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2022, 이연우, 한국교육학연구
- 비대면 수업에서 교수와 학생의 대학 수업평가 인식 비교 연구, 2022, 이영주, 대학교수-학습 연구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서 몰입과 학습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22, 김나랑, 한국산업정보학회 논문지
-

「 모듈형 · 호환형 교육 사례 연구

: Chinese Literary Gems 교과와 중화권전략세부모듈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 교과를 중심으로 「

오소정 교원, LU CHEN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2021학년도 융합인재학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한 한국외대의 모듈형 창의융합 교육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 모델이다. 교육 이념에 부합한 교과를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어통번역세부모듈의 Reciting Chinese Literary Gems 교과와 중화권전략세부모듈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 교과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구상했다. 모듈형 교육은 학생의 능력과 수요에 맞게 선택과 결합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적인 호환형 교과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하는 바다.

중국어통번역세부모듈의 Reciting Chinese Literary Gems은 중국어 학습 기간이 1년 이상인 초 · 중급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한 교과다. 중국어 명문을 정독하고 외우며 자연스럽게 중국어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어 학습에 초점을 맞춘 면에서 중국어를 폭넓게 익히고자 하는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이해는 언어적 층위를 넘어서 명문이 기록되는 역사적 · 사회적 배경 학습은 당연한 층위이다. 나아가 중화권 전략 수립에 긴밀히 작용할 수 있는 문화적 · 철학적 이해를 고취하기 위한 텍스트 학습뿐만 아니라 콘텍스트 학습이 필요하다.

중화권전략세부모듈의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 교과는 인물을 중심으로 중요한 역사 사건과 사회사상 위주로 구성된다. 예컨대 공자에 관한 차시는 춘추전국 시대의 배경과 공자의 일생, 공자의 주요 사상 및 후대의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수강생 가운데 중국어 학습자와 비학습자가 혼재된 관계로 <논어>와 같은 중요한 텍스트나 중국어로 서술된 자료에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중화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어 사용자가 자주 인용하는 경구와 명언의 중국어 표현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는 중국에 대해 알고 싶지만 중국어를 못하는 학습자의 목표는 충족될 수 있으나, 중국어 병행 학습자에게는 언어 학습 비중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 연구 모임은 두 교과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중국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

해에 중심을 둔 학생과 중국어 학습과 연계한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자율적 선택을 제시할 수 있는 교과군을 개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모듈형 · 호환형 교육 사례 연구: 중국어통번역세부모듈 Reciting Chinese Literary Gems와 중화권전략세부모듈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를 중심으로

- 소주제 1. 모듈 · 호환형 교과목의 필요충분조건 검토
- 소주제 2. 각 단위 강의의 모듈화(중국 명문 및 중국 인물 학습내용 선정)
- 소주제 3. 교과 간 호환성 확보 및 교육 모형 제시

목적: 학습자 중심 모듈 · 호환형 강의 그룹의 구성

3. 연구 진행 내용

3.1. 모듈 · 호환형 교과목의 정의

‘모듈형(modular)’의 사전적 의미는 “Designating or relating to an educational course composed of a number of independent units of study, which can be combined in a variety of ways.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 다수의 독립적인 학습 단위로 구성된 교육 과정을 나타내거나 이와 관련된 것.)”로 정의되어 있다.¹⁾

한편 ‘호환형’ 또는 ‘호환성 (있는)’은 ‘interoperable’ 또는 ‘compatible’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두 단어는 사전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나, 우리 연구 모임 주제와 연관된 정의를 찾아본다면 ‘interoperable’의 ‘able to operate in conjunction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것)’과 ‘compatible’의 ‘Mutually tolerant; capable of being admitted together, or of existing together in the same subject; accordant, consistent, congruous, agreeable. (상호 관용적; 함께 인정될 수 있거나 동일한 주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일치, 일관성, 일치, 동의)’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²⁾

‘모듈형’과 ‘호환형’의 사전적 정의를 우리 연구모임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정의해 보

1)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 해당 항목 참조. (검색일 2022.01.09.)

2)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 해당 항목 참조. (검색일 2022.01.09.)

면 다음과 같다.

‘모듈 · 호환형 교과’란 첫째,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 둘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를 학습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셋째, 둘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강의 그룹’이라고 구상하고 기획했음을 알린다.

여기서 ‘호환성’은 이미 ‘모듈 교육’의 정의에 내제된 요소이다. 한국기업교육학회에서 편찬한 『HRD용어사전』(2010)에 따르면 ‘모듈’은 “개별화 수업에서 사용되는 수업자료의 한 유형”인 동시에 “하나의 통합된 주제를 가진 자력 학습용 수업 단위”, 그리고 “학습자에게 목표로 제시한 특정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체 교육과정의 한 구성요소의 역할을 하는 단위”를 가리킨다.³⁾ ‘모듈’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는 교과 간의 호환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임대근의 「모듈형 창의융합교육 설계 연구 —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을 사례로」에 따르면, 모듈 교육은 “체계성, 완결성(독립성), 정량성, 표준성, 공유성(호환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유성(호환성)’은 “각각의 모듈이 서로 호환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모듈형 교육에 관한 연구는 갈수록 다양화해지고 있다. 비교적 초기 연구로서 언어(외국어) 교육에 접목한 사례인 심혜령·이선중의 「한국어교육에서의 모듈식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모듈화를 중심으로」,⁵⁾ 박준범의 「학습자 중심 모듈형 의사소통 교육의 수업 모형과 실제」,⁶⁾ 박준범의 「학습자 중심 모듈형 의사소통교육 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⁷⁾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언어 교육에서 모듈형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모델 제시와 함께 그 실천 결과 또한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들은 우리 연구모임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참고대상이 되겠지만, 단일 교과목에만 주목하고 있는 점에서 모듈 교육의 ‘호환성’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음은 알 수 있고 그 차이는 분명하다.

이에 우리 연구모임은 기존 모듈형 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앞으로 외국어 교육에 도입 가능한 새로운 교육 모델의 초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모듈형’과 ‘호환형’의 사전적 정의를 우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립해 본다. ‘모듈 · 호환형’은 첫째,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며(모듈형) 내용적으로 상호보완이 가능하고, 둘째, 모든 모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를 학습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셋째, 둘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

3) 한국기업교육학회(2010), 『HRD용어사전』, 서울: 중앙경제.

4) 임대근(2021), 「모듈형 창의융합교육 설계 연구 —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을 사례로」, 『중국어교육과 연구』 제35호, 8쪽.

5) 심혜령·이선중(2017), 「한국어교육에서의 모듈식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모듈화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69호.

6) 박준범(2017), 「학습자중심 모듈형 의사소통교육의 수업 모형과 실제」, 『리터러시연구』 제22호.

7) 박준범(2020), 「학습자중심 모듈형 의사소통교육 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리터러시연구』 제35호.

는 교과 유형이다.

3.2. 단위 강의의 모듈화

앞의 정의에 부합한 모듈·호환형 강의 그룹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모임 구성원들은 우선 ①각 강의 주제와 강의 자료 수집·정리, ② 공통 검토를 통해 명문 및 인물 간 교차점 결정, ③ 각 강의 주제 및 자료 재검토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래 교차점 13개를 선정하였다.[표1] 주제 13개를 선정한 것은 매 학기 15주 수업 중 1주차의 강의 안내와, 8주차의 중간 시험, 15주차의 기말 시험을 제외한 12주 그리고 예비용 주제 1개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표1] 공동 강의 주제

순번	분야	Reciting Chinese Literary Gems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
1	역사	“开天辟地的神话” (『중국 역사 상식』 p8-9)	중국인의 조상은 누구인가 : 중국 신화 속의 인물들
2		“华夏之祖” (『중국 역사 상식』 p10-11)	중국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덕목은 무엇인가 : 역사 속의 성군과 폭군
3	문학	이태백의 <정야사(靜夜思)> 두보의 <춘망(春望)> 소식의 <수조가두(水调歌头)> (노래)	말과 노래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사람들 : 이백, 두보, 소식, 이청조
4		“回忆鲁迅先生(节选)” (『人教版初中语文七年级下册』 P22-23)	중국 현대문학의 대표인물: 루쉰과 장아이링
5	철학	“제자백가(诸子百家)” (『중국 역사 상식』 p28-29) <논어(论语)>, <장자(庄子)> 발췌문 (中国哲学书电子化计划 https://ctext.org)	중국 철학의 뿌리 : 제자백가와 중국철학
6		“大教育家孔子” (『중국 역사 상식』 p26-27) "가오카오와 명문 대학"	우리의 일상에 남아 있는 유가의 흔적 : 공자와

		(『중국 읽기』 제6과)	유가사상
7	사회	“女皇帝武则天” (『중국 역사 상식』 p96-97) “결혼은 늦게, 아이는 하나만!” (『중국 읽기』 제7과)	중국의 history에 HERstory가 있는가 - 역사에 남은 여인들
8		“载人航天飞行的巨大成就” (『중국 역사 상식』 p240-241) “우주 강국과 환경 낙후국” (『중국 읽기』 제12과)	중국 과학사의 대표 인물: 4대 발명품과 21세기의 우주굴기
9	경제	“경제대국의 꿈 현실로” (『중국 읽기』 제11과)	중국 경제를 이끈 '창의융합' 기업인: 장용, 위민홍
10		“신용소비” (『신문화 중국어』 제11과)	중국인의 일상생활을 탈바꿈시킨 IT 기업인 : 마윈, 마화팅
11	정치	“孙中山与辛亥革命” (『중국 역사 상식』 p184-186) “중국의 큰 별 공산당” (『중국 읽기』 제11과)	'중국'의 두 아버지: 쑨원과 마오쩌둥
12		“邓小平与改革开放” (『중국 역사 상식』 p234-235)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
13	대중문화	“한류와 대중문화” (『중국 읽기』 제8과)	중화권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린 예술인들 : 성룡, 덩리진, 장이머우, 아아웨이웨이

● Reciting Chinese Literary Gems 수업 자료

○ 주요 자료:

- 김선아, 이주희, 『중국 읽기(시사 따라잡는 독해)』, 동양북스, 2015.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编辑部, 『中國歷史常識(中韓對照)』,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9.

○ 활용 자료:

- 김효민, 고점복, 『(최신 트렌드로 배우는)신문화 중국어』, 다락원, 2008.

기타 멀티미디어 자료

●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 수업 자료

○주요 자료:

- 소준섭, 『중국사 인물 열전』, 현대지성, 2018.
- 임대근, <쾌인쾌사: 중국인물열전>, 한국외대HK세미오시스연구센터 (오디오클립)

○ 활용 자료:

- 임대근, 『착한 중국, 나쁜 차이나』, 파람북, 2022.
- 류소천, 『중국문인열전』, 박성희 옮김, 북스넛, 2011. (원제: 品中國文人)
- 왕변강, 『여인들의 중국사』, 구서인 옮김, 김영사, 2008.
- 세계사상사연구회, 『간단명쾌한 동양사상』, 이소담 옮김, 시그마북스, 2010.
- 양승권, 『하룻밤에 읽는 동양철학』, 페이퍼로드, 2022.

기타 멀티미디어 자료

3.3. 모듈 · 호환형 교수법의 적용

주차별 학습 주제 선정 및 관련 강의 자료 수집 시 아래 원칙을 따른다.

첫째, 주제의 다양성을 위해, 문학, 철학,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대중문화 분야의 텍스트를 두루 포함하되, 주제별 주제를 독립적으로 설정한다. 예컨대, 두 교과과 대주제는 각각 ‘중국 명문’과 ‘중국 인물’이고 중주제가 7개이지만, 한 주의 강의는 각각 소주제로 구성된다. 학습자가 선풍 특정 주차에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차를 학습하는 데 무리가 없다. 교과과의 선형성이 사라지면 학습자가 관심을 갖는 독립 주제가 생기게 되며, 이를 통해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교수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Reciting Chinese Literary Gems의 담당 교수자는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한국인이고,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의 담당 교수자는 한국과 중국문화학을 전공한 중국인이다. 교수자의 역량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의 역할도 가능하다. 예컨대, 정기적 회의와 교차검토를 통해 한국인 교수자는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 및 한국어 표현을 검토할 수 있다. 중국인 교수자는 중국어의 정확성과 자료의 시의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교수자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강의 그룹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두 교수자의 교육 전문성 역시 고취할 수 있다.

셋째, 강의 자료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출판 도서 교재뿐만 아니라 웹 상 시의성 짙은 자료 및 다양한 플랫폼의 시청각 자료 등을 제공하여 강의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접촉을 긴밀하게 확장시킨다.

넷째, 학습자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학습자를 다양한 그룹으로 조직하고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소주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발표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강의 주제 중 관심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확장하여 자신만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특히 두 강의 모두 수강하는 학생은 독립된 교과만을 수강할 때보다 해당 주제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면모를 보이며 학습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를 할 수 있다.

다섯째, 강의 내용을 모듈화한다. 예컨대, ‘경제’라는 중주제의 첫 번째 소주제 강의는 아래 [표2], [표3]와 같이 모듈화할 수 있다.

[표2] Reciting Chinese Literary Gems 강의 내용의 모듈화

구분	모듈1	모듈2	모듈3
내용	본문 정독	어휘 및 어법	시청각 자료
예시	“신용소비” (『신문화 중국어』 제11과)	[어휘] 超前消费, 贷款, 分期付款, 白领阶层 등 [어법] 在……的前提下, 相比 之下……, 再……也… … 등	“马云: 全球化, 数字化的挑战与未来” (중국어 음성 + 중영 자막) https://youtu.be/pwfmf7-jDk8 알리바바 마윈,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든다” (중국어 음성 + 한국어 자막) https://www.youtube.com/watch?v=8silpYmCyZM

[표3]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 강의 내용의 모듈화

구분	모듈1	모듈2	모듈3
내용	스토리텔링	사회문화적 요소 추출	시청각 자료
예시	“중국 e커머스의	중국인 소비관의 변화	“Jack Ma Success Story

	시작, '알리바바'와 마윈(馬雲)"	알리바바의 기업문화	- Failure To Succes" (영어 음성, 자막 없음) https://youtu.be/hGhhmuws3_M "15 Things You Didn't Know About Jack Ma" (영어 음성, 자막 없음) https://youtu.be/LzvBU6FTGfY
--	------------------------	------------	--

Reading China through Historic Figures의 경우 모듈1 '스토리텔링' 부분은 인물의 생애사 위주로 구성한다. 예컨대, 기업가 마윈의 생애사를 [그림1]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다. 알리바바라는 기업과 중국인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림2]처럼 제시한다.

수포자, 3수생, 스타강사, 기업가



- 1964년, **칭징잉** 장아우 중학
- 수포자, 3수생, 자칭대 앞문과 출결
- 1988년 전당대 영어 강사
- 1989년 **칭징잉** 번역회사(杭州海得爾山翻譯公司) 설립
- 1995년 중국 최초의 인터넷 기업 차위우 **웹보우웨이** (杭州遠東網絡公司) 창업, 사기꾼으로 오인
- 1998년, **헝거무** **웹보우웨이** 합작
- 1999년, 중국 재위경제대학에 인턴생 업무 담당

그림 1 마윈의 생애사



그림 2 알리바바 산하의 회사들

모듈2 ‘사회문화적 요소’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한국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설명한다. 예컨대, 텐센트를 창립한 마화팅을 다루는 부분에서, PC와 모바일 메신저 비교([그림3]), 텐센트가 한국에 미친 영향([그림4]) 등을 제시하고, 학생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림 3 텐센트와 카카오



그림 4 텐센트의 한국 IT 지분 보유 현황

이는 곧 중국의 대중문화콘텐츠 소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소비는 중국내 콘텐츠도 큰 부분 차지하지만 한국의 문화콘텐츠도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이다. 중국 기업에서 자국 콘텐츠 이외의 해외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의 단순 소비뿐만 아니라 제작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흐름까지 읽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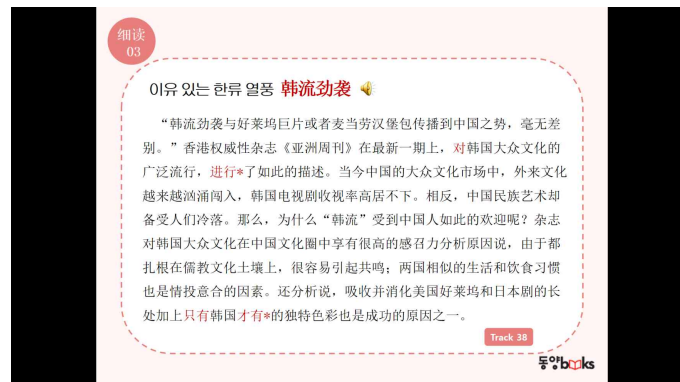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의 한류 열풍에 대한 문장 읽기

해외에서의 단순 소비로 읽어냈던 한류 열풍을 중국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중화권 전략에서의 관점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접근법도 제시될 수 있다. 학습자의 다양한 해석은 양쪽 모듈 교과와 호환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교과 내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모임의 결과

연구모임과 실제 교과 구성을 통해 모듈 · 호환형 교수법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2021년도 임대근과 오소정에 의해 수행한 연구모임 “모듈형 교육 연구모임”을 계승 및 발전하였다.

둘째, 산재되어 있던 중국 명문과 중국 인물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였다. 중국어 학습 텍스트와 중국 문학 · 역사 · 철학 · 사회 · 문화 · 정치 · 경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업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기존의 언어 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한계를 보완하였다. 상호 보완적인 호환형 수업 그룹을 개발함으로써,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수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교과를 설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모듈형 교육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것은 융합인재대학의 교육이념을 실천에 옮기는 데에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

4.2. 활용방안

본 연구모임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모듈 · 호환형 교수법을 구성하며 연구대상인 교과목들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어

통번역세부모듈과 중화권전략세부모듈, 더 나아가 다른 세부모듈의 교과 과정에도 접목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문화갈등으로 인한 대중적 피로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에 의해 디자인된 편협한 시각을 중재했다. 분쟁과 협력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어 온 역사의 궤적을 함께 살펴보고, 한중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인식하는 안목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두 나라가 공유하는 문화와 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차이와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사고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한 형태의 모듈형 창의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유의미한 시도를 진행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 참고문헌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

한국기업교육학회(2010), 『HRD용어사전』, 서울: 중앙경제.

임대근(2021), 「모듈형 창의융합교육 설계 연구 —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을 사례로」, 『중국어교육과연구』 제35호.

심혜령·이선중(2017), 「한국어교육에서의 모듈식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모듈화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69호.

박준범(2017), 「학습자중심 모듈형 의사소통교육의 수업 모형과 실제」, 『리터러시연구』 제22호.

박준범(2020), 「학습자중심 모듈형 의사소통교육 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리터러시연구』 제35호.

김선아, 이주희, 『중국 읽기(시사 따라잡는 독해)』, 동양북스, 2015.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编辑部, 『中國歷史常識(中韓對照)』,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9.

김효민, 고점복, 『(최신 트렌드로 배우는)신문화 중국어』, 다락원, 2008.

소준섭, 『중국사 인물 열전』, 현대지성, 2018.

임대근, <괘인괘사: 중국인물열전>, 한국외대HK세미오시스연구센터 (오디오클립)

임대근, 『착한 중국, 나쁜 차이나』, 파람북, 2022.

류소천, 『중국문인열전』, 박성희 옮김, 북스넛, 2011. (원제: 品中國文人)

왕번강, 『여인들의 중국사』, 구서인 옮김, 김영사, 2008.

세계사상사연구회, 『간단명쾌한 동양사상』, 이소담 옮김, 시그마북스, 2010.

양승권, 『하룻밤에 읽는 동양철학』, 페이퍼로드, 2022

「 이탈리아어 연계 학습의 필요성과 효과 」

박진경 교원, 윤혜신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기초 이탈리아어를 시작하여 많은 양의 문법을 배우고도 이를 문장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문법과 읽기의 효과적인 학습방안을 모색하고자 모임을 구성했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이탈리아어 연계 학습의 필요성과 효과

목적: 이탈리아어 읽기는 번역의 기초를 쌓는 영역으로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기초를 다지면서 동시에 실력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과목이다. 그동안에는 문법과 읽기가 각기 다른 영역의 과목으로 학습되었다. 이에 문법과 읽기 수업의 진도와 수준을 연계하여 문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읽기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수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교수들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법과 교재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음 학기 과목 간 연계 학습 교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문법과 읽기 수업의 진도와 수준을 연계하여 문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읽기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수법을 연구했다.

교수자 상호 간에 주차별 진도와 계획을 미리 의논하여 효과적인 학습법과 교재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문법과 읽기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탈리아어 문법의 라틴어계 언어 특성상 우리말과 다른 문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

기에 성. 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기초문법부터 중급문법까지 개념을 체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진도를 나갈수록 학생들 간에 수준 차이가 생겨나고 학습 부진 학생들이 생겨 교재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법과 읽기의 연계 학습을 통해 문법의 기초를 바르게 잡고 그 기초위에 읽기를 더하는 연계학습을 시도해 보았다. 기초 문법을 배우고 이를 문장에 활용하여 이해하는 방법으로 번역의 기초를 다지는 학습 방법을 채택해 보았다.

- 1) 강의 계획서와 교재의 주차별 진도를 맞추어 수업을 진행한다.
- 2) 연구를 위한 계획의 항목과 순서를 정해 이를 바탕으로 연구한다.
- 3) 문법 내용의 이해는 읽기 진도보다 선행되어 진행되도록 한다.

4. 연구 진행 내용

Ⅰ. 근과거와 반과거 시제 활용

1. 근과거(II <i>passato prossimo</i>)-완료시제/복합시제 ‘<i>avere/essere</i> 현재형 + p.p’ : 가까운 과거에 일어나고 과거 시점에 완료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시제
2. 반과거(L’<i>imperfetto</i>)-비완료시제/단순시제 : 과거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위나 과거의 상황 및 상태를 표현하는 완료되지 않은 시제
3. 대과거(II <i>trapassato prossimo</i>) : 완료시제/복합시제 ‘<i>avere/essere</i> 반과거형 + p.p’ 위에 2가지 과거 시제들 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 두 가지 이상의 과거 행위가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행위를 대과거로 표현한다.

· Ho studiato. (I) · Ho mal di stomaco. Forse ho mangiato troppo! (I)	[Passato prossimo] I. 가까운 과거에 완료된 행위
· Mi sono alzato, ho fatto colazione e sono uscito. (II)	[Passato prossimo] II. 과거에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행위들의 나열(병렬식 구조)
· Alle 6 di ieri studiavo. (I) · Ieri sera non stavo tanto bene. (II)	[Imperfetto] I. 과거 불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

· Ieri Maria era bellissima, con quel bel vestito bianco. (II)	행 중인 행위 II. 과거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 또는 외형이나 환경 등의 묘사
· Mentre mangiavo, mia moglie leggeva il giornale. (III) · Ero stanco e avevo fame. (III)	[Imperfetto] III. 과거에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 D'estate mi piaceva leggere libri in giardino. (IV) · Quand'era piccola, di solito non andava a scuola volentieri. (IV)	[Imperfetto] IV. 과거 불특정 기간 동안 습관적,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위
· Mentre studiavo è arrivato il professore. · Mentre dormivo ha suonato il telefono.	[Imperfetto & Passato prossimo] 과거에 어떤 행위가 진행중인 도중에 또 다른 행위가 발생하여 완료된 경우
· Avevo studiato molto per l'esame di oggi, perciò sono riuscito a superarlo.	[Passato prossimo & Trapassato prossimo] 근과거 시제보다 앞선 과거 시제 : 대과거
· Ero molto stanco perché avevo corso troppo.	[Imperfetto & Trapassato prossimo] 반과거 시제보다 앞선 과거 시제 : 대과거

4. 조동사의 근과거와 반과거 해석의 차이

근과거 예문) 과거의 확실한 사실

Sono uscito presto perché *ho dovuto incontrare* un amico.

(-> 친구를 만났다.)

Dopo una settimana di duro lavoro *abbiamo potuto* finalmente *fare* una gita.

(-> 여행을 갔다.)

Per qualche motivo Paolo *non ha voluto invitare* Patrizia.

(-> 파트리치아를 초대하지 않았다.)

반과거 예문) 불확실한 표현이나 불분명한 결과

Sono uscito presto perché *dovevo* incontrare un amico.

(-> 만났어야만 했다.)

Dopo una settimana di duro lavoro *potevamo* finalmente *fare* una gita.

(-> 할 수 있었다.)

Per qualche motivo Paolo *non voleva invitare* Patrizia.

(-> 파트리치아를 초대하고 싶지 않았다.)

II. 관계대명사의 용법과 해석

관계대명사란 두 문장에 공통된 요소가 존재할 경우 이를 통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는 문법적 요소이다. 이때 공통된 요소를 선행사라 칭하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바로 뒤에 접하여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구문을 이끌게 된다. 이탈리아어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용법은 다음과 같다. 해석에 있어서 품사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오역이 발생할 수 있다.

1. *che*

· 주격 관계대명사

예문) Il professore **che** insegna lo spagnolo è molto gentil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예문)

E infatti la moda è un modo di fare, di pensare e soprattutto un modo di vestire **che** a poco a poco diventa un'abitudine diffusa e seguita da tutti.

-> 실제로 패션은 행동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과 무엇보다도 점점 습관이 되어 퍼져 가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는 옷을 입는 방식을 말한다.

2. *quale*

2.1. '정관사 + *quale*' (=che) : 정관사를 통해 선행사의 성.수를 정확히 나타내준다.

예문) · Il professore **il quale** (=che) insegna lo spagnolo è molto gentile.

· La ragazza **la quale** (=che) ho incontrato ieri è simpatica.

2.2. '전치사 + 정관사 + *quale*' :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또는 표현)와 선행사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전치사를 표시해 주는 도구이다.

예문) · Il ragazzo **con il quale** ho parlato di politica è il fidanzato di Paola.

(→ *Ho parlato* di politica **con** un ragazzo. *Il ragazzo* è il fidanzato di Paola.)

- La ragazza **alla quale** ho telefonato ieri sera è la fidanzata di Paolo.

(→ *Ho telefonato a una ragazza. La ragazza* è la fidanzata di Paolo.)

3. *cui*

3.1. ‘전치사 + *cui*’ (=전치사 + 정관사 + *quale*): 전치사 *a*는 생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cui*가 단독으로 사용된다.

예문) · Il ragazzo **con cui** (=con il quale) ho parlato di politica è il fidanzato di Paola.

예문) La ragazza **(a) cui** (=alla quale) ho telefonato ieri sera è la fidanzata di Paolo.

3.2. ‘정관사 + *cui*’: 어떠한 대상(*qualcosa*)이 선행사 소유임을 표시해 주는 도구로써, 정관사는 대상의 성.수에 일치시킨다.

예문) · Il mio amico, **la cui** madre è molto severa, è un mammone.

(→ *Il mio amico* è un mammone. *La madre del mio amico* (=La sua madre) è molto severa.)

3.3. ‘정관사 + 전치사 + *cui*’: 위에 설명한 *a*와 *b*를 모두 표시해 줌.

예문) · È la ragazza **del cui** valore siamo certi.

(→ È una ragazza. Siamo *certi del valore della ragazza* (=Siamo certi del suo *valore*)).

4. *chi*

4.1.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로 ‘~하는 사람’의 의미를 갖는다. 선행사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예문) · Non mi piace **chi** mangia troppo. (=Non mi piace *la persona che* mangia troppo)

5. *dove*

5.1. 장소를 선행사로 갖는 관계 대명사. 'in cui'와 달리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에서도 '~한 곳'의 의미로 사용된다.

- 예문) · La città **dove** (=in cui) sono nata è molto bella.
 (→ La città è molto bella. **In** quella città sono nata.)
 · Sono cresciuto **dove** (=in cui) ero nato.
 (Sono cresciuto in un posto e in quel posto ero nato.)

III. 접속법의 번역

1. 접속법 시제와 형태

접속법은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및 판단, 바람과 희망, 의심과 같은 주관적 의미의 동사 및 표현이 이끄는 종속절에 위치한다. 접속법의 시제와 형태, 그리고 용법은 다음과 같다.

1.1. 접속법 현재

- 규칙 변형 동사

AMARE	SCRIVERE	DORMIRE	FINIRE
che io ami	scriva	dorma	finisca
che tu ami	scriva	dorma	finisca
che lui/lei ami	scriva	dorma	finisca
che noi amiamo	scriviamo	dormiamo	finiamo
che voi amiate	scrivate	dormiate	finiate
che loro amino	scrivano	dormano	finiscano

1.2. 접속법 과거: 접속법 현재 essere/avere + p.p.

STUDIARE	CREDERE	PARTIRE
che io abbia studiato	abbia creduto	sia partito/a
che tu abbia studiato	abbia creduto	sia partito/a
che lui/ lei abbia studiato	abbia creduto	sia partito/a
che noi abbiamo studiato	abbiamo creduto	siamo partiti/e
che voi abbiate studiato	abbiate creduto	siate partiti/e
che loro abbiano studiato	abbiano creduto	siate partiti/e

1.3. 접속법 반과거

- 규칙 변형 동사

AMARE	SCRIVERE	DORMIRE	FINIRE
che io amassi	scrivessi	dormissi	finissi
che tu amassi	scrivessi	dormissi	finissi

che lui/lei amasse che noi amassimo che voi amaste che loro amassero	scrivesse scrivessimo scriveste scrivessero	dormisse dormissimo dormiste dormissero	finisse finissimo finiste finissero
---	--	--	--

1.4. 접속법 대과거 : 접속법 반과거의 essere/avere + p.p.

STUDIARE	CREDERE	PARTIRE
che io avessi studiato che tu avessi studiato che lui/ lei avesse studiato che noi avessimo studiato che voi aveste studiato che loro avessero studiato	avessi creduto avessi creduto avesse creduto avessimo creduto aveste creduto avessero creduto	fossi partito/a fossi partito/a fosse partito/a fossimo partiti/e foste partiti/e fossero partiti/e

2. 접속법의 시제 일치

I. 접속법 현재/과거			
Adesso	penso che Paolo (직설법 현재)	andrà a Siena domani. (직설법 미래)	Posteriorità
		vada a Siena domani. (접속법 현재)	
		vada a Siena oggi. (접속법 현재)	Contemporaneità
		sia andato a Siena ieri. (접속법 과거)	Anteriorità
II. 접속법 반과거/대과거			
Ieri (alle 9)	pensavo che Paolo (직설법 과거)	sarebbe andato a Siena alle 10. (조건법 복합시제)	Posteriorità (과거속의 미래)
		andasse a Siena alle 9. (접속법 반과거)	Contemporaneità
		fosse già andato a Siena alle 7. (접속법 대과거)	Anteriorità

3. 용법

3.1. 개인의 감정

예문) · Temo che Mauro arrivi in ritardo.

- Sono contento che il tuo libro abbia successo.
- Avevo paura che il giorno dopo sarebbe piovuto.
- Mi piacerebbe che tu smettessi di lavorare presto domani per andare al ristorante insieme.

3.2. 개인의 생각 및 의견

예문)

- Penso che Marcello Mastroanni sia il miglior attore italiano
- Ho l'impressione che Matteo non conosca molto bene lo spagnolo.
- Credo che ieri tu abbia avuto ragione ad arrabbiarti.

3.3. 바람 및 희망

예문)

- Desidero che tu mi dica la verità!
- Non permetto che qualcuno parli male del mio paese, senza conoscerlo.
- Una settimana fa avrei voluto che il giorno dopo Rita prendesse un appuntamento con li specialista.

3.4. 의심

예문)

- Non sono sicuro che la Nazionale italiana di calcio possa /potrà vincere contro il Brasile.

3.5.1. 비인칭 동사

예문)

- Sembra che ci siano molti nuovi iscritti ai corsi d'italiano.
- Bisogna che l'italia risolva i problemi del Meridione.
- Occorreva che lei spedisce immediatamente i documenti.

3.5.2. 비인칭 표현 (essere + 형용사, 부사, 명사)

예문)

- È probabile che Chiara abbia già letto questo libro.
- È bene che voi vi compartiate in questo modo.

- È ora che loro seguano i miei consigli.

4. 접속법의 특별 용법

4.1 목적 *affinché* / *perché* : ~하기 위해서

예문) L'idraulico ha finito la riparazione velocemente, *affinché* gli inguailini possano nuovamente aprire l'acqua.

4.2. 조건 *purché* / *a patto che* / *a condizione che* : ~라는 조건으로, ~라면

예문) Gli presto i soldi *a patto che* me li renda entro una settimana.

4.3. 양보 *benché* / *sebbene* / *nonostante* / *per quanto* : ~임에도 불구하고

예문) Continua a portare quel vestito *benché* non sia più di moda.

-> 더 이상 유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계속해서 입고 다닌다.

4.4. 그 외 *prima che* / *senza che*

예문) Parlerò con Lucio *prima che* voi usciate.

예문) Faremo tutto in segreto *senza che* loro se ne accorgano.

4.5. *qualunque* / *qualsiasi* / *chiunque* / *dovunque*: 부정 형용사/부정 대명사가 이끄는 절

예문) · *Chiunque* ti conosca, sa che sei un bugiardo.

· In Italia *dovunque* uno vada, occorrono sempre molti soldi.

IV. 수동태의 번역

수동태란 문장의 주어가 동사 행위의 피행위자일 경우를 의미한다. 즉 능동문에서의 '직접목적어'와 '주어'는 수동문에서 각각 '주어'와 '행위보어'로 위치한다. 이때 '행위보어'는 전치사 *da* 를 통해 표현된다.

이탈리아어에서 수동태를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사용 범위 및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essere* + p.p.

1.1. 수동태를 위한 조동사로 *essere*를 취하는 구조로 능동문의 동사는 과거분사 형태로 위치한다. 행위보어가 존재할 경우 전치사 *da*로 표현된다.

essere + *participio passato* del verbo

예문) Il quadro *fu dipinto da* Monet.

1.2. 복합시제를 위한 조동사는 *essere*를 취한다. 이때 과거분사의 형태는 주어의 성과 수에 일치해야 한다.

예문) Maria *è stata scaricata* dal suo ragazzo.

2. *venire* + p.p.

수동태를 위한 조동사로 *venire*를 취하는 구조로 능동문의 동사는 과거분사 형태로 위치한다. 행위보어가 존재할 경우 전치사 *da*로 표현된다. *essere*를 조동사로 취하는 수동태와 의미 차이는 없지만, '*venire* + p.p.'는 단순시제로만 사용된다.

예문) · Oggi l'inglese *viene studiato* nella maggior parte dei paesi.

(= Oggi l'inglese *è studiato* nella maggior parte dei paesi.)

· La grammatica inglese *è stata studiata* molto bene.

(cfr. *La grammatica inglese ~~*è venuta studiata*~~ molto bene.)

3. *andare* + p.p.

수동태를 위한 조동사로 *andare*를 취하는 구조로 능동문의 동사는 과거분사 형태로 위치한다. 아래 두 가지 의미로 한정적으로 활용되는 구조이다.

1.1. '필요' 또는 '의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수동태로 '*dever essere* + p.p.'로 호환

가능하다. 단순시제로만 사용된다.

예문) La tesi *va consegnata* alla segreteria.

(= La tesi *deve essere consegnata* alla segreteria.)

1.2. '상태 변화' 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의 수동태로 활용된다. 단순시제와 복합시제 모두 가능하지만, 행위보어를 취할 수 없다.

예문) · La casa *è andata distrutta* nel terremoto.

· *La casa *è andata distrutta dal terremoto*.

(cfr. La casa *è stata distrutta* dal terremoto.)

4. 수동태 *si* + 능동태 동사

수동태 *si*를 통한 수동문은 일반 주어, 즉 '사람들 *la gente*'을 행위 보어로 갖는 문장에 활용되며, 이 경우 행위 보어('da + 행위보어')는 밖으로 표출될 수 없다.

예문) · Fino a pochi decenni fa in Italia *si parlava* soprattutto *il dialetto*.

예문) · In Italia *si spendono molti soldi* per costruire nuove autostrade.

수동태 *si*와 비인칭 *s*는 그 사용과 용법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수동태 *si* 문장에서의 주어는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비인칭 *s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문) · Fino a pochi decenni fa in Italia *si parlava* soprattutto *il dialetto*.

· In Italia *si spendono molti soldi* per costruire nuove autostrade.

예문) *Si dice* (사람들이 ~라고 말한다. ~라고 알려져 있다.)

che gli spaghetti siano stati inventati *dai* cinesi

(관계사 절 안에서는 da + 행위 보어가 표현되었다.)

e che fu Marco Polo a *farli* conoscere agli italiani.

(fare 동사는 사역동사로 '~하게 하다'로 해석된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 1) 초급 문법에서 중급문법으로의 학습 수준을 극대화.
: 간단한 문장에서 복합 문장으로 번역의 수준을 높여갔다.
- 2) 문법과 읽기 과목의 연계 학습을 통한 문장구조 이해로의 확대.
: 접속법과 수동태 문장의 이해를 도왔다.
- 3) 과목 간 연계 학습법 및 교재 연구.
: 문법을 선행하고 읽기에서 복습하여 반복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4) 학생들의 번역 수준 향상.
동사의 시제가 혼합된 문장을 잘 구별해 번역할 수 있었다.
관계대명사로 이루어진 복합 문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를 번역할 수 있었다.
접속법과 수동태 문장을 익숙하게 구분해 낼 수 있었다.
다양한 단어와 숙어를 익히게 되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번역해 보면서 관용구 학습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문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읽기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5) 개선할 점

문법을 잘 알더라도 관용적 표현이나 우리말의 품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번역문에 비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문법을 잘 알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번역의 문제점이다.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경우 학습 결과가 더 좋았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학생들이 각각의 과목을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에서 배운 것을 읽기에서 확인하고 실전에 적용하여 이해하므로 학습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 참고문헌

- D. Maurizio, T. Pietro, *Grammatica italiana con nozioni di linguistica*, terza edizione, Zanichelli, 2014.
- P. Andrea, L. Marina, B. Andrea, *Grammatica di base dell'italiano*, cdl-edizioni, 2015.
- M. Marco, *Grammatica essenziale della lingua italiana con esercizi*, Guerra Edizioni, 2012.
- T. Marini, *Nuovissimo progetto italiano 1 : Libro dello studente*, Edilingua, Firenze, 2020.
- T. Marin & S. Magnelli, *Nuovo progetto italiano 2 : Libro dello studente*, Edilingua, Firenze, 2006.

「아세안 국가 관련 교과목에서의 사회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법 개발」

박재명 교원, 이채문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아세안 국가(특수외국어인 태국어 및 베트남어) 관련학과 및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지만 언어 교육에 비해 지역학 교육은 상대적으로 수강생들의 니즈(needs)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지역학 과목을 중심으로 해당 강의자들이 사회·문화 콘텐츠를 통한 양질의 지역학 교육 증진을 위한 교수법 개발을 위해 본 모임을 구성함.

첫째, 아세안 국가의 특수외국어 교육 분야는 주요 메이저 언어권의 교과목 보다 강좌 수나 스펙트럼 등, 양과 질적인 면에서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이 제한적임. 이러한 점을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 모임에 투여된 강의자들의 전공에 바탕을 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 콘텐츠를 모색하고 이를 교과목에서 접목 운영하고자 함.

둘째, 특수외국어의 언어적 교육의 질적인 제고와 범위 확장, 학생들의 원어 콘텐츠 이해를 돕고 이것의 활용 능력을 함양시키며 특수외국어학과와 지역학 교육이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우선 이 모임에 참석하고자 한 강의자인 태국어과 이채문 강사는 태국어 전공에 바탕을 두고 사회문화로 학위를 마친 해당 분야의 언어 및 사회문화 전문가임. 또한 베트남어과 박재명 강사는 베트남에서 법률 정치·경제를 전공하여 교육용 사회문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언어교육의 확장성에 접목하고 지역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개발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사회문화는 발전한 곳에서 발전할 곳으로 흐르는 특징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한류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곳으로, 이것이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현지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원어 콘텐츠를 교육하고 이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사회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텍스트를 학습함으로써 화용론적인 어학 능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역학 교육 모델로 구축할 수 있음.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주제: 사회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발표와 토론 중심의 교수법 연구

- 소주제 1. 지역학 과목에서의 접목
- 소주제 2. 사회문화 콘텐츠를 통한 사회 이해와 활용성

목적: 사회문화 콘텐츠를 통한 수업 흥미 유발과 집중력 증진을 위한 교수법 연구.

- 목적 1.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 콘텐츠가 반영된 발표와 토론
- 목적 2. 실제성과 활용성

3. 모임의 운영 내용

● 운영 내용1

(1) 태국어과와 베트남어과는 상대적으로 언어 분야에 비해 지역학은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대체적으로 발표와 토론식 수업도 활성화되지 못함.

(2)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위 국가 관련 교과목 중 지역학 과목에 적극적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 콘텐츠를 통한 발표와 토론식 수업을 만들어 보기로 함.

(3) 예상되는 어려움은 해당 지역 언어와 사회·문화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강의자 및 학습자의 일정 수준 이상과 노력이 필요할 것을 전제로 함.

(4) 강의자 역시 현지 언어를 기반으로 한 지역학의 전공자이며 학기 시작 전 수강 공지를 통해 중급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실력을 갖추어 수강할 것을 권고함.

(5) 학기를 시작하면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나누고 발표자의 경우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표 주제의 적절성을 잘 추구하여야 함. 교과목에 어긋나거나 지엽적 또는 총론적 주제는 지양하여야 하고 발표 주제를 정할 때 공개적으로 강의자와

학생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6) 학생들에게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한 후, 수업 시간에 주제의 적정성을 위해 공개적으로 공유하며 의견을 교류하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강의자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함.

(7) 위 내용을 실행한 후 더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2차 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첫 모임을 마침.

● 운영 내용2

(1) 학생들의 발표할 사회·문화 콘텐츠 주제는 강의자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관지어 선정하고 발표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주제와 이슈에 대해 강의자가 먼저 설명한 후, 발표자(팀)가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게 함.

(2) 발표자(팀)의 발표 내용이 주제와의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는 발표 종료 후, 강의자가 관련 내용의 개념부터 특징, 주요 이슈들을 다시 설명함. 따라서 발표자에게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다시 인지시켜주는 효과를 주고 토론자들은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하여 발표자와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또한 강의자는 토론자의 질문 역시 내용과 무관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하여야 함.

(3) 발표자료 역시 해당 사회·문화 콘텐츠를 이용하되, 발표 출처를 명확히 명시하고 시사점은 발표자가 도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 연구방법을 주지시킴. 또한 발표자가 학부생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주로 비용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이를 통해 학부 수준에 적합한 연구 기본기를 경험하게 하고 이를 요약 및 정리하여 본인의 의견도 표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4) 다음 모임 때까지 현재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함. 특히 사회문화 콘텐츠를 통한 주제선정과 발표 방식, 토론이 원활하고 적절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과 발표 결과물의 시사점 도출 방식과 이것의 활용에 대해서도 구상함.

(5) 이외 예상되는 문제점도 파악하여 해결점 및 대안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함.

● 운영 내용3

(1) 교수자는 각 발표자의 발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왜냐하면 발표 주제에 대한 지역학 사회문화 콘텐츠에 대해 청취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유관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토론이나 청취자들의 질문이 미비할 경우 부족한 점을 찾아 이를 보완할 방안을 찾고, 궁극적으로 토론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선점을 강구 하여야 함.

(2)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자를 정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지만 자칫 타 수강생들의 흥미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발표와 토론 등 참여 수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는 의도가 퇴색될 수 있음. 기타 적절하고 보완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3) 각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 강의자는 약 3~5가지의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난이도를 차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쉬운 질문을 통해 먼저 관련 토론의 집중을 이끌어 낸 후, 점차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유도하며 토론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함.

(4) 사회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지역학 교육이라는 점에서 태국과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반도와 아세안 구역 내로 묶이기는 하나 사실상 온전히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각 교과목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각국의 사정과 언어 및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주제선정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서도 잘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5) 이와 같은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유도하고 제고하는 것임. 발표와 토론을 학점 평가요소에 반영하거나 기타 혜택을 주어 학생들의 참여를 자율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문도 제출하게 하여 본 수업에 대한 참여를 높여야 효과적인 교수법이 완성될 수 있음.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사회문화콘텐츠를 통한 발표 및 토론 수업에서 강의자의 역할

(1) 시작하며

○ 학기를 시작하며 강의계획서에 사회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발표 및 토론식 수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공지함. 이 내용에는 해당 수업방식의 주제와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학기 중에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함.

○ 발표 시간 및 토론 시간을 지정해주어야 학생들이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음. 발표 시간에 따라 발표문이나 토론문 작성 분량이 달라지게 되므로 발표 20분, 토론 10분과 같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또한 이와 더불어 학기 전체 수업 시간 중 발표하는 수업일을 지정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수업 시간 중 발표 및 토론 시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교과목 특성상 이론 학습 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 수업시간을 확보한 후 발표 및 토론 수업을 활용하여야 함. 또한 발표자의 발표 및 강의자의 질문, 타 학생들과의 토론에 있어서의 순서와 방식, 기타 에티켓 등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함. 예를 들어 토론자는 발표자의 주제와 목적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표자는 단답 형식의 응답은 지양하도록 설명함.

○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이 토론자의 질문 내용이 부실하고 방식 또한 성의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토론자를 1명 정도 지정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토론은 그룹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발표 내용을 듣고 수업 인원에게 따라 5명 정도씩 팀을 이뤄 발표 내용에 대한 내용을 분석 후 토론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하면 수업 참가 인원이 모두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것을 강의자가 잘 살피어 성적에 반영할 수 있음.

(2) 진행하며

○ 강의자는 발표 및 토론 진행을 주관하며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만약 이런 경우 주제를 다시 상기하고 해당 아젠다를 다시 설명하여 적절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강의자가 다시 내용을 설명해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임. 다만 강의자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에 관여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발표와 토론에 있어 학생들이 강의자에게 내용 및 이해를 위한 질의를 할 경우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고 해당 내용을 강의자가 정리하여 장황하게 설시하는 경우 이는 자칫 강의식 수업으로 전환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은 지양하되 필요한 경우 발표와 토론이 모두 종료되고 강의자의 수업으로 돌아와서 보충하는 것이 적절함. 가급적 발표 및 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며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 토론식 수업에 있어 강의자의 역할은 중재에 있음에 의견을 모음. 발표자 및 토론자의 적절한 언행과 태도에 대한 자세를 인지시키고 특히 토론을 하며 감정적인 토론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특히 타인에 대한 인신 공격 등은 즉각 제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 인원이 발언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상호 존중하여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만약, 부적절한 발표 및 질문 또는 토론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면 강의자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함. 쿨링(Cooling) 시간을 도입하여 일정 시간 휴식 후 강의자가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 이를 통해 학생들도 어떠한 것이 문제점인지를 인지하고 향후 이러한 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3) 종료하며

○ 발표 및 토론이 종료되면 강의자는 해당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과 공유하여야 함. 특히 사회문화 콘텐츠를 이용하며 다루었던 주제 및 내용과 토론에서 언급된 것들을 구성원이 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때 강의주제와 일치하는지 발표 주제와 토론의 내용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각 개별 학생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고 교과목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할 필요가 있음.

○ 발표자는 토론을 통한 내용을 첨부하여 레포트로 작성하게 하고, 지정 토론자 역시 토론문을 다시 정리하거나 토론 시 이루어졌던 내용을 정리하여 강의자에게 제출하게끔 함. 이러한 점을 학점과 연결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필요함.

○ 위의 내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성적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반드시 사전 공지하여야 함. 그리고 평가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여 성적 평가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 또한 이 경우에도 전체 성적의 5% 이내에서 성적 우대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발표와 토론을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 반드시 평가요소를 정량화하여 강의자의 주관적 평가를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음.

5. 사회문화 콘텐츠 이용의 수업방식 사례

(1) 사회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해당 지역학의 심도 있는 이해

① 베트남어과 과목

#1 . 주제 :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정책(석유 정가제),

발표자 : 베트남어과 4학년 손동혁¹⁾, 22-2학기 베트남 정치경제 과목

* 사회콘텐츠를 주제로 선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베트남 법이해 보고서	김 경	2022.09.29 오후 11:52	20
12	베트남법이해 보고서 주제	정 석	2022.09.27 오후 9:01	18
11	베트남 법 이해 보고서 주제	김 영	2022.09.27 오전 11:03	19
10	베트남 법 이해 주제	미 온	2022.09.27 오전 10:17	29
9	보고서 주제입니다	정 윤	2022.09.27 오전 10:14	20
8	베트남 법이해 보고서 주제 선정	이 희	2022.09.26 오후 11:31	34
7	리포트 주제	손 가	2022.09.26 오후 11:23	27
6	베트남법 과제	전 현	2022.09.26 오후 10:45	33
5	보고서 주제 선정	임 정	2022.09.26 오후 10:27	45
4	베트남 법 과제	김 하	2022.09.26 오후 10:03	32

▶ 학기초 관련 내용 공지 후 사회문화 콘텐츠를 이용하여 주제 선정한 후 강의자와 조을을 거쳐 최종 확정(왼쪽 사진은 '베트남법이해' 과목의 예).

이클래스 열린게시판을 통해 학기초에 학생들에게 주제를 선정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1) 본 학생의 동의를 받아 실명 공개함.

	▶ 준비시간을 약 1개월 반 이상 충분히 제공하여 발표하게 함. :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석유 정가제 도라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발표.
BOG 펀드, Quỹ Bình Ổn Giá 상법에 기반한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4/2009/NĐ-CP Điều 26. Quỹ Bình Ổn giá 1. Thương nhân đầu mối có nghĩa vụ trích lập Quỹ Bình Ổn giá để tham gia bình ổn giá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7 Nghị định này. 2. Quỹ Bình Ổn giá được lập để tài doanh nghiệp, được hạch toán riêng và chỉ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bình ổn giá. 3.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cơ chế hình thành, quản lý và sử dụng Quỹ Bình Ổn giá. https://thuong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84-2009-nd-cp-sinh-dinh-xang-dau-96242.aspx	▶ 원어 내용을 이용하게끔 유도함. 이는 해당 언어를 바탕으로 지역학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베트남 석유 정가제에 관한 제도로 BOG 제도를 원어를 통해 설명함.
국제 유가 인상 시(공급 감소), 보통, 감산을 통해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상승. 상승, 기존 가격이 소매가격(국제 유가를 반영한)보다 떨어지게 되면서 그 손실을 공급업체가 떠안게 됨. 그 차이가 12%를 넘어서면, 가격안정기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금이 바닥날 수도 있음.	▶ 교과목에서 배운 기본 내용을 해당 주제를 설명하는데 접목하게 함. 교과목과 해당 발표내용을 연결하여 교과 학습의 이해를 더욱 활용함. : 수업에서 학습한 경제학적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용하여 석유 정가제를 설명함
Quỹ chỉ ổn khi thị trường ổn • Tân thành đã xuất bản này của Bộ Tài chính, TS Nguyễn Đức Bô, Phó viện trưởng Viện Kinh tế - Tài chính (Học viện Tài chính), nêu quan điểm: Theo kế, quỹ BOG chỉ có tác dụng khi giá xăng dầu lên xuống ở mức độ nhẹ. Khi tăng nhẹ, cơ quan điều hành sử dụng quỹ để hạ giá xuống, hoặc chỉ vừa tăng mức tăng để giá tại kỳ điều hành mới không tăng. Ngược lại, khi giá xăng dầu giảm, lại phải trích quỹ để sử dụng sau này. Vấn đề là cả thế giới không thể mãi được khi nào ổn định, khi nào xuống. Thế nên, có nhiều thời điểm, tuy chúng ta trích quỹ quỹ BOG, giá dầu vẫn giảm mạnh. Quỹ để có lúc tăng đến hàng nghìn tỷ đồng, trích làm ăn, nguồn quỹ này tăng, nhưng chẳng để làm gì. Rồi giá tăng lên tục thì quỹ lại, chỉ mãi tại không còn dầu để trả, ứng nói về chủ trương: "Giá xăng dầu thế giới rất khó đoán, nếu chúng ta cứ duy trì một quỹ BOG xăng dầu thì không có ý nghĩa gì nữa". https://thuong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84-2009-nd-cp-sinh-dinh-xang-dau-96242.aspx	▶ 반드시 발표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킴. 또한 참고문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의견만을 참고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부수준에서 참고문헌 인용 등에 대한 방법을 학습하게 함. : 석유 정가제를 통한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시사점을 도출

#2. 주제 : 베트남 마약 범죄

발표자 : 베트남어과 전제현(2018*****)²⁾, 22-2학기 베트남법의학해 과목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선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베트남 법이해 보고서	김민	2022.09.29 오후 11:52	20
12	베트남법이해 보고서 주제	정석	2022.09.27 오후 9:01	18
11	베트남 법 이해 보고서 주제	김영	2022.09.27 오전 11:03	19
10	베트남 법 이해 주제	미은	2022.09.27 오전 10:17	20
9	보고서 주제입니다	정준	2022.09.27 오전 10:14	20
8	베트남 법이해 보고서 주제 선정	이혁	2022.09.26 오후 11:31	34
7	리포트 주제	은가	2022.09.26 오후 11:23	27
6	베트남법 과제	전현	2022.09.26 오후 10:45	33
5	보고서 주제 선정	영진	2022.09.26 오후 10:27	45
4	베트남 법 과제	김화	2022.09.26 오후 10:03	32

▶ 학기초 관련 내용 공지 후 사회문화 콘텐츠를 이용하여 주제 선정한 후 강의자와 조울을 거쳐 최종 확정(왼쪽 사진은 ‘베트남법이해’ 과목의 예).

이클래스 열리게시판을 통해 학기초에 학생들에게 주제를 선정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 준비시간을 약 1개월 반 이상 충분히 제공하여 발표하게 함.

베트남 마약을 주제로 한 범죄 문화를 콘텐츠로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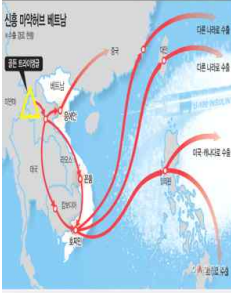
▶ 원어 내용을 이용하게끔 유도함. 이는 해당 언어를 바탕으로 지역학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마약 관련 현황과 처벌 규정 등을 원어로 설명함

▶ 교과목에서 배운 기본 내용을 해당 주제를 설명하는데 접목하게 함. 교과목과 해당 발표내용을 연결하여 교과 학습의 이해를 더욱 활용함.

: 마약을 접하는 문화와 범죄와 경계에 있는

2) 본 학생의 동의를 받아 실명 공개함.

③ 해피벌룬은 마약일까? 합법 or 불법?  · <베트남> 2019년 라노이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 20대 7명이 안산환질소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건 발생 이후 라노이 사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안산환질소 오작, 유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 그러나 유명 관광도시인 호찌민과 다낭은 골지 대성 지역에서 배민, 드림피노아시에서 축화피라토게를 근거가 없어 유통량이 없다는 관측이 많다 · 베트남에서는 안산환질소가 담긴 해피벌룬을 밀다 적발되면 120만동, 200만동 정도의 벌금만 물면, 이용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 <대만민국> 2017년 국내에서의 사망사고 발생 후 안산환질소 화학물질관리법 상 화학물질로 지정 · 안산환질소는 필리핀과는 있지만 의문점은 중국 마약류로 구분되지 않음 · 인도네시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1년 미만의 정액 5000만 동 이하의 통관할 ·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해피벌룬을 파다가 적발되면?? > 불법!! · 수입주위에 따라서 불법이다. 국내의 상점들이 한국인이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 그러나 해피벌룬을 파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짜, 특정, 특정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음	내용을 설명함. 과목에서 배운 법 규정을 이용하여 설명함.
④ 결론 : 세계 최강의 마약범을 가진 베트남, 마약 허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  ·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태국,미얀마,라오스의 국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과 인접함 · 태국 정부는 최근 항구, 국경 지대에 수심여 탐라를 들여 최신 단속, 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 마약 운송 루트가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 과거에는 라오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산간지방에서 마약 유통이 집중 · 그러나 최근 북부 산간성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마약 단속이 벌어져 마약 유통의 중심지가 중,남부로 거점을 옮기고 있음 · 특히 로찌민 시의 경우 편선보, 꼬라이 등 주요 항구가 몰려 있어 마약 유통의 허브가 되어가고 있음 · 위의 주요항구에서는 물론 전수 조사가 아닌 생물학적 검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마약 유통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고 있음 · 텔레그램, 각종 SNS를 통한 손쉬운 온라인 거래가 한 몫하고 있음	▶ 반드시 발표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킴. 참고문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의견만을 참고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부수준에서 참고문헌 인용 등에 대한 방법을 알려 줌. : 마약 유통과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시사점으로 제시함.

- 사회문화 콘텐츠를 이용하여 지역학을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강의자가 먼저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 필요함. 다음으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주제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사례와 특징을 잘 유도하여 모든 학생이 집중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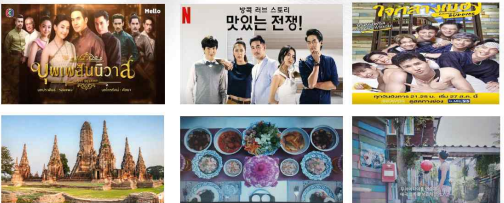
- 외국어 전공학과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다녀오지 않아 경험이 없거나 학부에서 짧은 시간 다녀와 지역 사정에 밝지 않은 특징이 있음. 따라서 해당 지역의 특정 사회문화 콘텐츠 사례를 통한 발표 및 토론 수업은 그 지역 사회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면서 학생들이 향후 경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 더욱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음.

② 태국어과 과목

#1 . 주제 : 태국 드라마에 대한 고찰

발표자 : 태국어과 3학년 박**

* 대중문화콘텐츠 중 드라마를 주제로 선택

우리 발표수업(개인발표)은 10월 31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제당 2명이 맡지만, 인원을 고려할 때 한 두 주제에 대해선 3명이 허용됩니다. 10월 10일(월요일) 21시부터 본 개시일의 댓글로 원하는 발표주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제에 2-3명이 맡지만, 댓글 선택순에서 밀릴 경우에는 원하는 주제 2개를 남겨주세요. 대중문화 관련, 아래 제시된 주제 말고 다른 주제를 하고 싶은 경우에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화요일) 오후 8시까지 남기기) 여러분 댓글 확인을 완료하면 발표자와 토론자를 확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10월 31일-(주제1) 태국 드라마에 대한 고찰과 토론 11월 7일-(주제2) 태국 영화 및 오컬트 장르(동종) 11월 14일-(주제3) 태국 대중가요 및 대중문화로서 한류 11월 21일-(주제4) 태국 광고, SNS, 마케팅 11월 28일-(주제5) 태국 게임, 웹툰에 대한 고찰과 토론 12월 5일-(주제6) 태국 전사문화에 대한 고찰과 토론 <발표용 과제> □ 세부 주제: 대 주제 속 자유 주제 (A4용지 10장(참고문헌 포함) 이내) □ 발표용 과제 제출일: 11월 15일 (밤12시, 16일 자정) -과제는 일괄적으로 같은 날 제출이기 때문에 이전 발표자들도 레포트는 11월 15일에 제출	▶ 학기 초반에 대중문화콘텐츠의 대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발표주제를 확정함(왼쪽 사진은 '태국대중문화콘텐츠' 과목의 이클래스 공지) : 본 이클래스 공지의 댓글과 강의 중 쉬는 시간, 교수자의 이메일로 개인 문의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독려함
1. 태국 방송시장 현황 및 태국 드라마의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의 자원인 태국 드라마 1. 관광명소 2. 태국 음식 3. 전통과 문화(무예타이) <볼리싼니웃>의 배경 <방콕러브스토리-맛있는 전쟁> <방콕 친구들> 	▶ 대중문화콘텐츠 관련 이론을 먼저 소개한 후 태국콘텐츠를 설명함 : 태국의 대중문화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장르 중 하나인 드라마에 대해 소프트파워 이론을 소개하고, 태국 정부에서 소프트파워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발표함
2. 태국 드라마의 특징  1. 활발한 Y 시리즈 1. Y 시리즈란? 2. 쿼터 콘텐츠 VS Y 시리즈 3. Y 시리즈 태국 드라마  2014, <Love Sick> 2020, <보이프렌즈> 시리즈 4. 시사점 a. '그름'의 문제에서 '다름'의 문제로 b. 국가 소프트 파워의 한 축 c. 산업의 확장 가능성 	▶ 학기 초반부 교수자가 대중문화콘텐츠와 태국의 대중문화콘텐츠에 관한 기초적인 강의를 했던 것을 학생이 발표하는데 일부를 발췌하고 활용함 : 태국 대중문화 장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부상 중인 Y 시리즈에 대해 설명함
	▶ 학기 초 교수자가 태국의 대중문화와 기본적인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학생이 활용하여 발표함 : 수업에서 학습한 태국인의 문화코드가 드라마콘텐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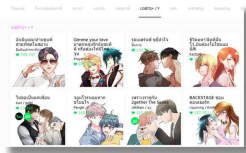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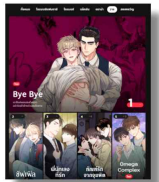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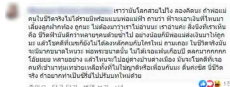
2. 태국 드라마의 특징 3. 태국 종교와 왕실에 관련된 규제 1. 법률 [영화 및 미디어 법] / 방송 및 텔레비전 사업법 공공질서 훼손, 태국 국가 체제의 안전 및 존엄성 훼손, 불교 가치관과 부합, 성적인 내용, 군주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 검열 및 제거하거나 배포를 금지 가능 예시) 왕과 나 <The King and I> 영화 <아반> 	
4. 태국 드라마의 전망과 마무리 1. 소프트 파워 순위를 높일 가능성 내재 SOFT POWER 2. OTT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로 세계의 태국 콘텐츠 접근성 강화 	▶ 발표자가 도출한 시사점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킴. 아울러 참고문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의견일 경우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함 : 태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육성에 부합하기 위한 태국 드라마의 발전 전망 및 한국과의 연계성, OTT 서비스 활성화로 태국 콘텐츠의 접근성이 커진 점 등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함

#2. 주제 : 태국 웹툰에 대한 고찰

발표자 : 태국어과 4학년 황**

*대중문화콘텐츠 중 웹툰을 주제로 선택

우리 발표수업(개인발표)은 10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제당 2명이 맡겠지만, 인원을 고려할 때 한 두 주제에 대해선 3명이 허용됩니다. 10월 10일(월요일) 21시부터 본 게시글의 댓글로 원하는 발표주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제에 2-3명이 맡겠지만, 댓글 선택순에서 밀릴 경우에는 원하는 주제 2개를 남겨주세요. 대중문화 관련, 아래 제시된 주제 말고 다른 주제를 하고 싶은 경우에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화요일) 오후 8시까지 남기기) 여러분 댓글 확인을 완료하면 발표자와 토론자를 확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10월 31일-(주제1) 태국 드라마에 대한 고찰과 토론 11월 7일-(주제2) 태국 영화 및 오컬트 장르(동종) 11월 14일-(주제3) 태국 대중가요 및 대중문화로서 한류 11월 21일-(주제4) 태국 광고, SNS, 마케팅 11월 28일-(주제5) 태국 게임, 웹툰에 대한 고찰과 토론 12월 5일-(주제6) 태국 전시문화에 대한 고찰과 토론 <발표용 과제> □ 세부 주제: 대 주제 속 자유 주제 (A4용지 10장(참고문헌 포함) 이내) □ 발표용 과제 제출일: 11월 15일 (밤12시, 16일 자정) ~과제는 일괄적으로 같은 날 제출하기 때문에 이전 발표자들도 레포트는 11월 15일에 제출	▶ 학기 초반에 대중문화콘텐츠의 대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발표주제를 확정함(왼쪽 사진은 '태국대중문화콘텐츠' 과목의 이클래스 공지) : 본 이클래스 공지의 댓글과 강의 중 쉬는 시간, 교수자의 이메일로 개인 문의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독려함
	▶ 태국의 웹툰 콘텐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태국 내 웹툰 시장의 발전 동향을 파악함.

태국 웹툰에 대한 고찰 2022-2 태국대중문화콘텐츠 2. 태국의 웹툰시장 - 한국 웹툰 진출 이후  2014년 라인 웹툰의 진출 "네이버의 라인웹툰 진출과 함께 시작" (2015) 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63.7%를 기록 웹툰 시장 성장을 영향 (2016) 라인 웹툰의 주당 방문자 수는 300만 명, 2015년 100만명 대비 300%의 성장률을 기록 (2019) 태국 만화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4,500만 달러를 기록, 2024년에는 디지털만화의 비율이 16.5%로 늘어나 10년간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는 웹툰을 파악하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도 마케팅 분야에 특히 관심이 있는 학생 본인의 시각을 해당 주제에 접목하여 단순히 웹툰 콘텐츠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웹툰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표함 : 태국 웹툰 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웹툰의 발생과 발전 과정에 대해 발표함
태국 웹툰에 대한 고찰 2022-2 태국대중문화콘텐츠 태국과 한국의 웹툰 문화 비교 공동점 01  '로판', '회귀할' 장르의 인기 02  적극적인 산초어 사용	▶ 큰 틀에서 한국과 태국의 웹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던 작품을 이용해 한국과 태국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비교함 : 한국과 태국의 웹툰 특징 비교를 발표함
태국 웹툰에 대한 고찰 2022-2 태국대중문화콘텐츠 차이점 1. 태국 내 BL 장르의 인기  	▶ 태국 대중문화콘텐츠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BL 장르(Y 시리즈)가 태국의 웹툰에서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태국의 대중문화의 큰 흐름과 장르별 흐름을 함께 보여줌 : 한국과 다르게 태국 웹툰 콘텐츠에서 주요 장르로 부상한 BL 장르에 대해 설명함
태국 웹툰에 대한 고찰 2022-2 태국대중문화콘텐츠 차이점 2. 같은 사회문제, 다른 반응  홍야로, 입글 달기, 반역 보기, 1년 "이건 만타지라고 생각한다."  홍야로, 입글 달기, 반역 보기, 1년 "세상을 미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 알성은 옳한 게 아니다."	▶ 원어 자료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실제 어떤 반응이 있는지 확인함. 이는 한국외대 특수외국어학과 지역학 과목의 장점이자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음 :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웹툰작품에 대한 여러 시각의 댓글을 소개하여 한국 대중들과 다른 태국 대중들의 목소리를 비교함

--	--

- 대중문화콘텐츠를 이용하여 지역학을 강의하는 경우 대중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미디어이론이나 문화이론 등에 대해 강의 초반부에 교수자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단순히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통해 이 지역의 특수성이 보편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 콘텐츠의 강국인 한국의 콘텐츠가 이 지역에서 어떤 위상을 지니고,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되는지, 앞으로 양국의 교류가 어떤 식으로 발전 가능한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학과와 지역학이 어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업을 갖추지 못한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학은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원본 텍스트를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특징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우리 대학만의 강점을 잘 살려서 강의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함.
- 요약하면, 지역학을 강의할 때 이론과 실제, 언어와 사회문화의 연계를 높이고, 발표와 토론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음.

(2) 비교 토론 수업의 과정

① 베트남어과 과목

- **컨텐츠별 주제 및 특성 확인** : 다양한 주제 접근을 위해 발표 주제별 특색을 반영한 현지 사례의 공통점 또는 한국과의 비교를 하는 방법이 효과적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주입식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흥미를 주기 어려움. 따라서 기본 사항을 설명한 뒤 각 지역에 대한 비교를 수강생들이 직접 도출해 보는 방법을 통해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음.

한국과 베트남의 옥외 광고 비교 (예시: 2020***** 베트남어과 손재아 학생의 발표)	
한국의 옥외 광고	베트남의 옥외 광고

	3. 광고활동 - 옥외광고 
한국과 베트남의 규제 비교	
3. 광고 활동 - 교통수단 광고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 (베트남 광고법 제32조) -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는 이 법 및 교통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교통수단의 전면, 측면 및 상부에 광고 상품을 표시하여서는 안 됨. 광고 상품은 교통수단의 광고가 허가된 각면 면적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교통수단 소유주 또는 제조사의 상징, 로고, 기호 표시는 교통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우리나라와 달리 창문에도 광고 부착 가능	

- **토론 심화 과정:** 토론을 단계별로 심화시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서 던짐. 예를 들면, 이들 지역에 우리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다면 광고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기업의 업종과 지역별 특성을 어떻게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기존에 진출한 동종업계 기업들과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포착해 활용할 수 있는지, 진출 이후에도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여러 각도에서 발전시키는 연습을 함.

- **토론 심화 과정 :** 이때 중요한 점은 각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출된 것인지를 타당성 있게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답변 시 정당성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 나아가 근거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도함. 이러한 과정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먼저 생각해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급적 처음부터 직접 수정해 주거나 답변을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심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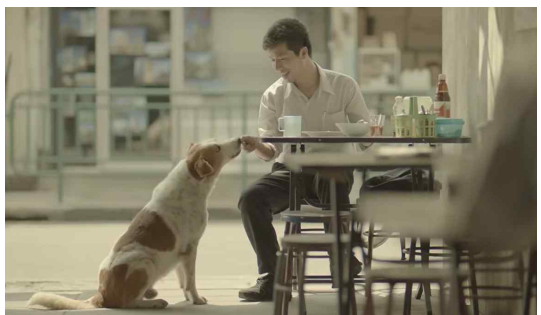
- **결과 :** 이러한 수업을 마친 후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토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주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때 교수자는 학생들이 보고서를 단순히 편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점검하고 중점적인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이 학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교수자가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② 태국어과 과목

- **동일 콘텐츠에 대한 한-태 비교 수업:** 수강생들이 전공 지역을 가장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임.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강의를 한 이후에 해당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동일 주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폭넓게 생각해보도록 지도함.

<광고콘텐츠에 대한 비교 예시>

한국과 태국의 광고 비교	
태국의 코카콜라 광고	한국의 코카콜라 광고
	
태국스러움이 나타난 태국 광고의 예시	
	

- **지역별 특성 확인:** 교수자는 해당 주제에 대해 발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발표하도록 함. 이번 학기 광고콘텐츠 관련 수업에서 발표자들은 태국 광고의 특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태국 광고의 위상과 성공 요인 분석, 태국 광고의 특징과 사례, 태국의 소셜미

디어 온라인 시장 현황과 디지털 마케팅 광고 특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함. 이에 따라 교수자는 학생들이 발표한 논점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보이는지 토론하도록 함.

- **토론 심화 과정:** 위의 단계를 토대로 한 단계 심화시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서 던짐. 위에서 광고 시장과 광고 방법론적인 논점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심화 과정에서는 광고 콘텐츠 자체에 대해 양국의 대중들이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논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함. 예를 들어, 코카콜라라는 다국적 브랜드 상품이 각국에서 어떤 포인트를 부각해서 다르게 광고를 만드는지 광고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함으로써 그 특성을 스스로 파악해 보고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의견도 함께 제시함. 이와 함께 태국 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를 이용한 광고, 태국 광고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거나 인기 있었던 광고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학생들이 놓쳤던 논점에 대해 보강하도록 함.

- **결과 :** 학기 후반부에 교수자는 학생들이 이제까지 학습했던 태국의 대중문화콘텐츠에서 특별히 관심이 생겼거나, 기존에 본인이 발표했던 부분 중 관심이 커진 한 부분을 심화적으로 학습하는 에세이를 부여함. 이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본인의 관심사와 유기적으로 연결하거나 복습 심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학습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함. 수업 초반에 강조했던 이론과 실제, 어학과 사회문화 연계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함.

● 결과 활용방안

-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특성상 많은 지역학 과목이 있지만 어문학에 다소 집중된 교육 커리큘럼 때문에, 지역학 과목에 대한 교수법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또한 교수자의 전공에 따라 같은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수업의 기본내용부터 차이가 날 수 있음.

- 지역학 수업은 학생들 각자의 관심을 전공 국가와 연계하여 더욱 심화시키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각 어학 교과목에 본 방안의 일부를 적용해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교수법모임을 통해 발전 정립한 결과 활용 방안은 다음 학기 지역학 과목, 또는 내년 동일 지역학 과목 교수 시 적용하고, 실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오류에 관해 기록하여 개선점을 찾아가고자 함.

- 만약 위 방안이 실효성이 있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는 다수의 지역학 교과목(서울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포함)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타진이 필요함. 만약 가능하다면 이러한 교육방법에 대한 강의안을 작성하고 해당 방안으로 강의된 동영상 촬영하여 모든 지역학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자에게 공유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사회문화 콘텐츠 뿐만 아니라 더욱 나은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각 어학전공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중전공 학생들도 이러한 교수법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6.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수법은 발표와 토론임. 이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관심분야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학우들과 교수자와의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넓힐 수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수적임.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학 과목이 단순히 학문적인 수확이 아니라 취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학생들의 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업과 진로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산업에 대해서도 적극 소개하고,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배운 것을 어떻게 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 개발한다면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함.

- 토론을 통한 교육방식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강의식 이론수업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임. 즉, 단순히 교육방안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과목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방안을 적용하여 그 성과 여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법언어학 교수 방법론 연구 」

이해윤 교원, 이한나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교과목 “법언어학”은 내용상 언어학과 법학의 융합성격을 갖는다. 인문학적 사고/방법론을 사회과학적 사고/방법론과 결합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융합적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언어학이라는 융합학문에 고유한 교수방법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모임에서는 교과목 “법언어학”에 적합한 융합적 교수방법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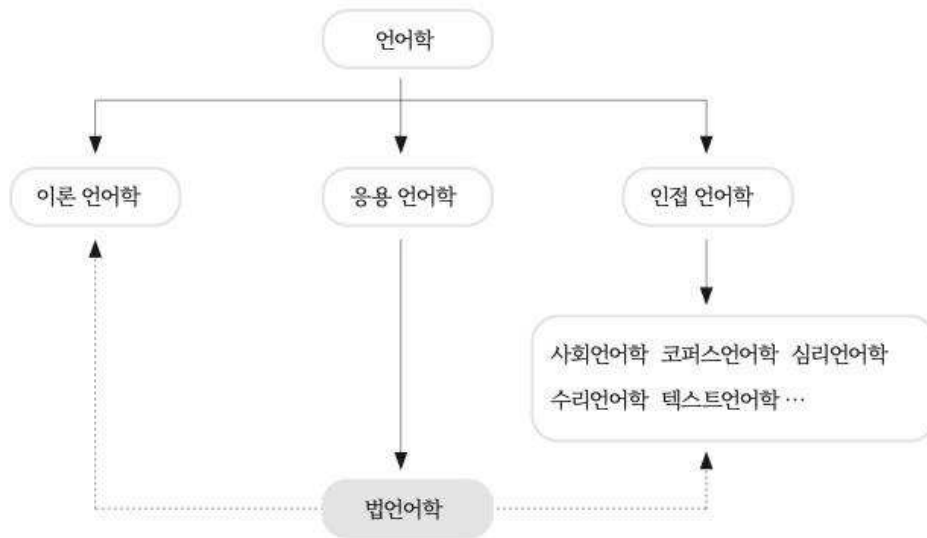
대주제: 본 모임에서는 법언어학이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교과목의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을 목표로 한다.

목적: 융합학문은 일반적으로 인문학과 공학 간의 결합을 의미하지만, 다른 학문들간의 결합도 의미한다. 법언어학과 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에 대해서 우리는 인문학과 공학 간의 융합학문에 대한 교수법을 응용할 수 있지만, 인문사회과학에 고유한 또는 특수한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및 교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모임에서는 이러한 인문사회과학에 특화된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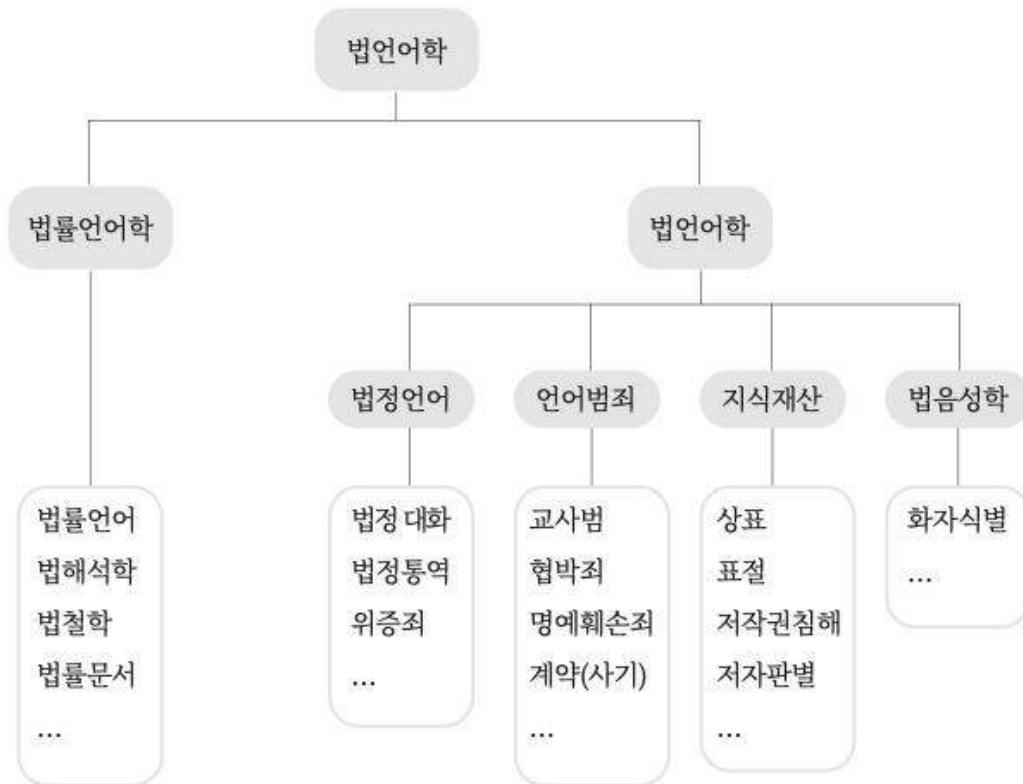
법언어학 분야는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의 하위 분야로서 이론 언어학(theoretical linguistics)과 인접 언어학과 상호작용을 한다(그림 1). 이론언어 학 분야로는 언어학의 핵심분야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과 음성학이 관련한다. 특히 인접 언어학으로서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코퍼스언어학(corpus linguistics),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 수리언어학(mathematical linguistics), 텍스트언어학(text linguistics), 컴퓨터언어학 (computational linguistics) 등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각 인접 언어학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그림 1>

먼저 전통적인 법언어학과 법률언어학과 구분된다(그림 2). 법률언어학은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방법론을 법률 영역에 적용하는 분야로서, 크게는 (i) 법률 전문용어, 법조문 구성 및 생성 등을 다루는 법률 언어(legal language), (ii) 법조문의 해석과 관련하는 법해석학 및 법철학, 그리고 (iii) 법률텍스트 등을 다룬다. 전통적인 법언어학은 법정 언어(courtroom language), 언어범죄(language crime), 지식재산에서의 언어, 법음성학(forensic phonetics) 등을 포괄한다. 법정 언어 분야는 사법 과정에서 관련되는 언어를 다루는 분야로서 법정에서의 신문, 위증, 통역 등이 있다. 언어범죄 분야는 언어가 범죄 형성에 주요 역할을 하는 협박죄, 교사범, 모욕죄 · 명예훼손죄 등 주로 형사소송과 관련된 범죄를 다룬다. 그리고 언어가 관련된 지식재산의 분야로서 상표, 표절과 저작권 침해, 저자 판별 등이 있다.



<그림 2>

본 모임에서는 법언어학의 주제별로 교수 내용, 교수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3.1. 법률언어학 교수 방법 연구

법 영역에서 사용되는 법률 언어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비해 고유한 특징들을 보인다. 언어를 구성하는 층위, 즉 어휘, 형태, 통사, 의미, 텍스트 전반에 걸쳐 법률 언어는 일반 언어에 비해 나름의 특성을 갖는다.

전문어로서 법률 언어가 갖는 한계점들을 피하기 위해, 법률 언어가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서 다음 네 가지가 제시된다.

완벽한 법조문은 위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지만,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법령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문어로서 법률 언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어휘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문장 구조를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일고 있는 법률 분야의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소개한다.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률문서를 비롯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낸 문서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문서 생성 기관이 사용하는 관료적이고 전문적인 언어의 속성으로 인한 것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에서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즉 ‘쉬운 언어 (Plain Language)’로 공공기관의 문서를 작성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연방의 쉬운 언어 지침』과 비슷한 지침이 존재한다. 국립국어원(2014)이 편찬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는 공공 분야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참조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예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언어(public language)’는 “정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의 언어”로 정의된다. 그리고 ‘쉬운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는 소통성으로,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형식에 맞춰 작성하고,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배열해야 한다. 둘째는 정확성으로,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특히 일본의 영향으로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그리고 일본식 표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법조문들을 고치려는 법령정비사업을 오래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국어학이나 언어학계에서도 법률문서들이 갖는 언어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들을 제안해 왔다.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의 용어 문제를 제외하고, 문법적으로 문제된 경우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 격조사의 잘못된 사용
- 부사격 조사의 잘못된 사용
-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
- 주어-술어 또는 목적어-술어 간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수식어-피수식어 관계가 부정확한 경우

이러한 용어 및 비문법적 문장 수정을 위한 법령정비사업이 해방 이후 계속 시행되어 왔

다. 첫 번째 법령정비사업은 해방 이후 1948년부터 5.16 쿠데타 전까지 일어난 ‘구법령 정비사업’이다. 그 이후 1969년에 법령의 한글, 한자 표기 기준을 명시한 법령의 한글화가 추진되었다. 1972년부터는 법령용어정비가 시행되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시행되었다.

3.2. 법정언어 교수방법 연구

커뮤니케이션은 참여자들 간에 메시지의 발송과 수신이 일어나는 과정이며, 대화는 이의 전형적인 실현방식이다. 대화에서의 메시지 전달 수단은 발화이다. 일반적인 대화의 경우, 화자의 발화는 상대방에게 화용론적 의미로 전달되고 이해된다. 그러나 법정 대화의 경우, 특수한 법적 환경으로 인해 엄밀한 의미의 화용론적 의미가 작동되지 않는다.

먼저 법적 대화의 대화구조와 언어적 특성들을 살펴본다. 대화의 한 축인 질문이 갖는 화용론적 의미를 전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대화의 다른 한 축인 답변을 함축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법정에서 증인과 검사 또는 변호인 간에 오가는 질문과 답변, 경찰관과 피의자 간의 질문과 답변 등은 일종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대화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질문-답변 연쇄체는 법적인 제약들에 놓이고, 법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본 주제에 관해서는 법 영역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을 언어학적 시각에서 살펴본다. 먼저 대화분석(conversational analysis) 이론의 기초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화용론 시각에서 질문에 대하여, 그리고 답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한다.

다음으로 법정 대화에서 일어나는 범죄로서 위증죄를 다룬다. 위증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발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의 첫 단계는 언어학적 분석이다. 여기서는 위증죄와 관련한 발화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제시한다.

위증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직관적 정의는 사실과 어긋난 발화이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나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진술, 즉 거짓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 배제된다.

거짓말 개념에는 화자의 의도 등과 같은 심리학 내지 철학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는 언어학적 분석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적 분석이 거짓말의 이해에서 필수적인 작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거짓말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언어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법학에서의 위증을 살펴본다. 위증죄에 대한 구성요건들 그리고 허위 진술 개념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거짓말의 일반적 정의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법정 진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발화에 대해 의미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한다.

3.3. 언어범죄 교수방법 연구

‘언어범죄(language crime)’란 언어에 의한 범죄, 즉 언어에 의해 유발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언어는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즉 ‘언어증거 (linguistic evidence)’로서 역할을 한다.

언어증거는 법적 증거의 하나로서 언어자료와 관련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법률 시스템 내에서 나타나는 발화 또는 텍스트로 구성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언어학적 분석을 의미한다.

언어증거는 주로 세 분야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첫 번째 분야에서의 언어증거는 사람의 목소리나 글, 저작물이 해당한다. 두 번째 분야에서의 언어증거는 범죄에 관련되는 피고인이 행한 발화가 해당한다. 세 번째 분야에서의 언어증거는 분쟁이 되고 있는 문건이나 상표 등 언어 텍스트가 해당한다.

Shuy (1993)에서는 이와 같이 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언어범죄(Language Crim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누구를 협박하거나 누구에게 살인을 교사하는 일 등이 언어를 통한 범죄임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표현범죄’, ‘언론범죄’, ‘언어범’ 등의 개념이 제안되었다.

언어 범죄들중 형사상 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언어 폭력(verbal aggression)’에 의한 것이다. 즉, 발화 자체가 폭력성을 띠어야 하고, 대부분의 이러한 폭력적 발화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적대적인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폭력에는 비방(

slander), 저주(curse), 욕설(oath), 위협(threat), 기타 다양한 공격적인 명령(aggressive command) 등이 포함되며,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언어범죄란 언어증거에 의해서 유발된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언어증거는 보통 발화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분석은 주로 화행이론과 밀접히 관련한다. 언어범죄에서 사용된 발화는 특정 화행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박죄와 관련된 발화는 소위 ‘협박하기’ 화행을, 교사죄와 관련된 발화는 소위 ‘요구하기’ 화행을, 또는 모욕죄와 관련된 발화는 소위 ‘모욕하기’ 화행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화행은 화행 분류에서 발화수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언어범죄는 대부분 결과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발화는 발화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협박죄에서는 청자 측에서 공포심 같은 효과를, 모욕죄에서는 청자 측에서 모욕감의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발화효과는 발화효과행위에 의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언어범죄와 관련된 발화는 발화수반행위와 발화효과 행위를 함께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언어범죄의 정의와도 부합한다. 즉, 발화가 갖는 발화수반행위를 통해서 화자는 발화에 부착된 어떤 행위를 의도하고, 발화효과행위를 통해서 특정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 결과, 특정 언어범죄가 발화에 의해 유발된다고 말할 수 있다.

화행이론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언어범죄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설명해준다.

언어범죄의 발화가 갖는 발화효과행위의 경우, 하버마스 이론에 따라 이를 전략적 행위로 간주하고서 권력 주장을 통해 그 행위를 점검할 수 있다. 고전이론에서는 그 행위의 속성으로 인해 언어학적 분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화수반행위의 경우, 고전이론에서 제시하는 적정조건들에 의해, 즉 명제내용조건, 준비조건, 성실성조건, 본질조건 등에 의해 관련 발화 수반행위가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다. 하버마스 이론에서는 이를 의사소통 행위로 보고서 타당성 주장을 하지만, 정당성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항상 실패한 행위로 간주되어 설명하지 못한다. 즉, 언어범죄에 대한 화행이론의 설명은 고전이론과 하버마스 이론 양측을 요구한다. 다음 장들에서 다루는 언어범죄들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은 고전이론에서 제시되는 발화수반행위의 적정조건들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룰 것이다.

3.4. 지식재산 교수방법 연구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법에 의해 독점권이 그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지식의 창조물이고,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재산의 창조자에게 부여

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있다.

먼저 산업재산권의 하나인 상표권을 다룬다. 상표의 보호나 등록에 있어서 표현 자체의 언어학적 분석을 살펴본다.

우리는 상표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들에 대한 언어학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어학적 접근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지만, 상표가 하나의 언어 기호임을 고려하면 언어학적 접근이 상표에 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해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표절과 저작권을 살펴본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재산권에 초점을 둔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구별된다. 표절은 연구 윤리 규범의 위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성격이 강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서 법적 제재를 받는다. 표절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고, 반대로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표절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저작자가 전에 창작한 저작물을 후의 창작물에 이용하는 것인 자기표절,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의 표절, 연구결과의 조작, 중복 게재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저작물의 저자를 판별하는 주제를 다룬다. 법과학에서 어떤 연구들은 ‘패턴 증거(pattern evidence)’와 관련한다. 즉, 의심스러운 자료에서 패턴을 찾아내어, 이미 알려진 자료들의 패턴과 일치되는가를 조사한다. 여기서 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생체 관련된 지문(指紋), 손 금, 필체, 목소리 등이거나 또는 보폭, 신발 자국, 타이어 자국 등 일 수도 있다. ‘저자판별(authorship attribution)’은 텍스트가 패턴 증거의 자료로 이용된다.

텍스트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인 식별에 대한 단서로서 관련될 때 법과학의 분석 대상이 된다. 보통 범인은 범죄와 관련한 텍스트를 익명으로 보내고, 사법기관은 그 텍스트의 저자를 밝혀 범죄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텍스트로부터 저자에 고유한 속성들을 도출하여 저자를 유추해내는 데에 관심을 두는 분야가 저자 판별이다. 이러한 저자 판별 분야는 형사소송 외에도 민사 소송, 보안 이슈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튀드(Etude) 프로그램에 관한 상담심리학적 고찰과 교수법 모형 설계」

장우현 교원, 이지연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온라인 교육환경은 새로운 교수법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대안이 아닌 새로운 실천적 방법론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선행연구와 교육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은 물론 대면의 교육환경에서 대상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념과 방법론이 도출되어야 함
- 따라서 이론 및 기법을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상담심리와 연기예술의 방법론을 탐색하고 융합한 새로운 교수법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특히 러시아 연기예술의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에튀드(Etude) 프로그램을 상담심리학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온라인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설계하고자 함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에튀드(Etude) 프로그램에 관한 상담심리학적 고찰과 교수법 모형 설계

소주제1. 온라인 교육의 핵심 개념 도출

소주제2. 에튀드 프로그램의 상담심리학적 고찰

소주제3.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훈련 모형 설계

목적: 온라인 교육환경을 위한 새로운 교수법 연구

목적1. 온라인 교육에서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개념과 프로그램 탐색

목적2. 에튀드 프로그램의 상담심리학적 고찰 및 활용

3. 연구 진행 내용

3.1. 온라인 교육의 핵심 개념 도출

- 온라인 교육의 선행연구는 크게 온라인 교육의 방법론 탐색 및 연구와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의 '실재감'과 '라포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함
- 선행연구는 대면이 강조되는 실습과목과 이론위주의 과목으로, 또한 기술적 탐색과 이론적 탐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온라인을 활용한 영화 연기 교육 방법론 연구, 시 창작 교육 주제의 연구, 그리고 감정놀이 교사교육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온라인 실습과목의 상호소통과 실재감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함
-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신입생의 비대면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와 대학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고려요소 및 개선방안 탐색 연구에서는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이버대학 한국어교육 전공생의 '원격 화상 수업 기술' 학습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연구와, 코로나 팬데믹 온라인 수업 사례로 본 교육대학원생들의 인식 연구, 그리고 메타버스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에서는 온라인 이론 과목들을 위한 교수법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모델 비교를 통한 다매체시대 효율적 토론 수업 연구와,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통번역대학원생들의 인식 및 선호도를 사례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실시간 비대면 방식의 기술과 운용방법에 개선을 강조함
- 다만 이들 선행연구들은 이론과 기술적 방법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며, 실습 혹은 이론 등 과목의 특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론 탐색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와를 통해 도출된 온라인 교육의 핵심 개념인 '실재감'과 '라포 형성'을 에튜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온라인 교육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3.2. 에튜드 프로그램의 상담심리학적 고찰

- 본 연구에서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과 시스템의 핵심도구인 에튜드를 상담심리학적으로 고찰하려는 이유는 첫째,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연기에술의 과학적 접근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며, 이때, '과학적'이라는 용어는 '반복가능성'과 '일반화'로 그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음
- 이는 시간과 공간 등의 물리적 제반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반복 가능한 연기의 유도를 의미하는데, 에튜드는 주어진 갈등상황을 통해 요구되는 진정성 있는 감정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임

- 상담심리학은 과학적 방법론으로 개인의 삶과 행동을 성찰하여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이란 점을 고려할 때, 에튜드의 '과학성(반복가능성, 일반화)'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둘째,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 및 에튜드의 발전과정과 상담심리학의 주요이론들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핵심 기법 중 하나인 정서기억법은 개인의 정서 및 기억을 활용한 심리적 접근법에서 시작하여, 정확한 움직임과 신체반응을 구현하여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신체적 접근법을 포함하고, 심리와 신체의 연결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심리·신체적 접근법까지 발전함

- 이처럼 정서기억법은 발전을 거듭하며 심리·신체 행위법이라는 구체적 훈련 도구인 에튜드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이들 심리, 신체 혹은 심리·신체 통합적 접근법은 상담심리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이론들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음

- 에튜드의 심리적 접근법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신체적 접근법은 행동치료와 심리·신체적 접근법은 인지행동치료와 기타 통합적인 접근을 목표하는 최신 상담이론들에서 일부 개념들과 발전과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에튜드와 제시된 상담이론들의 발전과정은 새로운 접근법이 이전 접근법에 대한 반작용 혹은 갈등을 통해 탄생되고 통합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님

- 즉, 상담심리학의 다양한 이론들과 핵심개념은 에튜드의 체계성을 구축하고 온라인 교육의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활용방법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배경이론 및 훈련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

3.3.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훈련 모형 설계

- 본 연구에서는 에튜드 프로그램의 8가지 요소(집중, 이완, 상상, 관계, 자감, 적응, 평가, 교류)를 위한 49가지 훈련 중 각 요소들의 선별된 대표 훈련 8가지를 훈련 모형이 형태로 제시함

- 선별된 모형 중 일부를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 실재감과 라포 형성을 기준으로 세부 진행방법 및 목적을 수정하여 제시함

3.3.1. 선별된 훈련 모형

‘집중’ 모형 - 주의집중의 원

<목표>

- 주의집중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한다.
- 주의집중을 유지하기 위한 힘을 기른다.

<진행방법 및 유의점>

- 주의집중의 범위를 제시하고, 그 안의 소리를 찾고 오감으로 느낀다. 범위는 몸(신체), 공간(극장), 건물 전체, 건물 밖 거리 등으로 범위의 물리적 크기를 확대한다.
- 첫 번째 범위인 내 몸을 주의집중의 원으로 설정하고, 그 안의 소리를 듣는다. 호흡과 심장박동 등의 소리를 찾으면 나머지 감각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느낀다.
- 점차적으로 공간을 확대해 나갈 때, 제시된 범위 밖의 소리에 주의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만약 주의집중의 원이 깨진다면 즉시 해당범위로 주의력을 가져오려 노력한다. 그래도 어렵다면 다시 가장 작은 범위부터 다시 시작하여 주의집중의 원을 회복한다.
- 제시된 범위가 물리적 크기가 감각의 한계를 넘어간다고 느낄 때, 내면의 시각(영상)을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극을 탐색하고 감각적으로 구체화한다. 이때, 만나는 자극의 사실성 여부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들이 감각적으로 구체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활용방법>

- 많은 사람들 혹은 물리적 자극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아 주의집중의 원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운용한다.
- 예튜드 주어진 상황(시간, 공간, 상황, 사람 등)에서 요구되는 주의집중의 원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이완’ 모형 - 근육 주시자

<목표>

- 신체적 긴장, 근육의 상태변화를 집중한다.
- 긴장된 근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완한다.

<진행방법 및 유의점>

- 훈련 공간을 자유롭게 걷는다.
- 제시되는 숫자(1-10)에 따라 걸음의 템포를 변화시킨다.
- 걸으면서 근육의 긴장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이때, 근육의 불필요한 긴장이 확인되면 즉시 이완한다.
- 이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날숨으로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기, 긴장된 근육에 의식적으로 긴장을 더해 이완을 유도하기(역설적 이완법), 상상을 통해 몸의 이완상태를 유도하기(따뜻하거나 부드럽거나 가볍거나 흘러내리는 물질로의 변화, 기타 이완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상) 등의 이완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 자신만의 근육을 주시하고 이완을 돕는 존재인 ‘근육 주시자’를 상상하고 반복을 통해 내면화한다. 이때, 근육 주시자는 다양한 대상 혹은 목소리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또한 근육 주시자는 강압적이거나 긴장감을 유발하는 존재가 아니며, 항상 따뜻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임을 기억한다.

<활용방법>

- 근육 주시자와의 작업 및 훈련을 일상과 에튜드에서 수시로 진행한다.

‘상상’ 모형 - 상상 소환

<목표>

- 집중하고 이완하여 상상을 위한 상태를 준비한다.
- 구체적인 내적 이미지를 떠올려, 오감과 연결한다.
- 내적 이미지를 외적 동작으로 형상화한다.

<진행방법 및 유의점>

- 몸을 이완시키며 훈련 공간을 걷는다.
- 제시되는 단어를 듣는다. 이때 단어의 범위는 사람, 사물, 추상적 개념까지 제한이 없다.
- 제시된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내적 이미지를 떠올리다가 진행자의 신호에 맞춰 제자리에서 멈춘 후, 내적 이미지를 외적 동작으로 형상화하는 포즈를 취한다.
- 포즈와 내적 이미지 간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 다시 몸을 이완시켜 다음 제시어에 집중한다.

<활용방법>

-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자극들에 반응하는 다양한 내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가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린다(의식화).

‘관계’ 모형 - 전할 수 없는 말

<목표>

- 대상과의 관계를 상상하고 구체화한다.
- 관계를 바탕으로 대상과 즉흥적으로 소통한다.

<진행방법 및 유의점>

- 물리적 혹은 심리적 상황으로 만날 수 없는 대상을 떠올린다.
- 준비된 두 개의 의자 중 하나에 말하는 이가 앉고, 반대편 의자에 듣는 이가 앉는다. 이때, 말하는 이는 듣는 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
- 말하는 이는 듣는 이를 전할 수 없었던 말을 위한 대상으로 상상하고 말을 시작한다. 이때, 듣는 이는 특별한 반응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경청한다.

<활용방법>

- 주변 대상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및 감정을 알아차린다.

‘자감’ 모형 - 맨발로 걷는 길

<목표>

- 상상의 내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오감과 연결한다.
- 제시된 상황에 맞는 심리·신체적 상태를 찾고 유지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이다.

<진행방법 및 유의점>

- 다양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날씨와 자극 등을 설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느껴지는 심리·신체적 상태를 오감으로 구체화한다. 멈춤 없이 걸으면서 진행된다.
- 제시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대상과의 관계를 치환하여 감각들과 연결한 후 자감을 획득한다.
- 이때, 자감이 맨발의 감각을 포함하여 걷고 있는 신체 움직임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시된 상황은 봄날의 초원, 한여름의 사막, 빙판 위 등의 경험 가능한 공간부터 높, 바위, 금, 석탄, 석유, 용암, 우주 속처럼 경험 불가능한 공간까지 진행한다.
- 경험하지 못한 상태 혹은 느낌에 회피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반응하고 움 직일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모든 훈련은 불편함이 지나치게 크게 느껴질 때, 언제든지 의식적으로 훈련을 끝낼 수 있음을 숙지한다.

<활용방법>

-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할 수 없는 상황과 감각을 반복적이고 순차적으로 훈련한다.
- 일상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감을 알아차린다.

‘적응’ 모형 - 메신저

<목표>

- 다양한 상황의 목표와 동기에 적응한다.
- 구체적 행동을 계획하지 않고 즉흥성을 가진다.

<진행방법 및 유의점>

- 문 밖에 대기하며, 공간으로 들어가는 목표와 동기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화재경보, 합격소식, 뜻밖의 뉴스 등의 긴박하고 중요한 소식을 전달한다.
- 진행자의 신호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가며, 준비한 소식을 내부의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때, 말의 전달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활용방법>

- 훈련을 최소한의 시간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즉흥성을 연습한다.

‘평가’ 모형 - 떨어진 지갑

<목표>

- 주어진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평가하고 반응한다.
- 구체적 행동을 계획하지 않고 즉흥성을 가진다.

<진행방법 및 유의점>

- 훈련 공간에 준비된 의자에 앉는다.
- 의자 밑의 지갑을 발견한다. 이때, 지갑의 존재를 미리 의식하지 않는다.
- 사건을 평가하며 반응한다. 예를 들어, 모른척하거나, 지갑을 빠르게 주머니 속에 넣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거나, 지갑을 보고 확인할지 말지 고민하는 등의 즉흥행동을 할 수 있다.

<활용방법>

-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로 제시하여, 지갑을 주울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여 갈등을 극대화한다.
- 주어진 상황의 제한시간을 줄여 반응속도를 올린다.

‘교류’ 모형 - 텔레파시

<목표>

-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집중한다.
- 상대와 상호연결감을 유지하며 의도를 주고받는다.

<진행방법 및 유의점>

- 말과 신체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서로의 의도를 주고받는다.
- A와 B를 정하고 손을 마주잡는다.
- A는 B가 해야 할 특정 동작을 정하고 B는 A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동작을 취할 때까지 함께 움직인다.
- 이때, A는 B에게 의도와 관련된 신호나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A는 생각한 특정동작을 B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의도를 보내며(특정동작을 수행하는 A의 모습을 상상한다), B는 A에게 집중하여 의도를 전해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 A와 B의 역할을 바꾼다.

<활용방법>

- 에튜드 진행과정의 다양한 대상과의 교류를 유지한다.
-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상과의 교류를 알아차린다.

3.3.2. 최종 훈련 모형

훈련 모형1 - 주의집중의 원(실재감 및 라포 형성 :공통의 시공간)

- 편안한 자세를 취한 뒤, 눈을 감고 최대한 몸을 이완시킨다.
- 먼저 자신의 몸 안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숨소리, 심장박동 등
- 다음으로 방 안의 소리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움직일 때 나는 작은 소리, 사람들의 숨소리 등
- 주의집중의 범위를 문 밖 복도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 환풍기 팬이 돌아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등
- 주의집중의 범위를 건물 밖 거리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신호등 신호소리, 거리에 서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 차 경적 소리 등
- 마지막으로 온라인 가상공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의 물리적 공간과 온라인 가상 공간을 연결한다.

훈련 모형2 - 거울(실재감 및 라포 형성 : 공통의 사건)

- 한 사람은 리더(B)가 되고, 다른 사람은 거울(A)이 되기로 정한다.
- 거울은 리더의 화면(타일)을 고정시킨 후, 준비한다.
- 리더는 하고 싶은 동작을 자유롭게 연속적으로 하며, 이 때 거울은 리더의 동작을 따라한다.
- 리더는 단순한 동작에서 복잡한 순으로 진행한다. (대근육, 소근육, 얼굴표정, 호흡, 복합 동작, 이동 동작 등으로 이어진다)
- 서로 역할을 바꿔 진행할 수 있으며, 거울의 역할은 여러 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교육에서의 새로운 상호작용 증진 교수법으로서의 에튀드(Etude)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양한 세부목표를 훈련할 수 있는 에튀드 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에서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모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부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짐
- 예를 들어, 공감과 즉시성을 위한 교수법 연구, 알아차림과 자기성찰을 위한 연구법 설계, 발표불안과 무대공포증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등이 가능함

-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련 주제의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연구로 발전될 수 있음

※ 참고문헌

- 박서연, 송낙원, “온라인을 활용한 영화 연기 교육 방법론 연구,” 영상기술연구, pp.99-113, 2021.
- 박정서, 이상희 (2021). Q방법론을 활용한 대학원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 상담 및 코칭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Vol.27, No.1, pp.77-99, 2021.
- 송애리,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의 감정놀이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의 실재감 및 실재감 증진 교수 전략 분석.” 초등도덕교육, Vol.69, pp.89-122, 2020.
- 서미옥, “코로나 팬데믹 온라인 수업 사례로 본 교육대학원생들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2, pp.561-582, 2021.
- 김태훈, 「스타니슬랍스키의 신체적 행위법, (The Method of Physical Action)을 통한 연기 교육 교수법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연극학>, 26(2005).
- 김태훈, 『연기교육, 기초훈련과정에 대한 연구(2)』, 연극교육연구 9, 2003, 한국연극교육학회, 156쪽.
- 오진호, 「스타니슬랍스키 3기 시스템 연구 - 실행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7(2006), 970-981.

「 디지털 상호작용 툴을 활용한 수업 연구 」

정상현 교원, 하정영(HE JINGYING) 교원, 장설교(ZHANG XUEJIAO)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 개발 및 개선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교재나 PPT 위주로 진행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툴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했을 때 상호작용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모임을 결성하였다.

세 명의 강사가 담당하는 과목의 성격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상호 논의 과정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수업에 적합한 툴 선정 및 활용 방식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업 운영 방식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상호작용 툴 활용 수업 방식 논의

목적: 학생들의 참여, 상호작용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효과와 수업 관여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습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상호작용 툴 활용’ 수업 운영 방식을 모색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중국어교육콘텐츠제작>, <신조어와 중국사회>, <중급중국어회화> 세 과목을 담당한 강사진은 교수-학생간 소통 및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수업을 시도하였다. 1차 회의는 툴 선정 및 수업 진행을 위한 지도계획 수립, 2차 회의는 온라인 툴 적용에 따른 강좌별 중간 상황 점검, 3차 회의는 한 학기 운영 결과 공유와 한계 및 보완점 논의를 했고, 수업 운영 중 발생하는 임의의 상황에 대한 공유와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줌회의 또는 위챗 채팅방을 통해 소통했다.

<신조어와 중국사회>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10대 유행

어, 10대 신단어, 그리고 10대 SNS 용어를 통해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에 대한 학습도 가능한 과목이다. 교수자는 ‘노션 Notion’ 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지사항 게시를 하거나 수강생들의 과제를 제출하는 협업플랫폼 기능을 활용했다. 과제¹⁾는 매주 제출해야 했으며 아래 [그림 1]과 같이 ‘주차, 제출자, 과제명, 파일 업로드, 예시이미지 업로드, 최종편집일시, 편집자, url(필요시)’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진행상황을 매우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편집 일시가 명확하게 표기되기 때문에 ‘기한 내 제출 여부’를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고,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매우 편리하였다. 단, 자기가 업로드하는 자료 외의 타인 자료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²⁾. 아쉬운 점은 다른 수강생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참고하는 동료 학습을 기대했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주차	제출자	과제 이름	과제 파일	예시 이미지	최종 편집 일시	최종 편집자	URL
1주차	최석환	내항_12주차_崔碩煥	내항_12주차_...		2022년 11월 24일 9:18	이예원	
12주차	송영인	호리행_12주차_송영인	호리행_12주차_...		2022년 11월 20일 23:57	송영인	
12주차	송준혁	해설_12주차_송준혁	해설_12주차_송...		2022년 11월 20일 21:53	송준혁	
12주차	박주혜	해설_12주차_박주혜	해설_12주차_박...		2022년 11월 20일 22:51	박주혜	
12주차	양홍신	원비Q_12주차_양홍신	원비Q_12주차_...		2022년 11월 20일 21:34	양홍신	
12주차	허예선	호리행_12주차_허예선	호리행_12주차_...		2022년 11월 20일 18:41	허예선	
12주차	서지민	EMO_12주차_서지민	EMO_12주차_...		2022년 11월 24일 9:17	이예원	
12주차	최지윤	원비Q_12주차_최지윤	원비Q_12주차_...		2022년 11월 20일 21:22	최지윤(재학 / 중국외고통6)	
12주차	오은서	해설_12주차_오은서	해설_12주차_오...		2022년 11월 20일 16:48	오은서	
12주차	박윤형	EMO_12주차_박윤형	EMO_12주차_...		2022년 11월 20일 15:00	박윤형(재학 / 중국언어통6)	
12주차	임수민	호리행_12주차_임수민	호리행_12주차_...		2022년 11월 20일 14:03	수민 임	
12주차	오재은	원비Q_12주차_오재은	원비Q_12주차_...		2022년 11월 20일 13:25	오재은	
12주차	강아힐	원비Q_12주차_강아힐	원비Q_12주차_...		2022년 11월 20일 6:55	강아힐	
12주차	김소담	원비Q_12주차_김소담	원비Q_12주차_...		2022년 11월 20일 12:44	김소담	

[그림 1] 주차별 과제 취합 페이지(2022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1) 교재, (2) 강의 설명내용, (3) PPT 내용, (4) 학생들이 과제 등 수업시간에 다뤘던 모든 범위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기말고사 시험을 위한 복습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험 범위를 ‘교재(강의노트)’만으로 제한하

- 1) 학생들은 특정 년도별 유행어, 신단어, SNS 용어를 하나 찾고, 그것에 대한 뜻, 유래, 실제 사례를 정리하여 강사에게 제출함(노션 페이지에 업로드). 해당 내용은 수업시간 내에 발표하였음. 단, 강의 노트(교재)를 사전에 참고하여 다루지 않은 새로운 표현을 찾도록 제한사항을 공지함. 과제 및 공지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제든지 학생들이 확인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클래스 공지 및 노션 페이지에 올려두었음.
- 2) 타인의 제출본을 삭제하거나 다른 학생의 칸에 옮기는 등의 편집상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타임라인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원 시점을 조정하면 오류 발생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노션의 기능은 매우 큰 장점이다.

되 평가를 위해 시험 난이도는 높여 출제하기로 재조정한 후 공지하였다. 기말고사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것인지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비)테스트 문항을 준비했고³⁾, 학생들과 함께 실전 연습을 진행해 보았다. 학습자는 처음 개설된 과목의 평가 문항 스타일을 미리 살펴볼 수 있었고, 교수자는 예비 테스트 결과지를 살펴보면서 학습자의 학습 내용 이해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

학습내용을 공지하고 과제를 취합하는 것, 그리고 취합된 과제를 수업시간에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등의 장점은 십분 활용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내용 이해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던 점이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본 교수법 연구 모임은 2학기 기간에 진행되었으나 다행히 <신조어와 중국사회>는 겨울 계절학기에 개설되었고, 학생 참여 및 이해도 파악을 위한 '퀴즈'를 도입해 수업을 진행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계절학기는 12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대면 강의였던 2학기과 달리 온라인 화상 수업이라는 환경의 변화로 동일한 수업 구성 및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일주일에 주5일 수업의 진도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과제 제출 및 발표 방식도 바뀌어야만 했다. 정규 학기에는 교재(강의노트)에서 다루지 않은 신조어, 유행어, SNS 표현 등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서 수업시간에 발표해야 했으나, 계절학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표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재(강의노트)에 있는 주차별 내용 중에서 관심 가는 내용을 하나 고르고⁴⁾ 그 표현에 대한 뜻, 유래, 실제 사례(이미지, 밈, 광고 및 영상 등)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해당 주차의 수업에서 발표하도록 조정했다.

매주 실시한 '퀴즈'는 계절학기 수업의 가장 큰 변화다. 계절학기 수강생들에게 요구하는 과제의 난이도가 쉬워졌고⁵⁾,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양의 중국어 표현과 사회현상에 대해 다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 주차 수업을 마친 후 10분 이내의 퀴즈 풀이를 수업에 도입하였다. 출석체크는 강의의 모든 내용이 마친 후에 했고, 직후에 교수자가 사전에 준비한 퀴즈를 풀어야 한다. 퀴즈를 푼 학생만 온라인 교실에서 나가도록 했다. 빨리 풀면 풀수록 일찍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수행 시간을 단축하고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10문항을 풀도록 하기 위한 제한 조건이다.

3) 사전(예비) 테스트 문항은 네이버 품을 활용했다. 문항의 내용은 다르지만 출제 유형에 대해 학생들은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교수자는 학생들의 예비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서 학생들의 현재 이해도와 학습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말고사 출제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4) 모든 학생은 한 번의 발표 미션이 있었다. 연도별 유행어, 신단어, SNS용어가 10개씩 총 30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 발표할 주제를 정할 때는 교재의 내용을 사전에 살펴보도록 시간을 주었고, 수업시간에 주석달기를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5) 2학기 수강생들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신조어 등의 표현을 찾고 그것에 대한 사례와 설명을 덧붙여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은 분명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였다. 그러나 계절학기 수강생들은 교재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강 시기에 따라 평가 방식에 큰 차이가 생기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퀴즈'를 10회 이상 치르는 수업 구성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림 2] 퀴즈 창 예시

르고 직관적인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익숙한 툴이어서 접근성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도 있다.

퀴즈는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무리 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모른다면 오픈북으로 교재를 참고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비디오 화면은 커두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학생들을 파악하기에도 효과적이었고, 교수자는 매 차시 답안 확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파악하고 강의 난이도 또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 후, 수업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퀴즈는 '네이버 오피스'의 '폼'에서 '단일 선택형 설문' 문서 형식을 활용해 작성했으며, 학생들이 퀴즈를 풀 수 있도록 qr코드를 화면에 띄웠다. 퀴즈 작성용 툴로 네이버 오피스 '폼'을 선택한 이유는 결과물을 엑셀 창의 셀로 도출할 수 있고(그림 3 참고)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쉽게 임베드할 수 있으며, 객관식 문항은 다이어그램이나 원그래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정-오답 확인이 빠

이름	1	2	3	4	5	6	7	8	9	10
이근수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이민서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이예정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김도연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201700610 김민주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김승찬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전석재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202103804 정진규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홍창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황가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이정훈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원창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201800425 공예진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이정환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장정환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201900255정포진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오은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이성진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나카타니소마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리민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김동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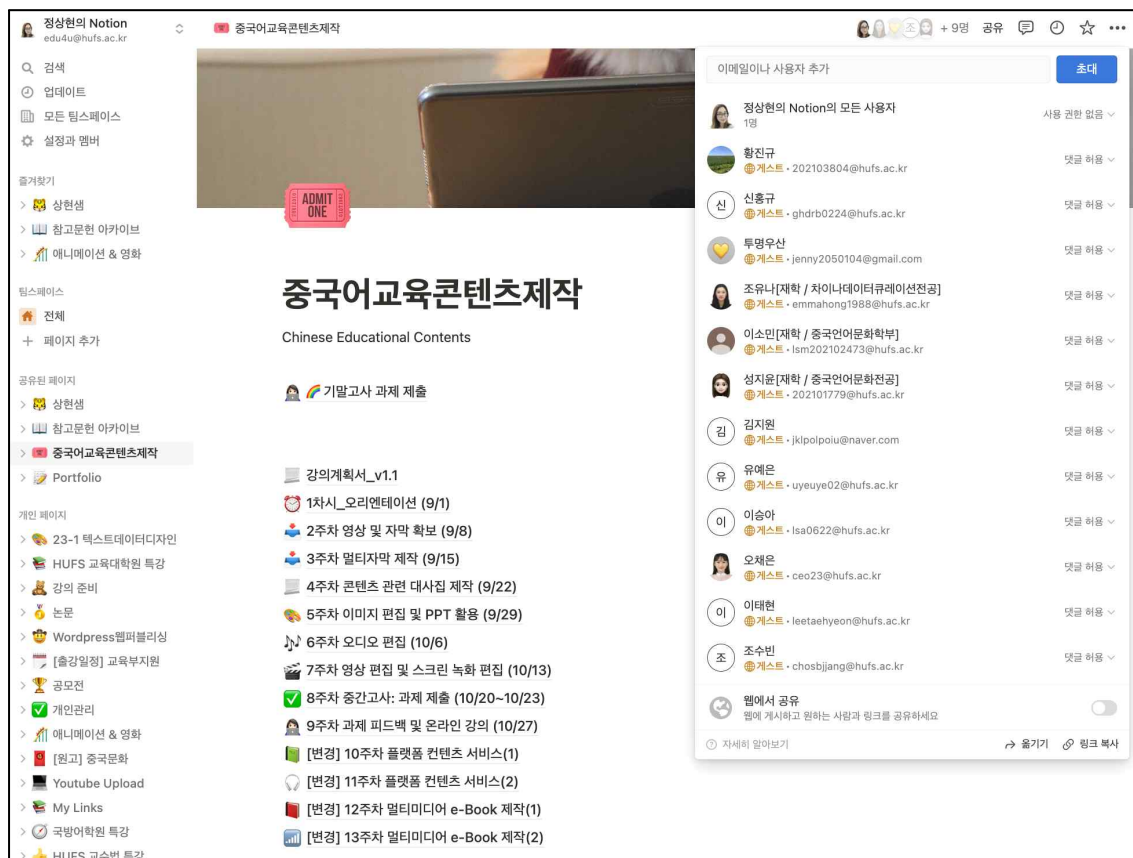
[그림 3] 계절학기 수강생의 퀴즈 수행 결과 창

[그림 3] 는 편폭의 제한을 고려하여 타임스탬프 란을 숨겼지만, 제출자 순서를 제출시 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규학과와 계절학과 과제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내용을 찾아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학습 내용 중에서 관심이 가는 표현을 골라 발표하게 하는 것이 내용의 이해, 기억, 활용 차원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기말고사 채점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계절학기의 기말고사 문항의 난이도가 오히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규학기에 비해 학생들의 점수가 높았던 것도 이러한 효과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계절학기에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어서 역동적인 상호작용(토론이나 질문 등)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형식적으로라도 높이고 싶어서 교재 텍스트를 읽어달라는 요청했고, 한국인 학생들은 한글 해설을,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어나 한국어 둘 중 선택해서 읽었다. 교수자의 일방적인 설명과 진행이 수업을 단조롭고 지루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짧게라도 발표와 읽기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학생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기말시험을 치를 때, 학생들이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한 상태에서 진행했지만, 얼마나 자기 실력만으로 시험에 임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중국어교육콘텐츠제작
Chinese Educational Contents

기말고사 과제 제출

- 강의계획서_v1.1
- 1차시 오리엔테이션 (9/1)
- 2주차 영상 및 자막 확보 (9/8)
- 3주차 멀티자막 제작 (9/15)
- 4주차 콘텐츠 관련 대시집 제작 (9/22)
- 5주차 이미지 편집 및 PPT 활용 (9/29)
- 6주차 오디오 편집 (10/6)
- 7주차 영상 편집 및 스크린 녹화 편집 (10/13)
- 8주차 중간고사: 과제 제출 (10/20~10/23)
- 9주차 과제 피드백 및 온라인 강의 (10/27)
- [번역] 10주차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1)
- [번역] 11주차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2)
- [번역] 12주차 멀티미디어 e-Book 제작(1)
- [번역] 13주차 멀티미디어 e-Book 제작(2)

이메일이나 사용자 추가

이메일이나 사용자 추가	사용 권한 없음
정상현의 Notion의 모든 사용자	사용 권한 없음
황진규	댓글 허용
신홍규	댓글 허용
투명우산	댓글 허용
조유나[재학 / 차이나데이터커리어이션전공]	댓글 허용
이소민[재학 / 중국언어문화학부]	댓글 허용
성지윤[재학 / 중국언어문화전공]	댓글 허용
김지원	댓글 허용
유예은	댓글 허용
이승아	댓글 허용
오재은	댓글 허용
이태현	댓글 허용
조수빈	댓글 허용

[그림 4] <중국어교육콘텐츠제작> 페이지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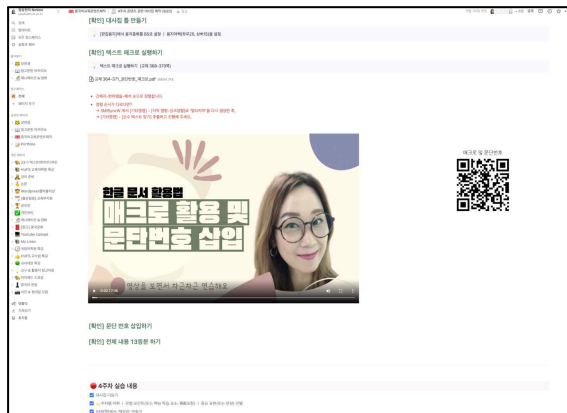
<중국어교육콘텐츠제작>은 내가 가진 데이터 및 콘텐츠에 가장 적합한 큐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보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는 큐레이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 편집을 위한 다양한 툴 활용법을 배우고, 자기만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콘텐츠 결과물 완성을 학습 목표로 설정했다.

본 과정은 2학년 대상 과목이지만, 2-4학년이 수강하였고 학년별, 개인별 디지털 툴을 다루는 수준 차이가 컸기 때문에 순조로운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영상 가이드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툴 활용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결과물의 정교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툴 사용이 서툰 학생들은 기초적인 툴 활용력을 갖추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도와 피드백을 수업 시간에 제공했다. 주로 사용한 온라인 툴은 ‘노션Notion’이었는데, 모든 수강생이 접근할 수 있는 주차별 학습 내용을 정리한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⁶⁾.

조작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디딤영상을 유튜브 개인 채널

에 업로드한 후 링크를 임베드하거나 영상의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어서 노션 페이지에 첨부해 이해를 도왔다([그림 5]).

‘노션Notion’은 링크, 영상, 각종 파일 첨부 용량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중국어교육콘텐츠제작>과 같은 콘텐츠 소스 활용 수업에 매우 적합한 협력툴이었다⁷⁾. 특히 주차별 보충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낙오되는 학습자 없이 모두 성공적으로 수업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그림 5] 참고 영상 임베드 화면 및 큐알코드

수 있었던 점, 문의가 있는 경우 학생이 댓글을 남기고 실시간 피드백이나 답글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수업의 실재감과 관여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툴임을 확인하였다.

교수자의 일방적인 수업 진행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상호작용 툴을 10개 이상 선별한 후, 수강생들이 각자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하고 자신의 콘텐츠에 적합한 상호작용 기능을 실제로 적용시켜보도록 했다. 툴 활용 사례 발표는 5주차부터 11주차까지 매차시 수업 도입부에 실시하였는데, 수강생이 서로 다른 툴을 활용해 보고

6) 다른 사람의 페이지 접근 권한을 개별 페이지별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은 노션이 가진 매우 효과적인 기능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수강생들에게는 댓글 권한만 제공하고 중간 과제나 기말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주차에는 학생들에게 편집 권한을 부여하였다.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되면 편집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권한을 재조정할 수 있었던 점도 과제 취합 및 관리에 수월성을 확보했다. [그림 4]의 우측 상단에서 해당 페이지를 공유한 수강생들을 확인할 수 있다(누가 언제 페이지를 보았는지도 확인 가능함).

7) 특히 동영상 소스나 편집 음원 소스를 업로드할 경우 이클래스에서는 용량 제한 이유로 불편함을 경험했으나, ‘노션Notion’은 다양한 콘텐츠 소스를 용량 제한 없이 업로드하고, 게시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효과적인 협업플랫폼이다.

기말고사 과제 제출

- Notion 오디오북 페이지 + flipbook 제작 파일 을 제출합니다.
- 제출 기간은 12월 15일(목) ~ 12월 21일(수) 23:59까지입니다. (과제 제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과제는 모두 노션에 업로드 해 주세요.
- 노션은 선택 가능하도록 설정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항후 학과 아카데미에 설명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출 방법

- 표 하단의 * 버튼 (세로만들기)를 클릭합니다.
- '이름'은 작업 입력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자기 이름을 찾아서 선택해 주세요.)
- 'flipbook 전자책'에는 전자책 파일을 업로드합니다(하단의 플리북 모든 후 업로드하여 첨부). * 파일 제출시 플리북은 학번과 이름으로 지정해 주세요.
- 전자책에서 사용한 상호작용물의 종류는 텍스트로 정리해서 '한글'인 '사용한 상호작용물'에 기입합니다. (예: Wordwall, Kahoot!, Bamboozled)
- 노션 활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페이지는 url을 공유하시거나, edu4u@hufs.ac.kr * '한글'로 사용 후 추가해 주세요.
- 다른 수강생의 과제를 편집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학번이 가능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기말고사 과제

이름	flipbook 전자책 파일	상호작용물(플리북)	Notion 페이지 URL
조유나	201023296...	Edpuzzle, Genially, Blooket	https://www.notion.so/c6d52308f16e4a82a5f0b1d1f1212c9
이승연	20102625...	Genially, Nearpod, Learnhip	https://vivid-henley-8f0.notion.site/32000f77b28482a9a24199a6128db3
이소민	https://online.fli...	Learnhip, Nearpod, Blooket	https://fide-sage-b4a.notion.site/620422c90a435b642244a0c5de72f2
김지민	201804510...	Bamboozle, Wordwall, Match up, Nearpod	https://changeable-mm0sa-641.notion.site/6932042f521c4297859e4453b2a885fe
이승미	20102505...	Edpuzzle, Learnhip, Genially, Blooket	https://pikied-shel-f9d.notion.site/14dbaf028b644ae842ee4a5c78866dc
황진규	201023804...	Thinglink, wordwall, blooket	https://www.notion.so/5d082b094734e2790b6a2a642cded4e
오재현	20102143...	Thinglink, Nearpod, Wordwall	https://climbing-flier-7fd.notion.site/25ee2f84a1184ec06794968447580427
신종규	201011942...	Bamboozle, Wordwall, Learnhip	https://www.notion.so/ef6d8f43145482b6b3f5b6f67b1e2ff
이재현		Edpuzzle, Flip pdf, Nearpod, Quizlet	https://www.notion.so/ee77992397714d0784f818617443430
조수민	20102326...	Bamboozle, Blooket, Quizlet, Thinglink, Wordwall	https://flowery-currency-b2a.notion.site/bda8e3af0f477b9d79310153c4325f

[그림 6] <중국어교육콘텐츠제작> 기말고사 과제 제출 페이지

해당 툴이 지닌 장점과 특징, 아쉬운 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 개 이상의 상호작용 툴은 자기의 콘텐츠 특성에 맞춰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른 수강생의 발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플랫폼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을 것이다. 다양한 상호작용 툴 중에서 기말 과제에 반영시킬 플랫폼 찾는 것에도 참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⁸⁾. 중간과제와 기말과제 제출도 노션 페이지를 통해 모두 이루어졌고 제출 마감 시간을 정하고 편집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한 내 제출 규칙을 조정했다.

다양한 툴을 다뤄서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결과물을 완성해야 하는 수업 특성상 교수자 주도의 강의와 학생들의 실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호작용툴을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았다.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없이 학기를 마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중간고사 기간 이후 교수자-학생 간의 소통이 비교적 자유롭고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질문이나 건의 사항을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 툴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 교수자-학생,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도록 수업을 구성한다면 어떤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

8) 기말 과제로 제출하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에는 최소한 3종류의 상호작용툴(예: 카훿, 에드퍼즐, Genially, Edpuzzle, Bamboozled 등)을 활용하되, 매 챕터마다 상호작용툴을 적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와 실천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림 7] quizlet에서 교재를 바탕으로 만든 학습집(일부 화면)

<중급중국어회화(2)>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소통을 개선하고 교실의 활력을 높이며 전통적인 말하기 수업의 반복적인 연습 방식을 돌파하기 위해 수업 중 다양한 상호 작용 교육 도구를 시도하였다. 사용했던 교육도구의 활용 방법과 교육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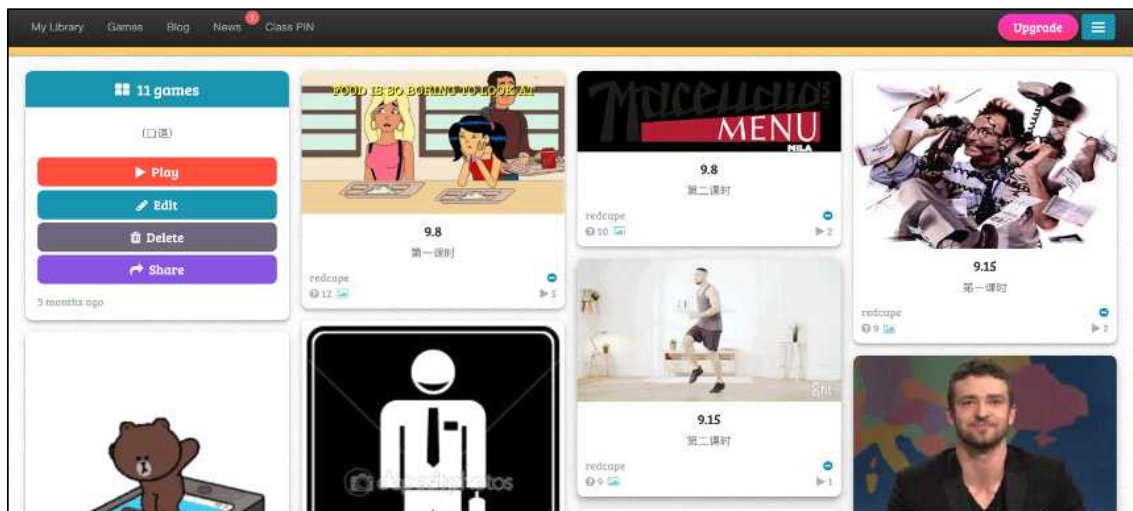
quizlet은 단어 카드, 어휘 연습, 테스트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주로 수업 전 및 방과 후 복습용으로 활용했다. 교수자는 수업시간마다 학습할 어휘 및 중점 문법, 문형을 quizlet로 정리한다. 교사가 quizlet을 활용해 수업 현장에서 연습을 지도할 수도 있고 링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유해 방과 후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언제든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켜고 연습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⁹⁾.

Baamboozle은 수업 중 어휘 및 문장 연습에 주로 활용된다. 수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수업 의욕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Baamboozle은 다양한 흥미로운 어휘 연습 모드를 가지고 있어서 수업에서 개인별 또는 소그룹 단위의 활동으로 적절한 경쟁심을 유발하며 참여를 유발하는 기제를 활용하여 어휘 및 대화 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¹⁰⁾. 특히 Baamboozle은 quizlet과의 연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quizlet에

9) '단어 카드' 모드를 사용해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교사가 단어 카드의 한국어 뜻을 보여주면 학생들은 중국어로 대답하는 방식의 연습은 학생들에게 반복 연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수자에게는 학습자의 이해수준 파악을 가능하게 했다. '어휘 매칭(matching)' 게임은 소그룹 또는 1:1 대화 형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교실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10) 클래식 모드를 예로 들면 두 팀원이 차례로 문제를 선택하여 답변하고, 정답을 맞히면 가점, 오답하면 감점되며, 문제 선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 점수와 함정(0점)이 무작위로 발생한다. 이러한 게임적인 요소는 중국어 수준과는 무관하지만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용했다. '몇 개의 팀으로 진행할 것인지', '몇 개의 문항인지'는 필요에 따라 교사가 조정할 수 있는데, 다양한 연습 모드를 사용하여 변화를 주면 반복 연습의 지루함을 낮추면서도 연습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서 작성한 어휘 학습 세트를 Baamboozle에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교수자의 수업 준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상호 작용 교육 도구 quizlet과 Baamboozle은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사용 과정에서 교사가 미리 설정한 내용에 국한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 8] 수업 날짜순으로 제작한 Baamboozle 학습게임 화면

Pear Deck은 토론과 의견 취합에 효과적인 툴이다. 교수자가 토론할 질문이나 설문지를 미리 준비해 Pear Deck에 입력하고, 학생들은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교수자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관찰할 수 있어 즉각적인 상황파악과 피드백이 가능하다. Pear Deck은 익명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자기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회화 수업에서는 교재 내용 외에 무작위적인 대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더빙 앱'이다. 더빙 앱 ('配音秀', '趣配音')에는 실용적인 대화 내용이 비교적 다양하고 드라마 원본 대사 발음과 더빙에 대한 채점이 지원된다. 학생들은 관심 있는 내용을 골라 반복적인 더빙 연습을 하고, 자신의 더빙 작품을 만든 뒤 앱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공유해 점수와 순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좋은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학기 <중급중국어회화>(2) 수업에서는 더빙 앱의 사용은 시도하지 않았다. 현재 웹 버전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구현하기가 어렵고 과제를 위한 연습용 도구로는 비교적 우수한 툴이다. 향후 교육에서는 중국어 회화를 연습하기 위한 발화 기회를 제공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디지털 툴을 계속 탐색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림 9] Pear Deck을 이용한 의견수렴, 파란색 부분은 학생의 선택



[그림 10] Pear Deck 설문조사 결과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교양 강좌 성격이 강한 <신조어와 중국사회>,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국어교육콘텐츠제작>, 중국어 의사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중급 중국어회화(2)> 는 수업 내용과 진행 방식이 확연히 다른 강좌들이다. 그러나 어떤 수업에서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학습의 효율성과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세 명의 교수자가 수업에 적합한 상호작용툴을 선택하고 한 학기 수업에 적용시키는 경험적인 시도를 통해 효과적인 상호작용툴의 탐색과 수업에 접목시키는 적절한 방법을 찾

는 것이 이번 교수법 연구회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수업에서 주로 사용한 온라인 툴은 노션(Notion), 네이버 오피스 폼, 퀴즐렛(quizlet), 뱀부즐(Baamboozle), 페어덱(Pear Deck)이다. 각자의 수업에 적용한 수준과 활용 방식에는 분명 차이는 있었으나 간략하게 정리하면, 수업의 전체적인 운영은 온라인 플랫폼인 '노션Notion'을 활용하여 공지, 학습 내용 제시, 과제 제출 및 자료 공유, 교수자-학생 상호작용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네이버 오피스 폼'을 활용한 차시별 퀴즈로 학습내용 강화 및 복습, 장기기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quizlet', 'Baamboozle', 'Pear Deck' 등 다양한 온라인 상호작용툴로 만든 게임과 퀴즈 형식의 도입은 학습자에게 흥미와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온라인 상호작용툴은 usb나 특정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만 있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한된 종류의 툴만 사용할 때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툴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본 연구모임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에게 익숙한 온라인 툴로 상호작용과 복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칫 딱딱하거나 지루할 수 있는 수업에 역동성과 입체감을 보완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이해도를 강화하는 등의 학습 효과가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목표와 차시별 학습 내용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툴을 찾으려면 다양한 툴 활용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탐색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켈러(Keller)의 ARCS 모형'에 적합한 온라인 툴을 찾아보거나, 로버트 가네의 '9가지 교수 절차(9 events of instruction)'에서 제시하는 각 절차마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을 선별하고 특정 툴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 방법을 정리한다면,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학습 모듈을 정립하는데 많은 참고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연구 」

정철자 교원, 안정민 교원, 한혜민 교원, 정희란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이 모임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수업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고급 수준 한국어 학습자의 통번역 수요가 늘어나고, 국내 다문화 구성원의 양적 증가에 따라 거주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모든 한국어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이후, 한국어 최고급 과정에 대한 학습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대학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시사 한국어 위주의 최고급 과정을 설치하고 있으며 통번역 과정도 개설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과정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어교육과 통번역 교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수업 개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어와 현지어 둘 다에 능통한 이중언어 전문 통번역사 배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수업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며 교육 과정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혹은 실제 이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와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워 수업의 내용과 질이 교수자 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모임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과정의 수업 구성원과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와 통번역 전공이 융합된 바람직한 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개발 기초연구

목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수업 구성원과 현장에 한국어교육과 통번역 전공이 융합된 맞춤형 수업 방안과 모형을 모색하고자 함

3. 연구 진행 내용

3.1. 선행연구 분석

최근 들어 모든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한국어 최고급 과정에 대한 학습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대학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시사 한국어 위주의 최고급 과정을 설치하고 있으며 통번역 과정도 개설되고 있다. 또한 국내 통번역 대학원에서도 외국인 학습자의 증가로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전공의 설치도 늘어나고 있다. 오수진(2015)에서도 한국어 능력 수준이 고급 이상에 달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번역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이 유용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번역을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배우고 느끼는 점과 번역 과정을 통한 한국어 구사력에서의 향상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전공의 특성상 한국어교육의 영역과 통번역의 영역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 교수자의 전공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다. 성초림(2014)는 전문통번역사가 교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이 기능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적인 언어 지식이 부족하며 국어학 전공자가 교수자일 경우 전문적인 언어 지식은 풍부하나 통번역의 기술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전문통역사와 국어학자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닌 국어학자를 사례로 들어 언어 지식 중심에 치우친다고 했는데 언어 지식과 함께 맥락적 지식을 중시하는 한국어교육 전공자와는 다른 관점이다.

이와 함께 외국어 교육에서의 통번역 교육을 논할 때, 외국어 교육과 통번역 교육의 차이점과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임형재와 송은정(2015)는 통번역 목적의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점은 일반 한국어 학습자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언어 지식과 표현, 통번역 능력이라고 지적하면서 출발어로서의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훈련과 도착어를 한국어에 맞춘 연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번역 수업의 첫 단계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다양한 담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권진(2006)은 통역을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제시했는데, 수업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로 먼저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형성을 위하여 교사-학습자 간의 경험을 나누고 텍스트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의미 단위로 분석하여 한 문장씩, 혹은 의미 단위로 끊어서 순차 통역을 진행한다. 2단계와 3단계는 통역 능력을 향상하는 단계로 한국어교육과 통번역 교육의 혼합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곽중철과 홍설영(2012)는 통번역 교육에서 수업 모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전제를 공유하며 통번역 교육의 목표를 ‘실제적 통번역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제시하였다. 수업 단계를 살펴보면 한국어교육에서의 통번역교육과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이 통역 주제를 중심으로 사전학습을 해 온 상태에서 수업 첫 단계에서는 주제에 대한 간단한 정보 제공, 집단 브레인스토밍 후 바로 통역 실습에 들어가고 마지막 단

계는 동료평가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한편 외국어 교육에서의 통번역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과 통번역 교육의 실제에는 차이가 있다. 즉, 외국어 교육에서 바라보는 통번역이란 언어 숙달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의 한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교수법은 문법번역식 접근법뿐이라는 오해이다. 김연수(2017)은 기존 한국어교육에서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교수법에 활용할 가능성을 고찰하며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과 형식을 모두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육 방안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Kelly & Bruen(2015)에서 언어 교수에서 수업에서의 번역 사용에 대한 교수자의 부정적인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Morito & Lauren(2012)에서도 이미지 중심 교수가 번역 중심 교수보다 언어 산출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내보였다.

이와 반대로 Colina(2002)는 외국어 교육과 통번역 교육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둘은 의미 전달과 의사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같은 방향성 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철자(2010)은 통번역 교육 과정이 의사소통 기능을 중시, 언어의 사회적·문화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 통번역 교육이 외국어 교육의 의사소통적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자의 주장은 외국어 교육에서 '통번역'하면 떠오르게 되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한국어교육의 수업 모형은 작은 단위의 문법이나 어휘에서 출발하여 이를 확대하고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상향식 모형(Bottom-up Model)을 따르지만, 통번역 교육에서는 통번역의 내용을 예측하고 추론하면서 세부적인 의미를 찾아 나아가는 하향식 모형(Top-down Model)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통번역 교육에서의 수업 모형도 단계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대상 통번역 교육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수업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며 교육 과정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전공자와 통번역 전공자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수업에서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업의 목표는 무엇으로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3.2. 질적연구 수행

질적연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그룹은 통번역 교육을 전공하고 통번역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자이고 두 번째 그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영역에서 진행되는 통번역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이다. 이들 그룹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통번역 수업과 한국어교

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번역 수업에 대한 차이를 고찰해 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3인으로 그룹 1에 해당하는 교수자 1명과 그룹 2에 해당하는 교수자 2명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의 교육 배경에 대해 요약하면 아래 <표1> 과 같다.

그룹 1: 통번역 전공-통번역 수업

그룹 2: 한국어교육 전공-한국어교육전공 통번역 수업

그룹	참여자	교육 배경
그룹 1	A	학부는 영문학, 석사 통번역, 박사 응용언어학(교육 과정)
그룹 2	A	학부는 신문방송학, 석사 한국어교육, 박사 한국어교육
	B	학부는 사학, 석사 한국어교육, 박사 한국어교육

<표1> 연구 참여자 교육 배경

이 중 그룹 1-A 참여자는 석사 이후, 학부에서 교양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고, 1998년부터 해외 대학교에서 통번역 프로그램 강의를 시작하여 현재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 통번역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통번역 교육 전문가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관련 교재 사업을 맡게 되면서 한국어교육에서의 통번역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룹 2-A 참여자와 2-B 참여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교수 경험이 대부분이나 A 교사의 경우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통번역에 관심이 있어 학원 등을 통해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며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교재를 만들 때 참여한 경험이 있다. 또한 지역 사회 통번역 수업에서 현재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룹 2-B 참여자의 경우, 통번역에 관심이 있어서 취미로 통번역을 하고 있었고 번역 대회에 지원하여 상을 탄 경험도 있다. 이에 한국어교육 내 교재 번역을 비롯하여 많은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통번역 수업을 담당한 경험이 있고, 지역 사회 통번역 수업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를 주제로 분석하였을 때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두 수업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후 더 면밀한 검토와 대분류 소분류의 구분 등이 필요하겠으나 현재는 주제 영역에 한정하여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3.2.1 프로그램 및 수업 목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영역에서 통번역을 다루게 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만 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통번역 과정을 함께 구상하고 실행했던 그룹2-A교사는 최고급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이유로 들었다.

요구도가 되게 높았죠. 더 이상 6급까지만으로는 학습자 수준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6급 이상을 원했고 되게 현실적이고 사업적인 목적은 6급 이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국에 체류를 하고 싶은데 적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체류를 한다라는 거는 사업적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그룹2-A교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통번역 수업은 한국어 수업의 연장선에서 최고급 과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 내용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업의 목적에서도 통번역 수업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통번역 수업의 목표가 통번역 스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통번역 수업은 통번역의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목표는 다르죠. 통역 수업에서는 통역 스킬, 번역 수업에서는 번역 스킬을 가르친다가 목표이고 언어 숙달에서는 그런 통역 번역을 잘할 수 있도록 언어를 좀 더 발달시킨다가 목표죠. 통번역 수업에서의 스킬은 결국 전환이예요. 양쪽 언어 사이에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전환하느냐 그게 관건인 거지요. (그룹 1-A)

그룹 2-A 교사는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외에 진행한 지역 사회 통번역 수업에서도 비슷한 목적 및 목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어학당 7급 과정을 만들고 교재를 집필했어요 이 과정은 한국어 능력을 향상해서 차후에 통번역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정도였지, 본격적인 통번역사 목적의식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하는 센터 수업도 비슷한 상황에서의 요구이고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룹 2-A)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업 목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에서의 어휘와 표현 수업과는 차이가 있으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그 직무 상황에서의 한국어에서 그 직무 상황에서 필요한 어휘와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직무 상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도라고 생각해요. 한국어의 어려운 텍스트를 충실하게 이해하고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그거를 자기 말로 한국어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했던 바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산출을 해낸 거를 보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룹 2-A)

그룹 2-B 교사의 경우에도 교과목의 학습 목표는 번역 능력 습득과 한국어 능력 향상의 두 가지였고, 실제로 추후 통번역을 하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번역 경험 및 능력을 나누고자 하였다. 그런데도 스스로가 한국어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것 같다고도 언급하였다.

여기에 교과목 학습 목표를 쓰라고 했을 때 제가 쓴 것은 영한-한영 번역 능력 습득과 언어 실력 향상이고요. 번역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또 번역이라는 추상적 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한다, 였지만, 제가 스스로 세운 학습 목표라고 한다면 그 양 언어 간의 차이점 그리고 양 언어 간의 양식의 차이점을 알고 또 이런 문화적인 차이점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번역하고 번역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제가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을 그 학생들이 나중에 통역 번역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었고 실제로 번역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해결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걸 어쨌든 한국어교육 기관에서의 최상위의 목표잖아요.

제가 한국어교육 전문가로서 이 번역 수업을 할 때는 한국어의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한국어의 선택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 줘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아마도 한국어 학습자의 실력을 더 늘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룹 2-B)

또, 이 교사는 스스로 인식뿐 아니라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도 이 수업을 통번역 수업이라기보다는 한국어교육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가 생각한 정체성은 조금 더 한국어교육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 자체도 이게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지 통번역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실습 시간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룹 2-B)

통번역 교육 과정에도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과 내용이 존재하고,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과정에서도 통번역에 대한 실습과 스킬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선후관계, 목적과 그를 이루는 방법,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언어가 가장 이상적으로는 같은 수준으로 발달이 돼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학

생들이 한쪽이 쳐져요. 그러면 그 쳐진 언어를 통역 번역 수업하면서 계속 보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역이나 번역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결국은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그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룹 1-A)

통번역 수업에서는 통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었고,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수업에서는 언어 능력 향상을 통한 통번역 능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언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통번역 능력 향상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일 수 있다는 관점을 보였다.

이 수업의 목표는 한국어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그 직무 상황에서의 한국어에서 그 직무 상황에서 필요한 어휘와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직무 상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룹 2-A)

이는 교육 목표뿐 아니라 교육 방법에 대한 차이를 수반하는데 실제로 같은 수업을 이전에는 통번역 전공자가 맡았다가 그 자료를 받게 된 그룹 2-B교사는 그 자료를 바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전에 했던 선생님의 수업 자료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그 선생님은 전문 번역가이기 때문에 수업이 정말 전문 번역가를 위한 훈련 수업이었어요. 자막 입히는 훈련? 시간에 맞춰서 하는 훈련, 정말 전문 번역가들이 하는 훈련을 했었고 제가 그거를 참고를 하려고 해도 참고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저는 그 자료를 보고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로 바꾸는 작업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룹 2-B)

이러한 차이는 수업의 비중에서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데 통번역 과정에서는 통번역 기술이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역의 전체 교육 과정이 지금 4학기에 한 60학점을 하거든요. 그중에 언어 숙달은 4학점밖에 안 돼요. 포션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통번역대학원이더라도 말이 통번역대학원이지 아마 언어 교육을 절반 이상 해야지 되는 수준일 거예요. (그룹 1-A)

반면에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수업을 보면 한국어 강화 수업이 60% 정도이고 통역이 20%, 번역이 20%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통역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이고 나머지 3일은 한국어 강화(...) 한국어 강화 수업 같은 경우는 한국어 선생님이 당연히 하시는 거고 나머지 통역 실습 번역 실습은 통번역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룹 2-B)

3.2.2 수업 단계 및 특징

통번역 수업과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수업의 차이는 수업 단계 및 특징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통번역 전문 수업에서는 주로 <미리 준비 → 통역 실시 → 디스커션 피드백(동료 피드백) → 교수자 피드백>의 순서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실제 수업이 진행되기 전 준비 단계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이번 월요일 수업하는 영한 동시통역 수업을 예로 들면,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학생들한테 일단 이번 주 월요일 수업할 자료를 보내요. 금요일에 내가 수업을 뭘 할지를 알려주고 초기에는 학생들이 백그라운드 조사를 많이 하게 시켜요. 그 주제 연사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사를 다 해오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미리 줘서 미리 이제 동영상도 보고 오게 하고 동영상이 지금 사실 학생들이니까 현장 자료 가지고 통역하기가 무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연습 준비를 거의 다 하고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룹 1-A)

교수자가 미리 나누어 준 수업 자료에 대한 통역 수업 단계가 끝나고 나면 즉흥 통역이 진행된다. 즉, 준비된 통역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듣고 통역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수업의 단계는 위와 동일하다.

근데 자료를 정말 받지 않고 비슷한 거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자료 갖고 오는 거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하나씩 텍스트를 준비를 해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그 텍스트는 사전 준비 안 하고 통역을 해보는 거야. 통역 부스 들어가서 통역을 하고 그거 이제 시간을 봐서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또 피어 피드백을 하고 이 건 오늘은 타이트하네 그러면 내가 이제 전체 돌아가면서 부스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끝내는 거지. (그룹 1-A)

한국어교육 과정 내 통번역 수업에서는 교사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룹2-A교사의 3차시의 수업 진행을 살펴보면 <1차시: 어휘 및 표현 → 2차시: 텍스트 해독 (훑어 읽고 동일 언어 학습자 그룹 토의 이후, 이해 점검 질의응답) → 3차시: 활동 - 역할극, 모방문 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일부 통번역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한

국어 수업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그룹2-B교사의 경우 수업 진행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숙제 내준 거를 그 앞에 한 시간 정도 같이 보면서 한영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학생들에게 숙제로 내줄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영한을 한 2시간 반 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나머지 30분은 관련 텍스트를 영한으로 바꿔보는 거에 대해서 내주고 그거는 숙제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업 전에 그리고 이제 이런 숙제 같은 거를 내줬다, 라고 한다면 숙제를 내주는 거는 이렇게 원문 텍스트가 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자기가 찾아오는 거를 내줬었어요. 이런 걸로, 그거를 같이 번역을 해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계속 수업 전에 다 코멘트를 줬죠. 그래서 수업에 와서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르는 게 더 좋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왜 틀렸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학생들끼리 답을 찾아보도록 했어요. (그룹 2-B)

한국어교육 내에서의 통번역 수업에서는 이러한 수업 과정에서 보다 적절한 언어적 표현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 뜻이 더 살까?” 이런 거를 토론 위주로 해서 자기들끼리 조금 더 나은 표현을 찾아가게끔, 또 우리나라의 그런 표현들의 맛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룹 2-B)

3.2.3 수업에서의 동료 및 교수자 역할

통번역 전문 수업과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수업 모두에서 학습자 상호 간의 논의와 피드백은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동료 피드백 및 논의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문 통번역 수업에서는 동료가 교수자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피드백 정보원이며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로서로 피드백 다 그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통역을 들어 그래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번 통역에서는 오류가 뭐가 있었고 이런 건 좀 개선하면 좋겠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그 방에서 공유를 해요. (그룹 1-A)

교수자 역시 피드백을 주고 동료 학습자에 비해 전문적이고 영향력 있는 피드백을 주고 있지만, 동료 피드백과의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평가자 중에 하나의 정보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교수자는 동시통역 부스 바깥에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 부스를 돌아가면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 돌아가면서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걸 풀로 다 못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피드백과 내 피드백이 밸런스가 잡히죠. (그룹 1-A)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수업에서도 동료는 매우 중요한 상호작용의 대상이나, 평가자의 입장에 있지는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고 고민을 나누는 '동료'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저는 번역은 무조건 팀으로 번역을 하게 시켰어요. 팀 협력 학습으로 시킨 거죠. 팀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혼자 번역을 하는 건 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는 이 수업 시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학생들도 팀으로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룹 2-B)

물론 이러한 수업 방식과 역할 구분이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을 수 있고 더 다양한 교수자의 수업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학습자 간 피드백의 양식이 평가적 피드백의 양상보다 협동적 피드백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학생들끼리도 이제 그거는 여기 맥락에서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서로 야기하고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답을 찾아가니까 결국 번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통번역 교재에도 나오지만 '정답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다 스타일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약간 좀 안심을 하면서 정답은 없고 가장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오역을 하지 않는 이상 정답은 없다라는 거의 전제하에 학생들끼리 좀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한 것 같아요. (그룹 2-B)

3.2.4 수업 자료

전문 통번역 수업과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수업에 대한 차이는 수업 자료의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업 자료의 선정 및 제작이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자료를 선호하느냐 교육적인 자료를 선호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상호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실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육적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선정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는 교수자의 전문성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문 통번역 수업의 경우, 앞서 수업 단계에서 본 바와 같이 즉흥적인 통역 연습의 경우 통역 자료를 학생들이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의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통역 자료를 텍스트를 선정해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작업 자체도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주제로 비슷한 연설문을 찾아서 어쨌든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똑같은 또 인포메이션을 줘야 돼요 이 회의는 무슨 회의에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한 연설인데 통역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런 이런 이런 겁니다라고 친구들한테 정보를 주려면 제가 텍스트를 공부를 해갖고 와야 하니까 한 주마다 이제 그 과제를 또 텍스트를 좀 더 깊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룹 1-A)

반면 한국어교육에서의 통번역 수업은 주로 교사 중심의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자료를 그대로 제공했을 때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고 통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적인 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우선은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든 과정을 얘기하면, 상담 과정이라는 게 개설이 됐는데 상담을 도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과정에서 사용되는 1차 시의 상담 이론 교재를 다 받았어요. 받고 거기에서 어휘 난이도를 제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쓰이는 말들을. 그러면 그걸 1차시에 엑셀 걸 다 로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고 거기에서 난이도별로 다시 정리해요. 어휘 리스트 정리를 다시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알맞은 어휘다 아니냐를 선별해서 어휘 목록을 새로 만드는 거죠. 한국어교육 쪽 어휘 목록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심리 상담 직무를 맡은 이들이 꼭 알아야 될 어휘 목록이 나오는 거 그럼 그걸 기본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그 직무에서는 기본 어휘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룹 2-A)

제가 책을 다 참고해서 구성했어요. 번역의 실무 이런 책들 이론서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열심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제가 그런 텍스트를 번역한 경험이 있으면 이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라는 거를 물음을 던졌을 때 학생들도 나름대로 막 찾아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도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으니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장르에 대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번역에서의 유의점에 샘플 같은 거를 보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을 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룹 2-B)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자료 사용과 교육 자료 사용의 차이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전문 통번역 수업의 경우, 실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외비 등의 규정으로 실 자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경험에 바탕을 둔 실자료와 유사한 형태를 수업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전부 실제 회의자료예요. 요새는 기관들마다 기관장이든 누구든 그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연설했다 하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아카이브라고 해서 자료실이라든지 그런 제목을 붙여서 다 저장을 해 놔요. 동영상 동영상도 있고 아니면 그냥 텍스트만도 있고 그냥 텍스트만 있는 것도 만약에 그게 공개 회의였다 하면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기조연설도 있지만 전문가 패널 디스커션에서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졸업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시장은 사실 인하 우스라고 해서 기업 들어가는 거기서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직 안에 들어가서 하는 통역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면서 그거는 그런 자료는 또 공개도 안 해 대외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고 내부 회의고 비공개 회의고 이렇게 때문에 자료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런 데서 일하는 전문 통역사들이 우리 강사로 많이 오니까 자기들이 내부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을 똑 같이는 아니지만, 재생을 해가지고 교재로 많이 쓰죠. (그룹 1-A)

반면에 한국어교육에서의 통번역 교육에서는 교육적인 자료를 선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통번역 전문 수업에서 실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수정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휘에 대한 기본 교육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만들 수 없는 단어 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든 번역이든 사용력이 되게 중요하다면 그 맥락을 담고 있는 텍스트를 선별하는 거에 좀 신경을 써요.

근데 중국어 통번역이든 다른 반 수업 자료를 보면 실자료를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자료를 바탕으로 윤문을 해요. 왜냐하면 실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왔을 때 교육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은 제하고 압축적으로 윤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더 필수적인 어휘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그룹 2-A)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한국어와 통번역 전공이 융합된 바람직한 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이 연구는 질적연구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통번역 수업과 한국어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번역 수업에 대한 차이를 고찰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교수자의 전공에 따른 통번역 프로그램 목표의 차이다. 통번역 교육 과정에도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과 내용이 존재하고,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과정에서도 통번역에 대한 실습과 스킬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선후관계, 목적과 그를 이루는 방법,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수업 단계 및 특징의 차이점이다. 통번역 전문 수업에서는 주로 <미리 준비 → 통역 실시 → 디스커션 피드백(동료 피드백) → 교수자 피드백>의 순서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실제 수업이 진행되기 전 준비 단계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어교육 전공자의 3차시 통번역 수업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1차시: 어휘 및 표현 → 2차시: 텍스트 해독 (훑어 읽고 동일 언어 학습자 그룹 토의 이후, 이해 점검 질의응답) → 3차시: 활동 - 역할극, 모방문 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일부 통번역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셋째, 수업에서의 동료 및 교수자의 역할 차이다. 통번역 전문 수업과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수업 모두에서 학습자 상호 간의 논의와 피드백은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동료 피드백 및 논의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문 통번역 수업에서는 동료가 교수자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피드백 정보원이며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수업에서도 동료는 매우 중요한 상호작용의 대상이나, 평가자의 입장에 있지는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고 고민을 나누는 '동료'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넷째, 수업 자료 구성의 차이점이다. 전문 통번역 수업의 경우, 즉흥적인 통역 연습의 경우 통역 자료를 학생들이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의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어교육에서의 통번역 수업은 주로 교사 중심의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자료를 그대로 제공했을 때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고 통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적인 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통번역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통번역 수업의 차이점을 다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의 정체성과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수 방법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와 향후 인구 동향 및 산업 전반에 걸친 국제화 추세에 따라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더욱 다양해질 한국 사회에 필요할 다문화 배경 통번역인 양성을 위한 연구 및 현장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이번 교수법 연구모임은 서로 다른 전공자들이 교집합을 이루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수업을 주제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 연구모

임은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2그룹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해외 저널에 투고할 계획으로 꾸준히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중철 · 홍설영(2012). 통번역대학원의 통역 수업 모형 - 협력학습 중심의 영한 순차통역 강의 연구, 통번역학연구, 16(2), 85-114,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 김연수(2017). 외국어 교육을 통한 통번역 교수법 활용 가능성 고찰, 통역과 번역, 19(1) 1-16. 한국통역번역학회.
- 성초림(2014). 국내 통역번역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 관찰과 제안, 통번역학연구, 18(3), 361-376,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 오수진(2015). 한국어 최고급 학습자를 위한 번역 수업의 효과 연구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형재 · 송은정(2015).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현황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 303-33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정철자 (2010). 영어 교육을 위한 통번역 기법: 전문 통번역사 양성 수업의 고찰, 외국어 교육연구, 24(2), 19-4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최권진(2006). 통역을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이중언어학, 32(0), 349-379, 이중언어학회.
- Colina, S. (2002).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teaching and translation studies. *The Translator*, 8(1), 1-24.
- Kelly, N., & Bruen, J. (2015). Translation as a pedagogical tool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 qualitative study of attitudes and behaviours, *Language Teaching Research*, 19(2), 150-168.
- Morimoto, S., & Loewen, S. (2007),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image-schema-based instruction and translation-based instruction on the Acquisition of L2 polysemous words, *Language Teaching Research* 11(3), 347-372.

「효과적인 러시아 문학 교육 방법론 연구」

조준래 교원, 김준석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2022학년도 2학기에 실시한 본 연구모임에서는 우리 대학 학부 노어과(서울캠퍼스)와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글로벌캠퍼스),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노어노문학과에서 지속적으로 개설돼온 러시아 문학 교과과목의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러시아 문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련된 교수법 개발을 통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어 구사 능력과 러시아 문학의 숙지 수준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문학 전공 학문 후속세대 발굴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본 모임의 구성원들은 지난 몇 년간 양 캠퍼스의 학부에 개설된 강좌들(「19세기 러시아 문학과 사회」 「러시아 작가연구」 「러시아 문학사상과 이론」 「20세기 러시아 문학과 사회」)을 직접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위 과목들의 수업 현장에서 교수자가 실천해야 하는 필수사항과 효과적인 교수 방법에 대해 많은 토의를 가졌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효과적인 러시아 문학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교육 방법론 구축

목적: 학습자 중심의 효율적인 러시아 문학 학습 모델 개발

3. 연구 진행 내용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효율적인 러시아 문학 학습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 문화 이해의 기초가 되는 19세기와 20세기 러시아 문학을 학생들에게 습득·이해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작품의 시대 및 사회 배경에 관한 강의이다. 더불어 본 연구모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자칫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러시아 문학 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주도적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었다. 러

시아 문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업 시간에 학습할 적절한 분량의 문학 작품을 학생들이 해당 수업 시작 전에 충실히 숙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클래스 자료실과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원문을 해설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수업란에 미리 올려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수자는 미리 러시아어 원문과 대조하여 국역본의 잘못된 해석을 수정한 최종본을 참고자료로 올려 학생들이 작품을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자가 그 정확성과 가치를 충분히 검증·확인한 음원과 시각 자료, 러시아 인터넷 포털 내 노문학 자료, 각종 러시아시 및 러시아단편소설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내 관련 동영상을 소개함으로써 OSMU(원소스멀티유즈)의 방식으로 러시아 문학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의존하는 강의를 지양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 질문, 토론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는 교수자가 미리 준비한 수업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이 자율적·창의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시간은 20분 내외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학생들은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이해 수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발표 후 교수자 및 동료 학우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비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생의 발표가 끝난 후 발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논평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이후 이어지는 학생들 간의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명한 지침과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 비대면 수업일 경우 이클래스의 토론란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에 댓글을 올리고 교수자가 제기된 의견을 평가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유효하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의 지평을 넓힌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의 경우에 토론 점수를 최종 성적에 반영하는 것도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학 작품의 내용이 현대 러시아 사회 이해에 어떤 시사점을 제시하는가를 학생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서유럽과 러시아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이해 충돌과 이념적 갈등, 러시아 민족주의,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 등 오늘날 러시아의 현안과 관련된 이슈를 주요 문학 작품들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찾아보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문학 작품을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문화사에서 다루는 주제인 건축, 도시, 복식(의상), 의례 및 예절, 귀족문화, 민중문화, 미술, 음악, 공연예술과 관련된 모티프와 정보를 문학작품들 속에서 찾아보고 그 예술적 의미를 해석하도록 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다루는 주요 문학작품을 러시아 문화의 맥락 안에서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심리학, 종교학,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자아정체성, 인간관계, 신앙, 시장, 경제적 불평등)와 관련된 모티프와 정보를 문학작품들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찾아보고 러시아인의 심성과 영성,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해당 문학 작품의 특정한 문제를 심도 있게 성찰하도록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미리 공지하고 그 답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도록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해당 문학 작품과 관련된 음원과 영상 자료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작품 속 원어 문장의 언어적 요소를 밀도 있고 현실감 있게 학생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문화적 지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어 번역본과 러시아어 원본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문학번역의 문제점과 양 언어 간 문화적 차이도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 연구모임의 참여자들은 제한된 수업 시간 안에 내실 있게 다룰 수 있는 적절한 분량의 단편 소설과 시 텍스트 위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러시아 문학의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내는 것은 장편소설 형식이지만, 2시간 분량의 제한된 시간 안에 학습자가 소화해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자칫 피상적인 정보 전달과 수동적인 학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수업에서 교수자가 매시간 제시하는 새로운 학습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모임에서 작성한 아래에 제시하는 모델은 효과적인 러시아 문학 학습 교안의 한 사례로, 한국외대 양 캠퍼스에 개설되는 주요 문학 교과목(「19세기 러시아문학과 사회」 「러시아 작가연구」 「러시아 문학사상과 이론」)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진이 앞서 제시한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선정한 기본적인 작품 목록과, 수업 시간에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요 주제는 아래와 같다.

	작품	저자
1	<가엾은 리자>	니콜라이 카람진
2	<상념>, <보로디노>	미하일 레르몬토프
3	<청동기마상>	알렉산드르 푸시킨
4	<외투>	니콜라이 고골

주제1) 19세기 이전 시기 러시아 문학의 흐름 설명

교수자의 배경 강의

- 유럽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감상주의)에 관한 설명

- 18세기 러시아 사회상 소개

주요 학습 내용

- 18세기 유럽에서 러시아로 유입된 인간 존엄과 개성에 관한 기본 의식이 19세기에 이르러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 자리 잡는 과정
- 러시아적인 민족 공동체 의식과 결합한 인간상의 개념 변화 추이는 러시아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변모해가는 과정과 일맥상통하며 그 과정에서 언제나 러시아 문학과 문학적 사유의 역할이 주목받음
- 러시아가 유럽을 구한 1812년 나폴레옹 전쟁과의 관련성
- 전체주의와 합리주의, 계몽주의적 움직임과 농노제의 폐단이 공존했던 러시아 역사에서 인간, 개인, 민중의 문제는 18~19세기는 물론 전 러시아사를 통틀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화·정치적 과제로 남아 있음. 개인과 사회의 반목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작가들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진화하는 개성의 일례들을 끊임없이 문학 작품을 통해 제시함.

아울러 교수자는 러시아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기틀이 된 유럽의 문학 사조를 개괄함으로써 19세기 초 서구와 러시아 사회, 향후 학습할 문학 작품의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토론 문제:

-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 고전주의에서의 '모방'이란 무엇인가?
- 고전주의적 인간과 낭만주의적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17~18세기 러시아인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은 오늘날과 어떻게 다를까?

주제2) 러시아 감상주의와 러시아 환상 문학의 전통에 대한 설명

교수자의 배경 강의

- 러시아 감상주의와 러시아 낭만주의 설명
- 니콜라이 카람진의 생애와 작품(「가엾은 리자」) 소개

주요 학습 내용

<러시아 감상주의와 카람진>

- 러시아 문학사에서 개성의 가치를 언급하며 민중의 자주의식 형성을 촉진시킨 최초의 작가는 니콜라이 카람진(Николай Карамзин, 1776~1826)임.
- 카람진은 『러시아 역사』(1816-1817)에서 서양의 윤리적 이상을 러시아 역사에 접목시켜 이후 러시아 문학이 인간과 개성을 민족과 국가의 상호 관계적 틀 안에서 살필 수 있도록 시각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

교수자는 러시아 지성사에서 카람진과 그의 감상주의 문학이 차지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러시아 문화의 특성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 감상주의와 「가엾은 리자」>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분석과 토론

- 카람진은 에라스스트와 리자의 언어상을 빌어 인간이 어느 특정 사회 그룹 내에 제한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인간 개개인은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그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서로를 느끼며 마음만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동감, 동정이며 감상주의적 사고의 핵심임.
- 『가엾은 리자』가 이러한 감상성을 다룬 최초의 작품은 아니며 당시 수많은 작가들이 감정에 관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관해 썼음. 심지어 카람진보다 더 극단적인 감상주의적 사고를 보여준 이도 있었던바 수쉬코프(Михаил Сушков)의 작품 『러시아의 베르테르』(1801)에서 주인공은 리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음. 17세의 나이에 작품을 완성한 수쉬코프는 주인공이 죽자 자신도 따라 자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동감의 최대치 속에서 작가는 문학과 삶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위치, 감상주의가 문학 사조인 동시의 삶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 문학과 삶의 경계성에 관한 문제는 이후 20세기 러시아 모더니즘 문학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
- 우리는 왜 감상주의하면 카람진을 떠올리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리자 내부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코드의 존재를 상기해야 함.
- 고전주의는 인간에게 모범적인 시민이 될 것을 요구함. 모범적인 시민이란 세금을 제때 내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시민임. 작품의 화자는 리자의 아버지가 근면한 농부였다고 증언. 그렇다면 그는 모범적인 시민이었을 것이고, 비록 그의 죽음으로 가세가 기울지만, 리자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처자였을 것임. 이것이 고전주의적 사고임. 카람진은 고전주의적 전통을 작품의 배경으로 이용하면서 환경적 굴레를 넘어서는 감상주의적 삶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려 한 것임.
- 카람진은 유럽의 문학을 읽고 자란 유럽인으로, 유럽에서 유럽적 감상주의의 걸작

을 가져와, 그 새로운 옷과 고전주의라는 낡은 전통을 한 작품에 녹여냄. 따라서 『가연은 리자』는 고전주의적 요소와 감상주의적 요소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시대의 견본으로 평가할 수 있음.

토론문제:

- 우리는 왜 러시아 감상주의하면 카람진의 「가연은 리자」를 떠올리는가?
- 러시아 감상주의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 러시아 감상주의의 발생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제3) 19세기 러시아 사회와 낭만주의의 의미에 대한 설명(유리 미하일로비치 레르몬토프를 중심으로)

교수자의 배경 강의

- 러시아 낭만주의 문학의 특성 설명
- ‘레르몬토프 현상’의 본질 소개

주요 학습 내용

- 레르몬토프가 활동했던 19세기 초반의 러시아는 당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의 실패로 인한 상실감이 팽배하던 시기였음. 혁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념이었던 ‘자유, 평등, 우애’를 기초로 한 사회 건설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문학 작품에 자주 제기됨. 이런 면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주인공들은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그들은 혁명이념에 기초한 이상 사회 건설의 가능성에 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반응했음. 『지하생활자의 수기』(1864년)의 주인공이 피지배층의 “피가 삼페인처럼 치솟고 있다.”며 사회에 던졌던 분노의 항변은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하게 해줌.

- 프랑스 혁명은 상당 부분 계몽주의자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결과임. 디드로, 볼테르, 루소 등의 계몽주의자들은 이성과 바른 사상의 힘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꿨음. 인간 개개인의 생각이 바뀌면 사회도 틀림없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민중 계몽에 기대를 걸고 혁명 사상을 주도해 나갔음. 하지만 1789년에서 1794년의 짧은 기간 동안 변혁의 소용돌이는 계몽주의적 저항의 가치에 잔인성을 더함. 주지하듯이 혁명은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고 급기야는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함. 그로부터 10년 후 나폴레옹이 나타나 프랑스의 황제로 즉위하며 혁명의 종료를 선언하는바, 이는 레르몬토프가 살고 간 시대와 그 시대의 예술에 직접적인 여파를 남김.

· 레르몬토프의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그가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 낭만주의 예술은 인간의 내부 문제, '감정'을 강조. 표절할 수 없는 감정의 세계에 인간의 고유성과 본질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낭만주의 시인들이 인간의 내적 가치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신하기 때문. 낭만주의자들의 '가치문제'는 계몽주의자들이 언급했던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이 아닌 '자아'와 관계된 낭만주의적 고유성을 일컫는 것임. 낭만주의 시상의 중심부에 주변세계와 자신을 구분 짓는, 세상을 적대시하는 고독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설명될 수 있음.

· 레르몬토프의 주인공들은 (고전주의와 계몽주의 시대에 중시했던) 전통과 이성, 법 질서를 거부하며, 자유로이 현실 사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적 가치문제에 몰두하는데, 이는 19세기 러시아 사상계를 이끌던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 모두가 시인과의 정신적 거리를 좁힐 수 없었던 이유가 됨.

< '상념' (1838), '보로디노' (1837)>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분석과 토론

분석 포인트:

· 스물일곱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시인의 주된 활동 시기는 1830년대로 한정되며, 이 시기는 러시아 역사에서 '지성이 꽃피지 못한 시기'로 기록되는데, 그 이유는 니콜라이1세의 보수주의 정치에 있음. 니콜라이1세는 1825년에 데카브리스트 난을 제압하고, 1830~31년에 폴란드 농민 동요를 진압하는 등 사회 변혁의 가능성들을 제거하며, 이른바 '반동의 시기'를 개시. 점차 절대군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된 그는 '유럽의 헌병'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 유럽 민주주의 혁명의 불씨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여김. 대내적으로 그는 검열제도를 강화하고 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러시아의 젊은 지성을 길들이는 작업에 착수.

· 레르몬토프는 자신의 초기 작품 세계에서 낭만주의 시대의 절대가치인 개인의 고유성을 최대치로 표현했고, 연구자들은 이를 레르몬토프와 동시대 작가들을 구분 짓는 잣대로 사용. 하지만 그가 시인으로서 정점을 찍는 1837년 이후의 시에서 개인과 개성 못지않게 '세대'의 문제가 등장. 레르몬토프는 개인이 아닌 동시대인들의 집단적 초상을 묘사하기 시작. 이들 집단군은 니콜라이1세, '정치적 반동'의 시대를 산 사람들로서 소위 '1830년대 사람들'로 불리며 표트르 차다예프, 비사리온 벨린스키, 알렉산드르 게르첸 등 당시 진보사상가들이 '부끄러운 세대'라고 묘사했던 인물들임. 과연 '1830세대'의 무엇이 레르몬토프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의 어떠한 속성이 사상가들을 부끄럽게 했는가가 중요.

· 1838년의 시 『상념』은 1825년(데카브리스트의 난이 일어난 해)에 삶의 노선을 선택하고, 1830년대 본격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은 ‘1830세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레르몬토프의 작품에서 이 세대는 나폴레옹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낸 아버지 세대의 과업을 망각하고, 열정과 신념을 상실한, 육체는 젊지만 영혼은 늙어 버린 ‘잉여적인’ 세대로 묘사됨. 레르몬토프의 ‘낭만주의적’ 주인공들과 이들을 비교하면, 낭만주의적 주인공들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개성의 고유성을 표출했기에 현실의 자유를 필요로 하지만 ‘니콜라이1세의 사람들’, 1830세대는 굴복과 순종을 강요받은 이른바 ‘침묵의 세대’로 감정과 행위, 참여의 자유를 꿈꾸지 않음. 작품은 “슬프다, 내가 우리 세대를 바라보니”라는 문장으로 시작. 서정적 자아인 ‘내’가 ‘세대’와의 대척점에 위치, 관찰자로서 세대를 평가. 그런데 화자는 세대를 ‘우리’의 세대라고 표현함으로써 세대원에 ‘나’를 포함시켜 서정적 자아인 ‘내’가 비판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도록 함. 이 시에는 ‘세대’를 조명하는 세 가지 시점이 존재. 관찰자로서 세대를 조망하는 서정적 자아인 외부시점과 ‘내’가 세대에 포함되어 그 안에서 세대를 바라보는 내부시점, 마지막으로 시 후반부에 등장하는 세대를 향한 후손들의 시점이 그것임. 평가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일정한 첫 시점에서의 아이러니하고 풍자적인 음표는 이후 시점의 거리 변이로 인해 서정적이고 비극적인 기호들과 뒤섞임.

· 교수자는 19세기 초반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정치·사회적 상황이 유럽을 경험한 러시아 지성인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 시기는 농노제가 번성했고, 자본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음. 당시의 상황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추구했던 모든 이상과 기대가 소멸되었음을 의미. 낭만주의는 이상과 희망을 잃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슴에서 내뿜었던 열정의 응어리였음. 하지만 이후 역사의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선 젊은이들은 이제 원망과 분노의 시대를 접고 시대의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 ‘현실의 사실적 이해’,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슬로건으로 자리 잡기 시작. 교수자가 1830년대 후반 유럽과 러시아에 사실주의가 도래했다는 사실의 사회적 의미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 또한 중요함.

토론문제:

-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낭만주의 문학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러시아 ‘1830년’ 세대의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러시아 사실주의 탄생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주제4) ‘작은 인간’의 탄생①: 푸시킨의 『청동기마상』에 대한 설명

교수자의 배경 강의

- 표트르1세의 개혁 소개
- ‘페테르부르크 텍스트’ 설명
-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러시아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의 작품, 생애 강의

주요 학습 내용

<표트르 대제의 도전, 그 후 100>

· 아폴론 그리고리예프는 『푸시킨 사후 러시아 문학의 동향을 조망하는 글』(1859년)에서 푸시킨이 러시아 민족의 ‘전부’(всё)였다고 밝힘. 오늘날까지 인용되며 아직도 패러디되는 이 ‘나셰 프쇼’(наше всё)로 비평가가 의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

· 그리고리예프는 푸시킨이 러시아 민족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살피고자 한 최초의 시인이었다는 점에 주목.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인간 개성의 가치문제는 물론, 당시 러시아 삶이 직면했던 정치적이고 지극히 세태적인 문제가 모두 푸시킨의 작품에서 다뤄졌기 때문. 그의 뒤를 이어 등장한 체프, 네크라소프, 페트 등 러시아 황금 세기의 시인들은 푸시킨이 이뤄낸 이 ‘프쇼’의 각기 다른 ‘일부’만을 취했고 따라서 푸시킨은 러시아의 ‘모든 것’으로 남게 된 것임.

· 푸시킨의 천재적 재능과 그 재능의 민족적 크기에 관한 언급은 다수 존재함. 도스토옙스키는 “푸시킨의 등장은 러시아 민족에게 메시아적인 것이었다”고 연설했고, 게르첸은 “표트르1세의 역사적 도전에 러시아는 100년이 지나 푸시킨이라는 ‘거성의 등장’으로 답했다”고 시인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 교수자는 여기서 게르첸이 말하는 표트르의 ‘도전’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함.

· 표트르 1세(재위 기간 1682~1725)는 유럽에 뒤진 러시아를 개혁하고자 한 계몽 군주였음. 그는 러시아의 교육과 산업, 정치 제도 등을 빠르게 개편하고, 수도를 페테르부르크로 이전하는 등 재위 기간에 러시아의 근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 하지만 오랜 전쟁과 그의 강압적인 개혁은 수백만의 인명을 처참히 앗아감. 그의 치세 동안 제도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진 반면, 개인의 정치적·사상적 자유는 억압받음. 게르첸은 표트르가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 역사적 과정을 표트르의 ‘도전’이라 일컬은 것임. 그럼 과연 100년 후 푸시킨(1799~1837)은 이에 어떻게 응답했을까?라는 물음이 중요.

· 18세기 후반부터 유입된 프랑스식 계몽사상을 접한 러시아 지식층은 19세기에 이르러 평범한 인간, 그 개성의 존엄한 가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 이 시기의 러시아는 톨스

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등장했던 그 러시아로, 당시 알렉산드르 1세가 나폴레옹과 치른 1812년 전쟁은 러시아의 민족의식을 고양한 반면, 사회의 환부를 드러내는 시발점이 되었음. 러시아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고 유럽을 거쳐 파리로 입성한 러시아의 젊은 장교들은 이미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귀족계급의 자제들로, 그들은 유럽 곳곳에서 그곳의 삶을 경험하고, 불어로 신문을 읽었으며, 파리에서 급진적 사상의 자유를 맛보고 조국으로 돌아옴. 이후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유를 향한 열망이 움텄고, 이들의 집단 심리는 1825년 12월 젊은 장교들의 정치적 행동인 ‘데카브리스트 봉기’로 점화됨. 비록 반란이 실패로 끝나 데카브리스트 상당수가 처형되고 유배되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후 러시아 진보 진영의 사상적 기틀이 됨. 푸시킨의 나이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 13살, 데카브리스트 봉기 당시 26살이었음.

데카브리스트 중 상당수는 푸시킨과 친교가 있었음. 푸시킨과 우정을 나눴던 니키타 무라비요프가 반란의 실패로 시베리아 유형에 처하자, 푸시킨은 니키타의 아내 알렉산드라의 치맛자락에 꿰매어 서한(『시베리아로 보내는 서한』)을 친구에게 전달. 위험을 무릅쓴 그의 용기는 데카브리스트의 운명을 노래한 시 『아리온』(1827)에도 표현됨. 나아가 푸시킨은 러시아 지성사의 역사적인 첫 시도인 ‘데카브리스트 봉기’가 실패로 끝난 궁극의 이유를 찾고자 함. 푸시킨은 러시아와 유럽의 역사, 그중에서도 유럽의 중세사와 프랑스 혁명사를 공부. 억압과 해방의 역사는 푸시킨을 표트르 대제의 시공간, 표트르가 세운 도시로 안내함.

주요 학습 내용

<민중이 기억하는 페테르부르크-‘페테르부르크 텍스트’>

·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집필된 문학 작품 가운데서 장르 구분 없이 ‘페테르부르크’의 주제 색이 짙은 작품을 일반적으로 ‘페테르부르크 텍스트’라 부름. 러시아 문학이 세계 문학의 최고봉으로 자리했던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의 ‘페테르부르크 텍스트’는 세계 문학사에 빠르게 이름을 올림. 하지만 푸시킨이나 고골,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먼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님. 러시아 문학사에 페테르부르크의 주제는 도시 창건 직후인 18세기부터 등장. 교수자는 왜 러시아문학은 ‘페테르부르크’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을까?를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함.

· 러시아 문학, 더 나아가 러시아 전체는 태동 순간 페테르부르크를 이미 단순한 도시 이상의 무언가로 상상함. 페테르부르크는 새로운 수도로서뿐 아니라, 새로운 러시아의 상징, 러시아 미래의 운명을 짊어질 도시로 인식되었기 때문. 따라서 러시아 문학은 페테르부르크와 ‘나머지 러시아’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페테르부르크와 서구의 동질성을 강조

했으며,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대비시킴.

-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의 천도는 사회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킨 개혁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두 도시의 성격은 이분되고 대립적인 관계임.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과거,’ ‘전통,’ ‘정교회의 요람’이었던 동시에 보수적이고 정적이며 ‘타성’에 젖은 도시이기도 했음. 러시아의 새로운 수도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적이지 않은 ‘외국인들’의 도시, 전통이 전무한 ‘적그리스도’의 도시였던 동시에 유럽의 근대성을 갖춘 도시, 러시아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볼 수 있는 도시로 인식됨. 두 도시의 대립상은 ‘페테르부르크 주제’를 더욱 정교하고 풍성하게 가꾸었음.

- 페테르부르크에 현정된 18세기 러시아의 시문학을 살펴보면 유독 고대의 신화 요소, 신과 영웅 시학의 플롯과 수사가 다수 발견됨. 이는 이제 갓 유아기를 지난 신생 도시를 세계 고도의 반열에, 그 역사·문화적 계통에 편입시키려는 시인들의 의도와 관련 있음. 18세기 작가들에게 페테르부르크는 국가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불모의 늪지대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도시였음.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수도를 ‘기적의 도시’라 불렀음.

- 18세기 러시아 문학은 기적을 위해 희생된 수백만 민중의 삶은 언급하지 않았음. ‘기적’에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하지만 살아남은 민중은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음. 남편과 아버지를 여읜 민중의 기억은 ‘뺨 위에 세워진’ 적그리스도의 도시, 그 저주받을 도시를 위한 파멸의 신화를 짓고 있었음.

- 이런 페테르부르크 신화 구성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자연현상이 있었음. 그것은 해수면보다 낮은 늪지대에 세워진 도시가 운명적으로 겪게 되기 마련인 ‘물의 재앙’으로, 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은 언제나 홍수의 위협에 떨어야 했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홍수, 도시가 타고난 수해의 불가피성, 묵시록적인 홍수의 혼란상은 이 도시 특유의 파멸의 전설을 탄생시킴.

<푸시킨의 페테르부르크: 「청둥기마상」>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분석과 토론

분석의 포인트:

- 늪지대에 세워진 페테르부르크에서 홍수는 20세기까지 계속됨. 핀란드 만에서 네바강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과 물은 마찰을 일으켜 강물의 흐름을 바꿈. 흐름이 바뀐 강물이 본 강류와 충돌하면 강물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육지에 범람. 홍수는 1년 중 비와 바람이 가장 거센 가을에 발생하는데, 페테르부르크 대홍수는 1824년 11월과 1924년 9월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돼 있음. 이러한 홍수의 메커니즘은 앞서 언급한 민중 전설과 결합하여 홍수가 단순한 물과 바람의 충돌이 아닌 어떤 근원적인 힘들의 대립이라는 신화적 의미를 획득케 함.

· 이들 중 ‘누가’ 승리할 것인가? 민중은 이 ‘대결’의 결과가 도시의 운명, 더 나아가 러시아의 명운을 결정지으리라 생각. 1833년 집필된 푸시킨의 『청동기마상』은 그 지난한 100년의 대립사가 응축된 서사시임. 작품에는 군주의 역사적 사명과 국가 번영이라는 대의,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민중의 전설과 기억이 등장.

· 서사시의 제목인 ‘청동기마상’은 페테르부르크 이삭 성당 앞에 세워진 표트르 대제 동상임. 따라서 작품을 읽지 않으면 작품의 주인공을 도시의 창건자 표트르 대제로 알기 쉬우나, 그가 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를 작품의 주인공이라 할 수는 없음. 서사시에는 진짜 주인공 예브게니가 있기 때문임. 푸시킨은 ‘청동기마상’이라는 제목으로 하급관리 예브게니의 운명이 굽직한 러시아 역사의 줄기와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음.

· 푸시킨은 최초 집필 단계에서 예브게니를 비범한 인물로 구상. 주인공의 운명과 성격에 수정이 가해진 것은 집필 과정에서임. 푸시킨은 예브게니의 영웅적 속성을 제거하고 그를 평범한 시민으로 만듦. 이로써 서사시의 스토리는 어느 한 인간의 영웅담이 아니라 수백만 범인의 운명과 관계하는 이야기로 탈바꿈함.

· 작품 머리에 푸시킨은 작품이 1824년 11월 페테르부르크의 대홍수에 기초한다고 밝히고, 서문에 페테르부르크의 건설 과정과 그 이후 100년의 역사를 노래한 후 본문을 시작.

· 예브게니는 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가난한 하급관리임. 그는 서민형의 주인공인 셈인데, 문학 용어로는 ‘작은 인간’형의 주인공으로 지칭됨. 사회의 신분적 의미에서 ‘작다’는 뜻으로, 이 ‘작은 인간’은 푸시킨을 효시로 19세기 러시아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형임. 교수자는 러시아 문학작품에서 ‘작은 인간’ 유형을 발견하게 되면, ‘작으나마’ 그도 ‘인간’이라는 점에 주의하며 읽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함.

· ‘작은’ 주인공 예브게니는 당시 하급 관료들이 주로 거주했던 콜롬나(바실리 섬의 반대편)에 살았음. 그에게는 꿈이 있음. 여자 친구 파라샤와 결혼하는 것으로, 작은 집을 장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셈이었음. 작가는 그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를 묻고,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꿈이었다는 것을 결론에 제시. ‘작은 인간’의 소박한 꿈은 실현될 수 없음.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기 때문임.

· 100년 전 표트르 대제는 예로부터 도시가 세워진 적이 없던 핀란드 만의 늪지대를 가리키며 도시 건설을 명했고, 이로써 도시의 후세는 운명적으로 ‘물의 재앙’ 속에 갇히게 됨. 예브게니도 그 재앙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어 푸시킨은 1824년의 대홍수를 묘사.

· 파라샤가 거주하는 바실리 섬의 서쪽 지역은 당시 악명 높던 침수 지역 중 한 곳임. 이에 걱정에 사로잡힌 예브게니는 여자 친구를 구하려는 마음에 강을 건너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됨. 기진맥진해진 그는 청동기마상 앞 강변의 사자상 위에 주저

앉아 위쪽을, 하늘을 쳐다봄. 주인공은 홍수의 대혼란 속에 저 청동기마상이 가리키는 손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함인가, 위협하기 위함인가?를 회의함.

- 아침이 밝고 하늘이 잠잠해진 후 파라샤의 집이 사라진 걸 본 예브게니는 제정신을 잃으며, 그의 이성도 그 커다란 재앙의 결과를 견디지 못함. 이후 도시에는 겨울이 오고 봄, 여름, 가을이 찾아옴. 참사 후 1년, 예브게니는 페테르부르크를 배회하며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작품은 종결됨.

- 다시 가을, 다시 홍수의 위협이 다가오며 예브게니는 갑자기 모든 기억을 떠올리고 청동기마상 밑에서 전율함. 바다 밑에 도시를 세우라고 명령한 자, 도시를 비극의 굴레에 얹어맨 자의 얼굴을 본 것임. 누구의 죄인지 깨달은 예브게니는 분노함. 그는 청동기마상으로 다가가 “어디 두고 보자”고 나직이 속삭임. 분노에 찼지만, 소리치지 않은 건 아마도 공포 때문이었을 것임. 그는 ‘작은 인간’이었고 상대는 군주였음. 예브게니는 공포를 이겨내고 겨우 ‘속삭인 것’임.

- 교수자는 이 충돌 장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충돌이라 하면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것인데, 이 두 힘의 분쟁이 향후 러시아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 이 대립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비극적인 분쟁임. 왜냐하면 양측 모두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 청동기마상의 입장에서 페테르부르크의 건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표트르의 진실임. 한편 예브게니는 단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임. 지극히 당연한 개인의 권리를 추구한 것이며, 이것이 예브게니의 진실임.

- 교수자는 푸시킨이 『청동기마상』에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함. 작품은 국가가 ‘작은 개인’을 파멸시킨 끔찍한 사건을 묘사. 국가 발전의 역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비극적 모순은 향후 러시아 문학의 주요 주제가 됨.

토론문제:

- 러시아 문학사에 등장한 ‘작은 인간’의 등장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페테르부르크의 건설신화를 바라보는 푸시킨의 관점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

주제5) ‘작은 인간’의 탄생②: 니콜라이 고골의 『페테르부르크 산문집』에 대한 설명

교수자의 배경 강의

- 니콜라이 고골의 작품과 생애 설명
- 고골의 ‘페테르부르크 텍스트’ 강의

- 러시아 자연파 설명

주요 학습 내용

<고골의 ‘페테르부르크 산문’>

- 『청동기마상』 이후 ‘페테르부르크 주제’의 전개에 전환점을 제공한 작품으로 푸시킨의 『표트르 1세의 연회』(1835)가 꼽힘. 이 작품은 표트르 대제와 신하들의 화해 장면을 묘사, 당시 시베리아에 유형 중이었던 데카브리스트 당원들의 사면을 황제(니콜라이 1세)에게 우회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순과 분쟁, 국가의 대의와 인간 존엄 간의 충돌이 언젠가는 군주의 관용과 미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푸시킨의 희망이 시로 읊어진 것임. 하지만 시인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음. 『동시대인』의 창간호 첫 페이지에 시가 게재되지만, 시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체한 것인지 니콜라이 1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1930~40년대 ‘페테르부르크 주제’는 서구주의자들과 슬라브주의자들 간에 주요 논쟁거리로 자리 잡음. 슬라브주의자들의 페테르부르크는 개성을 억압하는 ‘차가운’ 도시이자 서구 관료주의적 폐단이 만연한 공간이었던 반면, 서구주의자들의 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의 근대성을 갖춘 도시, 러시아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됨. 니콜라이 고골의 ‘페테르부르크 산문’은 두 논쟁의 갈래 속에서 억압된 소시민의 고뇌를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과 신랄한 문체로 조명한 일련의 작품군임.

- 고골의 ‘페테르부르크 산문’은 총 다섯 편의 중편소설로 구성됨. 모음집에는 1835년에 출간된 세 중편(『초상화』, 『넵스키 대로』, 『광인일기』)을 비롯하여, 1836년에 집필된 『코』, 1841~42년에 출간된 『외투』가 포함됨. 이들 작품이 한 권에 묶인 것은 작가 사후의 일로, 다섯 작품 모두 페테르부르크를 무대로 하기 때문임. 교수자는 우크라이나 출신인 고골의 눈에 비친 러시아 제국의 수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함. 표트르의 개혁과 그 결과를 바라보는 고골의 시각은 어떠했을까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함.

『외투』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분석과 토론

분석 포인트:

- 교수자는 『외투』의 줄거리를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독려함. 이 작품은 천신만고 끝에 외투를 마련한 어느 가난한 관청 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 주인공은 문서를 옮겨

쓰는 것이 주요 업무인 하급관리로, 어느 해 가을 그에게 발생한 사건이 『외투』의 중심 소재가 됨. 그가 입던 외투가 너무 낡아 더 이상 페테르부르크의 추위를 견딜 수 없게 된 것임. 하는 수 없이 주인공은 어렵게 돈을 모아 새 외투를 장만하지만 길에서 강도를 만나 외투를 빼앗김. 그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장과 시의 유력인사(‘장군’)에게 찾아가 호소해 보지만, 유력인사의 관료주의적 권위에 압도된 그는 겁만 잔뜩 집어먹고 집으로 돌아옴. 외투를 찾지 못한 그는 앓다 숨을 거두게 되고, 그가 죽자 도시에는 밤마다 유령이 출몰해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빼앗는다는 괴문이 돌기 시작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유령은 얼마 후 유력인사의 외투를 빼앗고는 종적을 감춤.

· 고골은 하급관리가 새로 장만한 외투를 잃어버린다는 매우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로 당시 러시아 비평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음. 때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고골의 경우가 그러함. 이 관청 서기의 이름은 ‘악하지 않다’라는 어원의 ‘아카키’임. 『외투』의 서두, 한두 페이지 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를 읽다보면, 독자의 머릿속에는 이 ‘선하고 왜소하며 고독한’ 주인공의 ‘음성학적’ 형상이 만들어짐.

·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관청에 출근할 때, 수위는 그를 보고 인사는커녕 일어서지도 않음. 그것은 주인공의 계급이 낮기 때문이며, 이를 빗대어 화자는 ‘아카키’를 곤충 ‘파리’와 비교함.

· 주인공의 임무는 글을 옮겨 정서하는 일임. 그 이외의 업무, 이를테면 글의 단락을 조금 편집하는 일조차 그는 버겁다고 느낌.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는 관리들은 그를 조롱하기 일쑤이며, 급기야 그에게 서류를 던지기도 함. 이 서류와 종이는 이후 작품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형성함(러시아어로 서류와 종이는 동일 단어 ‘бумага’로 표기됨). 푸시킨의 『청동기마상』에서 ‘물’이 도시의 원혼적 재앙을 상징했다면, 고골의 『외투』에서 그것은 ‘추위’와 ‘혹한’으로 대체됨. 이때 종이의 하얀 바탕이 페테르부르크의 눈(혹한) 또는 혹독한(냉혹한) 인간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보호해줄 외투를 빼앗긴 이 하급관리의 절망은 치명성을 내포함.

·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청동기마상』의 예브게니와 같은 ‘작은 인간’임. 줄곧 묵적의 수단으로만 이용당한 ‘작은 인간’이 표출할 수 있는 분노의 크기를 고골은 ‘유령 장면’으로 제시한 것임. 작품에는 새 외투를 주문하고 얻는 과정에서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저녁을 굶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음. 관리는 외투를 마치 살아있는 여인처럼, 자신의 아내처럼 대함. 그에게 외투는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음. 페테르부르크의 추위는 ‘추위→눈→종이→서류→관료세계’의 연상과정을 통해 관료주의적 ‘냉혹함’을 표상하기 때문에, 외투는 이 하급관리를 둘러싼 도시환경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감싸는 정신적 피난처였던 셈임. 더욱이 화자는 외투를 주인공의 영적인 파

트너로까지 확대하고 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설의 사회풍자를 점차 기괴한 그로테스크로 바꾸어 놓음. 페테르부르크에 만연했던 비인간적인 세계관과 관료주의적 왜곡이 ‘외투’의 기이한 의인화를 통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임.

· 고골의 ‘페테르부르크 산문집’에 묘사된 제국의 수도는 이미 인위와 위선이 인간 본연의 속성을 압도해버린 공간이며, 인간 심리의 퇴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사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임. 그것이 지방 소도시에서 상경한 고골, 그의 눈에 비친 새로운 러시아의 모습이었음. 표트르 대제의 개혁으로 건설된 도시가 잉태한 냉혹한 삶의 환경, 바로 그 사회상이 천년의 문화 위에 이룩된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쉽게 기형적으로 곡해하기 시작했던 것임.

토론문제:

- 페테르부르크의 건설신화를 바라보는 니콜라이 고골의 관점은 푸시킨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 오늘날 페테르부르크의 지도에서 고골과 푸시킨의 작품 속에 묘사된 장소들을 찾아보고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해 말해보자.
- 서양 지성사의 휴머니즘 정신과 고골과 푸시킨의 문학은 어떤 공통점을 지니는가?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 우리 대학 학부 노어과(서울캠퍼스)와 러시아학과(글로벌캠퍼스),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노어노문학과에서 매 학기 개설되는 러시아 문학 교과과목에 대한 실용적인 교수법 마련에 일조할 것이다.
- 문화적 지식 획득과 어학능력 제고를 통합적으로 도모하는 문학교육 방법론에 일조할 것이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러시아 문학 교수법 마련에 일조할 것이다.
- 러시아 역사 및 러시아 문화와의 연계를 포함한 학제적 방법을 통하여 러시아 문학 교과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열의를 고취할 것이다.
- 러시아 문학 교과과목의 표준적인 교안 개발에 일조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철. “문학 개념과 영화적 상상력 - 교육현장에서의 시청각자료 활용 연구,” 『러시아어 문학연구논집』, 2008.

김상현. “러시아 구전문학 교육을 위한 풍물기행지도 제작(1) : 브일리나와 전설 장르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015.

김홍중. “문학 제재를 활용한 교양 수업 연구: 미메시스의 구축과 회복,” 『교양학연구』, 2022.

서상범. “러시아 문학 교양강좌 운영 사례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019.

최정현. “21세기 대한민국 고등교육 체제 내 외국어문학 전공으로서 「러시아 문학사」 교육과 연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슬라브학보』, 2022.

Якибова Д.У.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ЛИТЕРАТУРЫ. М.: Росси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дружбы народов, 2012.

Яковлев В.В.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ИЕ ОСНОВЫ ПРЕПОДАВАНИЯ ШКОЛЬНОГО КУРСА ЛИТЕРАТУРЫ: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Естественно-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2015.

<https://rustih.ru/>

<https://www.culture.ru/>

<https://poemata.ru/>

<https://rupoem.ru/>

<https://ollam.ru/>

<https://istihi.ru/>

<https://stihi.ru/>

<https://www.pravmir.ru/>

<https://pesni.guru/>

<https://mishka-knizhka.ru/>

<https://www.culture.ru/>

<https://www.krm.or.kr/>

「지역법 · 문화 교수법 연구」

조희문 교원, 김시홍 교원, 변해철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연구 주제의 참여자들은 수차례 교내모임을 갖고 공중보건안보, 에너지안보, 환경안보 등 안보(security) 개념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주제를 법률, 정치, 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학제간 논의를 한 바 있다.
- 이러한 시도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문화를 간과한 채 법률적 접근만 함으로써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우리나라 ODA사업이 온두라스에서 사업수행을 했으나 이해관계자인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을 간과하여 실질적 성과가 미약했던 사례, 이태리 정치에 녹아있는 로마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정치문화의 이해를 함양할 수 있다는 사실, 유럽에서 다양한 사유로 외국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반응 등 상당히 유의미한 법문화적 경험을 공유하였다.
- 이에 참여자들은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중 중남미, 동남아시아, 유럽 등 각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법문화 분야에서 학제 간 교수법을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유럽 · 동남아시아 · 라틴아메리카의 지역법 · 문화 교수법 연구

목적:

- 우리학교에는 학부와 대학원에 외국인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이들은 내국인 학생들과 함께 원강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다. 동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과 국제지역대학원 및 학부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원어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외국학생들이 내국인 학생들과 한국어로 수업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사회과학분야에서 영어로 수업을 받는 경우는 국제지역대학원 등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 우리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외국인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내외국인 학생들이 영어로 같이 수업을 하는 기회가 더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외대는 더 많은 강의가 외국어로 진행되어야 하고 더 국제화됨으로써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법학과 지역학 등 사회과학분야에서 내외국인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어떠한 교수법이 학생들 상호간에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더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찾고자 했다.
- 특히, 법학과 지역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떠한 교수법을 하고 있는지를 학제 간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 이러한 시도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문화를 간과한 채 법률적 접근만 함으로써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우리나라 ODA사업이 온두라스에서 사업수행을 했으나 이해관계자인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을 간과하여 실질적 성과가 미약했던 사례, 이태리 정치에 녹아있는 로마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정치문화의 이해를 함양할 수 있다는 사실, 유럽에 난민이 증가하면 어떠한 갈등과 사회적 분열 및 치유방식이 있는지 등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경험을 다국적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이에 참여자들은 중남미, 동남아시아, 유럽 등 각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2학기 수업을 통해 코로나 이후 온오프를 통한 학제 간 교수법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교수법 참여자들은 회의를 통해 각자의 수업방식과 강의특징 및 교수법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공유를 하고 외대에서 내외국인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에 관해 논의함

학부 EU전공 수업 사례

유럽의 국경과 이민 (Europ's Border and Immigration)

1. 수업개요

국제적 이민과 망명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세계화와 함께 본격화된 사

회현상으로 다양한 현실을 노정하고 있다. 송출국의 입장과 수용국의 입장이 상이하며 때로는 심각한 마찰과 갈등을 야기한다. 이 강의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민문제를 학제간 접근으로 분석하며 이론적 전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 수업 방식

강의, 특강, 세미나 및 발표수업

3. 강의 특징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EU전공 수강생은 물론이고 국제학부 내외국인 학생 그리고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교환학생들이 참석한 강좌

수강생 총 46명

4. 수업방식

1) 강의

강의 전반부 1/3은 이클래스에 관련 문헌들을 업로드하여 이를 읽게 한 후 감상문 내지 비판적 요약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습 효과를 보았으며, 본 강의에서 보충 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해 대화식 수업을 유도함

2) 특강 및 세미나

2회에 걸쳐 유럽으로부터 방문한 전직 대사와 학자를 초빙하여 특강과 세미나 실시

특강의 경우 11월 1일 전 주한 EU대사를 역임한 Michael Reiterer가 내교하여 “이민과 난민”에 관한 강의 이후 질의응답 진행함

세미나는 10월 4일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Tereza Novotna박사를 초빙하여 “유럽연합과 난민”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3) 발표수업 및 피드백

수강생들에게 연구주제를 선정하게하여 계획서를 받고 이에 대한 코멘트를 제시하였으며,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발표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럽 이민과 국경관리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5. 수업 평가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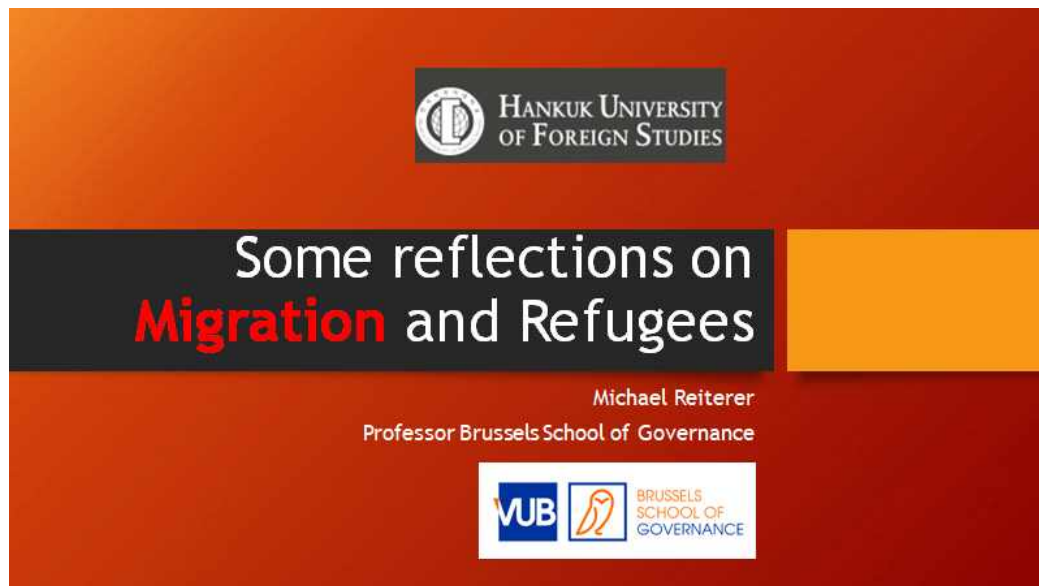
원어로 진행된 다국적 학생들에 대한 수업은 자칫 집중도가 떨어져 강의 효과와 교습법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수업에서는 학기초부터 국제이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또한 유엔 산하의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의 2022년도 연례보고서를 중심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을 소개함으로써 수업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한 예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중동국가들의 난민들에 비해 인근국들이 우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이중잣대라는 분석기준으로 제시한 점이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자평한다.

향후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하는 수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온-오프 라인을 겸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강좌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바, 외대 교수진들에 대한 관련 학습효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는 교수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11월 1일 전 주한 EU대사를 역임한 Michael Reiterer의 “이민과 난민”에 관한 특강 PPT 자료 일부 예시



Countries at war/in serious crisis in addition to the war in the Ukraine

Algeria, Burkina Faso, Cameroon, Chad, DR Congo, Mozambique, Niger, Nigeria, Tanzania and Tunisia, qualified as “terrorist insurgency”; in Colombia, a drug war & civil war; civil war in Myanmar and Syria; civil war combined with terrorist insurgency in Iraq, Libya and Mali; and ethnic violence in South Sudan

1951 Refugee Convention

- **Refugee** is “a person who is outside his or her country of nationality or habitual residence; has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because of his or her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and is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 or her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to return there, for fear of persecution”.

-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at <https://www.unhcr.org/3b66c2aa10>

- Exclusion grounds: Persons having committed a crime against peace, a war crime, a crime against humanity or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outside their country of refuge, or they are guilty of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 10월 4일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Tereza Novotná박사의 “유럽연합과 난민”을 주제로 한 세미나의 PPT 예시



*** 학생들의 PPT발표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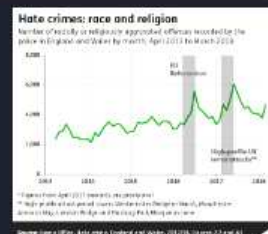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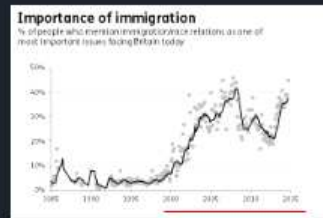


The Rise of Right-Wing Populism in the UK

- Prior to the 2000s, the UK had not had any significant far-right populist party since the 1930s
- **BNP (British National Party):** A far-right fascist/neo-nazi party founded in 1982. Promotes white supremacy, anti-immigration, and other fascist policies. Despite calls to ban the party, they gained some popularity between 2000-2010, such as 2 seats on the European parliament. (Was effectively replaced by UKIP from 2011)
- **UKIP (UK Independence Party):** Formed in 1993, UKIP was a single-issue party focused on leaving the European Union. They capitalised heavily off of anti-immigration sentiments of the white working class. They reached peak prominence, which has since declined, 2011-2016 (3 seats in European Parliament)
- **The Conservative Party (Tories):** Since Brexit, the Conservatives, while not becoming populist, adopted some populist policies in order to absorb UKIP voters. Eg. hardline Brexit, removal of the Human Rights Act.

The Impact on Migration Sentiments and European Cooperation

- The biggest impact: **Brexit**. The referendum was put forward by pro-EU Conservative David Cameron, in order to put a stop to the rise of UKIP. However, it backfired and the UK left the EU.
- Post Brexit, the migration policy of the UK was widely reformed, with removal of free-mov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points based migration
- There was also a notable increase in hostility towards migrants in the UK, particularly related to race and religion
- Opinions on the "importance of immigration" directly match up with the rise of the populist parties mentioned previously (2000-2016)



Europe Border & Immigration

Rosa Fey 202100163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사례

동남아 · 인디아법 (Southeast Asian · Indian Law)

1. 수업개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영역 1단계 강의로 1학년 2학기에 개설되며, 동남아 및 인디아의 법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함.

2. 수업 방식

강의, 특강, 세미나 및 발표수업

3. 강의 특징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2명이 수강하였음.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니고 졸업 후에 실무 종사 시에 필요한 과목임.

4. 수업진행방식

1) 강의

강의 자료(영어 및 한국어)를 이클래스에 업로드하여 사전 학습을 하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강의하였으며, 질의 응답을 통해 이해를 돕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음

2) 특강 및 세미나

대상 지역이 매우 광범위함을 고려하여 현재 실무적으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지역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및 세미나를 실시하였음. 예를 들면, 베트남 노동법 2회에 걸쳐 유럽으로부터 방문한 전직 대사와 학자를 초빙하여 특강과 세미나 실시

특강의 경우, 10월 19일, 베트남 노동법 전문가인 박재명 박사를 초청하여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법적 분쟁에 대한 강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세미나로는, 11월 18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최근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해 현지 학자/연구자들의 On/Off-line을 통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음

3) 발표수업 및 피드백

수강생들에게 국제학술세미나에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참관토록 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토의하였음.

5. 수업 평가 및 제언

강좌의 성격상 대상 지역 법제가 광범위하고 원어로 진행된 강의로서 언어상의 한계로 인하여 학습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사전 자료 제공 및 반복 학습을 통해 특히 동남아 지역 법제의 주요 특징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관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예정된 교육목표에는 도달하였다고 판단함.

*** 수강생들이 교내에서 진행한 동남아·인디아법 관련 국제학술세미나를 참관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업에서 토의하도록 한 국제학술세미나의 프로그램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2022

- Main topic: Major Legal Issues in Asian Countries:
In Indonesia, Mongolia, Thailand, Viet Nam and Korea
- Date: November 18 (Friday), 2022, 09:00 – 13:40
- Place: Auditorium of Main Librar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o-organized by Law research Institut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Korean Association of Vietnamese-Indonesian Law & Culture Studies (KAVINL&CS)

Program



Registration	08:30 -09:00	Auditorium of Main library, HUFS Dr. Cho Min Sung (HUFS)
Opening Ceremony	09:00 -09:20	Opening Speech: Prof. Dr. Byun Hae Cheol (President of KAVINL&CS) Welcome Speech: Prof. Dr. Cho Hee Moon (Dean of Main Library, HUFS) Congratulatory Remark: Moderator: Prof. Dr. Youn Seung Young (HUFS) "Changes in family law in the age of AI – the case of Indonesia" - Speaker : Dr. A. Muhammad Asrun (Pakuan University, Indonesia)
First Session	09:20 -10:50	"Online Sexual Harassment and the Legal Measures in Thailand" - Speaker : Dr. JOMPON PITAKSANTAYOTHIN (Dept. of Thailand, HUFS) "Big Data &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_ Speaker : Dr. Hong Sun Ki (Assoc. of Governors)
General Discussion 1	10:50 -11:20	
Coffee Break	11:20 -11:40	
Second Session	11:40 -13:10	Moderator: Prof. Dr. Cho Hee Moon (HUFS) "The evolving concept of family in Indonesian context" - Speaker : Dr. Wasis Susetio (Esaunggul Univ., Indonesia) "The Influence of Culture on the Formulation of Contract Law in Vietnam" -Speaker : Dr. Pham Thi Trang (Hanoi Prosecution Univ., Viet Nam) "Reforming legislative procedure in Mongolia" - Speaker : Dr. Battchen (National Legal Institute of Mongolia)
General Discussion 2	13:10 -13:40	
Closing Ceremony	13:40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라틴아메리카의 외국인투자와 환경문제: 사례연구

1. 수업개요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에서 개설한 『라틴아메리카의 외국인투자와 환경문제: 사례연구』는 투자유치와 환경보호의 이질적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투자와 환경의 갈등과 해결방식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론적 답변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함.

2. 수업 방식

첫 3주는 교수가 이론강의를 하였으나 학생들은 이클래스에 업로드된 강의논문과 강의교재를 매주 요약하였으며, 4주차부터는 학생들이 세미나 형태로 강의를 진행 함. 모든 학생들은 매주 강의논문을 요약하여 질문(Q)을 만들어 이클에 포스트하고 수업을 학생들이 주도하도록 하고 교수도 세미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질문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 및 이론적응 등 보완적 역할을 수행. 본 수업은 좋은 질문(good questions)이 좋은 대답(good answers)을 유도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학생들이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는 일종의 소크라틱 강의방식을 사용함. 학생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으나 논문요약과 좋은 질문을 찾아내는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함.

3. 강의 특징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로 등록수강생은 4명이었으나 실제 수업이 시작되면서 콜롬비아인 유학생 2명(석사 1, 박사1)이 남아서 끝까지 수업을 진행함.

4. 수업진행방식

1) 강의

이클에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의 부족함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 전에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고, 수업자료(영어,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도 이클에 업로드하여 사전 학습 및 요약을 하여 스스로 좋은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답변을 준비하여 (Q&A) 이클 오픈게시판에 올리도록 했다. 따라서 수업에서는 핵심 사항과 좋은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식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음

1주
차시추가

1차시 1st Class: Foreign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Issues in Latin America: case studies

학습인정기간 : 2022.09.01 오전 12:00 ~ 2022.09.07 오후 11:59 , 학습시간 : 1:03:37

☐ 외국인투자환경사례(1강_개설)_sd

☐ 외국인투자환경사례(1강_개설)_sd

33:51

✕ ↑↓

☐ 외국인투자환경정의(1강 투자와 환경정의)

☐ 외국인투자환경정의(1강 투자와 환경정의)

29:46

✕ ↑↓

콘텐츠 추가

2주
차시추가

1차시 2nd Class: Environmental Racism, Environmental Justice and Investment

학습인정기간 : 2022.09.08 오전 12:00 ~ 2022.09.14 오후 11:59

☐ 외국인투자환경(2강 인증과 환경정의)

☐ 외국인투자환경(2강 인증과 환경정의)

21:54

✕ ↑↓

2) 특강 및 세미나

중남미 지역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개 관심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통상,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남미의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과 중미 카리브 국가들을 선정하여 연구하게 된다. 국지원은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 및 국제기구나 로펌 등 실무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수업에 큰 도움을 준다.

이번 수업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멕시코 지역에 있는 로펌 변호사들과 연계하여 WebEx를 통한 세미나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낮에 수업을 진행하는 시차적 문제(19-22시에 진행하는 야간수업의 경우 현지 시각 오전에 참여가 가능함)를 간과하여 직접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그 대안으로 사전에 WhatsApp으로 통화하여 수업에서 다루지는 주요 사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들은 것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따라서, WebEx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살려, 수업시간을 잘 조절할 경우, 실시간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전문가들을 대학원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본다.

5. 수업 평가 및 제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원어 강좌의 성격상 언어상의 제약을 최소화하여야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음.

그 해결방안으로 이클에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음

또한, 학생들이 공통의 수업주제가 되는 기본교재와 논문을 요약하여 '좋은 질문'을 만들어 이클에 업로드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수업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큰 도움을 줌

WebEx나 Zoom등을 통한 수업경험은 이제 포스트코로나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가를 수업에 초대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경우의 대안으로 인적 역량을 동원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참여시키는 하이브리드 수업방식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글쓰기

검색 search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	Case Study: Oaxaca	자라 발렌티나 세룰베다 수아레즈	2022.10.11 오후 6:37	3
9	22-10-04 READING REVIEW	만틸자산체스카테리네	2022.10.04 오후 11:54	3
8	Summary: Environmental Conflicts and Justice in Arg...	자라세룰베다	2022.10.04 오후 11:07	3
7	22-09-27 READING REVIEW	만틸자산체스카테리네	2022.09.28 오전 2:05	5
6	Ecotourism, Park Systems, and Environmental Justice...	자라세룰베다	2022.09.27 오후 7:17	6
5	22-09-20 Reading review (Local Conflicts and Natura...	만틸자산체스카테리네	2022.09.20 오후 10:36	3
4	Summary - Contesting Trade Politics in the Americas...	자라세룰베다	2022.09.20 오후 10:09	6
3	Summary- TRACING RACE: Mapping Environmental Format...	자라세룰베다	2022.09.20 오후 8:15	5
2	Popular Environmentalism and Social Justice in Lati...	자라세룰베다	2022.09.13 오후 9:34	5
1	22-09-13 READING REVIEW	만틸자산체스카테리네	2022.09.13 오후 5:01	5

◀ PRE 1 2 3 NEXT ▶



글쓰기		검색		search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	Cochabamba and Chapare Cases of Study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1.02 오후 3:11	4
19	Summary: Popular Protest and Unpopular Policies: St...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1.01 오후 12:30	5
18	22-10-25 READINGS' REVIEW (3)	만틸자산체스카테 리네	2022.10.25 오후 11:01	9
17	22-10-18 READINGS' REVIEWS (3)	만틸자산체스카테 리네	2022.10.18 오후 11:56	6
16	CASE: Brumadinho Mining Dam disaster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0.18 오후 9:08	5
15	Summary - Grassroots regraming of environmental str...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0.18 오후 9:06	7
14	Summary- Environmental Justice and Agricultural Dev...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0.18 오후 9:06	8
13	22-10-14 READINGS' REVIEWS	만틸자산체스카테 리네	2022.10.11 오후 11:09	6
12	CASE: Environmental Justice in Mexico: The Peñoles...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0.11 오후 9:15	4
11	Case Study: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United Sta...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0.11 오후 6:40	3

◀◀ ◀ PRE 1 2 3 NEXT ▶▶

글쓰기		검색		search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	FINAL PAPER - EL CERRADO CASE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2.12 오후 9:23	4
29	TERM PAPER	만틸자산체스카테 리네	2022.12.12 오후 4:24	8
28	22-12-06 READINGS REVIEW (3)	만틸자산체스카테 리네	2022.12.06 오후 11:39	6
27	Water Justice - EJ Large-Scale Mining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2.05 오후 11:17	4
26	CHEPETE- EL BALA CASE - BOLIVIA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1.29 오후 10:53	4
25	22-11-29 READING REVIEW: CHILE CASE	만틸자산체스카테 리네	2022.11.29 오후 4:19	5
24	22-11-15 READING REVIEWS	만틸자산체스카테 리네	2022.11.15 오후 11:48	5
23	COLOMBIAN CASES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1.14 오후 8:22	7
22	THE CASE OF CHEVRON IN ECUADOR	자라 발렌티나 세 를베다 수아레즈	2022.11.08 오후 9:09	7
21	22-11-03 READING REVIEWS (3)	만틸자산체스카테 리네	2022.11.08 오후 4:18	10

◀◀ ◀ PRE 1 2 3 NEXT ▶▶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 EU전공수업인 『유럽의 국경과 이민』은 학부수업 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수준의 강의방식을 택했음. 특히, 학생들에게 연구주제를 선정하게하여 계획서를 받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발표수업을 진행하고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주제선정과 발표력 향상 및 리포트 작성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학생 스스로 다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교수가 평소 교류하는 수준높은 학자들을 EU연구소와 연계하여 초빙함으로써 학생들이 해외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학부수업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고 봄.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하는 수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또한 학교의 정책인 만큼 온-오프를 겸한 하이브리드 강좌(미러링 강좌)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강의실을 미러링이 가능하게 하고, 모션디렉터를 설치하여 외대 교수진들이 이러한 미러링 원강 교수법 개발과 교육역량을 확대하는 교육과 투자가 필요함

○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사례인 『동남아·인디아법 (Southeast Asian·Indian Law)』 강좌의 경우 앞으로 법조인이 될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때문에 비록 원어로 강의가 진행 된다고 하더라도 언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자료 제공 및 반복학습을 통해 동남아 지역 법제의 주요 특징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동 강좌의 경우도 담당교수가 베트남-인도네시아 법문화연구회를 통해 국제지역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세미나를 참관하고 현지 법률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강의실의 교육을 현장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대학원 교수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봄. 우리 학교에는 지역학회와 지역연구소들이 수시로 다양한 세미나와 전문가 초청특강 및 세미나를 관련 수업과 연계시켜 학생들이 현장 전문가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함

○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의 『라틴아메리카의 외국인투자과 환경문제: 사례연구』는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원강 과목의 특성상 담당교수가 충분한 원강 강의능력이 있어야 하나 내국인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의설계를 잘 해야 함. 동 강의의 경우 이클을 통해 플립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수업의 핵심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강의교재의 요약과 좋은 질문 작성을 의무화하여 수업의 선행 학습을 철저하게 하고 실제 수업은 세미나식 토론수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내국인 교원의 원강 강의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음. 아쉬운 점은 수업시간을 야간시간으로 배정하지 못해 WebEx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현지전문가를 수업에 참여시키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보완이 가능함.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 하이브리드 형태로 원강을 진행한 수업의 모범 사례를 알려주고 모의 강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교수법을 실제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해주면 좋겠음. 학생들의 강의평가는 학점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좋은 강의를 선정할 때 유념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강의평가시 최상위와 최하위 10%를 각각 평가에서 제외한 나머지 80%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음
- 미러링이 가능하고 모션디렉터가 설치된 강의실을 준비하여 하이브리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좋겠음. WebEx 하이브리드 강의는 국제화를 추진하는 우리학교의 경우 반드시 확대해야 함

「 LRS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과 효과 」

채유정 교원, 이정원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외국어 교육에 있어 어휘 학습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한국어는 다른 언어권에 비해 저빈도 어휘의 비율이 높아 많은 어휘를 습득해야만 텍스트의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어휘 교육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¹⁾ 이러한 현상은 중고급 학습자에게 더 중시되는데 이는 중고급으로 갈수록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어휘 학습량이 늘어나 학습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실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고급에서는 한자어의 비율이 높아 한자어권이 아닌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 대한 부담은 더 가중된다.

이상과 같이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 학습의 중요성은 일찍이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이와 관련된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 부족한 실태이다.²⁾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교육기관에서의 수업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능적인 교육과 문법에 치중되어 있고 어휘 교육의 시간은 비중이 적은 편이다.

이에 본 모임에서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 방안으로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학습자 반응 시스템(Learner Response System)³⁾ 중 하나인 소크라티브(SOCRATIVE)를 활용하여 어휘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
- 1) 서상규, 남윤진, 진기호(1998)에서는 영어의 경우 5,000개의 어휘로 93.5%의 텍스트 점유율에 이를 수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 5,000개의 어휘로도 텍스트 점유율이 81.3%밖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 2) 정주안(2019)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 중 어휘 교육 학위 논문 분석 결과 실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휘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습자 반응 시스템'은 교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퀴즈나 설문지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답을 함으로써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이승은, 2021:117).

대주제: LRS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과 효과

목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 LRS(특히 소크라티브) 수업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 학습자의 어휘 향상도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3.1 이론적 배경

2010년대 전후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등장하였고, 특히 2019년과 2020년을 지나면서 LRS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그 활용성이 높아졌다. LRS는 현장에서 교수자가 실시간 온라인 퀴즈나 설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 LRS(특히 소크라티브) 수업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 학습자의 어휘 향상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의 입장에서 수업이 가져오는 효과적 측면에서 LRS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와 질적 인터뷰를 통하여 해답을 얻고자 할 것이다.

최근 강의실에서 클릭어(Clicker) 사용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전에는 강의실에 노트북을 가지고 켜두고 수업을 듣는 것이 흔치 않은 풍경이었고, 때로는 매우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 현장에서는 노트북 뿐만 아니라 태블릿, 핸드폰을 펴두고 수업을 듣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교수자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클릭어는 소형 무선통신 장비를 말한다. 버튼을 간단하게 조작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회의 장소나 교실 현장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의사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외국어대학교도 최근 ‘전자출석부’로 출석을 관리하여 선생님이나 조교가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QR코드나 숫자 암호 등으로 출석을 체크하는 방법이다.⁴⁾ 또 4지 선다, 5지 선다, 혹은 OX 등 선택형 퀴즈를 내고 학생들이 정답을 입력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설정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어 학생들 입장에서도 비교적 스트레스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클릭어 형태는 기기 구입 등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약이 있지만, 이런 제약을 보완하면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4) 숫자 암호로 출석을 체크하현재 는 방식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LRS 수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소크라티브이다.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 논문 등에서 다양한 경로로 설명되고 있어 소크라티브 자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비교적 접근이 쉽고, 무거운 프로그램을 로드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CLASS의 경우는 수강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청강자,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부자, 학기 외의 수업 등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학 내의 수업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어학원 등 단기로 이루어지는 수업에는 적용할 수 없어, 이러한 조건에는 접근에 제약이 없는 소크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3.2 연구 방법

3.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고급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습자들은 일본, 홍콩, 미국, 캐나다 국적으로 한자어권 학습자와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학습 경력은 1년 이상이었으며 숙달도는 중상위권 학습자들이었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정보

	학생 번호	국적	성별	숙달도
1	S1	일본	여	중
2	S2	일본	여	상
3	S3	홍콩	여	하
4	S4	일본	여	중
5	S5	미국	여	중
6	S6	캐나다	여	중
7	S7	일본	여	상

3.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어휘 학습에 사용한 LRS는 소크라티브이다. 소크라티브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문제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즉각적으로 스마트폰

이나 컴퓨터로 답을 하여 수업 현장에서 바로 학습자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는 LRS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학습자들의 개별적인 학습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정답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현시점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1개, 혹은 그 이상의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소크라티브는 클릭커로 사용하여 수업 시간에서 시간 활용, 흥미 유발, 집중력 향상, 교육 방법의 다양성 추구 등의 점에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선생님-학생 사이의 빠른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면 교실 현장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소크라티브에서는 객관식 문제(Multiple choice), OX 문제(True/False), 단답식 문제(Short Answer) 등의 문제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문제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활용해서도 문제 출제가 가능하며 문제 아래의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해 문제의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여러 개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소크라티브에서 입력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이메일과 비밀번호 설정으로만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등록 후 로그인을 하면 ROOM NUMBER가 생성이 된다. 학생들은 SOCRATIVE-STUDENT로 교수자의 방번호를 입력하면 퀴즈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방번호는 해당 QUIZ set에 대한 방으로 Quiz set을 변경하면 방번호가 바뀌며, 방번호는 임의로 정할 수 없다.

Quiz set을 만드는 방법은 주로 2가지가 있다. 먼저 강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질문이거나, 교실 현장에서 바로 응답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Single Question Activity에서 답지가 다수인 항목을 만들 수도 있고, OX의 2개 선택지 항목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간단한 주관식 답변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가 응답 방식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학생이 문제를 넘기면서 답변을 입력할 수도 있고, 교수자가 문제를 넘겨줄 수도 있다.

모든 응답이 완료되면 이메일이나 혹은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결과(Result)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학습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학습자들이 선택한 답과 전반적인 정답률을 확인할 수 있다.

3.3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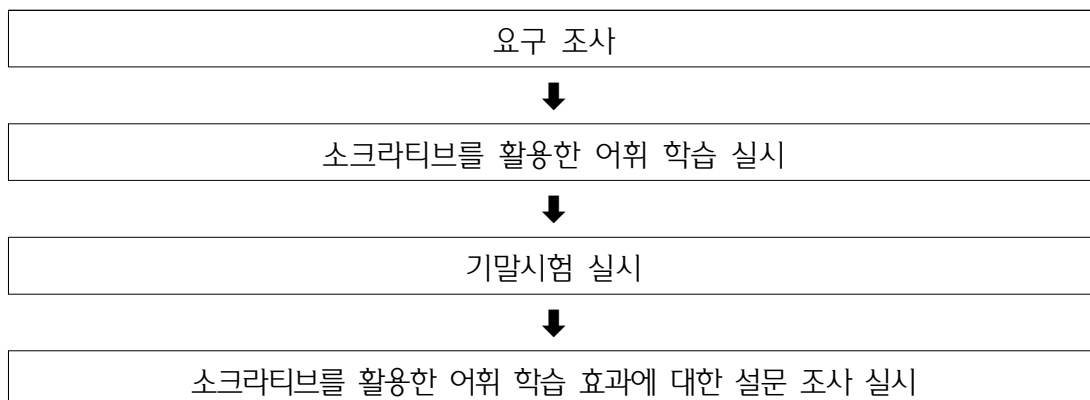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앞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휘 학습에 있어 어떤 난점이 있는지에 대해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고급 단계에서 제공되는 어휘량이 많아 이를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비한자어권 학습

자들의 경우 어휘의 의미를 가늠할 수가 없어 어휘 학습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급 단계의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다의어 학습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요구 조사를 거쳐 중간시험 이후 매 단원 학습이 끝난 후 10개 문항을 출제하여 소크라티브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문제는 모두 객관식으로 제공되었으며 출제된 문제는 학습자들에게 단원 학습이 끝난 후 소크라티브의 특정한 동일한 문제를 여러 차례 풀 수 있으므로 기한을 두어 기한 내에 여러 차례 풀도록 유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학습자들은 중간시험 이후 한 달 동안 학습한 단원의 어휘 문제를 풀고 기말시험을 치루었다. 기말시험 후 학습자들의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김희진·허광(2016)에서 제시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적절한 문항으로 수정하여 구글 설문지 형식으로 제공되었으며 문항 수는 총 10개로 만족도, 흥미도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에 따른 7개 문항과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자유 답변 문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절차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절차



3.4 실제 적용 사례

학습자들에 단원별로 제공된 어휘 학습 문제 출제 시에는 요구 조사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한자어와 다의어를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되 문맥 속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화의 형태로 출제하였다. 특히 한자어일 경우에는 문맥에서 사용된 한자어와 비슷한 의미의 한자어를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문항 마다 힌트를 설명 부분에 제공하였다. 힌트 제공 시에는 각각의 한자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 해당 어휘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측하게 하였다.

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그 참혹한 <u>광경</u>이 뉴스를 통하여 전 세계에 방송되었다. A 모습 B 내용 i 광경(光景): 광(光)은 '빛나다', 경(景)은 '경치'라는 뜻이에요.	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저는 제 반려견으로부터 큰 <u>위안</u>을 받고 있습니다. A 위로 B 위기 i 위안(慰安) 위(慰)는 '위로하다', 안(安)은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	---

<그림 1>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한자어 문항 예⁵⁾

한자어 이외에도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어휘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화에 사용하여 빈 칸에 알맞은 어휘를 찾아 넣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였었다. 이는 학생들이 문맥 속에 사용되는 어휘들의 의미를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러한 문항 역시 해당 문제 아래에 의미를 쉽게 설명하는 힌트를 주어 학습자들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6. 다음을 읽고 _____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A: 주말에 바다 보러 잘 갔다 왔어요? B: 네, 오랜만에 쉬었더니 _____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A 한결 B 한참 i '이전에 비해서 더'라는 뜻이에요.	7. 다음을 읽고 _____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A: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노래를 _____? B: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A 중얼거려요 B 흥얼거려요 i 기분이 좋아 입속으로 노래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	---

<그림 2>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문항 예

다의어 문제의 경우에는 동일한 다의어가 사용된 3개의 문장 중 잘못 사용된 것을 찾는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각 문장 속에서 사용된 다의어를 보고 해당 어휘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9. 밑줄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골라 보세요. A 룸메이트가 내 <u>편을 들지</u> 않아서 섭섭했어요. B 가을에는 산에 <u>단풍에 들어</u> 등산객들이 많아져요. C 어제 밤에 집에 <u>도둑이 들어서</u> 집이 엉망이 되었어요.	9. 밑줄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골라 보세요. A 할아버지께서 <u>기운을 차리시고</u> 병상에서 일어나셨다. B 결혼식에 갈 때는 <u>격식에 차리고</u> 입고 가는 것이 예의다. C 엄마가 외출하려는 것을 아이가 <u>눈치를 차려</u> 울기 시작했다.
--	---

<그림 3>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다의어 문항 예

5) 제시된 문항 예는 소크라티브에서 교사용으로 접속하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답과 설명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이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i'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클릭을 했을 때에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6과부터 9과까지 중간시험 이후 총 4개 단원에 해당하는 어휘 문제를 단원별로 각 10개 문항씩 총 40개의 문항을 제공하였으며 학습자들은 총 40개의 문항을 풀 후 기말시험에 응시하였다. 약 1달 간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는 학습자들이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같은 단원도 여러 차례 학습이 가능함을 알려 주어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4.1 설문 조사 결과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학습이 끝난 후 학습자들에게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 작성 후 한국어 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 2인에게 이에 대한 검증을 받아 설문 문항이 수정되었으며 최종 수정된 문항은 구글 설문지 양식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설문 조사지 1번부터 7번까지는 학습자들의 만족도와 흥미도에 대한 것으로 리처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학습이 실제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를 통해 어휘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는지, 실제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어휘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했는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8번부터 10번까지는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앞으로 이를 활용해서 어휘 공부를 한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의 장단점을 자유롭게 쓰는 단답형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설문 문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을 읽고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단어 학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해 주세요.

1.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단어 연습이 단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

1 2 3 4 5

거의 그렇지 않다 ○ ○ ○ ○ ○ 매우 그렇다

2.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단어 연습으로 한국어 단어 사용에 자신감이 생겼다. *

1 2 3 4 5

거의 그렇지 않다 ○ ○ ○ ○ ○ 매우 그렇다

3.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단어 연습이 나의 단어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

1 2 3 4 5

거의 그렇지 않다 ○ ○ ○ ○ ○ 매우 그렇다

4.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단어 연습이 실제 나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

1 2 3 4 5

거의 그렇지 않다 ○ ○ ○ ○ ○ 매우 그렇다

5.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단어 연습을 통해 한국어 단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1 2 3 4 5

거의 그렇지 않다 ○ ○ ○ ○ ○ 매우 그렇다

6.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단어 연습이 기존의 수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1 2 3 4 5

거의 그렇지 않다 ○ ○ ○ ○ ○ 매우 그렇다

7.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단어 연습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

1 2 3 4 5

거의 그렇지 않다 ○ ○ ○ ○ ○ 매우 그렇다

다음을 읽고 소크라티브 앱을 활용한 단어 학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8. 단어 학습에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학습이 도움이 되었던 점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

내 답변

9. 앞으로 단어를 학습할 때 소크라티브를 사용해서 한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 써 주세요.

내 답변

10. 다른 단어 학습 앱(퀴즐렛)을 통한 단어 학습과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단어 학습 *의 각각의 장단점을 써 주세요.

내 답변

뒤로 제출 양식 지우기

<그림 4>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에 대한 설문 조사지

설문 조사 결과,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이 어휘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냐는 문항에 85.7%의 학습자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이 생겼는지를 묻는 문항에도 동일한 85.7%의 학습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만족도 부분에서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연습이 자신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험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이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만족감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도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어휘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었냐는 질문에 71.5%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수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었냐는 문항에는 100% 전원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실제로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어휘 학습의 부족한 면을 소크라티브 학습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크라

티브를 활용한 어휘 연습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85.7%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소크라티브 학습이 어휘 학습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묻는 단답형 질문에 어휘 사용법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비슷한 어휘가 선택지에 있어서 다양한 어휘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문장으로 어휘가 제시되어 이해하기 쉬웠다고 답변하였다. 실제 해당 학생들은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퀴즐렛(Quizlet)⁶⁾을 통한 어휘 학습 후 모국어로 제시된 어휘의 의미를 보고 해당 한국어 어휘를 쓰는 퀴즈를 보지만 실제 어휘 활용도에 있어서는 사용 방법을 잘 몰라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문장 속에서 한국어 어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문제 제시시 문장 속에서 해당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장 형태로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유형이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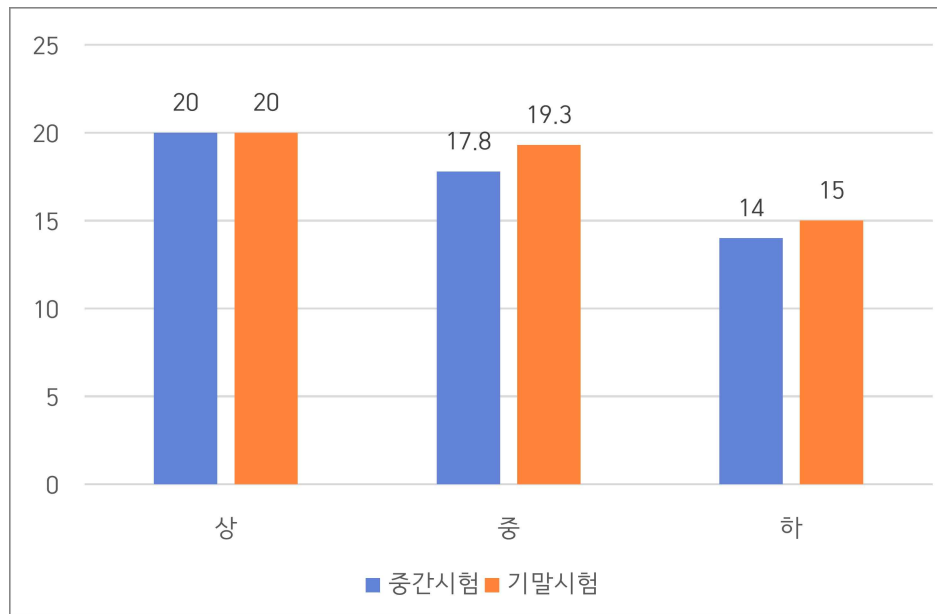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질문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선택지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등과 같이 답변하여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기존에 어휘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퀴즐렛과의 비교를 통해 소크라티브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한국어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어 한국어 어휘를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어 좋다는 장점과 학습 기한이 있어 기한이 지나면 다시 해당 단원의 어휘를 학습할 수 없다는 단점을 들었다.

이상과 같이 설문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은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에 대체적으로 만족했으며 한국어 어휘 학습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이를 활용한 어휘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 한국어 어휘 실력 향상도

실제적으로 설문 조사의 결과와 같이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 실력에 향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학습자들이 소크라티브를 활용하기 전인 중간시험의 어휘 성적과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 후인 기말시험의 어휘 성적의 향상도를 확인해 보았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학습자들의 숙달도별 어휘 성적 향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본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에서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는 퀴즐렛을 활용한 어휘 학습은 한국어 어휘의 뜻을 모국어로 제시해 주는 형태로 제공된다. 학습자들은 퀴즐렛을 통해 한국어 어휘의 뜻을 모국어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그림 5>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에 따른 성적 향상도

총 20점 만점의 어휘 문제 점수를 봤을 때 7명 전체 학생들은 중간시험에는 평균 17.9점을 받았으나 기말시험에는 18.9점으로 평균적으로 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도에 따른 어휘 성적 향상도를 살펴봤을 때 숙달도 상인 학습자들은 중간시험과 기말 시험에 모두 만점을 받아 성적 향상에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숙달도 중인 학습자들은 중간시험 때는 20점 만점에 17.8점이었으나 기말시험에 19.3점을 받아 대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도 하인 학생도 중간시험에 비해 기말시험에 어휘 시험의 점수가 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실력 향상은 숙달도 중인 학생들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숙달도 중인 학생들 중에는 비한자어권 학생들도 속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에도 중간시험에 비해 기말시험에 어휘 시험 점수가 10%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4.3 결론

이상과 같이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학습은 학습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나 성적 향상도를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어 어휘 학습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수업 시간 이외에 다양한 LRS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학습은 앞으로 한국어 어휘 교육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

은 학습자들의 수적 제한이 있어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어휘 학습 후 이러한 학습 방식이 일반적인 어휘 학습 방식 보다 유용하다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으며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LRS가 어휘 교육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논문에서 증명된 바가 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반하지 않으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효과적인지에 대한 제언을 하려고 한다.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는 LRS를 활용한 어휘 학습이 정기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문항 출제 시에는 문장 형태로 문제를 작성하여 학습자들이 실제로 해당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요구에 걸맞게 보다 다양한 문항의 형식으로 문항 수를 늘려 주기적으로 퀴즈 형태로 제시가 된다면 실제적인 한국어 어휘 학습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의 운영상 수업에서 LRS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학은 현재 강의 자료, 공지 사항등을 제공하고 있는 E-CLASS에 QUIZ 기능을 추가하여 대학내 교원 및 학생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실현 된다면 소크라티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로는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극복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소크라티브 못지 않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실 내 운영 및 학교 시스템의 보완으로 실제 교실 운영에 도움이 되어 학습자들의 어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김희진·허광(2016), 사이버대학 영어 수업에서 스마트 앱을 활용한 혼합 교수,학습 방안 설계와 효과성 비교,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9(1), 86-113쪽.
- 박성배(2019), 영어 어휘력 향상에 학습자반응 시스템, 소크라티브(Socrative) 사용이 주는 효과, 영미어문학 135, 139-160쪽.
- 박정아(202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 방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INK)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118-142쪽.
- 박정아·이향(2021), 한국어 교육에서의 챗봇 빌더 활용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101-124쪽.
- 서상규, 남윤진, 진기호(199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 교재 8종의 어휘 사용 실태 조사(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1차년도 결과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이삭(2019),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AI 챗봇 활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말하기 수행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초등영어교육, 75-98쪽.
- 이승은(2021),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자어 교육 실행 연구 : 한자의 의미 연상을 활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주안(2019), 한국어교육에서의 어휘교육 방안 연구 동향 고찰 :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미 외(2012),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 한국어학당, 411-446쪽.
- 한상미 외(2013), 모바일러닝에 관한 한국어 학습자 의식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연구 교육원 한국어학당, 407-445쪽.
- 홍은실(2012), 한국어교육의 스마트러닝 구현을 위한 기초 연구, 國語教育學研究, 44호 585-612쪽.

「 시사 ·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

최병일 교원, 최봉제 교원, 임성택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지난 2년간 팬데믹 머니에서 비롯된 자산인플레이션, 가상자산 붐, 그리고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경제 · 금융 환경으로 인해 관련 지식에 대한 관심도도 급격히 높아졌으나 교과서와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교안은 이러한 현안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경제 · 금융 지식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많은 수식과 그래프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강의방식과 교재들은 이론에서 출발해 사례분석으로 이어지는 연역적 서술방식을 따르고 있어 학습동기 유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교수법 연구모임의 주된 목적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고취 및 시사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 경제 · 금융이론 및 분석틀의 실물경제 적용 능력 함양에 있다. 이를 위해 이론과 분석틀을 서두에 배치하고 사례와 자료 제시가 뒤따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교과서와 교안의 서술방식에 과감히 탈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교육공학적으로 학습자의 동기유발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메타인지를 학습에 이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제시되는 사례의 유용성과 시류적합도에 따라 관심도 자극에 얼마나 유효한지 달라질 수 있어 새로운 사례와 자료 발굴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며 매 학기 자료의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를 적절히 업데이트 하더라도 제시되는 사례에 따라 학습의 질이 균일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에 있어 교수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거시 · 금융 · 국제경제의 경우 관련 현안들의 미디어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제된 자료들이 풍부해 학습에 활용하기 용이한 측면이 크며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수집하기 편리하다. 하지만 미시 · 재정과 관련된 분과의 경우 데이터와 보고서 등 시사 현안과 관련된 양질의 자료들이 대부분 전문 경제연구소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원 석사 과정 이상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들이라 학습자가 이를 직접 학습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과별로 활용할 수 자료의 양과 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수자의 가공과 해석을 통한 2차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모임의 일원들은 다년간의 경제·금융 관련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해 온 경험이 있다. 특히, 서울소재 유수의 대학들(한국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에 이러한 자료들을 이미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 왔으므로 정제된 자료들을 향후 교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제신문을 활용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강의에 활용할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기업과 금융권 필기 및 논술 전형 과제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을 수업 중 과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모임의 일원들은 지난 1년 간 유튜브 경제채널 제작 및 감수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디어자료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미디어에 익숙한 현재 대학생들에게 학습동기와 흥미 측면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며 비상경제열 전공생의 경우 경제·금융 학습에 수반되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시사·미디어 자료 활용을 통한 경제교육 효과 제고

목적: 경제교육 콘텐츠에서 시사·미디어 자료 활용방안 연구 및 실제 적용

본 모임의 주된 목적은 경제·금융 교육에 있어 학습 동기를 고취해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시사·미디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시사 현안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해 질문을 먼저 던져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과 분석틀을 설명하는 방식의 서술을 제안한다. 경험상 시각화 자료의 경우 복잡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주요 학습 내용과 목적을 전달하기에 대단히 유용하다. 특히 동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현재 대학생들의 경우 유튜브로 제작된 경제·금융 이론과 현실의 사례 분석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시간의 제약으로 수업 중 모두 다루기 힘든 주제들의 경우 실제 공기업 및 금융

권 필기·논술 전형에 사용된 바 있는 주제를 선정해 이를 과제로 활용할 시 자기 주도적으로 자료를 찾고 이를 다루는 능력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수업 중 이미 배운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론과 분석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응용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제 경제 현안과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수입 외적으로 실물경제를 이해하는 안목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시사·미디어 자료의 적극 활용과 수업 서술방식의 변경을 통해 학습동기, 학습자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이고 실물경제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련 지식에 익숙지 않은 비상경제열 학생들이 막연한 가지고 있는 경제와 금융현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관련 지식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획득하는데 자신감을 갖추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나치게 이론적일 수 있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검증된 문항을 활용해 학습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문제풀이 과정을 교안에 적절히 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을 부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배가하고 이론과 분석틀을 활용·응용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 진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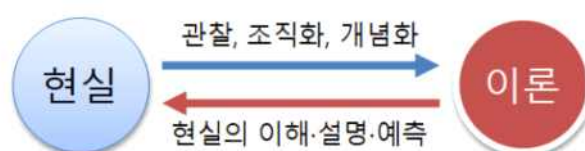
연구 수행에 있어 우선 시사 자료를 선정하고 학습 자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이점과 주의점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이론 설명에 매몰될 경우 학습자의 동기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바, 최근 미디어에서 접하여 인지 정도가 높은 사례를 이용할 경우 학습자의 집중과 성취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또한 현실사례를 개념화 하는 과정의 경험은 학습한 경제모형의 현실사례 적용의 숙련도를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경제교육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림 1] 시사자료를 통한 경제이론 학습의 장단점

<뉴스·시사 이슈의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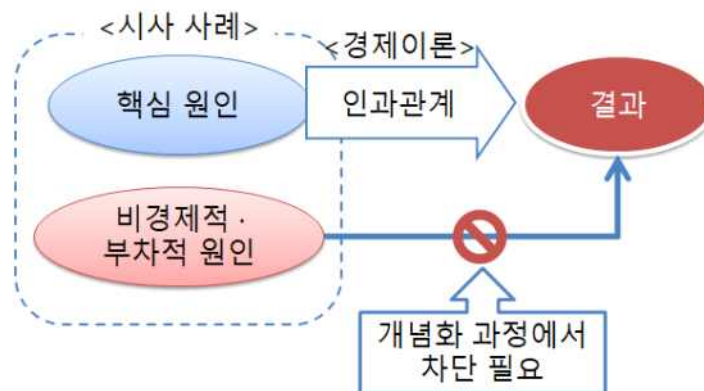
장점: 현실감 ↑, 학습동기 ↑, 학습내용의 현실적용 ↑

단점: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 현실 문제의 복잡성



그러나 시사성이 있는 자료라도 관련된 경제 이론이 불투명하거나 목표로 하는 이론과 관련성이 떨어질 경우 교육 목적에 적합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학습을 목표로 하는 이론에 있어 경제 모형과 관련이 없거나 해당 교육의 주제와 다른 부차적인 요인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학습자가 목적하는 경제적 인과관계보다 부차적인 개념에 더 집중하여 오개념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오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지양하거나, 사례 설명 과정에서 목적하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오개념 형성 방지 개념



이러한 점을 반영해 시사 이슈 중 경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는 원칙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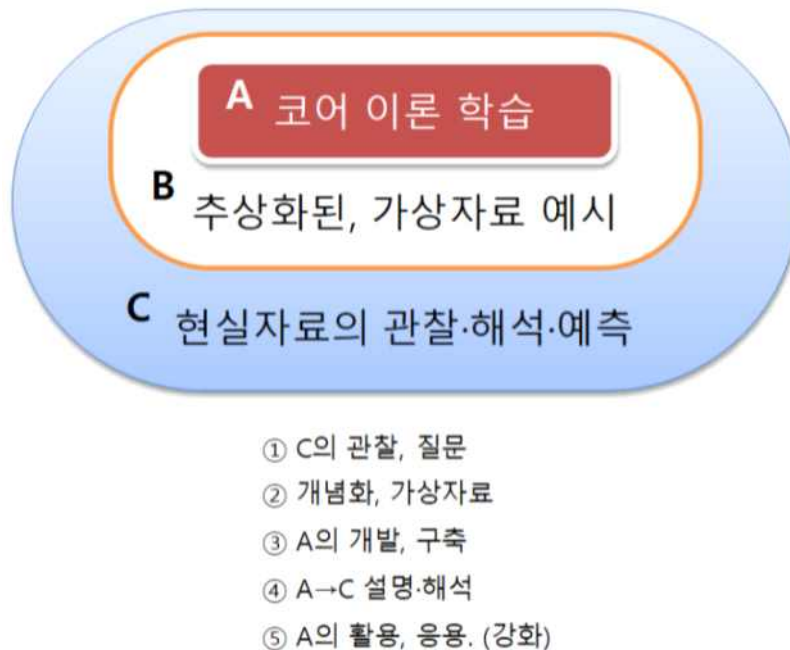
- 1)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경제 이론을 명확히 설정
- 2) 해당 이론에서 규명하는 요인간의 관계가 극명한 사례를 발굴
- 3) 해당 사례의 과정에서 목적하는 경제이론 외의 다른 지배적 요인 유무 검토
- 4) 개념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과관계를 최소화하
- 5) 최종적으로 해당 사례가 이론 이해 과정에서 주는 편익과 오개념 형성가능성을 비교하여 사용여부 결정

한편 시사 이슈를 경제이론 학습에 활용하여 교수하는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주제에 따라서 연역적 사고가 중요한 경우 3)이론구축 과정을 선행하고 사례 해석과정을 후행할 수도 있다.

- 1) 현실자료를 제시하고 해당사례에서 경제학적 개념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 제시
- 2) 현실자료의 개념화를 통해 이론 전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인 제거

- 3) 경제 이론 도출과정 혹은 학습자의 이해를 위한 설명의 선후관계 구축
- 4) 이론을 통한 현실자료 해석을 제공
- 5) 이론의 현실 설명능력을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 및 응용

[그림 3] 시사자료를 통한 이론학습 프로세스



시사 사례는 뉴스 및 신문의 특성상 거시경제 분야가 다수인 바, 수집 대상 주제를 경기 안정화 관련 사례에 집중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연구 과정에서 교안으로确定的한 사례는 아래와 같았다. 해당 자료는 ‘매경경제경영콘서트’에 사용된 교안 형태로 강의 슬라이드를 발췌한 것으로, 수강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병행된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통해 해당 수업방식이 경제 및 시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례들은 주차별 강의 도입부에서 개념 환기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이해도의 향상 및 강화를 위한 예제풀이 형태로도 응용되었다.

경기변동과 경제안정화정책

예제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풀었던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미·중 간 갈등에 따른 글로벌공급망 재편성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경기후퇴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제 관료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통화정책 최고 책임자)와 기획재정부 장관(재정정책 최고 책임자)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다음 중 중앙은행과 정부가 향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정책을 옳게 주론한 것은?



정부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 | 중앙은행 | 정부 |
|------------|---------|
| ① 기준금리 인하 | 법인세 인하 |
| ② 국공채 매입 | 이전지출 축소 |
| ③ 국공채 매각 | 이전지출 확대 |
| ④ 기준금리 인상 | 정부구매 축소 |
| ⑤ 지급준비율 인상 | 정부구매 확대 |

27

- 주제: 2023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 거시경제의 공급측면 부정적 충격 사례로 가격의 인상과 총산출의 감소요인임을 개념화하여 설명
- 경기안정화 정책 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응책을 응용해보는 사례를 예제화

경기변동과 경제안정화정책

참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국가부채=국가채무(D1)+일반정부부채(D2)+공공부문부채(D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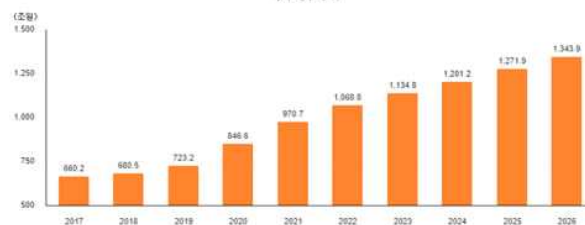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빌린 돈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한국전력, 농부·서부 발전), 한국도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Note

- ✓ 국가부채
- ✓ 조세부담률=조세수입/국내총생산
- ✓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국내총생산



28

- 주제: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 GDP의 100%를 초과한 언론보도 사례와 연관지어 학습자의 경각심 제고

경기변동과 경제안정화정책



- 주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기준금리의 역사적 추이
- 사회적으로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대출금리 상승 배경으로 시의성과 통화이론 현실적 용능력 제고

경기변동과 경제안정화정책



- 주제: 이자율과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
- 현재 연준의 의사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을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과정에 대해 학습

경기변동과 경제안정화정책

예제

아래 기사에 대한 옳은 해석은?

미국 연준(Fed)이 세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A)씩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결정하자 뉴욕증시가 1% 넘게 급락하고 미국 달러화 가치는 1% 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약 14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3.00~3.25%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됐음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크다”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 됐음에도 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은 당초 예상보다 연준이 훨씬 매파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시 저축은 임대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시장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달러화 강세로 인한 미국 대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2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6개 주요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전날에 비해 1.02% 상승하며 111.34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2002년 초 이후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 ① (A)에 들어갈 수치는 0.5%p이다.
- ②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중수주 측 요인에 의한 것이다.
- ③ 현재 환율은 미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④ 미국 연준(Fed)은 경기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안정을 기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⑤ 현재 연준(Fed)은 미국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주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파급효과
- 기사화된 텍스트에 담겨진 통화이론적 배경을 식별하는 예제 문항 형태로 구성
- 경제 이론뿐만 아니라 시사용어에 대한 학습으로 상경계 측면으로의 학습의욕 고취

화폐와 인플레이션

참고

✓ M2통화 주이

시점	자료	연년동기대비증감률 (단위: 십억원, %)
2015	2,182,911.9	8.6
2016	2,342,621.3	7.3
2017	2,471,225.6	5.5
2018	2,626,902.0	6.3
2019	2,826,943.7	7.0
2020	3,070,630.4	9.3
2021	3,430,442.1	11.7
2022.12	3,197,671.2	9.8
2021.1	3,223,486.7	10.1
2021.2	3,271,405.8	10.7
2021.3	3,313,182.2	11.0
2021.4	3,358,874.9	11.4
2021.5	3,379,753.9	11.0
2021.6	3,413,899.8	10.9
2021.7	3,445,243.0	11.4
2021.8	3,487,654.1	12.5
2021.9	3,515,680.6	12.8
2021.10	3,543,363.7	12.4
2021.11	3,594,723.2	12.9
2021.12	3,620,057.4	13.2

주: 1) 월간
자료: 한국은행



- 주제: 통화량과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
- 국가 통계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실제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모형에서 예측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 또 향후 방향성에 대한 예측과정 실습
- 실제 미디어 및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통계DB의 활용으로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고 상경계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



※ 참고문헌

연합뉴스, '3년만에 금리 올린 美연준, 6회 추가인상 시사...양적 긴축 예고(종합)', 2022.3.17.

YTN, '미 기준금리 0.75%p 인상...3연속 '자이언트 스텝'', 2022.9.22.

SBS, '“제로금리” 20개월 만에 끝났다...’기준금리 1%’로 인상’, 2021.11.2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통계청 지표누리, <https://index.go.kr/>

「문화콘텐츠 교육에서 뉴미디어 매체 활용 방안 연구」

최보경 교원, 백해린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보급으로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시공간 영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만큼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로지와 같은 가상인간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상용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매체가 활용되고 있으나 대학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데 조금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새로운 영역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2001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 함께 한국의 트렌드로 급부상했으며,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학이 시작되었다. 문학, 철학, 역사학 등 기본 인문학이 결합하고 실용성을 부여한 문화콘텐츠학은 현시대에 가장 트렌디하고 실용적인 학문이 되어야 하지만 문화콘텐츠 연구와 교육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 산업의 키워드는 융합, 실감형 기술, 가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교육 또한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다양한 매체의 활용 등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 모임에서는 가속화되는 디지털 사회에서 문화콘텐츠 교육에서 어떻게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수법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급부상한 메타버스를 교육 매체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존의 문화콘텐츠 교수법 사례에서 활용되었던 디지털 미디어 연구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과 함께 시작된 신생학문이었던 문화콘텐츠학 연구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어떻게 새로운 매체인 메타버스에서 교육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교수법을 개발해보고자 한다.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대주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교안 개발

목적:

현실의 공간을 가상으로 확장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확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2021년 1220억 달러에서 2025년 2448억~39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산업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0개 대학이 캠퍼스와 가상세계를 결합한 메타버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려대, 건국대, 순천향대 등 대학에서 메타버스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2021년 메타버스 공간에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순천향대학교는 SKT의 '점프 VR앱'을 이용해 아바타가 참여한 입학식을 메타버스에서 진행했다. 그리고 메타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발걸음도 분주하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KT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AI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 체결을 진행했고, 서강대학교는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국내 대학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2년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비영리 무크 프로그램인 '이디엑스'를 설립하여 메타버스용 고급 강의콘텐츠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그리고 시카고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개더에 메타버스 공간을 마련하여 교수와 학생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준비과정을 거친 해외 대학의 움직임을 공부하여 지금까지의 이벤트성 메타버스 활용에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교수법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습도구로서 메타버스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교수 장소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타버스라는 교수자와 학생이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하는 원격현장감이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은 교수법 연구의 새로운 학습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 각 대학의 학문적 연구 특성에 맞추어 교수법 제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기술을 견제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문화콘텐츠학에서 어떻게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바라 볼 수 있을지 교수법의 입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재현된 사회, 문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를 뜻한다. 초기에는 컴퓨터를 활용해 제작된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일상생활과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한 활동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즉 메타버스는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 안에서 현실세계와 같이 다양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이후 대학에서 교육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용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은 단순 화상회의 형태의 수업을 넘어 실감형 미디어가 적용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이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 가장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즉 메타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시도이다. 메타버스는 이미 교수법의 일부가 되어버린 비대면 수업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에 대한 흥미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화상회의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은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자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있다. 여기서 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동시성과 현장성을 구현하며 발표자에 호응하여 박수를 치거나 상대 아바타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등 상호작용을 이루어낼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의 움직임을 통해 소통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냄으로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높일 수 있다.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게더타운을 활용한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게더타운은 제페토나 아이프랜드 등과 같은 화려한 그래픽을 구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방법이 어렵지 않아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게더타운은 2D 아바타를 활용하고 위에서 전체 공간을 바라보는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구역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눈의 피로도도 낮춰줄 수 있다. 그리고 연결된 공간에서의 이동도 용이하여 팀별 수업에서 본 수업으로 연결하며 수업을 진행하기에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기획 수업에 대해 교안을 제안했다. 현재 운용되는 수업들은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식을 감안하여 계획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로 확장하여 보편적 교수법으로 메타버스 활용을 제안한다.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2007년 미국 미래가속화연구재단(ASP: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은 ‘메타버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간과 정보의 형태에 따라 메타버스의 유형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 가상세계(Virtual World)로 구분하였다.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3D로 표현된 가상의 이미지를 더해 실재감을 높이는 기술로 2016년 나이언틱(Niantic)이 개발한 모바일 기반의 게임 ‘포켓몬 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포켓몬 고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증강현실을 결합해 실제 장소를 돌아다니며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포켓몬을 잡는 게임으로 ‘포켓몬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이케아는 가상의 공간에 가구를 배치해 본 후 구입할 수 있는 앱인 이케아 플레이스, 가상의 공간에서 다중모니터를 설치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페이스 북의 인피니트 오피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라이프로깅은 일상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로 사물이나 현상을 기록하는 ‘사물 라이프로그’와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인간 라이프로그’로 구분된다. 라이프로그는 현실세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가상현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상현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상의 것을 다루는 것과 달리 현실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자신의 일상을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 디지털로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SNS가 보편화되었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라이프로그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거울세계는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확장시킨 디지털 세계로, 증강현실이나 가상세계에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다루는 것과 달리 실제 지역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거울세계는 사실성, 재현성, 정보성이 두드러진다. 허구성이 강조되는 가상세계와 달리 실재 존재하는 지역 기반 공간 및 정보만을 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성사진을 통해 3D 지도를 구현한 구글어스(Google Earth)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를 구현한 디지털 공간으로 메타버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상세계는 내재적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생성된 현실과 유사하지만 다른 시·공간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해 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일상과 비슷한 활동을 한다. 아이콘과 아바타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 공유, 판매할 수 있는 로블록스, 네이버가 증강 현실과 가상공간을 결합해 만든 제페토, SK텔레콤이 아바타와 가상공간을 결합해 출시한 이프랜드, 리니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타

버스와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속 가능한 콘텐츠와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의미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메타버스의 특성을 3차원 가상 공유 공간, 아바타의 사용과 이를 통한 정체성의 연속성과 동기화, 상호작용과 상호 운용성을 통한 몰입감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 공유 공간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메타버스는 사용자를 가상세계에 몰입시키는 가상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상현실은 실제 세계를 재현한 거울세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회적 공간적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현된다. 사용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경제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현실세계와 메타버스의 데이터 및 정보가 서로 연동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이 가능한 동시성을 지니고 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가상의 공간은 현실 세계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재현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실재감을 느낄 수 있고 참여자들 간 동시성, 상호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실현한다. 아바타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고 현실의 자아를 대리하는 가상의 자아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아바타를 통해 문자나 음성을 이용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제스처나 표정 또는 이모지(emoji)를 활용한 감정표현과 같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한다. 이렇듯 화상회의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과 달리 메타버스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공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매체이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은 사회적 지속성을 갖는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현실세계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으로 일회성 소통 수단이 아닌 사회적 의미를 함의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서 사용자의 일상으로 들어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메타버스는 초기 오락이나 친목활동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정부나 지체의 행정서비스, 기업의 업무 공간, 광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VR 판교랜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20주년 기념식 등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행사, 쇼핑, 공연 등 메타버스 안에서 일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면서 메타버스 시장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스마트 폰이

우리의 빠르게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든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메타버스 또한 일상이 될 것이다.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의 규범과 활동 방식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23일 Technology, Mind and Behavior 저널에 게재된 제레미 바일렌슨(Jeremy Bailenson)의 글은 장시간 영상채팅으로 인한 줌 피로 증후군의 원인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그는 첫 번째로 강렬하고 과도한 양의 근접거리 눈 접촉의 문제를 지적한다. 실제로 줌을 통한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교수자 또는 발표자를 지켜보게 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눈과의 과도한 접촉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느끼는 감정을 그는 무대 공포증의 현상에 비견하여 말한다. 두 번째는 영상채팅을 하고 있는 나를 지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과 교수자는 수업 중 화면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세 번째로 화상 채팅은 우리의 일상적인 이동성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대부분의 화상회의는 고정된 카메라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높아진다. 화상회의 중 카메라를 잠시 끄고 몸을 움직여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생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그는 대면회의보다 화상회의에서 인지 부하가 훨씬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제스처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된다. 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회의에서는 텍스트를 활용한 의사소통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위해 표현방식에 유의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화상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은 스튜디오에서 녹화되는 강의수업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참여와 소통이라는 대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수업의 모습은 비대면 수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모습이 되었다.

메타버스는 이미 교수법의 일부가 되어버린 비대면 수업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에 대한 흥미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이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교수법에서도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면서 대학에서의 교육 형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수업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 확장, 동아리 활동, 축제 같은 대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학교생활을 체험 할 수 있는 가상의 캠퍼스를 온라인에 구축하기도 한다. 서강대, 순천향대 등은 학교의 건물을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옮기는 디지털 트윈의 형태로 메타버스에 캠퍼스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건물의 외형을 그대로 복제하는 시도를 통해 학생들은 가상의 공간에서나마 학우들 간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캠퍼스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영남대 학생들이 모여 만든 YUMC(영남대 마인크래프트 동아리)는 온라인 가상 캠퍼스를 구축하고 입학식, 생일파티, 인문학 강연, 박물관 견학 등의 행사를 열었다. 이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 첫 메타버스 활용 사례로 그 의미가 있다.

문화콘텐츠 수업에서 디지털 매체의 활용과 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노력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최연구는 콘텐츠에 대해 단순한 내용물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전제로 하거나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내용물’이라고 갈파하면서, 기술의 산물로서의 미디어와 콘텐츠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전하고 있다. 미디어는 콘텐츠를 표현하고 실현하는 최종적인 창구로 맥루언은 미디어의 차이가 메시지 수용의 차이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인간 감각 활용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다양한 매체와 그에 대한 활용을 공부하는 문화콘텐츠 교육에서 메타버스라는 미디어의 활용은 효과적이다. 여러 장르의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고 새롭게 활용하면서 토론으로 연결하여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수업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교수법을 토대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교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문화콘텐츠학은 인문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결합된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교육은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본 연구자는 Wallas의 창의적 사고기법과 수렴적 사고를 위한 P.I.M 기법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교수법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를 통해 개발한 교수법을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교과 과정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디지털스토리텔링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 수업에서는 매체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과 디지털 미디어로의 발전에 대한 매체중심의 연구 지식을 전달하고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관찰할 수 있는 관점을 기르는 수행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텍스트를 읽고 쓰는 리터러시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활동에 필수 역량이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머지않은 미래에는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의실에서 온라인 메타버스로 확장하여 공유와 소통의 의미를 더욱 높이는 의미가 있다.

수업의 시작에는 과목 소개와 함께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

하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을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기 보다는 디지털 미디어스토리텔링 기획 수업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주차별로 공부하게 될 내용을 전달하고 공유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수업의 목표는 문화콘텐츠에서 장르로 구분되는 다양한 형태가 미디어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서 스토리텔링이 전개되는 현황을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업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 자료를 사용할 것이며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학생자 모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주차별 학습 내용		
도입 교수자 중심의 수업	1주차	메타버스와 디지털스토리텔링의 활용 : 게더타운 - 디지털스토리텔링의 수업 목표와 방법 소개 - 메타버스의 개념 및 활용법 - 아바타를 통한 자기소개
	2주차	디지털시대와 매체 변화 - 디지털과 아날로그 비교 - 산업 분야별 변화 양상 및 사례 : 영상 큐레이션 존
	3주차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 스토리텔링의 개념 - 선형적 스토리텔링과 비선형적 스토리텔링의 특성 : 소모임 공간
전개 아이디어 발상	4주차	장르별 스토리텔링 사례 및 장르별 팀 구성 - 선형적 스토리텔링(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사례 : 영상 큐레이션 존 - 비선형적 스토리텔링 사례(전시, 테마파크 등) : 소모임 공간
	5주차	장르별 콘텐츠에 대한 이해 - 장르별 특성 및 산업현황 - 산업 특성에 대한 토론 : 소모임 공간
	6주차	시장 조사 및 요구분석 - 장르별 산업 성공 사례 - 시장 동향에 대한 토론 : 소모임 공간
	7주차	팀별 활동 : 주제 선정 - 팀별 관심 주제 선정 : 소모임 공간 - 주제와 관련된 자료 조사 및 정리
	8주차	팀별 활동 : 아이디어 발상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선정 : 소모임 공간 및 패들릿 게시
	9주차	팀별 활동 : 컨셉 도출 - 기획 의도, 목적 설정하기 : 소모임 공간
	10주차	팀별 활동 : P.M.L 기법 - 팀별 스토리 구성하기 : 소모임 공간

정리 기획활동	11주차	팀별 활동 : 팀별 프로젝트 기획하기 - 컨셉 도출 및 기획안 방향 설정 : 소모임 공간
	12주차	발표 및 피드백 - 기획 방향 발표 및 토론
	13주차	팀별 활동 : 기획안 작성하기 - 세부 기획안 작성하기 : 소모임 공간
	14주차	발표 및 피드백 - 세부 기획안 발표 및 피드백
	15주차	최종 기획안 발표 - 팀별 프레젠테이션 및 교수자의 피드백

<표 1>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수업 교안

게더타운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학생들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미리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메타버스 교실에 입장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가 되어야 한다. 교수자는 수업에 앞서 게더타운 템플릿 중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수업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Classroom을 선택하여 전체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고, 거기에 연결된 각 6~8명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 2~3개를 만들어 토론 수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영상 큐레이션 존을 만들어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이 미리 공부하면 좋을 내용의 영상을 선별해 콘텐츠 큐레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클래스룸과 연결되는 공간들을 만들고 나면 각 공간에는 연결할 통로를 표시하여 문 오브젝트를 삽입하고 각 교실의 위치와 활용 방식을 간략하게 안내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학생들이 공간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작은 공간은 게더타운의 템플릿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 활용도에 맞게 Blank room을 각각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배경을 완성하면 효과타일을 설정해야 한다. 학습자의 아바타가 가면 안되는 곳은 Impossible 타일로 지정하고, 토론자가 참가자 전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곳을 Spotlight로 지정하여 발표나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맵이 완성되면 그 구성을 교수자나 관리자만이 수정할 수 있도록 지정해야 수업 중 변수를 줄일 수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은 수업 전체를 메타버스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 실제 수업 내용의 일부를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으로 대체하면서 서서히 확장해야 한다. 현재 운용되는 수업의 방식들은 이미 온오프라인이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형식을 감안하여 계획되고 있다. 이 중 우선 오프라인에서 수행되는 교육을 메타버스로 전환하여 수행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수업 방식이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우리는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포용이라는 문제를 고

려하여 속도를 조절하면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보편적 교수법으로서 메타버스 교육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는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자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메타버스에서 수업을 운용하면서 다양한 소통 방법이나 툴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인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교수자가 수업을 디자인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PC 사양이나 네트워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중 불안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이외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으로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이미 교수자와 학생들 모두에게 익숙해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별 활동이나 결과물 전시 같은 공유 활동을 메타버스에서 진행하는 방식 등 단계적으로 메타버스로 수업으로 전환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가 필요하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확장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XR(Extended Reality)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XR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이유에 대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슈리포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XR 기술을 활용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 기존 온라인 소통방식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XR 기술은 시각, 오디오, 신체 제스처, 얼굴 신호 등 다양한 정보를 의사소통에 활용하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사용자의 주의집중시간을 향상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화상회의를 활용한 수업에 비해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인간인 아바타를 꾸미고 이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수업 안에서 실제 강의실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을 들거나 행동을 취하게 함으로서 아바타의 움직임은 교수자가 학생의 수업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로 XR 기술을 통해 실제 대면 수준의 경험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가상 환경과 증강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사용자 모두는 관찰자가 아니라 실제 참여자로 행동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나를 대신하는 가상인간, 교수자와 학생 모두는 아바타의 모습으로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있지만 실제 강의실에서처럼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게더타운의 이미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이동하고 토론에 참여하거나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단순히 읽고 듣는 일방향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화상회의에 비해 더 현실감 있는 참여로 연결된다.

세 번째는 XR 기술로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에 직접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코로나 블루로 인해 제어된 활동에서 오는 피로감과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동이 제한적인 코로나 19 상황 안에서 메타버스의 공간들을 이동하면서 갑갑한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염병으로 이동의 제한이 있었던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의 방 또는 집 안에서 모든 일상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환경의 제약 조건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빠르게 전환시키며 메타버스나 게임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개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게 했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팽배했던 우울감과 갑갑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메타버스는 모두에게 익숙해진 비대면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험이나 체험을 조금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차별 없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는 비전은 메타버스라는 매체를 대학수업에 접목시켜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었던 실험이나 실습은 XR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환경 안에서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사회의 메타버스는 모두를 연결하여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시공간적 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 이에 과학적 창의력과 결합하여 문화콘텐츠를 보다 보편적이고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함께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공간인 메타버스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존 카우치 · 제이슨 타운,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어크로스, 2020.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2. 학술논문

공하림, 김윤희, 「한국어교육 전공 학습자의 메타버스 활용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요구 분석 연구」, 『인문사회21』 5권 13호, 인문사회 21, 2022.

김승례, 이윤환, 「메타버스 기반의 인문학 콘텐츠 활용과 법적 보호방안」, 『법학연구』 21권 4호, 한국법학회, 2021.

도재우 외, 「온라인 교사의 메타버스 기반 원격수업 운영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1권 39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22.

류성한 외, 「메타버스 개념 및 현황에 대한 논의와 향후 연구 방향 제안」, 『지식경영연구』, 한국지식경영학회, 2022.

박상준, 「미래 사회에서 메타버스 교육의 방향」, 『미래융합교육』 2권 2호,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1.

백해린, 최보경, 「플립러닝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학습모형 개발 연구」, 『인문콘텐츠』 64호, 인문콘텐츠학회, 2022.

성명조, 이명석, 「메타버스, 우리의 일상을 바꾸다」, 『이슈&진단』 503권, 경기연구원, 2022.

송지혜, 차진명, 「몰입 · 창의성 공간 메타버스에서의 문학콘텐츠: ‘제페토 드라마’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6호, 인문콘텐츠학회, 2022.

이승환, 한상열, 「비대면 시대의 게임 체인저 XR」, 『ISSUE REPORT』, IS-095, SPRI, 2020.

임태형 외, 「메타버스 학습환경에 사회적 상호작용 여부와 수업유형이 실재감과 흥미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학연구』 1권 28호, 안암교육학회, 2022.

정석환, 「바람직한 교육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메타버스의 지향점」, 『동아인문학』 60호, 동아인문학학회, 2022.

정석환, 「바람직한 교육적 패러다임으로서 메타버스의 지향점」, 『동아인문학』 60호, 동아인문학학회, 2022.

정지은 외,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문화산업연구』 22권 1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22.

김승례, 이윤환, 「메타버스 기반의 인문학 콘텐츠 활용과 법적 보호방안」, 『법학연구』 21권 4호, 한국법학회, 2021.

한송이, 노양진,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한 대학 교수자 인식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1권 22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1.

한혜원,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의 유형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권 9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08.

3. 인터넷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www.stepi.re.kr, 최종검색일 2022년 10월 21일.

김윤경, 「‘누가 진짜 사람인지’ · · · TV · 영상 중횡무진하는 가상인간들」, 『UPI뉴스』, 2022년 9월 26일(검색일자 : 2022년 10월 28일)

오경묵, 「영남대 ‘메타버스 가상캠퍼스’ 떴다」, 『한국경제』, 2021년 8월 4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0390791>, (검색일자: 2022년 11월 13일)

오동현, 「[창사기획-리얼 메타버스①] 미래 플랫폼 패권 경쟁 시작...‘게임’ 넘어 현실로」, 『NEWSIS』, 2022년 11월 9일(검색일자 : 2022년 11월 11일)

_____, 「[창사기획-리얼 메타버스①] 미래 플랫폼 패권 경쟁 시작...‘게임’ 넘어 현실로」, 『NEWSIS』, 2022년 11월 9일(검색일자 : 2022년 11월 11일)

오연주, 「디지털 휴먼 ‘루시’가 보여주는 콘텐츠의 힘...새 부가가치 창출...커머스 돌파구는 콘텐츠 [2023 컨슈머포럼]」, 『헤럴드경제』, 2022년 10월 26일(검색일자 : 2022년 10월 28일)

장혜승, 「‘공유, 협력’ 위해 탄생한 우주 ... 전문대학 63개 뭉친 메타버시티 (Metaversity) 주목」, 『한국대학신문』, 2022년 10월 23일 (검색일자: 2022년 11월 13일)

Stanford researchers identify four causes for Zoom fatigue’ and their simple fixes, news.stanford.edu/2021/02/23/four-causes-zoom-fatigue-solutions, (검색일자: 2022년 11월 13일)

「교양한국어 수강 유학생을 위한 통합교재 개발」

허은혜 교원, 정은주 교원

1. 모임의 구성 배경

- 1)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 활용할 만한 교재가 부족함.
- 2) 학부생들의 언어 수준에 적합하고 그들이 한국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2. 모임의 연구 주제 및 목적

- 1) 대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
- 2) 목적: 교양한국어를 수강 중인 학생이 과목당 40명에 가깝고 같은 수업이 최대 4강 좌가 열릴 정도로 학부 재학 중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어 수준과 학부 과정이라는 학습 환경에 적합한 교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학부 과정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한국어 중급 이상의 실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학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본 연구 모임에서는 한국어 3급 수준의 학습자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상황들을 1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교재로 구현하고자 한다.

3. 연구 진행 내용

- 1) 연구 모임 1: 연구 목적 확인 및 연구 진행 과정 논의
 - 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할 교재가 많지 않음.
 - 나. 현재 출판되어 있는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난이도가 높아 교양 한국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음.
 - 다. 교양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재 개발이 필요함.

요함.

라. 교재 개발을 위해 기존 교재 분석이 필요함. 학부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이므로 대학 기관에서 개발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주제 및 구성을 분석함.

연세대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듣기/쓰기/읽기 중급 1/2 대학 생활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듣기/쓰기/읽기 중급 1/2
서울대	서울대 한국어 plus 학문 목적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고려대	외국인을 위한 대학 한국어 1~2(비판적 읽기와 학문적 쓰기)
성균관대	사고력을 키우는 학문 목적의 읽기 사고력을 키우는 읽기의 기술 강의 듣기의 기술 1~2 글쓰기의 절차와 과정 한국어 문장 바로 쓰기

마. 교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1차 주제 목록 선정

① 15주 수업에 적합한 목차

-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제외한 13주 동안 수업이 이루어짐.
-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00분가량 진행할 수 있는 분량으로 단원을 구성함.
- 최종 목차

- 1과 수강 신청
- 2과 동아리 활동
- 3과 행사 참가하기
- 4과 발표하기 1
- 5과 발표하기 2
- 6과 질문하기
- 7과 시험 답안 작성하기
- 8과 도서관 이용하기
- 9과 보고서 쓰기1
- 10과 교수님께 E-mail 쓰기
- 11과 보고서 쓰기 2
- 12과 기숙사 관련 문의하기
- 13과 증명서 발급하기

2) 연구 모임 2: 단원 구성

가. 본문 대화 → 어휘와 표현 → 어휘 연습 → 문법 → 문법 연습 → 듣기 또는 읽기 → 말하기 또는 쓰기

나. 학생들이 언어의 네 가지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으로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함.

다. 최종 단위 구성표: 총13과

	제목	어휘와 표현	문법	이해하기	표현하기
1과	첫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	수강 신청 관련 어휘	(이)라고 하다 -다가	읽기	말하기
2과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동아리 관련 어휘	에 대해서 -나오/-(으)니까요 -다고 하다 -았/었으면 좋겠다	듣기	말하기
3과	다음 달에 휴제가 있다고 해요.	행사 관련 어휘	-도록 -(으)르지	읽기	말하기
4과	모두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세요.	발표 준비 관련 어휘	-(으)르 테니까 -아/어야겠다	읽기	쓰기
5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발표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기는 하다 -더라고요	듣기	말하기
6과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질문과 대답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	-는 대로 -는 게 어때요?	듣기	말하기
7과	시험공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 관련 어휘	-(으)르 게 아니라 -았/었더라면	듣기	말하기
8과	시간이 남으면 커피숍에 갈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 봐.	도서관 이용 관련 어휘	-(으)르 만하다 -(으)려면	읽기	쓰기
9과	인터넷 자료를 볼 때는 믿을 만한 것인지 잘 확인해 봐야 해요.	보고서 구성 관련 어휘	-잖아요 -는 김에	읽기	쓰기
10과	교수님한테 이메일 쓰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되네.	이메일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	-는다면 에 의하면/따르면	읽기	쓰기
11과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현	-는 데다가 -는 바람에	듣기	말하기
12과	인터넷 속도가 느린 데다가 접속도 자주 끊겨요.	기숙사 불편 사항 관련 표현	든지 -던데	읽기	말하기
13과	저쪽에 있는 증명서 발급기에서 받으면 돼요.	증명서 관련 어휘			

라. 본문 구성

- ① 학생들이 실제 대학 생활에서 접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 ② 학습 문법과 어휘가 포함된 1~2분 정도의 대화문
- ③ 격식체와 비격식체, 존대와 반말 표현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

마. 어휘와 문법: 3-4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합한 문법과 어휘 선정.

- ① 기존 한국어 교재의 문법과 어휘 참고
- ②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어휘 문법 등급 목록 참고
- ③ 예문 작성 시 받침, 양성/음성모음, 동사/형용사 등 고려
- ④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아/어/여’의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제시
예) ‘-았/었/였으면 좋겠다’으로 제시함.

바. 듣기 또는 읽기

- ①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읽거나 듣게 될 텍스트로 구성함.
예) 강의계획서 읽기, 장학금 관련 공지문 읽기 등
- ② 본문보다 난이도를 조금 높임(어휘, 문장 길이 등).

- ③ 듣기: 2~3분 정도로 구성함(구어체 대화로 구성할 경우 구어적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할 것).
- ④ 읽기: A4 1/3에서 2/3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함.

사. 말하기 또는 쓰기

- ① 대화문 및 읽기/듣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함.
- ② 실제 대학 생활과 밀접한 말하기와 쓰기 활동으로 구성함.
예) 교수님께 이메일 쓰기, 보고서 작성하기 등
- ③ 활동 구성 시 실제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④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보기] 넣어 두기.

아. 기타

- ① 외국인 호칭 통일: 존댓말일 경우 OO 씨, 반말일 경우에는 호격조사 없이 이름만

3) 연구 모임 3-5차

가. 구체적 단원 구성 : 각각의 연구자가 개발한 단원을 수정 보완함.

- 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법 사용 여부 확인.
- ②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문장의 길이를 조절함.
- ③ 연습 문제의 경우 실제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하고 답이 명확하게 도출되는지 살펴봄.

나. 추가 자료

- ① 답 작성: 내용 이해 질문, 어휘 문제, 문법 문제, 읽기와 듣기 질문
- ② 듣기 대본 따로 구성하기
- ③ 교재 구성표 및 단원 구성 안내 작성하기
- ④ 어휘 색인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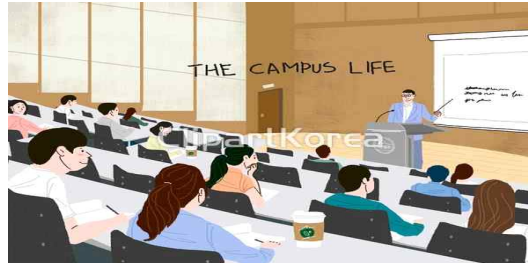
4. 연구 결과 및 활용방안

1) 연구 결과

가. 학부생들의 학습 환경과 언어 수준에 적합한 교양 한국어 교재를 개발함.

나. 개발된 교재의 단원 예시

1과 첫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



[도입]

1. 여러분은 수강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 그럴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대화]

로건(후배)과 수영(선배)이 수강 신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로건: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로건이라고 해요. 이번에 경영학부에 입학한 신입생이에요.

수영: 로건 씨, 만나서 반가워요.

로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수영: 네, 괜찮아요. 뭐가 궁금해요?

로건: 다음 주에 수강 신청을 해야 해요. 첫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

수영: 혹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 봤어요?

로건: 강의 계획서요?

수영: 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를 봐야 해요. 강의 계획서에 수업 목표와 수업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재하고 평가 방법도 알 수 있어요.

로건: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강의 계획서를 찾아볼게요.

수영: 강의 계획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인기가 많은 과목은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로건: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내용 확인 문제]

1. 두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 강의 계획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3. 강의 계획서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휘]

학교에 누가 있나요?
교수님, 선배, 후배, 동기, 신입생

수강 신청할 때 알아야 하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교양 과목, 전공 과목, 강의 계획서 학점, 출석, 과제, 수강 신청, 수강 신청 변경, 수강 취소

- ◆ 이 교수님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 ◆ 나보다 학년이 높은 사람을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 ◆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동기를 처음 만나요.
- ◆ 필수 과목은 졸업을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을 말해요.
- ◆ 1학년 때는 전공 수업보다 교양 수업을 더 많이 들어요.
- ◆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를 봐야 해요.
- ◆ 수업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라고 해요.

[어휘 연습]

- | | |
|----------------------------------|------------|
| 1. 이 기간에 수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 • 동기 |
| 2. 졸업을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 • 필수 과목 |
| 3.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 • 전공 수업 |
| 4. 수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입니다. | • 강의 계획서 |
| 5. 대학생들이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돕습니다. | • 수업 변경 기간 |

[문법]

1. **명** + (이)라고 하다

의미: 자기를 소개하거나 어떤 것의 명칭을 소개할 때 사용된다.

반침 O	-이라고 하다	로건이라고 해요
반침 X	-라고 하다	제니라고 해요

-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영학부에 입학한 로건이라고 합니다.
- ◆ 학생들에게 수업의 계획을 알려 주는 자료를 강의 계획서라고 해요.
- ◆ '감사합니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2. **동** + -다가

의미: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동이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나타낸다.

- ◆ 학교에 오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 ◆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한국어교육으로 바꿨어요.
- ◆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요.

[문법 연습]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가 저는 이번에 경영학부에 입학한 _____.

나 수영 씨, 만나서 반가워요.

2. 가 강의 계획서에 필수 과목이라고 쓰여 있는데 필수 과목이 뭐예요?

나 졸업하기 전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을 _____.

3. 가 수영 씨,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나 아, 이건 한국의 전통 악기예요. _____.



가야금

4. 가 과제를 다 했어요?

나 아니요, 다 못했어요. _____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5. 가 에릭 씨, _____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6. 가 어제 학교에 _____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나 정말 반가웠겠어요.

[읽기] 강의 계획서를 보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교과목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의시간 (강의실)	화 5 6/ Tue 5 6 (6405)	학점(시간)	2/2		
담당 교수	강혜미	Tel/ E-mail	010-1234-5678		
수업목표	본 강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또는 그와 비슷한 한국어 실력을 갖춘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듣기와 읽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수강생들은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교재	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수업유형 및 수업방법	교수의 강의 수강생의 발표 및 과제				
평가방법 (합계: 100점)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	출석	기타
	30%	30%	20%	10%	10%
* 4번 이상 결석하면 F입니다.(지각 3번 = 결석 1번) * 과제는 제출 기한 안에만 받으며 기한이 지나면 0점입니다.					
주차	내용			비고	
1주차	OT/ 수강 신청				
2주차	동아리 활동				
3주차	발표하기				
8주차	중간시험				
9주차	보고서 쓰기 1				
10주차	보고서 쓰기 2				
15주차	기말시험				
과제	과제명	복습 과제			
	제출 날짜	매주 일요일까지			
	과제 목적	매주 배운 어휘와 문법 확인			

- 이 수업은 언제 합니까?
- 이 수업은 일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 이 수업은 몇 주 동안 합니까?
- 이 수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
 - 한국어 실력이 토픽 3급 수준인 외국인을 위한 수업이다.
 - 과제를 조금 늦게 제출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중간시험이 끝난 후 바로 보고서 쓰기 방법을 배운다.
 - 이 수업을 들으면 매주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새 어휘>
 실력을 갖추다
 향상시키다
 ~을/를 목표로 하다
 특히
 초점을 맞추다
 적용하다
 제출하다
 기한



[말하기] 자기소개서를 쓰고 친구에게 자기소개를 해 보십시오.

- ◆ 기본 정보(이름/ 국적/ 전공 등):
- ◆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 ◆ 앞으로의 계획:

<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로건이라고 합니다. 올해 한국어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한국인 친구를 처음 만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에 돌아가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2) 활용 방안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를 출판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음.

5. 교수법 연구모임의 효과 및 제언

1) 연구모임의 효과

동일한 한국어 수준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언어교육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는 학습 목표 및 학습 환경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재는 한국어 수준이 중급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학부 과정에 진학한 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부 저학년 과정을 마치고 전공 과정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제언

학부 1-2학년에 재학 중이며 중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이 대학 수업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학 생활 중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안내가 될 만한 교재가 더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통합 교재 개발에 목표를 두었지만 영역별 교재, 혹은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연계한 더 많은 교재 개발도 필요함.

※ 참고문헌

- 유해준(201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사고와표현 8-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73-106.
- 이준호(2011),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읽은 후 쓰기 과제" 연구, 한국어교육 22-4.
- 이지용(2012), 학문 목적 한국어 토론 교육 방안 : 논증 범주를 중심으로, 한국어정보학 14-2.
- 박석준(2008), 국내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현황 분석 - 입학 후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19-3
- 박석준 · 김용현(2012), 통계자료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